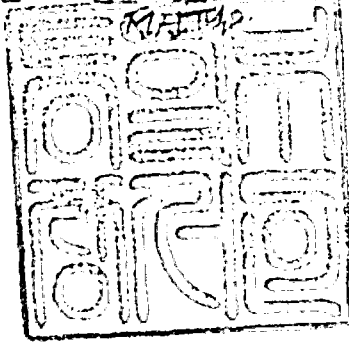


권오기 통일부총리 연설문집

1995년 12월 21일 ~ 1998년 2월 25일



통 일 원

머 리 말

이 책자는 권오기 통일부총리가 1995년 12월 21일부터 1998년 2월 25일
까지의 재임기간중 행한 각종 공식 연설과 강연, 국내외 언론회견 등의 내용
을 수록한 것입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가 재임한 지난 2년여의 기간은 남북관계가 외면적으로
는 계속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실질적인 변화
가 진행된 의미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반세기를 지배해 온 최고권력자의 사망으로 새로운 체제
가 들어선 가운데 경제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이로써
남북관계의 균형은 근원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녘의 동포들이 겪고있는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
해 수차례 대규모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남북분단사에 하나의 획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
수로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여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의 신포지역에
서는 남북의 동포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 또한 성과를 거두어 한미양국이 공동
으로 제안한 4자회담의 성사를 통해 공고한 평화를 향한 긴 과정이 본격 시
작되었습니다.

비록 남북 당국간에 직접대화는 재개되지 못했지만 4자회담과 적십자회담
을 비롯하여 국제적 틀 위에서도나 준당국간 차원에서의 남북대화는 꾸준히 이

어저 왔습니다.

지난 2년은 남북간 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분명히 진일보가 이루어진 기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의 남북관계는 불과 몇 년전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크게 경색되어 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통일정책 추진의 세계화', '대북인식의 복안화', '통일대비의 각론화'를 표명하고 이를 통일원 업무의 근간으로 삼아 그동안 부단히 추구해왔습니다.

이 기간중 통일원의 업무는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사업과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제협력업무까지 확대되었고, 통일추진과 통일대비의 업무영역 또한 더욱 구체화되면서 전문성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또한 변화의 시기에 국민들과의 폭넓은 접촉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반을 확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러시아·일본·독일·이스라엘 등의 방문을 통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이러한 권오기 통일부총리의 철학과 발자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통일원 전체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자가 관계 전문가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 나아가 우리의 후세들에게도 통일문제에 관한 정부기록으로 보존되고 활용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1998년 2월 25일

통 일 원



차 례

1995년

세계화·복안화·각론화	9
— 취임사 (1995. 12. 21)	
21세기를 준비하는 통일	13
— 95년도 송년사 (1995. 12. 30)	

1996년

상상력을 총동원	20
— 96년도 신년사 (1996. 1. 3)	
다양한 통일논의 적극 수렴	24
— 이북5도청 방문 인사말 (1996. 1. 6)	
건강한 통일	26
— SBS-TV 인터뷰 (1996. 1. 22)	
민간교류 위한 당국간 대화	33
— KBS-TV·MBC-TV·YTN 합동인터뷰 (1996. 1. 23)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의 길	38
— 서울대 동창회보 인터뷰 (1996. 2. 1)	

공존과 화합을 위한 접근 41
— 미국 Los Angeles Times 인터뷰 (1996. 3. 27)

차분한 자세의 대북정책 44
— 성우희 강연 (1996. 3. 28)

화해와 협력의 길에 합류 56
— 서재필·독립신문 특별전 기념강연회 개최사 (1996. 4. 4)

대북인식의 재정립 60
— 방산학회 강연 (1996. 4. 8)

북한에 4자회담 호응 촉구 71
—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15주년 기념식 치사 (1996. 5. 14)

동북아 안보협력 위한 4자회담 75
— 민족통일연구원주최 제5회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1996. 5. 17)

세계와 함께 하는 통일 82
— 「민주평통」 제7차 서울지역회의 보고 (1996. 6. 12)

긴 눈으로 보아야 할 대북식량지원 88
— MBC-TV 「시사포커스」 인터뷰 (1996. 6. 13)

Recent development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94
— 제3차 국제차세대지도자 포럼 특별연설 (1996. 6. 17)

논리와 비논리의 남북관계 99
— 서울대 행정대학원 강연 (1996. 7. 10)

국회의 선도적 역할 117
— 국회 안보통일정책연구회 창립총회 축사 (1996. 7. 24)

통일준비의 각론화	120
— 국회 통일외교정책포럼 창립세미나 축사 (1996. 7. 26)	
북한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	125
— 프랑스 Le Monde 인터뷰 (1996. 8. 22)	
아·태시대에 기여하는 통일	129
— 부산일보주최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격려사 (1996. 9. 3)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통일의 첫 걸음	134
— 제15회 이산가족의 날 격려사 (1996. 9. 20)	
통일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평화정착	137
—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 (1996. 9. 30)	
북한을 위한 당국간 대화	140
— 한국경제인동우회 세미나 강연 (1996. 10. 9)	
북한의 안정은 평화와 협력으로 가능	152
— 서울신문주최 국제포럼 기조연설 (1996. 10. 18)	
남북관계 개선에 경제 역할 긴요	157
— 통일경제연구협회 정책세미나 축사 (1996. 10. 24)	
평화없는 통일은 무의미	161
— 나라미래 준비모임 강연 (1996. 10. 29)	
판문점이 '화해의 광장'으로 변진 기대	167
— 판문점 「자유의 집」 신축기공식 치사 (1996. 11. 13)	
역사의 편에 선 4자회담	170
—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조찬대화 (1996. 11. 15)	

남북간 신뢰회복과 방송의 과제	176
— MBC 창사기념 국제포럼 기조연설 (1996. 11. 27)	
통일원은 가슴으로 일하는 부서	182
—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봉두완입니다」 인터뷰 (1996. 12. 6)	
Armistice Agreement must be maintained	188
— 「군정위」·「중감위」관계자초청 만찬연설 (1996. 12. 6)	
통일비용보다 큰 분단비용	191
— 한·독 고위정책협의회 만찬연설 (독일, 1996. 12. 12)	
통일의 전제는 평화	198
— 조선일보 인터뷰 (1996. 12. 23)	
의미있는 통일준비	203
— 96년도 송년사 (1996. 12. 31)	

1997년

남북관계의 반응보다는 주도	206
— 97년도 신년사 (1997. 1. 3)	
평화는 안보가 확고할 때 가능	209
— 서울신문 인터뷰 (1997. 1. 29)	
힘이 뒷받침되는 대화	213
— KBS-TV 「정책진단」 인터뷰 (1997. 2. 2)	
한반도 안정은 동북아 평화의 관건	220
— 「한·일·중 일간 3사」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엄 특별연설 (일본, 1997. 4. 3)	

세계와 인류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	229
— 일본 외신기자클럽 초청연설 (일본, 1997. 4. 4)	
한반도문제 관련 다자간 협의 필요	239
— 일본 朝日-TV 「News-Star」 인터뷰 (일본, 1997. 4. 5)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통일	243
— 일본 統一日報 인터뷰 (일본, 1997. 4. 5)	
남북경협 활성화 위해 당국간 사전협의 필요	248
— 진경련 남북경협위원회 창립회의 기조연설 (1997. 4. 14)	
4자회담은 동북아 안보협력의 모태	260
— 민족통일연구원주최 4자회담제의 1주년 국제학술회의 축사 (1997. 4. 15)	
북한의 자구적 노력 필요	263
— 중앙일보 인터뷰 (1997. 4. 21)	
북한의 평화지향적 변화 촉구	270
— KBS-TV 「정책진단」 인터뷰 (1997. 4. 27)	
한국언론과 남북관계 보도	278
— 한국신문방송 편집보도국장 세미나 강연 (1997. 5. 2)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의 평화·번영	298
— 일본 日經新聞주최 국제회의 특별연설 (일본, 1997. 5. 16)	
한반도문제와 한·중협력	316
— 한국국제교류재단주최 제4차 한·중 미래포럼 축사 (1997. 5. 29)	
범국민적 합의와 참여하의 통일준비	320
— 「민주평통」 운영·상임위 합동회의 연설 (1997. 5. 30)	

최근 북한정세와 대북정책 방향	327
— 고려대 언론대학원 강연 (1995. 6. 25)	
각론화·전문화·국제화	351
— 민족통일연구원 이진식 격려사 (1997. 7. 1)	
통일비용 극복가능	353
— 태국 Bangkok Post 인터뷰 (1997. 7. 15)	
남북관계의 경제적 접근 필요	357
—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 강연 (1997. 7. 23)	
한반도 통일은 진정한 냉전의 종식	368
— 민족통일연구원·세계정치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축사 (1997. 8. 19)	
민간주도·정부지원의 통일교육	371
—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공청회 개최사 (1997. 9. 1)	
경수로 사업은 주변국가에도 기여	375
— 미국 Los Angeles Times 인터뷰 (1997. 9. 5)	
일관성 유지하는 대북정책	382
— 금호그룹 임직원 강연 (1997. 9. 5)	
북한변화 적극적 유도	395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연 (1997. 9. 11)	
통일대비를 위한 통일교육	416
— 교육행정연수원 강연 (1997. 9. 24)	
개혁에 늦는 자는 역사의 벌을 받는다	439
— 서울신문주최 국제포럼 기조연설 (1997. 9. 26)	

통일은 정지된 목표가 아니라 긴 과정	443
— 서강대·독일카톨릭사회과학센터 공동주최 한·독학술회의 축사 (1997. 9. 29)	
북한의 모든 변화가능성에 철저 대비	447
—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 (1997. 10. 1)	
북한변화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에서 시작	450
— 제16회 이산가족의 날 격려사 (1997. 10. 6)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454
— 세계경제연구원주최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 (1997. 10. 7)	
통일문제는 마라톤경기	461
— KBS-TV 「정책진단」 인터뷰 (1997. 10. 19)	
남북경협은 북한변화의 견인차	467
—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1997. 11. 3)	
대북정책의 틀 확립	480
—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강연 (1997. 11. 12)	
삼분법의 대북정책	495
— 세계인재개발원 강연 (1997. 11. 14)	
한민족공동체는 우리의 희망이자 책임	509
— 통일염블럼·솔로건 공모전 시상식 격려사 (1997. 12. 11)	
Four-party talks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511
— 「군장위」·「중감위」 관계자초청 만찬연설 (1997. 12. 16)	
통일문제의 경제문제화	514
— 일본 朝日新聞 인터뷰 (1997. 12. 23)	

통일대비의 구슬을 줄로 꿰자	519
— 97년도 송년사 (1997. 12. 31)	

1998년

우리의 변화로 북한의 변화를 준비하자	523
— 98년도 신년사 (1998. 1. 3)	
통일문제와 언론의 역할	529
— 출입기자단 간담회 (1998. 2. 13)	
대북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	548
— 이임사 (1998. 3. 3)	

부 록 : 해외방문 현지언론 보도

베트남 방문	559
이스라엘 방문	563

세계화 · 복안화 · 각론화

취임사 (1995. 12. 21)

먼저 이처럼 격식이 갖추어진 자리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미처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문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고, 또한 통일과업을 추진하고 전인미답의 실험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추어라고 평소에 생각도 해 왔지만, 이왕 일을 맡게 된 만큼 그간 생각해 오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가·비전문가와 관련된 경험담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월남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미국 전역이 들끓을 때, 각국 기자들이 월간 '애틀란틱'지 편집국장을 손님으로 초청하여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때 저명한 정치학자 칼 도이취는 그에게 “잡지를 만들 때 월남전쟁에 관심있는 전문가의 글을 실지 않고, 비전문가인 노만 밀러(작가)의 얘기를 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라고 묻자, “당신의 방식으로 한다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있는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의 얘기만 써야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이는 어떤 사안을 놓고 납세자인 국민 다수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전

문가들간에만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문제 역시 분단이 50년동안 지속되고 국민 누구라도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통일논의는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를 하나로 엮어 나가는 것이 통일원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하나의 줄기를 이루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요컨대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강조점이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통일정책과 논의를 전개하는 제 생각을 세가지 정도로 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논의와 통일정책 추진의 세계화입니다.

“통일논의는 오직 남북간의 문제이니,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는 열려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자주까지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통일문제는 우리만의 것이니 옆 나라는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닫혀진 자주이므로 통일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는 이미 끝났으나 한반도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며,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흐름이 우리의 통일을 비취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문제의 세계화이며, 통일은 오직 남북만이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계에 기여하고 세계와 함께 더불어 가는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좋아하는 값어치를 우리도 좋아하는 값어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계화인 것입니다. 세계화의 값어치는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시장경제화, 인권의 존중, 환경보호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세계가 합의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통일 추구야말로 전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민주국가들끼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민주화야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길임에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이 바로 진정한 통일이며, 통일의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통일논의와 통일정책 추진의 복안화입니다.

그 동안은 남북 당국간의 논의가 중요하고 비당국 차원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얘기해왔던 것 같습니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 백성들이 우리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법원에서 “북한 공민은 우리 국민이다”라는 요지로 판결하였는데 이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만 생각하는 통일논의가 아니라 가장 고생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시야에 넣는 통일논의, 남북끼리만 논의를 하는 것보다 옆나라도 감안한 통일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개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복수의 눈으로 보는 복안적 통일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통일논의와 통일정책 추진의 각론화입니다.

한반도에는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데올로기의 승부는 끝났으며, 이제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것은 거두어 내야한다고 봅니다.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북에 있는 실체인 땅과 주민, 즉 의식주가 충족되어야 하는 사람과 그 지역을 정확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우리 농수산정책의 시야안에 들어와야 하고, 북의 에너지문제는 우리 에너지 당국의 시야에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총론적·개론적 문제보다 각론적 논의를 강화하고 이에 토대를 둔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일보 사장 재직시 산하의 통일문제연구소장에게 정보소통이 허용될 때 동아일보를 평양시민이 어떻게 받아 볼 수 있으며, 통일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논의 중에는 우리가 “북한주민을 보면 불쌍하다, 시장경제도 모르니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자기네 스스로 자발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개혁을 당한다고 느낄 때는 마음까지 어울리지 않는 통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원의 역할은 각론의 중요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강화하는 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과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러한 세가지 방향에서 통일논의와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까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 우리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남북관계가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마음을 갖고 한 뜻이 되어 안팎의 환경을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취임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통일

95년도 송년사 (1995. 12. 30)

어느 해든지 다사다난했다고 하는 것이 그 해 마지막의 감회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올해가 해방 50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맥락에서 그 뜻을 되새기는 행사들이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외국에 가서 해방 50년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제로 한 회의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러한 회의에 가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한국사람들에게는 50년의 분단 역사를 되새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꺼리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하기에는 지역적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단위다. '95년은 청일전쟁이 일어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 때부터 우리 한국의 역사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빼놓고 후반부 50년만 언급해서는 안된다.”하는 이야기를 특히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100년전에는 그다지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못했다는 점이 우리의 후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우리가 동학이니 인내천이니 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가슴 뿌듯하게 얘기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으뜸의 가치로 꼽는 이른바 민주

주의 사상을 동학 안에서 찾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없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없어진다고 할 때 조야의 높은 지도층은 왕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었지 '나라'라는 개념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때의 나라는 군주의 것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갑오경장만 해도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지금 '그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10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는 해방될 때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6.25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때는 군인으로 북한 땅도 밟아 보았습니다.

그 때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 남북관계가 아무리 나쁘다 해도 50년대 보다 더 나쁘다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도리어 낙관적입니다.

통일원이 생겼다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입니다만, 우리는 통일을 향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 준비없이 맞았던 많은 사건으로 점철되어 온 시기가 지난 100년이였다면 앞으로는 내다보고 제일 큰 과업인 통일을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가고, 생각도 그런 쪽으로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각별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각 언론기관에서 10대 뉴스를 선정하는데,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어느 신문이 선정한 10대 뉴스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이 3개나 들어

있습니다.

또 저 혼자 생각해 보았는데, 통일원과 연관이 있는 것도 제법 큰 것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일을 구체적으로 해오신 여러분들은 더 꼽을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남북분단사중에 15만톤이라는 쌀을 북한에 실어다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원 역사에서 10대 뉴스에 꼭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의 개인의 역사로 보면 연말에 통일원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그것을 능가하는 뉴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각별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늘 느끼듯이 후련하고 좋았다고 생각되기 보다는 뭔가 덜 좋았다, 더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 올해는 그런 의미에서 더 각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더욱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고 계시는 일의 범주 안에서 어느 것을 빨리 하고 어느 것을 늦게 하고 하는 시간표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거창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누구나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과 연관시켜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누군들 하기 싫어하겠습니까? 역사가 바로 서야지요. 그러나 역사 바로 세우기에는 많은 아픔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딛고 넘어선 저편에 과거를 제대로 청산해서 세우는 과업은 밝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내일, 모래의 역사는 떳떳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프지만 해야 합니다.

통일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면 가슴벅차고 누구든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좋은 것인 만큼 비용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일반적으로는 통일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으로만, 누구도 아프지 않고, 누구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로 해도 좋은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다가올수록 현실적으로 어떤 아픔을 겪어야 되겠느냐를 꼼꼼히 따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픔을 느끼지만 그것이 좋다 라고 껴안을 때 좋은 통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에 통일원이 나서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통일문제를 바라보게끔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만이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어려운 얘기로 하는 통일논의는 통일이 아직도 멀 때 하는 이야기이고, 통일이 다가올수록 일상의 말 속에서, 일상의 단어로써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통일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은 격으로는 상당히 높은 관청인데, 안팎에서 보기에선 예산도

별로 많지 않고, 인원도 얼마 안되어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통일원이 아닌 부서에서는 못하는 일을 통일원이 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과 인원이라면 제가 힘껏 노력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법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제 통일고문회의에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96년도 정부예산은 6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중 통일원의 예산이 360억이라고 합니다.

1,800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일은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로 결정되는 수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우리가 높은 관청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예산도 더 많고 인원도 더 많은 부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기회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없어진다고 할 때 우리의 인식은 나라의식보다는 왕조지키기 였습니다.

나는 북한사람들에게서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 개념과 '김일성 가족'과의 분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제국주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 물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저 '천황폐하 어찌고……' 하고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나라가 개인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묶여 있습니다.

그런 북한과 교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간 나라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고, 정치·법·제도 등

개인화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북한과는 훨씬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원리를 믿습니다.

세상과는 담을 쌓고 남북한간에만 이루어지는 통일, 이것은 세계화된 가치를 높이 삼으려고 하는, 세계화를 추진하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끼리 왕조를 세워서 다 해내자. 저쪽은 김씨니까 이쪽은 이씨가 하자 하는 식의 통일이 될 법도 없지 않아 보이지만, 그럴 경우 세계사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원자탄도 만들고, 실력을 발휘하자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계적 보편가치에 모순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그 시야 안에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주민이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당국과 무엇을 하자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좋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픔과 비용을 생각하는 것이 각론화입니다.

통일은 그저 하늘에 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통일문제를 좀더 가까이에서 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그것이 좀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역사 운운하는 이야기가 많습시다만 통일원사, 통일정책사같은 것을 생각하는 안목에서 하루하루의 일을 해주시는 것이 통일원의 역사를 또한번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바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내년은 선거도 있고, 여러가지 벽찬 과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넓혀서 통일을 내다보도록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사족 같습니다만, 제가 좀 아는 분이 일본에서 건축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해방이 되고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일본이 한국전쟁 이후에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 당시는 건축을 화려하게 할 만큼 일본의 형편이 좋지 않아 아무도 건축을 의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하기를, 어느 지역이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곳에 무엇을 지어달라고 건축의뢰를 해왔다는 가정하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본의 경제가 일어설 때가 있었습니다.

안보소동이 끝나고 이케다 정권이 들어서면서 건축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설계도를 많이 팔아서 그 때 갑자기 더 유명해 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머리도, 조직도, 돈도 잘 활용해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력을 총동원

96년도 신년사 (1996. 1. 3)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건강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제 당부의 전부입니다.

마음과 몸이 다 건강해야 통일로 내딛는 발걸음도 건강할 것이고, 여러분까지 함께 건강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임한지 한 열흘 지났습니다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일정에 맞추어 나가느라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 사흘 쉬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 경우에는 방문객이 많아서 그 사흘이 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초에 쉬면서 통일원이 대단히 바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뭔가를 내놓는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분석도 해야 되는 매우 바쁜 부처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내놓은 공동사설의 전문을 읽어 보니까 앞길이 대단히 멀고 어렵겠다는 것이 금방 느껴졌습니다.

몇 년째, 몇 십년째 그와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요리하고, 대처하시느라 많은 인내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 온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에는 광복 50주년이었기 때문에 뭔가 의미있는 해로 되새기면서 보냈습니다.

광복 50년이면서 한편으로는 분단 50년이었습니다.

마침내 분단이 반세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남북에 정부와 당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세기 동안 숙제 하나 못 풀고 해를 넘겼습니다.

금번 북한의 공동사설을 보면서 그 동안 통일문제 또는 남북관계가 주먹을 준비하는데 정력을 쏟아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주먹이 더 굳건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원이 생겨서 통일을 준비하게 되는 마당에 통일원은 주먹의 준비를 넘어서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통일을 향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의 준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 준비 결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주먹의 준비 결과로 이루어진 통일보다는 우리가 소망스럽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세사가 복잡해서 50년, 100년을 단위로 어느 날, 어느 해를 따지면 민족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저는 신문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이 발간된 것이 1896년 4월 7일, 그 날을 '신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독립신문을 보면 그 당시 서재필 선생이 썼다는 논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변한 것 같은데 기본 줄기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그 100년을 되돌아 보면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100년째 되는 오늘 우리는 세계속에서 키가 성큼 컸습니다.

경제지표를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일류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구호만으로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세계를 향해 열려서, 정말 일류답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끔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매불망 사무치는 민족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단 50년은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것으로 우리가 선택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 때는 아마 나라를 4등분 한다고 했어도 우리가 그것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외세가 한국을 둘로 나누어야겠다고 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남이 나누어 놓은 분단을 물론 나누어 놓은 그 사람들과도 화기를 잃지 않는 속에서 통일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의 주체가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스스로 다지면서 그 선두에 우리들이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았기에 50년이나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나는 천재니까, 나는 영웅이니까 하면서 이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착실하게 한발 두발 통일에 가까운 조건들을 만들어서 우리 뒤

에 오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오면 누가 압니까? 그 때를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통일에 임합시다.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통일을 준비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새해 벽두에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통일논의 적극 수렴

이북5도청 방문 인사말 (1996. 1. 6)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속에서도 실향민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고 계신 장정렬 위원장 및 5도지사 여러분, 그리고 오자복 대표의장 및 도민회장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 21일 부임이후 먼저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실향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자유스럽게 고향을 방문할 것과 최소한 '이산가족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만이라도 설치할 것을 북한측에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85년 단 한차례의 고향방문단이 교환된 이후 북한측의 외면과 회피로 이산가족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산가족들이 바라는 수준의 괄목할 만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앞으로 통일업무의 중책을 담당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적극 수렴하는 한편, 현실성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정부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 최대한 노력코자 합니다.

통일문제는 우리 국민 누구나가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들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줄기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은 앞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다음 세가지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계화에 어울리는 통일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화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화, 시장경제화,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복안적 통일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당국만 상대로 하는 통일논의가 아니고 주민들도 함께 바라보는 복안적 시각으로 통일 및 대북통일정책을 풀어가야 합니다.

셋째는 통일논의의 각론 강화입니다.

총론적 수준을 넘어 통일문제와 관련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 등 각론적 수준의 논의를 심도있게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끝으로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며, 본인도 이 문제에 관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통일

SBS-TV 인터뷰 (1996. 1. 22)

기 자 부총리께서 취임하신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때 통일부총리의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21세기를 불과 5년을 남기고 동북아정세는 유동적이고, 북한의 정세도 여러 가지 불안정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금년 통일과제와 남북대화 가능성은?

부총리 말씀대로 어려운 시기에 통일원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을 하루아침에 이루어 낼 수는 없고, 통일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물을 볼 때, 비유적으로 스냅식으로 보느냐 비디오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스냅식으로만 보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비디오 연속사진의 한토막으로 보면 어려운 때만은 아닙니다. 즉 지난 50년 분단사에서 남북간이 전쟁을 치른 때 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작년에는 분단 50년만에 15만톤의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북한에 지원하였습니다. 당장은 대북지원의 성과가 눈에 안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십년 후에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KEDO가 원자력발전소를 국제공조방식으로 지어 북을 돕고자 하는

일도 과거에는 없었던 일로 실행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쌀, KEDO를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길게 봐서는 획기적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다소 희망 섞여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북한이 태도를 바꾸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 자 최근 잠비아에서 북한인의 망명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북한체제가 동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동요가 심화되면 한반도의 불안이 고조될 텐데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북한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나라 안팎의 공통된 느낌일 것입니다. 북한외교관의 부인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상황과 연관해서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경우들에 대비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 자 북한의 식량난은 이제 국제적 관심사입니다. 대북 식량사정과 관련하여 한미간의 의견차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의 태도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미국은 북한에 당장 쌀지원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는 24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에서도 주제는 식량지원이 아니지만, 이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지금 북한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나 중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족량이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측의 인도주의적인 여러 활동단체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

니다.

정부는 북한이 작년에 345만톤 정도 생산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수요량과 관련해서는 김일성이 농업전문가들에게 “하루 만톤이면 먹고 살수 있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대략 360만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60만톤 가량에서 사료 등을 포함하면 수요량은 더 있겠지만 그렇게 모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모자라는 양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얼마가 부족한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우리 정부에 직접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15만톤을 지원하였으나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하와이 회의도 이러한 우리측의 입장을 놓고 우방국끼리 의논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정세 전반을 놓고 논의한 후, 이에 대한 국제공조를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모임입니다.

기 자 남북당국간 대화가 '94년 7월 이후 일체 중단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취임사를 통해 '북안적 시각'을 강조하신 바 있는데, 학술·문화·체육·언론 등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을 대폭 늘리실 계획은?

부총리 남북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당국간 대화가 없어서 우리가 대화를 안달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우리 경제인들의 대북투자를 요청하며 당국이 아닌 비당국간 민간부문의 교류를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를 우리가 돕고 학술·문화 등 민간부문의 접촉이 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국간 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북한정권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 북한당국 뒤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남북대화로 혜택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88년 남북경협이 시작된 이래 작년에 처음으로 교역액이 3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은 별의미가 없고, 대북 직접투자나 교역품목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앞으로 남북경협의 질적 변화나 양적 확대를 기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시기는?

부총리 앞서 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재화와 국민, 아이디어가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국간에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규제가 필요없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 재화가 들어가서 때이면 정부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입니다.

당국간 대화가 없어서 마치 우리 당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사회 일각에서 이해하고 있는 경향도 있지만, 우리가 당국간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허가를 받자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재화, 국민, 아이디어가 북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들을 돕게 되는 길을 알아야 할 것이고 마구 들어가서 큰 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정부의 보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 자 올해 경수로사업이 이행단계에 접어드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우리의 경비부담 문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40억불 혹은 그 이상이라는데 예상되는 부담액과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실지?

부총리 경수로공급 총액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분담액수도 결정되지 않았으나 올 여름쯤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과 ‘한국형 원자로’ 제공 등 한국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한과 KEDO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분담액수가 따를 것

입니다.

북에 제공하는 원자료가 한참 후에 완공되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북한체제에도 안정적으로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 자 이산가족문제에 있어서는 남북간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고향방문 전단계로서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신 전달이라든지 정부의 구상과 대책은?

부총리 말씀하신 대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산가족문제는 정치를 떠나 인륜과 연관된 것이나 북한이 정치의 이름으로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전 중국대사를 만났는데 중국이나 대만의 경우 고위급회담을 한번도 안했지만 100만 이상의 사람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이산가족이 통일 전단계에서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선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난후 한참을 준비해야 통일이 될텐데 우리는 문턱에도 못들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북간에 나이 많은 분들끼리 만이라도 성사를 시키자고 남북간에 ‘총론’부분에는 합의했지만 ‘각론’부분에서는 좌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통일원에 와서 각론강화정책을 강조하게 된 이유입니다.

통일문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80년대 후반 제한된 규모의 이산가족들이 예술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인륜의 문제가 전략의 문제로 변화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산가족의 한을 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이산가족간 생사확인이 800여건 가까이 있었으나 당국간에 확인해준 것이 아닌 연변 등지에서 이산가족 당사자들에 의해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산가족문제가 기본적으로 인륜의 문제이지만 전략의 문제 등도 고려하여 가닥을 잡아 나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국 간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 자 올해 7월이면 김일성 3년상을 치를 것으로 알려져 그 이후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권력승계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부총리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일자를 딱히 찍어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우나 다만 오랫동안 권력승계를 앓고 있는 사실이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며, 이는 나라 안팎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 동안 어떤 날을 기해서 승계할 것이라는 말이 많았으나 일치하지 않았고, 지금은 김일성 3주기, 우리 식으로 대상이 지나면 승계할 것이라고는 하나 이러한 지적도 지나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 자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은 온 세계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주변 4강이 한반도 통일의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통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 저는 기본적으로 분단은 우리 민족이 결정한 것이 아니지만 통일은 남북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들이 함께 축복해 주는 통일이 되어야지 우리끼리만 하는 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의 일이 옆나라 일도 되기 때문에 통일도 '건강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냉전이 끝나고 이데올로기도 없어진 채, 민주화·인권·시장경제·환경문제를 보편적 가치로 하여 어느나라도 이 문제에 관해 담을 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보편가치에 어울리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계화에 어울려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은 더 많겠지만 그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21세기까지 끌고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대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도와 통일에 한발이라도 빨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민간교류 위한 당국간 대화

KBS-TV · MBC-TV · YTN 합동인터뷰 (1996. 1. 23)

기 자 통일원 새해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은 무엇이고, 남북대화 가능성은?

부총리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꼭 새로운 업무를 해야 하는 것처럼 질문 하셨는데, 이를 스냅식이 아닌 비디오식으로 보면 올해도 지난해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을 줄여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분단 50년만에 15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였던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일로 쌀지원 성과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 같으나, 쌀지원을 큰 흐름 속에서, 즉 동화상 속에서 보면 대단히 큰 일이고 5년 내지 10년 뒤에는 커다란 교훈이 될 것입니다.

KEDO라는 국제공조 방식 아래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북에 원자료를 건설하는 일도 획기적인 일입니다.

대북관계를 남북간의 관계로 한정하여서 생각하지만 고위급회담에서 타결된 기본합의서를 보면 하루아침에 안지키면 그만이었습니다.

남북한만의 합의형식이 아닌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우방과도 합의를 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형식도 필요합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기존 입장을 바꾸겠지만, 적극적

으로 북한이 태도를 바꾸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 자 내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한미간 이견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북 쌀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부총리 정부와 나라가 다르면 의견이 같을 수 없으나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함에 있어 지금처럼 좋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와이 회담은 오직 대북 쌀지원을 놓고 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그 문제는 여러 의제중 하나일 뿐입니다. 북한 수재에 대한 국제적 지원도 남북관계를 옆에서 돕는 쪽으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정세를 놓고 한·미·일 3국이 의견을 내놓고 대응하는 회의입니다. 즉 3국이 일반적인 북한의 상황을 놓고 공조를 위한 협의를 하자는 첫 번째 모임입니다.

북한의 쌀 부족량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작년에 쌀을 지원하였지만 과연 그 쌀이 배고픈 주민들에게 전해졌는지, 아니면 군량미로 사용하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쌀제공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량과 관련해서는 김일성이 농업전문가들에게 “하루 만톤이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대략 360만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345만톤 정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군량미, 사료 등을 포함하면 다소 부족하겠지만 북한은 어느 정도이냐에 대해 뚜렷한 말이 없는 실정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얼마를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나 중국도 북한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부족량이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방측의 구호단체나 인도주의단체는 북한의 심한 수해지역의 큰 재

난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재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빙성있는 기관에서 조사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면, 그때가서 적정선에서 지원을 검토할 것이나 무한정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 자 북한의 월드컵 개최 제의 및 제3국을 통한 남북대화 재개 의사 표명 등 일련의 유화적 제스처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 남북 50년 분단사를 돌이켜보면, 북의 태도가 완화되었다가도 경색되는 등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위급회담에 합의하여 여러 위원회를 열려는 등 좋은 분위기가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파기시킨 일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스냅식이 아닌 비디오식으로 북한을 보아야 합니다. 남북간에는 웃으면서 싸인까지 하고서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이 과거의 경험입니다.

북에 대한 이해는 지난 50년을 경험삼아 인내를 가지고 폭을 넓혀 생각하여야 합니다. 매 사건마다 일희일비해서는 안되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기 자 하반기 북한의 권력승계 가능성과 우리 정부의 경수로비용 부담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부총리 권력승계와 관련해서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로문제는 미국 주도하에 제네바 합의 후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린턴 정부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을 의회에서 전부 승인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EDO 집행이사국인 3국간의 공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3국중 어느 누구도 비용을 많이 부담하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경수로 공급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란 주도적 부담을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주도적 역할에 상응하는 액수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아직은 구체적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여름쯤 가야 확정될 것입니다.

다만 중유 공급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공약처럼 “중유비용부담 없다”고 말씀드린 점은 지킬 것입니다.

기 자 통일원 밖에 계실 때와 안에 계실 때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부총리 통일원 밖에서는 잘 안보이나, 여기와서 보니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인식에 있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월드컵 개최를 잘 해낸다면 통일을 향해 가는 모양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평양만 합의하면 월드컵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FIFA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FIFA의 신청규정에 맞아야 하고, 제반 절차도 알아야 하는 등 FIFA 위에 얹혀놓고 남북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 자 월드컵 관련 우리의 개최가 유리하도록 남북간 공식채널이나 막후채널 등 접촉이 있는지요?

부총리 한반도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세계 전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몇 월에 신청하는지, 언제 결정되는지 등 절차와 방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북한과의 상의가 전체를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기 자 민간교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부총리 북에서 당국을 배제하고 비당국을 우선하여 접촉하고 있지만, 민간교류가 잘 되려면 당국간 대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민간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의 재화, 국민과 아이디어가 북으로 가게 됩니다. 만일 북에서 스파이라고 잡아서 모두 귀순했다고 주장하면 정

부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대한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적소유권이라든지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민간 투자에 있어서 과실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민간이 잘 오가도록 철도도 깔고, 고속도로도 깔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이 험한 산길을 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의 길

서울대 동창회보 인터뷰 (1996. 2. 1)

기 자 취임후 통일정책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시기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때에 통일원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정책에 관해서는 다음 세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화에 부응하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이지만 우리끼리만의 통일이 아닌 이웃 국가들이 모두 축복해 주는 통일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는 민주화, 시장경제, 인권의 존중, 환경보호 등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당국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충분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째로는 통일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전체 차원에서는 물론, 국민 개개인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통일이 될 경우에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구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현재 남북문제의 당면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요?

부총리 지금의 남북관계는 정지화면으로 보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디오처럼 연속화된 화면으로 보면 반드시 어려운 때만도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에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15만톤의 쌀을 아무런 조건없이 북한에 무상지원하였고 또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국제공조 방식으로 지어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분단 50년사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남북관계에 가장 큰 문제는 당국간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들이 위기인 동시에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태도를 바꾸도록 인내심을 갖고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북한이 태도를 바꿔 나올 때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기 자 국민합의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을 추진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중의 하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통일정책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 위해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 자 남북통일과 관련해 21만 동문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부총리 먼저 그 동안 동문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일이 곧 이웃 나라의

일이 되고 이웃 나라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 되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축복임과 동시에 전세계가 공감하는 '건강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국민들의 동참은 필수 요소이며 특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아낌없는 격려는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공존과 화합을 위한 접근

미국 Los Angeles Times 인터뷰 (1996. 3. 27)

기 자 본인의 지난번 한반도 관련 사설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그에 관해 부총리께서 느끼신 바가 있으신지요?

부총리 남북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 자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북한과의 대결이 아닌 공존과 화합을 위한 접근이 기본입장입니다.

기 자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협력상태는 어떻습니까?

부총리 '92년 남북기본합의를 비롯한 모든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KEDO를 제외한 남북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EDO에 대한 미·일의 역할은 북한의 합의 이행에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 자 남한에서 폐쇄된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리라 보는데 중국은 한국보다 북한상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지요?

부총리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으나 북한을 향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기 자 북한의 경제상황과 대외교역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지난 50년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북한의

3대 교역국(약 3억불)이며, 놀랍게도 중국을 제치고 일본이 교역량 1위, 중국이 2위 입니다. 참고로 대만과 중국과의 교역액은 200억불에 달합니다.

기 자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부총리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힘의 공백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 자 그와 같은 의미에서 미국의 대만해협에 대한 항공모함 파견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 중국-대만관계 뿐 아니라 주변의 안정유지 측면에서 고려할 때 효과적입니다.

기 자 탈북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탈북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휴전선지역의 경비가 엄하므로 제3국이나 해상을 통해 탈북하고 있습니다.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이들을 모두 동시에 받아 들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기 자 남북대화의 재개 가능성과 북핵의 위협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외국 언론매체를 통해 간접적 제의는 있었으나, 직접적인 대화제의가 없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입니다. 북핵 위협은 단순 가능성 보다는 구체적 시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기 자 이같이 예측이 어려운 상대와 얼어붙은 상황을 타개할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성급한 접근 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며 북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 자 김정일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총리 신변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오늘 본 70여분짜리 북한 선전 비디오(김정일 찬양으로 일관된 내용)에는 그의 말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으나 육성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그의 역량으로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 자 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부총리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 자 통일원에서는 통일의 과정에서 필요하게 될 제반 비용 등에 관해 연구한 바가 있는지요?

부총리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임을 밝혀 둡니다.

기 자 끝으로 부총리께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해 미정부에 요구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부총리 과거 슉츠 미국무장관이 한국을 자주 방문해서 한미간 결속을 과시했던 것과 같은 미정부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차분한 자세의 대북정책

성우회 강연 (1996. 3. 28)

이렇게 아침 일찍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 군을 굳건히 이끌던 체험을 살려 오늘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서 사회 각 분야를 지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마음 든든합니다.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짧막하게 소개를 하셨지만, 저도 6.25때 군에 갔었고, 여기에 나오신 백선엽 장군님이 그 때 저희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재홍 장군님이 영천에서 큰 작전을 하실 때 저희가 증원부대로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단 50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중에 저희들이 언제나 북한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들 보다 월등한 자리에 있고, 특히 지금 북한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적대하는 공산주의정권이 있어서 그 정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체험을 통해서 겪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쓰라린 경험이 적은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북한도 우리 동포라는 감상적인 동포론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두갈래의 상반된 북한관은 여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원은 우선 그 두갈래의 시각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관청인데, 우리가 겪은 체험들이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이 국내에서조차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통일원에 들어온지 이제 100일 남짓 됩니다. 뭔가 떠들고 외치고 하는 쪽 보다는 차분히 응시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차분해지자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일상의 일과는 달리 특히 통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들뜬, 또는 들뜨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겠는데, 북한이라는 상대와 가닥을 잡아서 순서를 맞추어서 해나가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신경 쓰이는 점이 많습니다.

먼저 요즘 북한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난, 체제불안정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상황은 어느 때 보다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미국의 언론인과 이야기를 했는데,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북한을 말할 때 코끼리 더듬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고 오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오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0년을 꿰뚫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대로 잘됐든 못됐든 안정되게 하나의 줄기를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사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아마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북한당국도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좀 불안정하다

고 생각하며, 우방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큰 수해를 입어서 더 심각하겠지만 수해가 없었어도 구조적으로 늘 배고프게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작년 수재로 인해서, 아무 것도 없으면서 그저 도도한 것으로만 통해 오던 그 리더십이 지금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도와다오”하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권력승계 구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중해서 여러 가지 불안이 조성되고,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양으로 그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만 조금 넘는 인구에 110만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군대를 보통 백성들 보다 훨씬 잘 대접해준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수해를 안 입었어도 형편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어려운 것에 익숙해서 저 정도나마 견디고 있지 우리 같이 할 이야기 다 하는 사회 같으면 벌써 무슨 결단이 나도 났을 것입니다.

제가 외국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6.25당시 평안북도 태천에 국군부대가 올라 갔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고구마가 상당히 있길래 “좀 주시오”했더니 할머니가 없다고 해서 “저것이 고구마가 아니냐”고 했더니 “아! 디과 말이요” 그러면서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피난을 못하고 남아있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국군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겠지만, 저희들한테 들려준 노래가 김일성장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장군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서 자꾸 ‘죽장군’이라고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 때부터 배가 고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때는 전쟁중이었으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

만, 전쟁이 있기 전에 김일성장군 노래가 있었을텐데 그 때부터 ‘죽장군’이라고 불렀으니까 지금도 죽을 먹고 있는 것은 그 체제의 무능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쌀밥 먹고, 기와집에서 살고, 비단 옷을 입게 해준다고 하면서 그것이 거의 성취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정권유지의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쌀밥을 먹고 기와집에 살고 비단 옷을 입게 되면, 생각을 그 이전과 달리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될텐데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북한상황은 절대적인 수요를 채우는 데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볼 것 같으면, '90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4.6%씩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 지금은 바닥이 다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사정과 관련해서 볼 때, 교역은 '88년도 50억불에서 작년에는 20억불로 크게 줄었습니다.

남북관계는 아직 관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막혀 있는데, 작년에는 교역이 전년에 비해서 50%나 늘었습니다.

작년 남북간의 교역규모는 3억불 정도가 되는데, 이는 북한으로 볼 때 세번째로 큰 교역상대입니다.

그 동안 북한에 있어서는 중국이 제일 큰 교역상대였습니다.

저희들의 잠정추계로는 작년에 일본이 중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6억불, 중국은 5억불 규모입니다.

그러나 1천억 수출 운운하는 우리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대만과 중국이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200억불 정

도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왕래도 100만 이상이 됩니다. 주로 대만 사람들이 본토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보면, 더 말할 나위 없이 형편없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제철소가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해 보면 북한의 공장가동률은 30%도 안되는데, 그렇다고 70%가 남아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CNN의 부사장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북한의 수재 지역 취재를 원했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못가고, 큰 체육관에서 마스게임 하는것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물었더니 난방을 하나도 안하니까 뭐 돈 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 곳에서 난방도 없이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생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KEDO를 통해서 100만kw짜리 경수로 2기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으로서는 아주 큰 것입니다.

KEDO가 보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울진에서 만들고 있어서 제가 보러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회를 느꼈습니다.

제가 '60년도 초에 동아일보 동경특파원으로 있었는데, 그 때 일본 동경만의 오른쪽인 지바 지역을 개발해서 공업지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공장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섰을 줄 압니다만, 그 때 처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번 구경을 하러 오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바닷가에 큰 구조물이 보이길래 저것이 뭐냐고 했더니 동경전력의 화력발전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200만kw 발전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전체의 발전량이 50만kw에 미달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발전소 하나가 어떻게 한국의 4배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틀린 것 같아서 몇만kw냐고 다시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200만kw라고 말하면서 바로 한국의 4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는 1기가 당시 한국 전체 발전량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는 것이 그 4배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흐뭇한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무기나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세대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북한의 대남책동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2~3년전에 나무랄데 없는 기본합의서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기본합의서의 합의와 비핵화선언을 하는 가운데서 핵개발을 하고, 간첩을 보냈습니다.

그냥 드러나는 태도로만 보면 서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분의 말처럼, 관대하게 무시하는 것같은 태도를 가지고 북한을 달래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CNN의 부사장이 꼭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CNN 부사장은 평양에서 김용순을 만났었는데, 그가 “지난 1월 말에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을 했는데 남한에서 대답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북한의 성명이 나오면 그것을 분석하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획기적이라고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평양에 다섯번 방문했는데 아홉번 방문했다는 북경 특파원이라는 사람과 껏속말을 하고 나서는 1월 31일 정당·사회단체 대표가 모여서 통일을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중에도 편지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CNN 부사장 보고, 북한을 취재하려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

느냐 정도는 알고 가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니
까 그대로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하면 되느냐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제안에는 남한당국은 배제되어 있다고 하면서 당국
아니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의 착각을 당신이 고쳐주려면 북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당국간에 얘기를 하여야 된다는 말을 했어야
했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는 남한당국이 빠져 있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체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문에 나고 해서 우리 여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김용순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가 외국 사람한테 “남한에
게 언제 어디서나 만나자”고 했다는데, 그것은 북한이 늘 하고 있던 말
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말로 한다면 새 단어도 등장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쓰고 있
는 어법과 단어가 아주 제한되고 늘 듣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상당히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지난번 하던 얘기와 지금 얘기하고 뭐가
다른가를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동향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북한 군사력의
1/3 정도가 휴전선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한미군 사
령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에 6분 내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
로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군기도 아주 정예는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미그 17, 19 같은 것
은 앞에 배치를 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보기에 왜 이러는가 하는 생각
을 하게끔 하는 군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0년간 보아오던 상황이라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 현안을 보면, 김정일의 권력승계 문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갈래로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계를 안했지만 이것은 3년상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김정일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는 분이 상당수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이 장악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 앞서 말씀드린 경제난이라든지, 또는 외교적으로도 혼선이 많은 것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있는 지도체제는 뭐냐. 대외관계 하나 효과적으로 처리 못하고 있지 않느냐. 무능하거나. 아니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보는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가르기 보다는 둘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을 대단히 중요시 하는 것 같고, 군에 업혀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에는 사회주의가 잘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인민공화국이 잘났다고 하다가 지금은 김정일체제가 위태롭다거나 김정일이 위태롭다고 좁혀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를 자랑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이고, 체제붕괴에 대한 대비로는 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중요시하고, 군의 발언권이 저절로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북경회담 때 우성호 선원을 보낸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랫동안 안보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말에 의하면 우성호를 잡은 것이 군이었는데 함부로 내놓으라고 옆에서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때 송환을 제 때에 하지 못했다는 변명 비슷한 소리를, 드러내놓고 군 때문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군을 원망하는 것 같은 장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제가 한갈래로 유효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일의 우상화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기록영화 같은 것을 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안되는가 할 정도로 대단히 치켜세우는데, 하나는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 김정일이 훌륭한 지도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인용해서 그 말을 뒷받침하는 영화였습니다.

김정일은 사상이론이 투철한 지도자이고, 각 방면에 걸쳐 다재다능하다고 하면서 그 다재다능을 뒷받침하는 많은 것을 담아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통일고문회의에서 그 중의 하나를 보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고문들이 보다가 인내심이 모자라서 가버렸습니다.

영화를 보면 김정일의 경우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저술가이고, 모든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140분 정도로 비교적 긴 시간의 기록 영화를 보았는데 한번도 김정일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입을 벌려서 말하는 사진은 있는데 목소리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더니, 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혹시 목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는 김정일 자신이 선배를 섬겨야 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전에 자기네들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과 김정일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비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배를 숭상하는 유교적인 감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존중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김정일이 말하는 장면은 역시 없었다고 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아마 7월 8일 3년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 후를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북한체제가 조금 위태하니까 귀순자, 탈북자 해서 상당 수가 북한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상당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쪽으로도 상당수가 왔습니다만, 벌목공 같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북한체제에서 못견디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1년에 50명씩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쪽으로 넘어오겠다고 신청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10명 단위가 아니고 100명, 1,000명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해서 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과 다른 것은 상당한 지도급의 사람이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당장 무너져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도 안맞을 때가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며칠 전까지 자기 당대에는 통일이 안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말해주듯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대비태세입니다.

얼마전에 샘년 미국 상원의원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 말씀이 북한이 저렇게 통제가 철저한 사회인데 통일이 되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겠는가, 김정일정권이 어떻게 된 후에도 통일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그 얘기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가 너무 심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북한은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으나 북한에 비해 남한이 전부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과제인데, 저는 샘년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1944년의 일본을 아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그 때 너무 어려서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1944년의 일본을 밖에서 보면 꼭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자폭하는 사람도 있었고, '천황폐하'하면서 만세 부르고 그 사람 때문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북한과 닮은 것 같습니다.

그 후 미국이 이겨서 상륙을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미국이 제시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잘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법 민주주의를 잘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제에 길들여진 백성들이라도 사람들의 본성으로 돌아오게끔 돌려놓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그들에게 익숙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통일, 통일 하고 있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샘년 의원도 제 말이 맞다면서 동의했습니다.

대답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북한당국에게 대화에 호응해 나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국만을 상대로 해서 통일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자꾸 흔들린다거나, 잘 모르겠다거나,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스타일만을 보면 그런 점도 없지 않겠으나, 그 실체를 보면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부 밖에 있을 때, 왜 자꾸 대북정책이 흔들리는가 하는 얘기를 하던 사람인데, 정부 안에서 보면 흔들림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통일이 금방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보며,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북한과의 관계를 좀 들뜨지 않고 차분함 속에서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뜻은 여기에 참석하신 모두가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에 합류

서재필·독립신문 특별전 기념강연회 개최사 (1996. 4. 4)

존경하는 이상하 한국프레스센터 이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오늘 서재필과 독립신문 특별전 기념강연회에 참석하여 개회연설을 하게 된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예가 될 것입니다.

구한말의 격동기에서부터 피식민의 수난기를 거쳐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르는 역사의 풍상을 온몸으로 맞은 서재필 선생은 우리의 영원한 사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신문 한세기를 맞아 선생이 만드신 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의 의의를 되새기는 이 자리는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감회 깊은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4월을 '서재필의 달'로 선포하고 온 국민이 선생의 뜻을 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개화기 연구에 권위있는 한 분이 서재필 선생을 '한국의 볼테르'라고 칭하였습니다.

선생은 선각자였을 뿐 아니라 선구자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앞서 보고, 잠자는 민중을 일깨우며 봉건사회의 낡은 틀을 깨는 풍운의 한 가운

데로 뛰어든 청년 서재필의 면모는 개혁가의 그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조국과 망명지를 넘나들며 민족의 독립을 앞당기는 숭한 이정표를 세우고, 그 투쟁에 헌신한 선생의 삶은 진정한 한국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선생의 소망은 세계사의 거친 도전 앞에 민족이 바로설 수 있는, 젊고 힘있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있었습니다.

선생이 일관했던 개혁과 독립은 오늘의 한국이 있게 한 소중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송제선생과 같은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의해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나아가 그분들의 정신과 기상은 우리가 누대의 가난과 분단의 명예, 그리고 전쟁의 참화속에서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의 정신은 21세기를 맞는 오늘의 세대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세기 전 우리 선조들에게 닥쳐 왔던 역사의 격랑을 또다시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거대한 조류가 인간의 삶을 바탕부터 바꾸면서 새로운 문명을 태동시키고 있습니다.

100년전 우리 민족이 세계사의 격변속에서 겪었던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개혁가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혁으로 우리는 세계화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반세기가 넘도록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화해와 협력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민족만이 적대와 단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파란만장한 삶을 바친 선생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질서있는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실체를 부인하고, 배제하려 하는 것은 지난 시대의 낡은 논리입니다. 남과 북이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와 함께 화해와 협력의 길에 합류해야 합니다.

그것은 송제선생과 같은 선조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서재필 선생은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국민의 권리를 세워보자”는 뜻에서 개화의 길에 나섰다고 회고하신 바 있습니다. 선생의 이같은 말씀에는 스스로 독립신문을 펴내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독립신문은 창간사에서 “국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변자가 되고, 정부가 하는 일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게 알릴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이 신문을 한글로 발간한 사실 자체가 송제선생의 준엄한 언론관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중에게 철저히 봉사하고자 했던 독립신문은 구한말의 암울한 시대에 개혁과 계몽을 안내하는 불빛이었습니다. 나아가 그 정신은 지난 한세기 한국신문사를 관통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재필과 독립신문 특별전은 각별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가 새로운 100년을 여는 한국신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보람찬 결실을 거두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링컨 대통령이 허락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신문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개혁가이자 언론인으로서, 독립운동가이자, 의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한국인으로서의 송제 서재필 선생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1백년 전 역사의 큰 고비에서 선대가 뿌린 근대화의 씨앗이 세계화의 꽃으로 활짝 피게 합시다. 그리하여 선열들이 꿈에도 그리던

나라, 통일되고 번영되어 세계에 당당한 나라를 만듭시다.

모두가 21세기를 앞서 이끄는 멋진 한국인, 제2의 서재필이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이 서재필과 독립신문 특별전 기념강연회에 부치는 저의 바램입니다.

끝으로 오늘이 한국신문의 빛나는 새 세기를 여는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북인식의 재정립

방산학회 강연 (1996. 4. 8)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와 백영훈 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만, 이런 모임에 저를 불러 통일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지금 북한은 그 얼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어서 어느 하나를 잡아 이것이 북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단순화해서 북한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당으로 우리와는 총을 맞대고 싸웠던 상대인 동시에 같은 동포라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끌어안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시각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각중에서 때로는 이것이 강조되고, 때로는 저것이 강조되고 하면서 50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는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일의 통일을 향하여 한발 두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휴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조금 옆으로 제쳐두고 북한을 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지금 휴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50년을 돌이켜 볼 때 지금이 제일 희망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낙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북한은 당 창건 50주년과 관련한 많은 기념행사를 했습니다만, 50년 기간중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을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사정은 아주 많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얼굴중에서 적대하는 얼굴쪽을 덜 보고, 같이 어울려 살자고 하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 조차도 과연 북한의 체제가 바뀌어서 우리와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북한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또 흔히 말하는 '소프트랜딩'이 그냥 말로 그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회의적 시각이 갈수록 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는 우방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꽤 냉정하게 북한을 보는 미국의 어떤 분석가가 내일 또는 내주에 북한이 무너진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며, 또 5년 후에 북한이 그대로 있다 해도 놀라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이유는 다 있다는 것이 지금의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사정에 대해 여러분도 신문지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정보분석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것이 북한이다, 또는 저런 것이 북한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이야기는 북한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북한 사람 자신들도 총체적인 북한의 모습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북한상황은 체제 해체과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북한 밖에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김정일은 애도기간중 자제해 왔던 개인승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 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북한에서 내놓은 김정일우상화 비디오 테이프 두 개를 입수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비디오중 하나는 김일성의 교시를 중심으로 비디오를 찍은 것입니다. 비디오 첫머리에는 김일성이 대단한 이론가·철학자·사상가·저술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는 이렇고, 경제에 있어서는 이렇고, 문학이론은 이렇고, 뭐는 이렇고, 전부 김일성의 말을 입증하는 영상을 곁들여서 70여분짜리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 나니 너무 치켜올리는 것 같아서 좀 허망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비디오는 김정일 본인의 교시를 제구성하면서 우상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김정일이 혁명 1세대를 극진히 모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에 맞추어서 그와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더 나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좀 모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 김정일의 리더쉽이라는 것은 아직 제자리를 못잡은 것이 아니냐, 충분히 유능한 리더쉽이라면 오늘처럼 북한을 만들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반인이 느끼게끔 하는 비디오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경우 최근 보도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갑자기 군부대를 중심으로 시찰을 많이 다닙니다.

그것이 북한 텔레비전이나 영상물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것도 군 총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을 그와 같은 선전으로 채우고자 하는 의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을 중시하면서 아마 군을 앞세워서 어떤 불장난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50년 역사중 최악인 것 같습니다. 식량이 모자라서 굶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 세계가 하고 있을 정도로 식량사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것은 작년 수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의 낙후, 비능률적인 협동농장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수해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가 15만톤을 주었는데도 그것이 단식에 불튀기듯이 어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에너지 부족 또한 대단히 심각해서 '94년 원유도입량을 비교해 보면, 북한은 우리가 들여온 원유도입량의 1.2%정도 밖에 안됩니다. '94년도에 우리가 7,803만톤의 원유를 도입한데 비해 북한은 91만톤을 도입했습니다. 북한은 '90년만 해도 252만톤인가를 수입했는데 5년 사이에 91만톤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전에 북한을 다녀온 CNN의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분 얘기가 자기는 수해지역을 보고자 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그 대신 실내체육관 같은 마침 올림픽에 선수를 보내겠다고 한 직후가 되어서 그랬는지 훈련하는 자리에 갔었는데, 전혀 난방이 안되어서 떨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마 에너지난을 실감하게 해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 얼마 전에 북한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수로와 같은 노형의 울진원자력 발전소에 갔을 때 느낀 감회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0년대 초에 일본에 특파원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지바와 동경 사이에 공업지대가 완성되어 활기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한 30년전 그것을 만들고 있을 때 기자로서 취재차 갔었는데, 바닷가에 큰 구조물이 하나 서있길래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동경전력의 발전소로 그 용량이 200만kw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총발전량이 50만kw였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발전량이 적다고 하지만 한국 전체가 50만kw인데, 동경만에 있는 하나의 발전소에서 200만kw가 나올 수 있을까 해서 다시 물었더니 200만kw로 한국의 4배라고 했습니다.

'60년대의 우리 총발전량의 4배를 북한에 보내기로 했으니깐 그간 우리가 얼마나 발전해 왔는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60년대 초반 해도 모든 지표에서 북한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 형편입니다.

또한 경제난의 심각성은 경제성장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90년대 들어와서는 매년 4.5~5%에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 이와 같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진·선봉지대 개발이라든가 경제우선주의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어렵게 만든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2천만 인구에 100만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보통 사람들 보다 군을

훨씬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줄이지 않고는 경제적인 출구는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되면 군대를 줄여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큰 의문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막대한 군비를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북한의 현실이 위조지폐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옳은가에 대한 해답은 한가지로 딱 떨어지지 않는 않습니다.

제가 당국의 뒤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 주민과 같다는 생각으로 북한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북한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감상적인 얘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미국의 샘 년 상원의원이 왔었는데, 하는 말이 “당신은 통일한다고 애를 쓰는 모양이지만 우선 저렇게 철저한 통제사회에서 자란 사람들과 여기 남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울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곳이 통일원이라고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샘 년 의원에게 1944년의 일본을 아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너무 어려서 그 당시 일본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의 일본상황을 아는 서양 사람들은 일본이 전후에 민주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

을 것이다. 그 때 특공대라고 해서 자폭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다섯 아들을 다 죽인 어머니가 천황폐하를 위해 죽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사회가 바로 일본이었다. 그래서 많은 서양 사람들이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굉장히 무섭고 강하다는 말을 했지만, 일본의 오늘은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지 않느냐. 남북간에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다수의 의견은 아닌지 몰라도, 북한의 경우도 지금 그 뒷편 어딘가에는 우리들과 같은 정서를 갖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샘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통일을 내다보고 있는 샘인데, 저 자신도 6.25 당시에 비슷한 체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중공군이 참전하기 직전인 10월 하순경에 평안북도 태천에 들어갔을 때, 그 때 모두 피난가고 동네에는 할머니들만 남아있었는데, 그 할머니들이 국군장병들이 왔다고 기쁘게 해주느라고 김일성을 욕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것은 할머니들이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잘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학습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가사는 바꾸어서 자꾸 ‘죽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부터 식량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할머니 같은 주민들, 즉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는 소박한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제국주의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다섯이 아니라 하나만 죽어

도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 어머니인데, 다섯이 죽어도 천황폐하를 위해 죽어서 아주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선전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북한주민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의 어느 평론가는 일본이 타락을 해야 민주주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 사이에는 민주주의나 백성들의 권리같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락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상적으로 하나의 틀을 뒤집어쓰고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삶을 가짐으로써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테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충격이 가해지든지 충격이 아니라도 자기네들과 통하는 바깥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많은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바뀌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열하면 수 없이 많습시다만 그러나 저는 하나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KEDO입니다. 최근 우리의 외교관이 포함된 KEDO 관계자들이 북한의 실포지역을 다녀왔는데, 한 두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높은 사람들일수록 북한이 국제기구인 KEDO와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KEDO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이지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는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도 같이 갔었는데, 실제로 원자로와 관계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 사람들 중에는 외교관이라고 하더라도 영어나 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교관 표현에 의하면 기술자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한국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은 우리 기술자들이 일을 하다가 북한측에서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했으나 일 마무리가 덜 되었으니까 점심을 작업장에 갔다 주면 점심을 먹으면서 일을 더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별난 사람 보았다는 듯이 의아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집단농장이 잘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소나기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도 저녁 5시가 되면 털고 일어선답니다. 심야에 소나기가 와서 씨까지 다 흘러내려가 버리는데도 아무도 거기에는 신경을 안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 사회주의의 노동윤리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일하는 것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는 데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은 무엇인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어디로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 뛰면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서 옮길 수 있는데도 뛰면서 옮기는 것을 보고는 북한사람들이 정말 고마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술자 레벨의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른 소리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외교관은 처음 북한을 가본 모양인데, 약간 뭔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흥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참배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타보자, 어디도 가보자 해서 봤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봐서는 북한 주민들이 뭔가 초점이 없이 멍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인 일이 있다가 금방 다른 것이 또 한꺼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부환절에 북한에 가서 예배를 보겠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좀 시간을 늦추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해서 방북을 좀 늦추었더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무력시위와 부환절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은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하면서 동시에 북경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한 50년 이런 북한의 작태를 경험하니까 대충 윤곽은 보인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가능한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쪽입니다.

북한과의 얘기가 쉽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기도 했는데 그 때 보다는 오늘이 낫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자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희망적인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대로 북한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속에 제가 아는 통계로는 무역규모가 '88년에는 한 50억 불 되었다고 합니다만, '94년에는 20억불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과의 교역이 뭐가 대단하겠느냐고 생각하겠으나 그 전해에 비해서 한 50% 늘었습니다. 그 전해가 한 2억불 되었는데 작년에는 3억불 정도로 증대되었습니다.

교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보낸 쌀이 비싼 쌀이어서 그것을 국제가격으로 환산하니까 2억 3천만불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작년에는 5억 3천만불의 교역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억 3천만불을 빼고 3억불만 해도 일본, 중국 다음에 우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2,600억불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20억불중 3억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유일하게 우리와의 교역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형편없이 찌든 북한을 상대로 해서 그래도 재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남한 뿐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북한이 빨리 이해를 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격포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인 재화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더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그런 날이 남북간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판문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을 결코 조그마한 작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까지 합해서 10년을 두고 우리를 꿈쩍 못하게 하는 정도로 대단한 일이라고까지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합해서 산업 쪽에서 무엇인가를 터나가는 것이 앞으로 남북간에 해야 할 일의 순서에 있어서 제일 앞에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시기가 남북관계가 상당히 적대적인 시기,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먹으로 거래하는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쪽에서 해주어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통일하는 쪽은 주먹보다는 머리쪽, 머리로도 모자라면 가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북한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은 중점이 옮겨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 4자회담 호응 촉구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15주년 기념식 치사 (1996. 5. 14)

민족통일협의회 송한호 의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1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1979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던 때에 통일운동을 시작하여 민족통일협의회를 오늘날 명실상부한 국민통일운동의 대중적 결집체로 성장시킨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애써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통일협의회 회원 여러분!

북한은 지금 경제난과 체제의 불안정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후 2년이 다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90년부터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부족은 어느 때 보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곡물은 올해 수요량에 비해 200여만톤이나 부족하며 공장가동률은 30%에 불과합니다.

탈북자가 늘어나고 내부적으로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등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현상황이 당장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불안정은 구조적인 것입니다. 외부세계로부터의 일시적인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치유되기 힘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굳게 닫아놓은 대화의 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안정을 이룩하는데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의존하며 공동번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평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질서의 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50주년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올 4월 16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함께 제의한 4자 회담은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더욱 구체화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해 나가는 일은 우리 민족이 이룩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에서 4자회담 제의가 나온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2년 2월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현재의 정전상태가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하기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면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4월초 판문점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며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협박하였습니다.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체결 요구는 한반도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한 채, 오직 미국과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비합리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이같은 북한의 주장은 우리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방적 요구입니다.

4자회담 제의는 그 동안 북한이 요구해 온 바도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으로 반영한 '열린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으며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열린 협의의 공간'입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실현가능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두루 고려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 회원 여러분!

정부는 4자회담을 한반도에 궁극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장기 구도로서 차분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중국 등 유관국가들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남과 북이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해 화해하고 협력하는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4월말 삼성·대우전자 등 3개기업에 대해 대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내준 것도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기본방침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문점 무장병력시위 등과 같은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책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당국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어 재삼 촉구하여 마지 않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회원 여러분!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족화합의 새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 여러분들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의 큰 흐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온 국민의 확고한 지지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민족통일협의회 회원 여러분은 민족통합의 선봉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깊은 통찰력과 먼 안목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가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15년의 성상을 통해 민족화합의 큰 기둥으로 성장해 온 것을 다시한번 경하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동북아 안보협력 위한 4자회담

민족통일연구원주최 제5회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1996. 5. 17)

학술회의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민족통일연구원의 개원 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에 관한 깊은 경륜과 식견을 가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1945년 얄타에서 시작되어 전후의 반세기를 지배해 온 냉전체제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인간의 자유와 번영을 향한 공동목표 아래 화해하고 협력하는 세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분단국으로 남아있던 독일과 예멘은 이미 수년 전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최근까지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던 보스니아와 중동에서도 평화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창설됨으로써 지역안보에 관한

다자간 대화·협력의 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엔도 창설 반세기를 넘으며 보다 ‘효율적인 유엔’을 향한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세기 후반의 역사는 분명 커다란 진보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시계추는 50년 동안 그 자리에 멈추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세기에 걸친 냉전적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부각되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동북아지역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내에서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역할까지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북아 질서 창출에 주도적 몫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중국과의 안보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대한반도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각국 정상의 긴밀한 움직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역동성을 실감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보경쟁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를 보다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은 바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권력승계를 준비해 온 김정일이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최고권력자가 사망한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자리가 메꾸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비정상적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군령통치’에 의한 위기관리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는 종래의 구호가 “군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로 바뀌는 등 군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1990년 이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대외무역의 감소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식량부족은 주민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에너지난은 산업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의 수해는 북한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경제난의 심화는 나아가 북한 주민의 탈출과 함께 북한사회 내부의 일탈현상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남 적대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대내적인 통제와 결속을 도모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서두르면서 나진·선봉지대 등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을 조심스럽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개방·개혁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해결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북한의 어려움이 자칫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주변 4국의 일차적 관심은 북한의 ‘질서있는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지 않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은 남북관계와의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진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건설적 변화보다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고무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과 동맹관계를 지속하면서 북한지도부와 긴밀한 인적 유대를 유지해 온 중국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또한 과감한 개혁과 폭넓은 개방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해 온 훌륭한 앞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안내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로서는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환경의 안정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러시아 또한 그 동안 개혁·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정치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도 북한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노력이 몰린다면 동북아의 안정을 굳건히 하는 소중한 밑바탕이 마련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올해로 만 43년이 됩니다.

이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본

격화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남과 북은 '92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93년 4월 중감위 체코대표단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이래 정전체제를 와해시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의 당연한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은 세차례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무력시위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16일 한미양국 정상은 공동발표를 통하여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했습니다.

4자회담 구상은 분단 반세기의 대결과 반목을 청산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는 진지한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관련당사자인 미·중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바탕한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우리는 4자회담 틀을 제시함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열린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4자회담의 의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열린 협의의 공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한미 양 정상이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천명한 점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북한의 안정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과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북한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이는 동족인 한국밖에 없

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오면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위해서 북한은 우선 4자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4자회담이 동북아지역 전체의 다자간 안보 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일은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변 4국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해 4자회담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당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분단된 민족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입니다.

이념, 체제, 정치, 군사 등 그 어떤 논리로도 원래 하나이었기에 당연히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민족의 열망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주인공은 바로 한민족,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스스로가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홀로 이룰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그러했고, 북한 핵문제나 한반도평화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오늘의 현실도 그러합니다만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주변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특히 주변 4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아래 통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진전과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자유·인권·평화·번영·호혜·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의 통일을 우리는 이루고자 합니다.

마침 우리 눈앞에는 21세기 태평양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에는 한반도의 위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의 땅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중심지가 되려 합니다.

한민족의 통일은 북한지역도 시간적으로는 ‘21세기화’, 공간적으로는 ‘세계화’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인류와 세계에 함께 공헌하는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의 목표이자 한민족의 비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고자 하는 말씀은 분단된 한반도보다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21세기 세계사를 더욱 빛나게 할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그러한 계기 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매우 유익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와 함께 하는 통일

「민주평통」 제7차 서울지역회의 보고 (1996. 6. 12)

존경하는 오자복 수석부의장님! 그리고 자문위원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7차 서울지역회의가 성대히 개최된데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해오신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세계화·정보화의 거대한 물결위에서 민족마다 나라마다 국경을 뛰어넘어 교류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냉전의 단절과 대립이 사라지고 화해와 협력의 새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과 대결의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광복의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분단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분단의 장기화는 무엇보다 북한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사의 조류에 합류하기를 거부하는데 기인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북한체제로서는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이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김일성 사망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군부를 중심으로 한 과도기적 위기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환동이 군부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인민군의 창건일이 국가명절로 제정되는 등 군부의 위상이 강화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일 지도체제 또한 큰 이상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고권력의 공백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자체는 북한 권력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또한 심각합니다.

지난 '90년 이래 북한경제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총 교역규모도 사회주의권과의 특혜적 통상관계가 소멸되면서 '95년에는 '88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억불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공장가동률도 최근에는 에너지 및 원료난으로 3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반세기 동안 북한경제를 지배해 온 중앙통제경제체제의 비효율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00만이 넘는 군대를 보유함으로써 비롯되는 GNP 4분의 1 이상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 또한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식량부족입니다.

북한의 연간 곡물 수요량은 약 673만톤이나 지난해 생산량은 약 345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22% 정도 감량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부족량은 233만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간의 해외도입분, 비축미 그리고 감자 등 하계 구황작물의 수확을 감안하면 부족량은 이보다 더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WFP를 비롯한 유엔기구들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유엔회원국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제 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WFP를 통해 현금 200만불을 유아용 분말로 지정하여 기탁하고, 100만불 상당의 국산분유도 함께 보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차원의 경우 지원품목에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곡물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원활동이 조용하고 질서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창구를 ‘한적창구로 일원화’한다는 기존방침은 그대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의 지원은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대북지원이 필요할 경우, 4자회담이 성사되면 광범위한 긴장완화의 신뢰구축 차원에서 논의,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그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더불어 대화하고 함께 협력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하면서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평화는 모든 것의 기반이며 북한의 변화는 동일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6일 한미양국 정상은 제주에서 4자회담을 공동으로 제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0여년간 한반도에 ‘불안정한 평화’나마 유지시켜 온 기본틀인 정전협정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바로 남북한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바탕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3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93년 중감위 체코대표단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이래 정전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세차례 판문점 무력시위와 비무장지대에서의 도발 등으로 한반도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자회담이 제의된 것입니다.

4자회담 구상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4자회담은 무엇보다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제의라는 점에 각별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를 포함, 그 어떤 의제라도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열린방안’이자 ‘열린 협의의 공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4자회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4자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4자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4자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길이 열리도록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가 평화통일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 남북경제교류는 장기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입

니다. 그간 남북간 교역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작년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3억불 수준으로 한국은 이제 일본·중국에 이은 북한의 3번째 교역상대가 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20여개 기업의 방북을 허가하고 9개 기업에 대한 협력사업자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 대우의 남포공단내 협력사업 승인으로 남북 최초의 합작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뜻깊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며 남북경협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장기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또 하나의 분야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월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경수로 공급협정」의 이행조치 차원에서 세가지 분야의 의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이 두달 전부터 뉴욕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영사분야는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주계약자의 특권, 면제 문제가 타결되어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의정서」의 가서명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경수로건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술자들의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통행·통신의정서」와 관련, 통행로 문제와 독자 위성통신망 구축문제에 관한 협상에서도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인수 의정서 및 북측이 제공할 서비스 의정서 등 기초의정서들이 타결되면 기초토목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수로 지원사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통일은 이미 현실적 과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인권·복지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한국은 인류번영과 세계평화에 더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동포의 문제를 우리 문제로 인식하고 그들을 시야에 넣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언제,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통일논의의 세계화', '통일추진의 복안화', '통일대비의 각론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북한지역은 시간적으로는 '21세기화'되고 공간적으로 '세계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국민합의의 기반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특히 민족의 명운이 걸린 통일정책이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론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폭넓은 의견과 다양한 역량이 한줄기로 모아져야 합니다.

저는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중요한 과제의 실현에 선봉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문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은 민족의 소망인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고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눈으로 보아야 할 대북식량지원

MBC-TV 「시사포커스」 인터뷰 (1996. 6. 13)

사회자 북한정세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뒤섞여 국민들이 소화불량이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현재 북한정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부총리 북한문제는 알고 있으면서 또한 모르는 현상입니다. 보도는 안팎에서 많으나 틀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구석을 놓고 보면 틀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을 놓고 볼 때 북한의 모습이 인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문제가 이제는 먼 산, 강 건너 얘기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사회자 금주 관심사는 정부의 300만불 대북지원인데 그 배경은?

부총리 나라안 사정만 보면 300만불을 왜 주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원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제기한 4자회담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북한의 식량문제도 국제적 이목을 모으고 있는 중에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요청하여 신중하게 이에 응한 것입니다.

사회자 300만불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부총리 식량지원을 WFP에 맡겨 200만불의 혼합분말과 100만불은 국내

분유를 서서히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지원은 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중점을 둔 것입니다.

사회자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내용이 세목으로 나뉘어 있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이 북한 농업구조개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 구조개선은 장기적인 문제이며, 이번 지원은 수해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구호의 성격입니다. 국제기구에서 모금하는 4,300만 불로는 북한이 현재 처한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자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민주국가로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지원 찬성이 55%, 반대가 40%로 나왔습니다. 40%의 반대 여론이 무조건 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자세가 변할 때는 의견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5%의 찬성도 무조건적인 찬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55%와 40% 안에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을 제외한 가운데 있는 부분을 한줄기로 모아 이들을 통일의 주류로 만들어 가는 것을 통일부총리로 제임하는 동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즉 국민의식의 주류를 만들고 싶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 무조건 해라하는 것은 국민주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300만불의 액수가 미미한 것이지만, 물꼬가 트여 앞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부총리 국제기구인 WFP로부터 한국이 받은 액수는 1억불에 달합니다.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기구입니다. 우리의 소득이 1만불이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이제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WFP의 사업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간에 왜 통일원이 나서느냐고 하지만 대북지원이기 때문에 인도적이고 임시적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15만톤의 쌀을 무조건 주었는데 북한의 태도가 나빠 우리의 지원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긴 분단사의 한토막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2억 3천만불에 해당하는 큰 액수로 그 의미가 지금은 적게 보이겠지만 계속 이어져 살아나갈 것입니다.

혹자는 북경회담 3원칙(대남비방중지, 북한당국의 직접요청, 한반도 내에서 회담)을 얘기하면서 4자회담은 4번째 조건인가 하고 묻지만 조건, 조건하는 것은 내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4자회담을 제의한 상태에서 북한의 식량만 놓고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것 또한 세상사에 맞지 않습니다.

역사를 놓고 볼 때, 북한주민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자 작년 9월 유엔의 1차 모금액 2,000만불 중 40% 밖에 달성을 못할 정도로 전 세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년 4,300만불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차디찬 반응을 보인다면 받는 쪽인 북한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목표액 달성은 가능한지?

부총리 가까이 협의하는 국가들만 보면 1차때보다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나, 목표액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북한문제를 전부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전 세계에 손을 벌리지 않도록 북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북한이 핵문제로 평화위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의 기근과 기아가 세계안보를 해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으나, 북의 어려움이 그대

로 진쟁으로 이어진대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대북지원과 관련,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곡물지원의 길을 트는 문제를 고려하고 계신지요?

부총리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적십자사로 일원화하고 있으나 북한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북지원의 품목은 받는 쪽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북한은 공작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민간을 갈라 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대북지원창구는 적십자사입니다. 다만 일부 민간단체에서 곡물지원에 대해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십자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회자 국내에서 북한의 행태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군량미로의 전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엔모금내역중 56만불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부총리 북한을 놓고 볼 때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듯이 군량미 전용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보아야 할 것이나 너무 부각시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곡물중에서 쌀을 직접 북한에 주기에는 우리도 부족한 실정이며, 농정의 책임자도 대북지원에서 쌀을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 국제사회에서 대북지원을 하면 한반도 평화구축에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쯤 성과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 독일의 예에서 보면 독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동독도 다르고 서독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어떤 일을 놓고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성급함과 다릅니다.

독일의 전문가들 중 80%가 독일이 통일되던 그해 연초에 “금세기에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서독정부의 대동독지원이 많았습니다. 동독지원은 60년대부터 시작되어 들인 공도 많고 액수도 큼니다.

대북지원 효과가 금방 없다고 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도와준 일이 누가 없었다고 해서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쌀을 받아가서 남쪽에서 보낸 표시를 없앴다고 하지만, 효과는 넓게 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자 씨를 뿌리고 새싹을 기다려보자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도와서 잘해 보자는 것이지만, 북한이 꼭해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부총리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남북관계가 고속도로처럼 확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카드인 4자회담을 북한은 계속 유보적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유도 방안은?

부총리 수많은 제안중 마지막으로 4자회담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휴전협정 이후 1954년 제네바에서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대표인 남일은 “남북이 평화협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연설하였으나, 요즘 북한은 우리가 서명주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의한 4자회담은 평화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며, 모여서 광범위한 긴장완화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년전 남북이 합의한 기본합의서가 잘 이행되었으면 4자회담을 제의했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한반도에서 핵을 거두어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지될 만큼 철거하였으나 그 때 서명한 북측은 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평화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아 이제 4자가 모여 하자는 것입니다.

4자회담은 북한의 경우 경제문제도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북한 내부

에도 사안을 놓고 옳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이번 유엔 2차지원이 마무리되면 북한이 4자회담 설명회라도 참석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과연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설명회를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사회자 북한탈출 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부총리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움직임은 중요하다고 생각치 않지만, 공산당원의 탈출은 체제와 연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탈현상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얼마전 만난 동독의 마지막 수상인 드 메이지에르가 북한 사람이 북을 버리고 남한 혹은 중국으로 오는 현상은 덜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은 북한을 탈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북한이 분단된 북한보다 좋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건강한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Recent development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제3차 국제차세대지도자 포럼 특별연설 (1996. 6. 17)

Good evening!

Honor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s my great pleasure to speak before such a select group of future world leaders.

I'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Dr. Sakong Il,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and Dr. Kim Joungwon,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for inviting me to this wonderful occasion.

History witness that the road to unification for any divided nation has often been long and painful. Therefore, we understand that we must pave the way with patience and perseverance.

Our government and people have long worked and are still working to achieve unification of our country in a peaceful and democratic way.

As history moves into a new century, the inter-Korean relations also face new challenges.

At this moment, North Korea finds itself in some difficulties.

First, its strongman Kim Jongil, for whatever reason, has not yet assumed the title of the head of state.

The continued power vacuum in the highest seat of the state may reflect the instability in the North Korean regime.

Under such circumstances, Kim Jongil is exercising almost unlimited power, but the military seems to have a strong voice in state affairs. The rise of the military, however, will eventually become a burden on the regime and Kim himself.

In addition, the Pyongyang regime suffers from economic hardship. Since 1990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recorded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minus 4.5percent.

Due to the shortage of energy and fuel, only 30 percent of North Korea's plants are in operation.

Such economic woes were caused mainly by a drastic decline in the privileged trade with the socialist states which used to take up some seventy percent of the nation's imports and exports.

More fundamental causes of its economic failure, however, lie in the inefficiency and self-isolation of its socialist system.

To revive its economy, therefore, North Korea needs to restructure its economic system.

Economic reform, however, will disturb domestic stability because any form of reformation inevitably requires exposure of its society to the outside world.

This is indeed a dilemma fo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e basis of our unification policy is first to assu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to induce stabl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Last April, President Kim Youngsam and President Bill Clinton jointly proposed to hold without any preconditions a four-party peace talk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North Korea's initial response was that the proposal was "under study." Then in the early May they began to ask for further explanations on the proposal.

Responding to North Korea's reques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ffered to give a joint briefing.

If implemented successfully, the four-way meeting will enable us to lay down the basic framework for permanent peace. It would also be a great help for the Pyongyang regime in overcoming their current hardship.

Another area of our cooperation is a provision of a light water nuclear reactor.

Based on an agreement made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and North Korea, working-level talks are now under way to clear some practical details.

This project is expected to have a continuing effect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over the next ten years. We believe that, in the long run, it w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Last week, our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provide three million dollars worth of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s.

This assistance will include two million dollars for the purchase of corn-soy blend and a million dollar worth of powdered milk.

In fact, we already supplied the North Koreans 150,000 tons of rice last year. The domestic price for this rice amounts to some 230 million U.S. dollars.

We have provided this assistance out of compassion for the troubled Koreans living in the North. We wish to see neither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nor its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ather, we are willing to work with them to solve the difficulties they are facing now. This is the very intention of our proposal for the four-party talks.

I sincerely wish that Pyongyang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appeal so that there would be a fresh breakthrough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Let me take this opportunity to ask you, the future lead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join us and help us in our long journey toward unification

And also take back to your country the message that a unified Korea will make a much greater contribution to the peace and welfare of the world community.

Finally, on a humorous note, instead of wishing you a pleasant stay here in the beautiful land of morning calm as is the usual conclusion, I would like to be more "modern" and suggest a pleasant stay in our somewhat smoggy and congested city of Seoul.

But, hopefully, in the near future I will, realistically speaking, be able to wish you a pleasant stay in our reunified, clean, and uncongested nation called the land of morning calm.

Thank you.

논리와 비논리의 남북관계

서울대 행정대학원 강연 (1996. 7. 10)

우선 이 자리에 초대되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력 소개도 있었습시다만, 저는 40년 동안 신문사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일원의 일을 맡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뚝 위에 서있는 사람은 밑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하는 혼수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40년을 지내온 셈이 되지만 혼수한다고 해서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서 네가 헤엄쳐라 하면 못칩니다. 그래서 제가 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북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로 한 6개월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가끔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희다 하는 것은 봉사도 다 알고, 숲이 검다는 것도 봉사도 아는데, 눈앞에 흰종이를 갖다 놓고 무슨 색깔이냐고 하면 봉사는 모릅니다. 검은 먹도 갖다 놓고 물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알고 있는 것이 봉사가 눈 색깔 알듯이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눈앞에 어떤 것을 갖다 놓고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이 북한입니다.

또 우리 뿐 아니고 우리보다도 예산이 많은 미국의 무슨 연구소, 무슨 재단, 미국의 CIA 등등 예산도 많고 사람도 많은 부서에서도 북한의 사정이 오늘 현재 어떻다는 것을 딱히 짚어서 얘기를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잘 모릅니다.

저는 요즘 외국사람들도 종종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묻는데, “잘 모른다.”는 것을 핵심용어로 대답합니다.

아마 모두 김정일, 김정일 하는 얘기를 매일 하고 있고, 북한은 김정일이 확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김정일이라도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체제가 유능하고 유효한 통치를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고 있듯이 북한의 사정이 저런 것을 그냥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고 그냥 돌리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북한에 아사자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제가 본 북한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북한 어린이들이 하는 행사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어린이들을 주라고 여기에서 분유를 보냈는데, 분유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아주 토실토실한 애들이 그렇게 뛰는 것을 잘해서 상도 타고 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아무리 배짱이 좋기로 북한의 산간 벽지에서도 텔레비전은 볼텐데, 옆에서 굶어죽는 아사자가 있는 환경속에서 그런 텔레비전 뉴스를 한다고 선전·선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태연히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관해서 아사자가 있다는 것을 듣는 반면 그 사람들의 관제필름을 보면 자기네들 말대로 러시아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모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와같은 텔레비전의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원조를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쪽에 서는 분들은 “봐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사자가 있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미국 목사가 가서 더 제대로 보고 왔다고 하면 “쌀을 무조건 주자”하는 사람들은 “봐라 말이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입니다.

저는 물론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제 체험 중의 하나인 북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옛날 얘기가 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6.25때 군인으로 복진하는 부대와 같이 평안북도에 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군이 올라가니까 모두 피난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우리들을 환영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 때 벌써 김일성장군 노래를 가사를 바꾸어서 ‘죽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때는 전쟁 때였으니까, 잘 먹이지 못해서 ‘죽장군’이라는 소리를 했는지 몰라도, 북한 지역은 나라 같은 것을 만들기 전부터 식량이 풍부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1980년대 후반 동구국가들이 여러 가지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던 모순이 커져서 무너지고 나니까 북한의 경우는 자기네들이 연설에서 시인하듯이 교역대상국 중에 70%를 차지하던 것이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이었는데, 그 교역이 어느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70%가 없어져

버렸더라 이것입니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돈이 있어야 거래를 하는데, 돈은 없고, 70%나 되는 교역이 없는 그런 속에서 경제를 뛰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로서는 주체경제는 안버립니다.

그리고 교역은 동남아시아는 좀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인지, 지금 그쪽을 뚫고 들어가기 위한 것을 준비도 하고 배우려 한다면서 “여러분 도와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미국, 일본을 다니면서 하는 소리이고, 그 일부를 터놓고 좀 배우고자 하는 시범지역이 나진·선봉지역입니다.

대단히 효율성이 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곳곳에 스며있는 교조주의가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또한 긍정적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여러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그리고 군부가 중추가 되어서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과 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넘어가는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과 당 밖의 변두리는 벌써 눈에 띄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라고 할 때 어떤 제도를 의미하며, 또한 그것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그 어떤 제도 또는 기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국가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유사한 것을 일본제국주의 시절에 봤습니다.

일본제국에서, 아마 헌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십니다만, “천황이 일본제국의 제일 높은 기관이다.”라고 말했던 미노베라(美農部)

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지금 동경도지사 하는 미노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천황기관설’ 때문에 그는 결국 동경대학 교수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천황이 주권자입니다. 일본국이 있고 그 국안에 천황이 높은 기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국은 천황의 도구였습니다. 천황주권설입니다. 지금 북한이 제가 보기에 는 그것 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주 “당국자 나와라”하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은 내가 보기에 군대, 즉 폭력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의 마지막 보루로 얘기하는 군대가 국가의 군대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 이것이 그들의 구호입니다.

‘인민공화국 만세’하는 사람 별로 없고 늘 ‘김일성 만세’입니다.

우리는 동격으로 이렇게 하지만 제도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하고 많이 동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은 그렇게 다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조·교리는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한을 보는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또하나 예를 든다면, 이번에 KEDO협상을 하는데, 남한에서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주재하면서 일을 할텐데 그 사람들이 혹시 북한의 법률을 위반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할 때, 뭐를 하면 잘못된 것이 되며, 그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재판을 받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당신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어떤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아무 것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신문에도 많이 봅니다만, 즉결 처분을 했다거나 현장에서 총살했다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공제도를 통해서 재판권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 위가 법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밑의 주민생활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그러한 제도하에서는 우리 한전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신들 재판에 넘길 수가 없고,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고, 결국 그쪽에서 졌습니다.

KEDO가 가지는 영사관할 밑에서 우리 사람들은 이쪽에서 재판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말하자면 제도·국가·기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상대로 지금까지 한 50년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굉장히 많은 별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북한이라는 상대가 이리하고, 또 대북정책이란 것이 모든 정책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닌 것이 많고, 특히 보안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모든 절차를 하나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의미에서 어떤 때는 일관성이 없다는 소리도 듣고, 어떤 때는 독단으로 했다는 소리도 듣고, 어떤 때는 우리의 법절차가 아니라 통치권의 어떤 조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비하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치하는 근본적인 모습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분단의 역사를 뒤돌아 보면서 그 안에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제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던 관계로 해서 어떤 큰 사람이 하나가 죽으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백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북한인 것 같습니다.

만일 김일성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 했는가? 그 권위를 누구에게 갖다 맡겨서 그것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공상같이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데서 오는데, 일종의 성가족 같은 것이 지배하는 제도, 그런 제도가 북한이기 때문에 마침 김정일이 있어서 후계자처럼 되어 있지만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어려움은 물론 여러가지 통계수치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중 제일 큰 어려움의 하나가 ‘세계화’ 추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지금 정치구호 같은 것으로 세계화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세계화는 지금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자꾸 진행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속된 말로, “야! 우리가 테두리 쌓아놓고 우리 안에서 인민을 죽이든 법치를 안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나.”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또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으면 북한은 대단히 오래 갈 듯 싶습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고민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지금 지구상 어디에서 특별한 일이 생길 때 그것이 곧 바로 전 세계의 관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부담이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화의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예로 드는 것이, 미얀마 같은 데서 지금 아웅산수지 여사가 어떻게 한다 할 때 한국에서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 한 말씀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뉴스이고, 그것은 미얀마의 현상을 고쳐가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집니다.

바로 미얀마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스니아가 어떻다거나, 소말리아가 어떻다거나, 국제연합이 그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는 다 응분의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지금 그쪽에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학살이 일어나거나 기아가 발생할 때, 이것 역시 세계의 관심을 모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그냥 국경만 잘 지키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북한문제를 우리와 북한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데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어렵고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북한에 쌀지원을 하고, 그 후에 상당히 강하게 그와같은 지원을 다시는 안하겠다 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있다가 이번에 국제연합을 통한 지원을 일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관성이 없다고 운운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북진통일을 평화통일로 바꾼 것이라면 이것은 일관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상대로 해서 지금 평화·화해·자주 이런 쪽으로 이것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 선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쌀 준 문제를 가지고 외국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한 두말씀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준 15만톤의 쌀이라는 것은 금액으로 따져서 2억 3천만달러 됩니다.

한국이 건국한 이후에 그만한 크기의 원조를 해준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큰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원산지 표시도 하지 말라”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많이 내세웠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관용입니다. 우리가 약세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수해 이야기를 밖에서 많이 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준 쌀은 수해가 있기전 입니다.

쌀을 처음으로 보낸 날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아마 수해가 있는 다음에 떠나갔을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단순히 수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작년 저희들이 준 쌀 원조가 말하고 있습니다.

분단 50년 역사중에 그와같이 관대하게, 그와같이 큰 몫을 한꺼번에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기억할 만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듯이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쌀을 준 것이 잘못됐다거나 아무리 해본들 그들에게서 따뜻한 무엇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낸 것은 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뜻이 담겨져 간 것입니다.

쌀은 먹고 없어졌을지 몰라도 그 뜻이 크게 뻗어나가고 커나가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6.25를 상기하는 행사들이 많았고, 6.25를 상기한다 할 때

는 언제든지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을 상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99% 그것을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쌀 준 6.25도 6.25인데 한 1% 정도라도, 올해가 1주년인데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키워나가지 못하면 통일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한국전쟁 때의 6.25만을 상기해 가지고는 통일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만이 아니고 쌀의 6.25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되, 아직 그것을 크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50년 긴 역사 중에서는 그런 6.25도 하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니까 또 하나 연상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300만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서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100만불은 한국의 분유를 사서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있는 직후에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분이 “2억원 상당의 분유를 그냥 정부에 드릴테니까 그것을 북한에 보내는데 보태서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에서 이것을 지출해서 100만 달러어치를 사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에게, “적십자로 보내셔서 북한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시지 왜 정부를 주시려고 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께서 조금 우물쭈물 하시다가, “부총리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북 출신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때까지 “이북 출신이시니까 더 보내실만한데 왜 적십자를 통해서 못보내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북에서, 말하자면 북한에서 쫓겨 내려오듯이 와서 여기에

사는 분들은 북한이 어려운 상태라고 해서 바로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에 바로 뭔가를 도우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주실 경우 한국의 분유가 대단히 비쌉니다. 국제 분유값의 3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유를 100만불 어치를 구입할 경우 국제값으로 사는 분유의 1/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혹시 2억원 어치를 받으면 한국이 주는 몫으로 더 보태서 주면 모양새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 “그 준비는 농림수산부가 하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일담이지만 복잡한 우유의 정치학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UNICEF담당관이라는 사람이, 북한은 지금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으니까 우유에다 비타민을 섞어서 갈아가지고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분유를 준비한 상태이지만 UNICEF의 요구대로 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알아보니깐 한 20만불 더 든답니다. 그러면 20만불 깎아야 되니까 분량이 더 줄게 되었습니다.

또 분유에 ‘홀 밀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드라이드 홀 밀크’라는 것은 지방분을 빼지 않은 밀크입니다. 지방분을 빼지 않으면 북한 애들이 설사를 할지 모르니까 지방분을 뺀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탈지 밀크’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분이 주겠다고 하는 밀크는 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은 도저히 받기가 곤란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분이 그것을 적십자로 보내서 적십자 쪽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십자연맹이 그것을 좋다고 해서 곧 아마 7월달 안에 떠

나보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분유가 어떻다, 또는 분유의 양이 어떻다, 달러가 어떻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이북 출신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마음이 적십자로 보내기로 바뀐 것, 이것을 저는 대단히 고맙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단 50년을 보내다보니 온갖 일이 다 있었습니다.

역사학도가 쓰면 책 두, 세권은 될 것이고, 심리학도가 쓰면 더 많을 것이고, 경제학도, 정치학도로 범위를 넓혀가면 아마 열권 백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 같이 봉사도 아는 북한론 보다는 이렇게 갈래를 잡은 각론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의 쌀 사정을 계속해서 통일원이 중요한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동안은 남북관계가 그렇게 가까운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쌀 사정을 우리 농림수산부가 자기네 문제처럼 생각을 하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를 위해서 통일원이나 관련부서는 도움을 드리고 준비를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정이 대단히 나쁘다 하는 것은 몇개의 경제적인 수치를 보면 감지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말에 북한의 교역이 55억불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20억불이었습니다.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쌀 사정은 올해는 작년에 있었던 수해를 가지고 큰소리를 많이 합니다만, 수해복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반 이상이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에 있을 수확은, 작년보다도 어찌먼 더 못할 것으로 추정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이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통틀어서 작년에 수해 입기 전에 이미 우리와 일본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안하면 안되었던 사정을 보면, 앞으로 두고두고 북한은 식량사정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길은 농업기술을 갑자기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많이 벌어서 외국에서 쌀을 사먹던가 해야 될텐데, 그 사먹을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북한의 사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위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전부 이어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대를 중시하고 또 군대안에 제1세대라고 할까 군원로들을 높이 모시면서도 실권자리에서는 서서히 물러나게 하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그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을설이라는 개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김일성의 경호 총책임자였다는 이을설 같은 사람이 원수로 올라가서 지금 김일성이 누워있는 궁에 그냥 같이, 그 궁 담당의 제일 높은 사람으로 모셔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진시황하고 같이 묻히는 것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퇴진시키고 있는 작업,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가지를 봐서 김정일이 금방 북한 권좌에 올라앉아 자신있게 북한을 다스려 나가는 것은 아직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년상을 만 3년으로 한다고 해서 늦추고 있는 것이 그런 정치적 사정이고, 경제는 지금 보기에선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나진·선봉지역 개발이라는 것도 김일성 살았을 때부터 굉장히 힘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 비디오를 제가 봤습니다만, 김일성이 죽기 바로 직전에 공개된 자리에서 활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서 책상을 치면서 강조하는 것이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왜 저렇게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좀 흥분이 된 것 같은 상태에서 나진·선봉개발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맡아서 일을 추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그 지역에 주둔하는 조그마한 군대의 부대장이 갖가지 군사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철조망은 저기로 쳐라 하면 그것이 또 며칠씩 가고 이렇게 비능률이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30 몇 억을 투자한다고 처음에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4억 얼마로 축소가 되고, 지금 됐다는 것이 한 2천만불 정도 들어온다 만다 하는 정도로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단설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시범공단을 40만평 정도 지도상에 구획은 했는데, 그 공단을 조성하려면 우선 공업용수가 어디에서 와야 할텐데 그 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물이 아무데도 없는데 지도상에 그림만 그린 것 같은 그런 계획이 아직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우리 지세라든가 이런 것에 밝은 남쪽의 노하우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 감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 되어서 그것이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관성 문제와 연관해서, 저는 이번에 북한에서 15만톤

받아갔는데 그 중에 군량미로 간 것이 있고 어쨌고 하니까 꼭 그것을 준 것이 잘못된 것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무슨 정치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 남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에 대한 평가를 평양에서 받도록 만드는 그러한 전반적 틀(setting)이 좀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5만톤을 줬는데 북한에서 군량미로 전용 안하고 태극기를 그냥 달고 또 배를 잡지 않고 그랬으면 그것은 좋은 정책이고, 북한에서 잡았으니까 정책이 첫머리부터 잘못 되어서 나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많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평가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그런 식으로 계속 평가를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것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평양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경우도 형님이 공부하라고 돈을 줬더니 동생이 술을 먹고 덤뻐다, 그러면 술먹은 동생을 나쁘다고 평가해야지 돈준 형님이 나쁘다 라는 평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형님이 동생이 공부하는데 쓸 것이냐 안쓸 것이냐 다 알아가지고 쓸만한 보장이 있을 때 주어야지 자꾸 주면 자꾸 술먹고 덤비면 되겠습니까 라는 반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한도 안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형님이 또는 아버지가 어떤 때는 돈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벌을 주느라고 종아리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종아리 때릴 때와 돈 줄 때를 놓고 그 아버지가 애를 다루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종아리 때릴 때나 돈을 줄 때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되도록이면 지금 아프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무시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하는 것이 때때로 맞지 않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평론이 많다 하는 것은 다른 경우에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폭 넓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북한문제는 전문가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떠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푸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의 중요성은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론이나 아니냐에 문제가 있지 그 이론이 무슨 정합성에 맞추어서 맞느냐, 안맞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논리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또하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자들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교차승인이니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한이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를 가지면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안정된 변화가 나와서 그것이 통일의 기반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술회의에 가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져서 미국의 영향력이 북한으로 들어가는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기로 가령 합의한다면 이것은 한국외교의 대단한 패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논리이고, 한쪽은 다분히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런 양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북한문제입니다.

얼마전에 미국의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질문하는 중에서, “당신네들은 남아연방에도 핵이 있다고 하고 파키스탄에도 핵이 있다고 하고 이스라엘도 가진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원자로 하나 안해 주면서 북한에게는 비핵화선언을 한지 몇 달 안돼서 NPT탈퇴 하고 나서니까 원자로를 갖다 준다는 것은 뇌물 주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짓이나 말도 안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브레진스키는 이론적으로 보면 당신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꼭 맞는데, 현실적으로 자기는 한 두 가지쯤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옆에 일본이 있어서 북한에서 핵폭탄을 가지면 일본이 안 가질리 없고, 일본이 가진다는 것은 진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북한의 핵은 어떻게든지 못가지도록 봉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남아연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아연방이나 파키스탄은 그래도 그 리더십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일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하자면 예측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우선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상의 명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논리만으로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꾸로 우리에게 당신들은 얘기를 해보면 전부 북한은 믿지 말라고 하는, 말하자면 강경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경파니까 북한이 어떤 소리를 해도 믿으면 안된다고 하지만, 이런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그럼 할 수 없다, 영변 폭격이다라는 결론이 나면

한국은 강경파고 온건파고 다 나서가지고 절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논리냐는 것입니다.

우리측에서는 상당히 답변이 궁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을 치러본 사람으로서는 논리, 이런 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우리의 그런 반응, 비논리의 반응까지 합한 것이 우리가 다루어야 될 대상이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북한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면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북한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 선도적 역할

국회 안보통일정책연구회 창립총회 축사 (1996. 7. 24)

존경하는 조용규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먼저 오늘 ‘안보통일정책연구회’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오늘의 세계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거대한 조류위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반세기가 넘는 오늘에까지 냉전적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여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북한도 적대와 폐쇄의 벽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화해와 협력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바로 여기에 북한의 앞날과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통일을 관념적으로, 감상적으로 그리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통일은 현실적 과제로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도 총론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 분야별로 각론화 되고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북한사회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토대위에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당국을 넘어 엄연히 존재하는 북한주민들을 시야에 넣어야 합니다. 이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이룬 번영의 혜택이 북녘 땅에도 전해지고 통일조국의 앞날에 대한 신념을 남과 북이 함께 할 때 우리 민족은 진정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조국은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가 구현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변국가들의 협력을 비롯, 세계와 함께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과업을 온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민주사회로서의 다원성으로 인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참으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갈래의 생각과 뜻을 하나의 줄기로 모아 나가는 데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나라를 이끄시는 의원님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대비도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통일대비의 과제만큼은 역시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국회의 선도적 역할은 대단히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간의 협조는 가일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야 중진들이 참여하는 ‘안보통일정책연구회’의 발족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의의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남북관계 상황이 비록 어렵더라도 국회, 정부, 나아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 노력할 때 통일조국은 눈앞에 성큼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발족하는 이 모임이 국민의 굳건한 합의와 참여 위에 차원 높은 통일대비의 장을 열어 나가는 견인차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준비의 각론화

국회 통일외교정책포럼 창립세미나 축사 (1996. 7. 26)

존경하는 양성철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

먼저 ‘통일외교정책포럼’이 창립된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첫 세미나에 참석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세계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거대한 조류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들의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유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협력하면서도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세기에 걸친 냉전체제가 무너진 터 위에 미국이 유일한 초강국으로 남아 있으나 러시아·중국·일본, 나아가 유럽국가들도 강대국으로서 새로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는 이 지역에 대한 주변국들의 치열한 영향력 확보경쟁으로 격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동북아지역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내에서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역할까지 확보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북아 질서 창출에 주도적 몫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중국과 안보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대 한반도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가 맞고 있는 상황은 지난 세기말 우리의 선조들이 맞았던 그것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동북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바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국제적 고립, 그리고 만성적인 식량·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분단 이래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남 적대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아가 한국을 배제하는 바탕위에서 미·일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변 4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과 북한의 대서방 접근은 우리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새로운 사고와 전략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의 전도에 대한 예측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장래에 대해 연착륙, 조기붕괴 등 여러가지 설이 난무하지만 아무도 이를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날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분석은 북한에 대한 기본적 관점

에 따라 현저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환경의 격동, 북한의 대남적대전략과 그리고 북한의 불투명한 전도 등은 통일문제 추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단된 한반도보다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조국은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가 구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변국가들의 협력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세계와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현재 한반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4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자회담도 당사자해결 원칙의 수정이 아니라, 그 원칙을 국제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각별한 의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는 남북한이 주도하되, 그것이 실효를 거두려면 미·중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긴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도 세계와 함께 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통일외교정책포럼’이 창립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당국을 넘어 북한주민들도 우리의 시야에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북한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15만톤의 쌀을 아무런 조건없이 북한주민에게 제공한 것도 이같은 동포애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동포애 차원의 지원은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본다면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이룬 번영의 혜택이 북녘 땅에도 전해지고 통일조국의 앞날에 대한 신념을 남과 북이 함께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민족문제를 푸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하나임을 인식하고 동포애에 입각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통일은 관념적 감상적 논의에서 벗어나 현실적 과제로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나아가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도 총론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 분야별로 각론화 되고, 더욱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통일의 주체가 되고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통일의 그날은 훨씬 앞당겨질 것입니다.

특히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국회와 정부간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사실상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민족사회로서의 다양성으로 인해 통일문제에 관한 한, 참으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갈래의 생각과 뜻을 하나의 줄기로 모아나가는 데에는 국

민의 뜻을 대변하고 나라를 이끄시는 의원님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모이신 의원님들께서 통일논의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충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중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회의 선도적 역할을 맡아주시고,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모임에 불러주신 양성철 회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

프랑스 Le Monde 인터뷰 (1996. 8. 22)

기 자 외국인들이 보기에 최근의 한국 대북정책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 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북한은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동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현실을 고려하다 보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 자 김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아주 새로운 것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50여년간 분단되어 온 상황 가운데 제기되었던 것들을 재규명하는 것이었으며, 내용에는 우리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김대통령은 남한의 대통령일 뿐아니라 북한동포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의 안녕과 번영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이 표명되었습니다. 즉 북한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기 자 현재 남북대화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당국간 대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나, 여러 경로를 통한 접촉을 쌓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 자 4자회담 제의에 대한 의견과 북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4자회담은 지금 휴전상태에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조약을 이루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경제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협력도 당국간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북한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 자 본인은 나진·선봉 지역에 가본 적이 없으나 사회간접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 현재는 토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문제가 정치에 걸려 있는데 일본과 같이 정경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회가 있으면 북한에 조언을 해주기 바랍니다. 혹시 북한에 친구가 있습니까?

기 자 파리의 UNESCO에 나와있던 사람을 알고 지냈는데 북한 사람으로서 드물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로마로 갔는데 그 후의 소식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총리 북한은 종종 외부사람들을 놀라게 하니 어찌면 그 사람이 이번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 나타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일본경제인 중에 지인이 있습니까?

기 자 약 20여명쯤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나 일부는 조총련에 관계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투자설명회 참가 신청 마감이 8월 중순이었는데 1차까지 150명 정도, 그리고 2차 마감을 마친 현재 약 220명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경의 외국언론 특파원들도 신청은 했으나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진·선봉에 가는 기자들은 숙박을 배에서 할 것 같으며, 주로 신문기자들이며 CNN방송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 ‘리베라시옹’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 자 재정문제로 사주가 바뀌었으나 같은 이름으로 신문은 계속 발간

되고 있습니다. 사주가 바뀐 뒤 새로운 포물라를 시도했으나 반응이 좋지 않아 과거 포물라로 돌아갔습니다.

부총리 새로운 포물라라면 무엇입니까?

기 자 거시적인 정치, 국제관계 문제보다는 독자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된 기사를 간략하게 많이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르 몽드지도 새로운 포맷을 시도했는데, 이는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운 연출을 시도하는 것이었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르 몽드 역시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독이 늘었으나 이로써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총리 르 몽드지는 일본 신문과 협력하고 있는지요?

기 자 아사히와 재휴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아사히 신문은 사주가 마쓰시다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일본신문은 사주가 바뀌어도 논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 자 일본신문은 남북문제를 보도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인상입니다. 혹 일본방문 계획은 없으신지요?

부총리 그 쪽에는 통일원이 없어서 나의 상대자가 없습니다.

기 자 이제 한국이 통일원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 우리 통일원 직원 한 사람을 동경에 파견하여 북한에 관한 업무를 보게 할 것입니다.

기 자 일본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 대량 난민이 일본으로 오게 될까봐 두려워한다고 하는데요?

부총리 일본은 난민 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대단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기 자 현재 북한 난민이 많이 오고 있는지요?

부총리 그 수에 있어서는 많지 않으나 증가율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 자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르는 대량난민 사태에 대한 귀측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사태대비에 대한 지역, 방법 등을 현재 연구하고 있으며 예산문제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기 자 만주에서 한인 기독교인들이 북한난민을 만난 적이 있는데 만주의 한인들이 북한난민 유입을 짐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 지역에 가서 난민들을 취재하고자 합니다.

부총리 우리는 북한주민들이 다 빠져나와 북한이 비워지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북한주민은 북한에서 북한을 변화시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측으로 오는 것을 굳이 막지는 않으나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 자 혹 북한난민에 대한 자료가 발간된 것이 있으신지요?

부총리 별도 자료는 없으며 현재까지 남측으로 온 난민은 약 500명 정도입니다.

기 자 중국에 있는 북한난민의 수는 얼마입니까?

부총리 정확한 수치가 알려져 있지 않으며 7천명 정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난민문제는 유엔기구들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난민들은 모두 한국에 오기를 원하고 있으나 일일이 진정한 난민인지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정부는 이 문제에 개입하길 원치 않고 있으며 난민들이 자력으로 한국에 가는 것은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에도 우리 직원을 1명씩 파견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기 자 바쁘신 중에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태시대에 기여하는 통일

부산일보주최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격려사 (1996. 9. 3)

정한상 부산일보사장님!

문정수 부산광역시장님!

시미즈 히카루(清水晃) 서일본신문 사장님과 친사오더(秦紹德) 상해
해방일보 사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오늘 부산일보 창간 반세기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이렇게
성황리에 열리게 된 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 깊은 경륜을 지니신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새로운 백년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급속한 변
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거대한 조류위에서 국경과 피부색,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지구가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냉전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진 터위에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유와 번영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화해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입
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는 어느 지역보다도 역동적인 발
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위대한 '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북아는 또한 역내 국가들간의 치열한 영향력 확보 경쟁 아래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계속 무한한 번영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갈등과 대립으로 다시 혼란의 길로 떨어지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향방은 앞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확고히 유지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은 경쟁에 따른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번영을 향한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더없이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좌우하는 관건은 바로 한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화해와 협력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도 한반도만이 여전히 냉전적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북한의 내부사정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경제난을 비롯하여 숏한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정권수립 이래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그 탓을 전가하고 내부를 통제할 수 있는 '외부의 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한반도에 긴장을 끊임없이 조성하고 한국에 대해 적대정책을 추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남북간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에 관한 기본입장을 천명한 것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안정을 희망하며 고립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같은 ‘평화와 협력’의 정신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이 함께 한 4자회담 재의에도 담겨 있습니다.

4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이 회담에서 또한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 차원에서 남북간의 협력문제도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만성적인 식량난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미화 2억 4천만불에 달하는 쌀을 우리 배로 북한에 직접 보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그 규모에 있어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같은 우리의 선의가 아직 남북간의 화해·협력으로 이어지는 못하였지만, 저는 이것이 남북관계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정부는 또한 지난 6월, 유엔기구를 통해 북한에 200만불의 현금을 지원하였으며, 100만불 상당의 현물 지원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단체들도 모두 7차례에 걸쳐 150만불 상당의 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식량난이 구조적인 것으로서 결코 일시적인 일회성 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간 농업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장비대여 등을 통해 수해농지를 복구하는데 남과 북이 힘을 합한다면 북한은 식량난을 훨씬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남북경협을 본격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남북교역의 확대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관광객의 북한방문을 허용하는 일은 북한에 대해 짧은 기간 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원활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이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4자회담을 통해서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4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신뢰,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함께 얻게 될 것임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4자회담의 성공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갈라진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역사의 순리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민족의 통합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는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협력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성취되는 날, 동북아 전체의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지역을 지구촌의 축복을 받는 번영의 땅으로 만드는 든든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민족만을 위한 통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평화·번영이라는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통일조국을 이루

자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민족의 통일로 아시아·태평양시대를 꽃피우고, 평화와 번영의 21세기를 창조하는데 더 크게 기여하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모임이 '세계와 함께 하는 통일'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한반도 통일의 굳건한 후원자가 되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모임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동북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21세기를 여는데 소중한 보탬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심포지엄에 초청해 주신 정한상 사장님과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통일의 첫 걸음

제15회 이산가족의 날 격려사 (1996. 9. 20)

일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산가족 여러분!

오늘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이산가족 여러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써 오신 ‘일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이 실시된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의 제의에 의해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지 만 4반세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물론 생사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남북한간에 놓여있는 많은 현안문제 중에서도 분단의 가장 큰 아픔을 겪고 계시는 이산가족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정례화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판문점에 ‘이산가족면회소’, ‘우편물교환소’만이라도 설치하자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에는 적십자총재가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적십자연맹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서도 남북사이에 놓여 있는 인도적 인권적 문제의 해결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상응하는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저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해안에서 발생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산가족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만나고자 하고, 부부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막을 수 없는 천륜입니다.

이산가족문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도적인 과제입니다.

분단 반세기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이산가족들이 이미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들의 가슴 속에는 가족과 고향을 향한 단장의 비애가 끓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닌 최소한의 인도적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서는 평화통일의 큰 길을 결코 열 수 없다는 것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통일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우리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더욱 헤집는 것일 뿐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위해 크나큰 우를 범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자는 우리의 제의에 북한이 하루 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산가족 여러분!

오늘 이산가족의 날 행사가 남북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촉구하는 하루의 일로 그치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쉬운 일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이산가족들의 자유왕래와 재결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일천만이산가족 여러분, 나아가 온 국민의 지혜와 힘이 함께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훌륭한 결실을 맺어 내년의 이 자리가 남북이산가족들이 서로 소식을 전하고 다시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일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위원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평화정착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 (1996. 9. 30)

존경하는 박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5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통일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 통일원을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전반적으로 체제불안정 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중심의 과도적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남조선 혁명노선에 기초한 대남 적대전략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주적으로 삼아, 이를 내부결속에 이용하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교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사건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관계개선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가 4자회담을 제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은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신뢰,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모두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대남적화 혁명전략이 아니라, 4자회담의 성사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은 잠수함과 무장공비들의 송환요구에 앞서 잘못을 시인, 사과하고 관계자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수재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적을 통해 9차에 걸쳐 밀가루와 분유, 담요 등 179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경협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됨은 물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활성화조치('94.11) 이후 33개 기업이 북한을 방문하고 10개 기업이 협력사업자로 승인되었습니다.

남북교역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는 일본에 이어 북한의 두번째 수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수출액의 30%를 우리에게 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교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냈습니다.

북한이 지난번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 당초의 합의를 깨고 우리 대표단을 선별 초청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대표단의 참가를 거부하였지만, 이 지역의 개발도 우리 남쪽을 배제하고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8월 22일부터 뉴욕에서 진행되어 온 KEDO와 북한간에 부지인수 및 서비스이용 의정서 2차 협상은 현지 실무대표간에 의정서 문

안에는 일단 합의를 보았으나, 아직 관련국 정부의 검토 및 승인 절차와 서명·발효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일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서명시기를 포함, 관련사항을 신중히 검토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된 바와같이 최근 탈북자가 증가하고 일부 귀순자는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차원에서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탈출주민에 관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입국 북한탈출주민의 체제적응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통일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면서 북한이 평화와 협력의 큰 길로 나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기탄없는 지적과 충고를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수행에 최우선적으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관계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한 당국간 대화

한국경제인동우회 세미나 강연 (1996. 10. 9)

오늘 모임은 중견기업인의 모임으로서 ‘중견’이라는 말에는 제 나름의 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달 9월 중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을 모색코자 하는 취지의 나진·선봉지역 투자설명회에 우리측 기업이 참여하고자 했을 때 ‘중견기업’이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세계에 널리 알려진 대기업보다 중견기업들이 참여하여 그곳 현지 사정을 관찰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그들을 돕는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무엇인가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투자설명회 참가가 성사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많은 정치적 요인 등이 개입된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잠수함이 북한을 출발한 시점이 13일이었다고 합니다.

둘이켜 보건대 투자설명회가 9월 13일에 시작되기로 되어 있어 한편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른 한편으로 잠수함을 침투시키는 상황에서 북한측은 상당히 분주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남북한관계의 특성이며, 이와 같은 일들이 남북관계에서는 빈번하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외부로부터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북관계 상황에서 일관성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일관성을 봄과 가을 동일한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일관성의 어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고 여겨집니다.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버지나 형님이 아들이나 아우를 훈계할 때 때로는 매질을 하고 때로는 돈을 주어 달래는 일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관성과 관련하여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일관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대북정책의 기초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기초는 간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평화정착 없이 통일로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평화의 정착은 통일의 첫걸음이며 그것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문제

인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것, 실례로서 제네바 핵합의나 4자 회담 개최제의 등이 우리의 정책기조입니다.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북한이 저지르는 각종 도발 등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점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이에 대해서 그 대가는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적정하게 치르는 것이 옳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며 이는 적대관계에 놓인 선례의 국가들이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비록 사소한 일에서라도 대가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서로의 관계에서 확인하고 넘어갔던 것을 좋은 교훈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추진 과정에서는 베트남 등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분단국가들이 자주 거론됩니다. 특히 독일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으며 통일원은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달리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관계에서조차도 통일의 실현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단어속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더불어 살면서 통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경우 일부 성급한 분들은 ‘분단고착화’로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고착화’라는 단어를 것처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남북한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 동안의 치열한 적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보다 뜨거운 통일에의 염원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분단은 고착화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평화의 정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화정착 없이는 적대감의 확대 재생산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분단 50년동안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경제가 우선시 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그러나 적대관계를 증대시키는 군사분야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사이에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생각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군사분야가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경제관계 등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객관적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이를 위한 길이라고 말하기에는 각박한 것이 어제와 오늘의 사정이라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이야기가 가능하겠습시다만 우리는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북한에 대해 말하는 경우 ‘핵심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들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견해를 제시하고 많은 경우 믿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북한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하여 경제관계 등을 맺어나가는 경우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으며 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얼굴은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특히 김일성사후 정치적 상징조작 문제와 관련하여 김일성이 그들 말대로 위대했다면 그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백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백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서 연유하는 많은 불안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들이 하고자 했던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관성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관성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김정일의 말입니다.

변화를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북한의 상황을 웅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설치와 위탁가공 등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나 북한내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은 대단히 약한 것 같습니다.

희랍 시지프스 신화와 같은 상황, 이것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총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변화거부는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이러저러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타진해 보자고 하는 태도를 경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우리도 냉전시대의 방식으로 대응하며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국회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적’인 동시에 ‘동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인 동시에 동포인 북한을 상대로 하여 어떤 경우는 동포의 모습이, 어떤 경우는 적의 모습이 크게 보이는 경험을 50년간 겪어 왔습니다.

6.25 직후에는 북한을 완전히 적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총을 직접 겨누지는 않는 남북한관계

로 전개되면서 특히 젊은 세대 등에서는 동포의 얼굴을 보려거나 동포의 얼굴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을 어느 한쪽 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

큰 줄기가 있다면, 따라서 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면 적의 요소, 적의 모습을 조금씩 줄여가고 동포의 요소, 동포의 모습을 늘려가는 노력이 훗날의 통일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줄기로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었고 전반적인 추세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일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태가 있는 후에 새로운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발이라도 진전하는 문제는 검토 후에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당사국과 물론 협의해야겠지만 큰 줄기의 기초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은 해가 되, 결국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값을 치르도록 하는 생각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 동안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오늘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적의 모습을 보기보다 동포의 모습을 보아야 할 계제가 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정부와 함께 생각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원칙에서부터 작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작은 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서부터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위로 올라가는 식의 사안을 검토하는 방법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잠수함이 침투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

르나 북한에서도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설치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부류가 있다거나 경수로관계 교섭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데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두가지의 작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9월 18일이었습니다. 그 때 뉴욕에서는 경수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용역과 관련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마지막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경수로관련 노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진·선봉지역에 투자하려 할 경우 북한 노동력의 노임이 낮아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며, 그 노임이 얼마인지의 여부에도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특구를 선언하면서 그 곳의 노임을 낮게 책정하였는데 80달러입니다. 우리 나라는 일반노동자의 경우 노임이 월 2,000달러 정도 됩니다.

노임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는 북한에 투자할 경우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0달러는 대단히 작은 액수입니다.

처음 나진·선봉지역의 노임을 80달러로 거론할 때 통일원이나 외무부는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의 생각이 미흡했던 것은 80달러에 대해 일본사람은 일제히 비싸다고 한 점이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사회주의국가가 자본주의국가를 처음 배우면서 추진하는 것이 외자유치로 중국의 경우 60달러, 베트남의 경우 50달러인데 북한이 80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자설명회가 끝난 후 북한측에서 처음 얼마의 기간동안 30달러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차원의 말로써 하고 있었다는 사실

을 알고 있습니다. 나진·선봉 이외의 지역에서는 110달러 정도 되는 노임이라 합니다.

경수로관계 노임교섭에서 9월 18일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알려지자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측에서는 경수로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지 않는 측에서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은 남한을 비방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우리 대표중에는 북한 내부에서 경수로사업을 지지하려는 부류에서 조작해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협상은 10월 4일에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노동인력이 외국에서 받는 노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경수로부지가 북한내이지만 KEDO에 일임하여 외국인과 동일하고 외국에서 받는 노임이 다양하므로 처음은 300달러 정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렬시에는 300달러가 아닌 700달러 수준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때는 추석 연휴 기간중이었으므로 북측 대표들도 평양에 돌아가 추석을 지내도록 하고 협상을 종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북한측에서 귀로의 비행기 탑승 직전에 회의재개를 요청하여 그 회의에서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사항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북측은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 우리가 서명을 할 수 있는 절차적인 상황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문안정리만 하고 각국에 보고하는 선에서 종료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발표하지 않고 있었으나 북한측 중앙통신은 이제 기공식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먼저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외교교섭을 할 때 '벼랑끝 전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변하는 경우를 그 동안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상한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것이 경수로관계 협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빈번히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붕괴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북한을 유지하고 있는 군부와 당 등 핵심적인 부분이 무너진다고거나 흔들리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심부분이 아닌 변두리는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느냐 않느냐의 측면에서 볼 때 변두리 부분은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나진·선봉지역 투자설명회의 예에서 처럼 자기식대로 결정하고 약속을 어긴다든가, 투자설명회를 하면서도 잠수함을 침투시키는 그런 상황속에서도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과의 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간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북한이 남한의 경제인들을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측이 규제 등을 통해 못가게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으며 경제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과정에서 북한이 천백배 보복하겠다는 성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국민의 누군가가 북한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가 중에는 위험부담을 자기의 책임으로 하고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정부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방북을 허락해 달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부가 국가에 관련된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의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비록 개인의 재산이지만 이를 마음대로 유출시킬 수 없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러나 경제인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국민의 재산이란 법제상 개인의 것일 뿐, 동시에 국가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당국간의 대화를 기피하므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당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 끌려 다니는 것으로 느끼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터무니 없는 자학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 우리가 안타까워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 당국간에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북한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 그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투자하기가 쉬워집니다. 투자하기가 쉬워지면 북한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북한에게 여러분이 그 점을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북한에 가고자 하는 경우 접촉승인이나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당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절차는 필요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북한을 위해 좋은 일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북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직접 이야기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남한기업인이 시찰만 하고 돌아가서 소식이 없는 것은 남한당국 때문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남한과 교류·협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기업가에게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반문했습니다.

그 분이 자신의 소견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한정부가 막아 투자 등이 어려운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모든 사람이 정부와 동일하게 생각하란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북한과 경제관계를 맺어갈 경우 당국간에 합의가 있으면 사업추진 등이 훨씬 용이하리라는 점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각기 개인의 요구대로 허락하고 북한에서 불미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엄연한 현실의 상황하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는 90년대 이후 평균 4.5%의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속에서도 7%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남북한 격차는 훨씬 크게 됩니다.

금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성장율과 관련하여 마이너스 6~7%라는 집계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외에 공장가동율은 30%로 매우 낮으며 70%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나진·선봉지역 투자설명회에 다녀온 미국과 일본인의 이야기를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인은 해방 당시 현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50년후 나진·선봉에 가게 되었습니다.

51년 동안 완전히 잠들어 있던 곳이 나진·선봉이라는 표현이 실감이 났습니다. 일본식의 표현가운데 ‘우라시마따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처럼 50여년 동안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인은 북한의 정유공장을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살 뻔하였다는 익살스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북한의 사정입니다. 이에는 다소 과장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태에 직면한 북한, 그러면서도 허장성세를 부리는 북한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사정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북한의 대체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제 말씀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안정은 평화와 협력으로 가능

서울신문주최 국제포럼 기조연설 (1996. 10. 18)

서울신문사 손주환 사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서울신문 창간 50돌을 맞아서 이를 기념하는 제2회 국제포럼이 성대하게 열리게 되는데 대해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한반도 문제에 높은 식견과 경륜을 지니신 국내외 석학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는 지금 이념과 체제를 둘러싼 단절과 대립이 물러서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큰 조류위에서 인류는 '평화와 번영의 지구공동체' 건설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시계추는 여전히 그 냉전시대의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한반도의 현실을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이어 도리어 보복 운운하며 위협하고 양민을 학살한 북한의 만행은 우리 국민을 분노케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전협정의 준수와 남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번 사태가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직결되고 나아가 전세계의 앞날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에서 여전히 반목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현재 국제적 고립에 더해 극심한 경제난 등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많습니다.

2년여가 넘도록 최고권력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체제균열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체제위기를 대남 적대전략의 추구를 통해 타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내부를 통제하고 이완되는 체제를 결속시키기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적대전략은 얼마간은 통제와 결속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위기를 타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적대전략은 오히려 그들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한층 더 심화·가중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은 이제 생존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북한의 안정은 '평화와 협력'

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의 평화’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정말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지만, 아직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이제 스스로를 위해서나 21세기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대남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잘못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명백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도발행위가 마치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넘길 수는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북측이 백배, 천배 보복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국민의 신변안전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의 분명한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방시혜적이거나 교섭에 의하지 않는 대북지원은 재고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들끓는 여론은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그 어떤 전진적 조치도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북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앞날을 위해 북한에게도 반드시 교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당연히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각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소중히 여겨지는 때는 달리 없었습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를 지킬 의지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무장공비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케 하고 있습

니다.

특히 북한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안이하고 선부른 환상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일깨웠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얼마든지 무모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안보태세를 종합적으로 재검점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당면한 구체적 과제입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나아가 평화통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의 바탕이 확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제의한 4자회담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자회담의 성사는 북한이 안정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4자회담 개최의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이러한 전환기에 전도를 알 수 없는 북한 김정일체제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의 모임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한반도의 밝은 앞날을 위한 고견들이 개진되어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의 지구공동체 건설'에 중요한 일역을 해나가는데 소중한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찾아 멀리 해외로부터 오신 분들에게는 이번의 여행이 보람과 함께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에게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뵙는 영예로운 기회를 주신 손주
환 사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경제 역할 개요

통일경제연구협회 정책세미나 축사 (1996. 10. 24)

통일경제연구협회 김기환 이사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참석자 여러분!

먼저 오늘 통일경제연구협회가 주최하는 제3차 통일경제 정책세미나가 성대하게 열리게 되는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문제에 대해 많은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지니신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대남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극명하게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함은 물론 전 세계가 지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두차례에 걸쳐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고 국민적 안보태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여야 지도자들은 '영수회담'을 갖고 현 안보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안보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전협정의 준수와 남북한 대화를 통한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우리 영해침범행위를 규탄하고 정전협정의 준수와 4자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는 ‘의장국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수많은 북한의 대남도발행위가 있었지만, 국제사회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면서 공동대응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평화’와 ‘남북간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포용적인 자세를 천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북당국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유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도발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금 북한은 국제적 고립, 경제난 등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북한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90년 이래 연 4.5%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파탄의 길을 걷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완돼 가는 내부를 통제하고 무너져 가는 체제를 결속시키기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절과 적대는 위기를 타개하는 근원적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립과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북한은 이제라도 동포로서의 제 얼굴을 찾아 우리와 화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 길을 열려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 있듯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시적인 시인·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이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 것은 향후 북한의 남쪽을 향한 자세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한반도의 시급한 당면과제가 평화정착임을 절감케 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확고히 보장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도, 나아가 평화통일의 성취도 불가능합니다.

지난 4월의 4자회담 재의는 바로 이러한 뜻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4자회담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4자회담을 통해 북한은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 차원에서 북한에게 많은 경제적 실리를 안겨 줄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들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당국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물론,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4자회담에 무조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남북관계의 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통일을 향한 우리의 신념까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늘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간에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어 그 어느 분야보다도 경제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는 참으로 큼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의 절실함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의 뜻과 역량을 한 줄기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환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통일경제연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보람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없는 통일은 무의미

나라미래 준비모임 강연 (1996. 10. 29)

최근에 만난 한 독일인사는 잠수함 사건을 보면서 “북한이 세다”는 느낌보다는 “북한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약하면 다루기가 쉬운데 아니고, 약하니까 더욱 어려운 것인데, 지금의 북한이 바로 그 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약하면서도 무기가 많으니까 더욱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진·선봉 설명회에 참가를 결정하면서 북한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말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UNIDO를 통해서 선별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입장을 전했습니다.

비엔나 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정부의 문서로써 선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참가하는 나라도 직업도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선별초청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인 방북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설명회가 있던 바로 그 날 북한 잠수함이 우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일본 참가단이 설명회에 참가하기 위해 동해로 올라갔는데 그 바다 밑으로 잠수함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배고프고 약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다루기 쉽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북한이 어렵다는 사실은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의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 6~7% 정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한 이광수도 남북간 경제에 대해 ‘굉장히 큰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배급하는 배급제도하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줄 게 없어서 배급제도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의 경우 처음에 작은 규모로 시작한 농민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래 만났던 한 미국인이 평양의 농민시장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보통강유역에서 농민시장이 열렸는데, 거기에는 북한 화폐가 통용이 안되고 물물교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외화시장에서 살 수 있는 돈은 대단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을 보면 우선 혐오스러운 인상을 보이던 북한 사람이 최근에는 ‘헬로’, ‘바이 바이’를 말하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배급이 잘 안되고, 시장도 엉망이며, 전과 다르게 외국인을 우대하려 한다는 게 요즘은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인듯 합니다.

북한이 옛날부터 식량수입을 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수입할 돈도 없고 과거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지원해 주던 나라도 없고 해서 더욱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자본주의로 일반화되어 있는 국제시장에 적응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2억 4천만불 되는 쌀을 보냈는데, 이는 북한에 수해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수해가 겹쳐 사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사이에 1,000명의 아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살아 생전에 ‘하루에 만 톤’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0,000톤×365일 하면 대충 360만톤이 주식용으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여기에 사료 등을 합쳐 600만톤 정도가 북한의 필요량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생산량과 외부로부터의 지원 등 이것저것 합쳐서 따져 보면, 대충 250만톤 정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KEDO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태도를 보면 9월 24일까지는 아주 강경했습니다.

잠수함 침투사건도 “KEDO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이 조작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평양의 연락을 받은 북한대표단이 우리측 안을 다 수용하겠다고 나왔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더욱이 희한한 것은 발표문제인데, 보통 남북간 합의가 있으면 우리측이 먼저 발표하는게 보통인데 북한이 서둘러 먼저 발표해 버렸습니다.

잠수함사건 문제도 초기에는 북한이 굉장한 욕설을 늘어 놓았습니다. 5일 정도 늦긴 했지만 잠수함과 탑승인원이 북한측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분단 50년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KAL기 폭파사건을 포함, 북한이 스스로의 소행이라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밖에서는 ‘천배 백배’ 보복위협이 있었지만, 북한내에서는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한 번도 보도가 없었습니다.

김정일이 지도하는 인민군의 잠수함이 실수로 좌초한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북한은 동포이기도 하고 적이기도 합니다.

6.25때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평화는 아니지만 총 안쏘는 기간’이 지속되면서 북한이 동포라고 하는 생각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보다는 평화가 중요합니다. 평화없는 통일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른바 ‘남북당사자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두고 통일문제가 남북간의 문제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분단이 우리끼리 한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통일에도 다른 이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통일을 하자면 우리의 통일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4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러시아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서는 통일이 어려울 것입니다.

통일논의에 거품을 빼는 게 필요합니다. 통일논의에는 가슴 뭉클한 얘기도 있고, 철학·심리학·사회학·경제학 등 모든 분야의 이론적 논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게 통일로 다 포장되어 있는데 갈래를 치고 거품을 빼야 진짜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통일논의는 냉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의 혼’ 운운하면서 만주, 시베리아를 얘기하면 중국, 러시아가 싫어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잘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득을 보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듯하고, 거꾸로 우리가 득을 보면 북한이 배 아파하는 게 지금의 남북한관계입니다.

양쪽이 다 잘 되는 방향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통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3단계 통일’, ‘5단계 통일’ 등 다양한 통일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누가 ‘4단계 통일’을 주장하면 큰 일 날 것처럼 말하는데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서는 무엇보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수로 사업을 하게 되면 6,000명 정도의 남북한 사람이 작업장에서 같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1,500여명이 남쪽에서 올라가고 4,500명에 달하는 북한 사람이 현장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의 노임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게 이번 KEDO의 협상의제였습니다.

북한은 노임으로 3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나진·선봉지구에서는 80달러이고 다른 지역은 110달러이지만(대우 남포공장은 110달러), KEDO의 신포지역은 그런 값으로 못한다는게 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외국에서 일하는 게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측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남이 30달러, 중국이 60달러, 버마가 30달러 정도인데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경제라는 것이 남북이 더불어 할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남북 접촉방식은 중국과 다릅니다. 중국은 고위급접촉은 없었지만, 200억달러 교역에다가, 연 100만명 정도의 내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북 총리가 8번 만나고 기본합의서를 만들었으나 문서로만 끝났을 뿐 실질적 합의사항 이행은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북접촉 방식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일이 되려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통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를 적극 모색해 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판문점이 ‘화해의 광장’으로 변전 기대

판문점 「자유의 집」 신축기공식 치사 (1996. 11. 13)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시공회사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분단의 현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곳, 판문점에서 ‘자유의 집’을 새로 짓기 위한 기공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문점은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지역으로서 오랜 세월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한의 민족 분단사를 증언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널문리’라고 불리어졌다고 하는 이곳 판문점은 1950년대초, 6. 25 전쟁종식을 위한 휴전회담의 장소로서 그 이름이 내외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된 휴전회담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2년 10일 동안 무려 1,076회에 달하며, 이 휴전협정에 따라 판문점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회의장소로서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판문점은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 지르고 있는 휴전선 전역에서 비무장으로 남북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곳 판문점에서 남과 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우리측 지

역의 '자유의 집'과 북측 지역의 '판문각'입니다.

1970년대초 판문점이 다시 한번 남북대화의 장으로서 온 민족의 이목과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되었을 때, 남북 쌍방의 대표들이 이 두 건물을 번갈아 오가며 회담 또는 접촉을 가졌던 것은 많이 알려진 일들입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의 집' 신축 기공식을 가지는 것은 단지 지은지 30년 이상 경과한 현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이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고자 하는 정책의지 표명의 일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오늘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현실을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지금 이 시각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도 없을 것입니다.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세계인이 모두 '평화와 번영의 지구공동체 건설'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이 유독 민족분단의 아픔을 언제까지나 감내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판문점에 '자유의 집'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판문점이 남북간 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다져나가는 '화해의 광장'으로 변전되기를 기대해 보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 짓게 되는 '자유의 집'은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통일 의지와 염원이 담겨있는 건축물인 만큼, 통일이 된 후에도 통일과정 및 민족분단사 등을 돌이켜 볼 수 있는 '통일자료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번 '자유의 집' 시공을 맡게 된 시공사 여러분께서는 이 시대 분단극복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설계 의도를 살려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튼튼하게 잘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자유의 집' 신축 기공식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 수석대표 차기문 장군을 비롯한 관내
군부대장과 중감위 대표단, 파주시 기관장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에 편에 선 4자회담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조찬대화 (1996. 11. 15)

부총리 재임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답’이 아닌 ‘의문’을 가지고 정부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의 쌀 15만톤 지원에 대해 국내의 지자체 선거와 연관시켜 이를 평가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순수한 정부의 지원의 뜻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쌀은 액수로 2억 4천만불에 해당하며,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쌀의 경제학·사회학적 고려는 전혀 없이 수송중에 일어난 돌출 사건으로 그 본래의 뜻이 희석된 것은 유감입니다.

4년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시 샴페인의 향기가 채 없어지기도 전에 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냉전기류가 후퇴했지만 한반도에서는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북간에 약속 같은 것을 하자는 것이 4자회담 제의였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문제화 되면서, 6월 중순 WFP, UNICEF 등의 호소에 호응해 우리는 300만불의 대북 식량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는 3원칙을 잠시 덮어두고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80년대까지 WFP를 통해 1억불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제는 우리도 주는 쪽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고, 더욱이 북한 주민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8월의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결정했고 UNIDO에게 아무런 차별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북한의 각서까지 받았었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나진·선봉 투자설명회가 열렸던 날 잠수함이 북한을 출발했고 현재 남북관계는 ‘애기’를 주고 받는 관계에서 ‘총’을 앞세우는 관계로 변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북한은 적인가, 동포인가.”하는 질문에 “적도, 동포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과거에는 적의 모습이었으나 점차 동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 이제는 두 개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났다는 것은 적으로서의 상대와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면서 함께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할 일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평화 확보란 적과 얘기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평화를 넘어서야 통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의한 4자회담을 북한 당국자들은 ‘독약’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북한 주민들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1개월간 이러한 남북관계를 지켜 보면서 북한문제는 전문가 시각이 아닌 상식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정곡을 찌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4계절이 다 지나 보아야 정확한 북한관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질의 응답】

토론자 대통령께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연 경수로지원 중단이 합당한지?

그리고 공로명 외무장관의 사임 이유가 인민군 전력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민군에 강제입대했던 우리 사회의 증진 중에 44만명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므로 과연 이들이 법적·도의적으로 죄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 북한의 명시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도울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KEDO 사업은 한국이 빠지면 잘 안될 것입니다. 곧 기공을 해야 하고, 그럴려면 많은 사람이 가야 하는데 재발방지 약속없이 한전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긴장이 고조된 남북관계에서도 과거의 예를 볼 때 어떻게 풀려나갈 길이 있다고 보며, 그 길을 여는 것은 북한입니다.

랭군사태 때도 유엔안보리가 나서지 않았지만 북한은 5~6개월 후 체육회담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한 독일 언론인이 이번 잠수함사건에서 볼 때, 북한이 강한게 아니라 약한 점을 많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말하길래 북한이 약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잠수함사건에서 자기네 배임을 인정했고, 자기네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50년간 없었던 일입니다.

또 KEDO 협상에서도 북한 근로자 임금문제를 북한은 300~700불 요구, 한국은 나진·선봉지역 기준 80불 제시하여 협상이 거의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이 태도를 돌변해 한국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전례없이 합의사항을 먼저 발표했었습니다.

한편 공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자 정부의 대북정책이 흔들린다는 국민의 인식, 북경 쌀회담 등은 전문가들을 가볍게 보아서 안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데, 통일원의 전문가 양성계획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상호 접목되어야 의미있는 의견이 된다고 봅니다. 통일원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론자 북한의 사과에 대해 낙관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이 미국만을 상대로 KEDO 지원, 국제지원을 추구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미 공조는 잘 되겠습니까?

부총리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이견이 없습니다. 로드 차관보도 이견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방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자신도 북한과 접촉을 하면서 북한과 어떻게 딜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토론자 북한은 미국에 대해 유감의 뜻으로 사과를 대신하자고 제의하고 한국을 설득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부총리 정확히 얘기해서 사태가 그렇게 와 있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진전되고 있는 모양은 미국과 북한이 어떤 합의를 해 한국을 설득하려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토론자 4자회담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정치·군사 문제를 논의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복안을 먼저 국민들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북정책이 주무부처와 관계없이 예측할 수 없는 면이 있는데 이번 4자회담의 결정과정에서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부총리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었다면 구태여 4자회담을 제의할 필요가 없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진전이 없었으므로 정전협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국제적인 참여, 또는 합의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4회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동시에 거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제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안에서 긴장완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 4자회담에 나온다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4자회담은 역사의 편에 선 제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전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북한은 일단 4자회담에 나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토론자 통일은 대화를 통한 점진적 통일 외에 갑작스런 통일도 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보시기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의 통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 통일에 대해 지나치게 ‘한다’고 덤비지 말고 ‘된다’고 믿고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분단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전 독일 언론인 한 분이 통일원은 뭐하는 곳인가 물었을 때, 상상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또 수정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국제, 국내정세가 변해 기회가 왔을 때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거리에서 외치는 사람은 많으나 준비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만, 현재는 통일의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논의의 다양화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듯 합니다.

남북간 신뢰회복과 방송의 과제

MBC 창사기념 국제포럼 기조연설 (1996. 11. 27)

존경하는 이득렬 사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MBC 문화방송 창사 35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제1회 통일방송 국제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뜻깊게 여깁니다.

불과 1년전만 해도 언론계에 몸담아 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저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할수록 우리의 통일문제와 방송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린다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적어도 두 가지의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전후의 세계를 동서로 갈라 서로 대립케 했던 냉전체제는 이미 오래 전에 종식되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대립은 지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자유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가치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변화위에서, 과거 타율에 의해 분단되었던 독일과 예멘

은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변화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주도하고 계시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입니다.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은 인간의 삶에 깊고도 광범한 영향을 주면서 지구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맥루한이 말한 '지구촌'은 이미 완전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가치로 등장한 가운데 이른바 '문명사적인 변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이같은 변화와 변혁은 국가와 민족, 이념과 종교 등 지난 시대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조류는 이미 세계사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세계사의 대세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시대를 살아 온 한국인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체제의 종언은 한반도의 분단을 강요했던 원인이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정보지식사회의 도래는 한반도가 대결과 쟁패의 각축장으로부터 교류와 협력의 가교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전도는 분명 크게 밝아졌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이 여전히 대남적대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난을 비롯한 숱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이 그 어려움의 탓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를 통제·결속시키기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시인·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이같은 요구는 북측에게 적대와 대결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지난 11월 24일 정상회담을 가진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은 북측에게 ‘우리가 수락할 조치를 취할 것’과 4자회담의 수락을 계속 촉구한 것입니다.

변화와 변혁의 이 시대에 북한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는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사의 조류에 우리와 함께 합류해야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방송은 이미 지상파 방송의 시대를 넘어 위성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동시간대를 살게되는 세계화 시대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은 나아가 역사를 바꾸는 데에도 심대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유럽의 방송이 동구의 변혁을 촉진했을 뿐 아니라 유럽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방송의 영향이 참으로 컸다는 점을 우리는 중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북쪽은 이러한 흐름과 완전히 격리된 채, 플라톤이 말한 ‘어두운 동굴’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대의 흐름에서 뒤쳐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겨레의 앞날을 위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이 반세기가 넘는 단절의 역사는 남과 북을 서로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오늘을 살고, 서로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다른 양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남과 북입니다.

독일의 선례는 통일이 단순히 정치나 경제 등의 외형적 통합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체제나 제도의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문화적 통합에 의한 내면의 동질성 회복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남북한간에는 독일과는 달리 쓰라린 동족상잔의 경험과 이에 따른 극단적 대처로 불신과 적대감까지 쌓여져 왔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함께 신뢰를 회복하면서 공통의 가치와 사회문화적 기반을 갖는 참다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과업의 핵심입니다.

이 일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대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에 따라 통일로 가는 보폭과 민족통합의 속도가 좌우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방송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북한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의 기반을 넓혀감으로써 통일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우리 방송의 당면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의 실현에는 남북의 방송분야가 반드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부속합의서 제9조를 통해 남과 북이 신문과 방송 분야에서도 교류하고 협력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합의는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남과 북의 우리 동포들이 서로 상대방의 신문과 방송을 자유롭게 보게 되는 그 순간, 통일시대는 활짝 열릴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통일은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비'의 과제입니다.

통일은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철저한 대비는 확실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밑받침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은 하나가 된 보람과 함께 많은 부작용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남과 북의 주민은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먼저 느낄 것입니다.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는 한쪽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벽'을 극복하고 그 어떤 부담과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민족통합을 이루어가는 길에서 한번은 넘어야만 하는 마지막 고개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비용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분단비용에는 결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조국은 내적으로는 인류 보편가치가 실현되고, 외적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더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이어 동과 서, 남과 북 모

두에게 보탬이 되는 튼튼한 가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입니다.

통일을 향한 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 줄기로 모으고, 통일에 대한 우리의 뜻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이 방송의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되새기고 우리의 다짐을 새로이하여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에 참석차 한국에 오신 분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자 여러분들의 건승과 MBC 문화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원은 가슴으로 일하는 부서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봉두완입니다」 인터뷰 (1996. 12. 6)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총리님.

부총리 안녕하세요?

사회자 북한주민 일가족 등 집단적으로 북한주민이 탈출해 우리측에 오는 것도 좋지만, 향후 수천명, 수만명이 계속 탈출해오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총리 정부는 탈북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법안 및 예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엇그제 탈출해오신 분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관련법안이나 예산을 지금 국회에 제출중인데 마침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회자 이러한 상황이 동독처럼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있는 전조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총리 그렇게 보시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위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독같은 처지가 될 것인지 조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사회자 통일원에서 준비를 다른 부처와 잘 하고 있지요?

부총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통일부총리에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총리 보름 후면 1년이 됩니다.

사회자 힘이 드시지요?

부총리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50년 대응해왔지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이지만, 법안이나 예산 등 우리 국회와 함께 해야 하는 일도 어렵다는 것을 요즈음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자 예전에 오랫동안 국회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출입하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다르겠지요?

부총리 다르지요. 통일관계의 일은 실제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거리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멉니다. 그 간격을 어떻게 가깝게 해보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별로 가까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사회자 그 동안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하셨습니까?

부총리 될 수 있는 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북쪽 당사자들은 체제성격상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미디어 쪽에 계신 분들의 요청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부총리께서 견지하고 있는 어떤 철학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 북한을 상대하는데 있어, 주먹을 쥐고 대하는 부처도 있고, 머리로 하는 부처도 있습니다. 통일원은 '가슴으로 대하는 부처'로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자 하는 일과의 거리가 아직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자 통일원의 업무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음지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

문에 금방 빛을 발하지 못하지요.

한편 지난 마닐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된 언론발표문을 보면, 그 중에 ‘수락할 수 있는 조치(acceptable step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수락할 수 있는 수준의 북한측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북한의 사과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합니까?

부총리 그것은 사과하는 쪽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락할 수 있는 조치의 뒷면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잠수함에 전원 장교들을 태워 내려보낸 것도 특이하지만, 사건직후 인민군측 발표에서 잠수함과 장교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남북관계 50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남쪽에서 전부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번에는 비록 훈련중에 그렇게 되었다고 거짓말했지만 어쨌든 침투한 잠수함과 사람이 자기네들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북한이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한테 무슨 확실한 이야기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협력과 신뢰를 쌓아올리는 일에 찬물을 끼얹은 이 사건에 대해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무엇인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북한의 사과, 제네바협정 이행, 4자회담 분리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국은 우리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과는 따로 남한에 대한 사과의 수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학자들간에 이와 관련 한미간 수위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총리 한국과 미국간 입장차이는 없습니다. 미국은 이 잠수함사건 전

부터 진전되고 있던 일들을 일단 사건후 일단 유보시켰기 때문에 이를 점차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약속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북미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흔히 한미간을 말할 때 균형과 조화의 두 바퀴처럼 비유합니다.

바퀴에 비유하는 것도 훌륭한 비유입니다만, 저는 이럴때 이퇴계 선생이 사람이 걸어가는 것 모양과 관련하여 비유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퇴계선생은 사람은 오른발이 나간 후에 왼발이 나가는 조화의 모양이 양쪽발을 동시에 움직여 깡충깡충 뛰는 것보다 조화롭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자 리처드슨 미하원의원이 최근 평양을 방문했으며, 공화당 소속의원 2명도 곧 평양에 간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부총리 미국 국회의원의 평양 나들이는 종종 있었습니다. 리처드슨의원은 전부터 북한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잠수함사건 직후 스스로 북한방문을 연기하다 이번에 갔습니다. 미국의원들이 북한을 왔다갔다 하는 것을 미국정부대표의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회자 북미연락사무소 개설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에 무슨 연락이 있었습니까?

부총리 일본신문에 그런 추측보도가 있었지만, 전혀 진전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제네바합의이행 원칙이 합의됐지만, 경수로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해석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 앞서 한미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사과없이 경수로사업을 계속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전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그 쪽 사람들과 어울려 해야 합니다. 그 쪽이 지금 백배, 천배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보장없이 자기의 시민을 보내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유럽연합이 KEDO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이 KEDO에 참여하는 것이 현재 우리로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가입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KEDO가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 잠수함사건 후 중단된 남북경제협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그 쪽에서 우선 사과하고, 앞으로 잠수함 같은 것을 우리측에 침투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난번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설명회가 9월 13일 열린다고 해서 우리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당국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9월 13일 잠수함을 남쪽으로 출발시켰습니다.

그런 짓을 계속하면 경제협력 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 평양의 태도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사회자 잠수함사건 후 두달 동안 여러가지 복잡했습니다. 한편 우리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던데요?

부총리 그러한 말씀은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도 들었고 들어온 후에도 듣고 있었어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저에게 어느 국회의원님이 지적하실 때 저의 생각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름이 왔는데도 오바코트를 그냥 입고 있는 것은 좋은 일관성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북한에 쌀을 주었으면서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다시 강경대처한다는 지적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애를 키울때 사람이 되라고 애를 때로는 매질도 하지만 학비도 줍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행위와 뜻이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전략적이고 높은 차원에서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해협력을 통해 우리와 스스럼 없는 상태가 되도록 서서히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통일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 대북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국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부총리 예, 감사합니다.

Armistice Agreement must be maintained

「군정위」·「중감위」관계자초청 만찬연설 (1996. 12. 6)

Honorable General Ki-Moon Cha,
Senior member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MAC),
Representative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and liaison officers from the United Nations Command!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accepting my invitation to the dinner tonight despite your busy year-end schedule.

There have been many incidents in Panmunjom especially this year. I want you to know that I fully recognize your hard and difficult work in Panmunjom. We have a saying that Koreans have lived with the threat of war for such a long time that they sleep with one eye open.

Both the Koreans who have had to sleep with one eye open and all of you who have had to sleep with both eyes open are gathered here tonight to commence an era of peace so that we might all sleep with both eyes closed.

Ladies and Gentlemen!

Fourty-thre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cease fire on the Ko-

rean peninsula and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Since then we have exerted all our efforts to rebuild our nation.

Our nation and people had to restart from the ashes of fratricidal war and in less than a half century were able to rebuild the nation to one of the ten top trading powers and become an OECD member nation. We were able to achieve such economic development because of the assistance provided by our proud friends and allies.

When war broke out on the Korean peninsula 46 years ago, so many young men from all over the world sacrificed not only their precious youth but also their lives to safeguard our freedom. Since then, you and your predecessors have been exerting every possible effort here in Panmunjom, a most desolate place in the globe to maintain peace on this peninsula.

On behalf of our n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respect to you and your predecessors who have rendered sacrifice and devotion to our country, so that its people can prosper.

Ladies and Gentlemen!

Tension and apprehension are now being created on the Korean peninsula. Two and a half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incursion of North Korea's submarine shocked the world. The recent incident has awakened all of us to the stark reality on this peninsula.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which peace and security have been maintained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ast 43 years, must be maintained. North Korea must learn the lesson that any act which threatens the peace is bound to pay a dear price.

Ladies and Gentlemen!

The Korean people are the very nation that remembers all the true friends who extend help to them. I believe that the way to repay truly what we owe you is to maintain last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is peninsula. I also believe that this day will come.

We have prepared a souvenir for each of you as a token of appreciation for your devotion and remembrance of your tour in this country.

It is a wood block, a mask used by our people at shaman rituals praying for peace in their village and prosperity for their family. When you return to your homeland, place it on your living room wall and then all of your family member will always be filled with health and happiness.

Ladies and Gentlemen!

When Koreans invite guests to their homes and offer food they usually say "There is not much food but please help yourself as much as you please."

But the worlds are paradoxical implying that they have prepared their best food and this is a humble greeting only exchanged among close friends.

Ladies and Gentlemen!

There is not much food but please help yourself as much as you please. May I propose a toast for the health and happiness of you and your loved ones for the endless prosperity of your individual nation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eers!

통일비용보다 큰 분단비용

한·독 고위정책협의회 만찬연설 (독일, 1996. 12. 12)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먼저 통독 6주년째를 맞이하여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 성공적 결실을 이루어낸 독일 국민의 위대한 역량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한·독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국민은 독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은 반세기 전 타의에 의해 조국이 두 쪽으로 분단되는 뼈아픈 슬픔을 같이 맛보았습니다.

분단상태에서 서독이 이룬 '라인강의 기적'을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뒤따랐습니다.

이제 통일독일은 유럽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올라선 우리 한국에 남은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조국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우리에게 그러한 희망과 확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일의 각계 지도자 여러분!

세계가 모두 화해와 협력의 물결 속에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희망의 시기에 아직도 한반도만이 지난 세기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냉전의 굴레를 만든 인류전체의 암울한 상처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우리 민족의 재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험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민은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와 함께 하는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동서화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통일을 추진해 나아감으로써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속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내적으로는 자유, 인권, 복지, 시장경제 등 인류 보편가치가 실현되고, 외적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축복 속에 그러한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이루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새 지평을 열어나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세계사의 흐름은 한반도에도 통일의 당위성을 역동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이 처한 분단 상황, 특히 최근 북한의 대남대결적 자세는 한반도의 통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북한은 현재 총체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체제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체제불안 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군부중심으로 위기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제이완 및 사회 일탈 현상이 북한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외교관·의사·과학자 등 엘리트 계층의 귀순과 집단적인 탈북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면에서도 북한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90년이후 매년 평균 4.5%의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료의 부족으로 공장가동율이 30% 수준을 밑도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동독의 경우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구공산권과의 특혜적 통상관계의 소멸, 그리고 과도한 군사비 부담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화와 대외개방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질서 있는 변화를 통해 하루속히 평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같은 동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95년에는 2억 3천만불 상당의 쌀을 제공하였고 올해에도 인도적 차원의 국제적 지원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건설 지원사업은 유럽연합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한국이 대부분의 재정적 부담을 담당하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언젠가는 우리의 이러한 성의와 진지한 노력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에는 아직도 군사적 긴장과 차가운 평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남과 북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아가기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문제 해결의 다른 한쪽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한 채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16일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발표를 통해 남북관계와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였습니다.

4자회담은 분단 반세기의 대결과 반목을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려는 일념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구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모든 조치가 논의될 수 있음을 우리는 누차에 걸쳐 북한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잠수함을 동원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자행,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에서 한미 정상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측이 “우리가 수락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과 4자회담에 호응할 것을 재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적대적 대남자세를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은 평화의 확보로부터 첫 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귀빈 여러분!

독일을 동서로 갈라놓았던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던 그 날의 감격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단된 민족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임을 여러분은 응변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독일의 예가 말해주듯 통일은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통일의 그날 우리는 환희와 함께 많은 고난도 감수해 나가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독일의 통일과정은 여러측면에서 생생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단 기간동안 서독이 취한 대동독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서독의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동독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분단의 고통을 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접촉을 통한 변화'를 유도하는 현실적 접근을 하였습니다.

서로간에 깊은 골이 패여 있는 남북한간에는 무엇보다도 평화의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토대로 민족사회를 하나로 회복·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통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일이후 가장 어려운 과제가 양지역 주민들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주민들이 통일된 민족공동체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북한주민까지도 시야에 넣는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남긴 후유증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비용이 요구되는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독일 국민들이 보여준 고통분담과 연대적 노력 등은 우리 한국민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도 상응한 고통과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에 따르는 비용이 크다 해도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비용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과 달리 남북한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고 아직도 첨예한 군사적 대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2천 3백만의 인구중 100만을 넘는 정규군을 유지하고 신형스커드 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군사비가 GNP의 25%를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북한이 겪는 식량난도 바로 이 분단비용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그들 군사비의 3%인 2억불 정도만 투입하더라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외면한 채 막대한 군사비를 쓰는 이같은 현실은 앞으로 얼마동안이나 더 지속될는지 모르며 분단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민은 통일비용을 줄이는 지혜를 배우면서 동시에 이 엄청난 분단비용의 지불이 하루속히 중단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통일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더라도 이를 성취해 낼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내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통일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서독의 경우 통일을 앞세우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단히 배양해 왔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통일은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한국민은 이제 통일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준다는 것이 독일이 가르쳐준 교훈이자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이같은 교훈들을 새기면서 우리의 통일된 미래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독일통일의 숨결이 느껴지는 현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귀빈 여러분!

독일은 유럽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며 또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약 3만명의 우리 재외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의 법학과 철학 그리고 과학 및 예술은 한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 한국인들의 학창시절에는 독일철학과 음악에 심취하여 밤을 지새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현재의 양국관계도 ‘현안은 없고 협력만 있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적극 지원해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일국경일 10월 3일은 5천년전 우리 민족이 처음 나라를 세운 날입니다.

우리는 독일 국민이 보내주신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잊지 않을 것이며 또 한번의 10월 3일 신화를 이루어 내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독일통일의 산 역사이신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분의 성원이 멀리 한반도에까지 퍼져 세해에는 저의 나라에도 통일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연말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독일 국민의 화합과 번영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의 전제는 평화

조선일보 인터뷰 (1997. 12. 23)

기 자 미·북간 뉴욕 접촉에서 북한은 잠수함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내에 이 사건이 해결되고 새해에는 남북관계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 해결이 입박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출구를 찾을 것으로 봅니다. 연말까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은 잠수함사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부분적인 시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도발사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기 자 잠수함사건이 해결되면 다시 4자회담 국면으로 돌아가게 될텐데 우리가 4자회담에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끌어넣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부총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4자회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논의하자는 초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담이 열리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여러가지 의견들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북한은 오랜 분단기간동안 치열하게 부딪친 적도 있었고 목소리를 낮춘 때도 있었습니다. 화가 난다고 서로 이사가 버릴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4자회담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

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 자 4자회담은 남북문제를 본격적으로 국제화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습니까?

부총리 남북한은 외세에 의해 분단됐습니다. 때문에 외국을 무시하고 이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외세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때문인 것 같습니다. 외국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별로 없었지요. 그러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관련 국가가 관여하고 축복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외국이 이 문제를 끌고 다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 자 잠수함사건이후 통일보다 평화정착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정책이 있습니까?

부총리 통일은 평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평화 없는 통일은 한 발자국도 못나갑니다. 그동안 우리 분위기가 다소 해이해졌던 게 사실입니다. 국제적인 탈냉전으로 남북관계에서도 평화가 확보된 것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게 이번 잠수함 침투사건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평화를 확고히 하는 길은 군비를 확고히 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무장을 철저히 해야 평화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기 자 이제 북한을 가만히 놓아두는게 오히려 최선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에 더이상의 제의같은 것을 하지 말고 이른바 호의적 무관심 또는 전략적 무관심으로 임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부총리 통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고 사귀다 보면 자연스레 가까워지는 사람관계와 마찬가지로요. 싫다는 쪽을 먹살잡이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호의적 무관심도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관심하게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신뢰를 쌓는 방안이 강구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동포이기도 하고 적이기도 합니다. 적의 부분을 조금씩 줄여가고 동포의 부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기 자 1년전 취임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안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이후 이런 시각을 대북정책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까? 너무 이론적인 인식이 아니었습니까?

부총리 흔히 북한에 민간인이 어디 있느냐, 정부와 주민들의 생각은 똑 같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정권과 주민들을 동일시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가 군사독재정권 시절때 국제언론인협회 총회 등에 참석하면 외국대표들이 우리를 마치 독재정권의 대표인양 여기면서 '너희나라에 자유로운 언론인이 어디있느냐'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인식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한국의 언론인을 군사정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북한 주민들중에도 이와 비슷한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북한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억 3천만달러 상당의 쌀을 보낸데 이어 올해 3백만달러를 지원한 것은 분단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 자 김경호씨 일가족 탈출로 탈북자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탈북사태를 북한붕괴와 직접 연관짓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

부총리 안팎에서 북한이 언제 무너진다는 예측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북한이 예측하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기 자 존 도이치 미중앙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3년내에 붕괴-전쟁-평화통일 중 한가지로 결판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부총리 일본 사람들이 저에게 북한의 장래에 대해 물어보면 2차대전이 끝나기 직전의 일본을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일본이 패망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들도 폭탄을 안고 미국함선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다음주에 망한다고 해도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또 꽤 오래갈 것이라고 해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통일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원을 '상상의 부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 자 탈북자는 헌법상 엄연한 한국국민인데 왜 원하는 사람 모두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부총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장려할 생각은 없습니다. 북한이 사람 못살 땅이라고 모두 탈출하고 북한땅이 비워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주민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스스로 고치고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의 방침인데 이번에 일가족이 대거 넘어온 것을 보면서 북한이 더이상 나라로서 작동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 자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들을 정보가치 등에 따라 선별수용해 있습니다. 탈북을 장려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의지부족도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탈북자 수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은 없습니까?

부총리 우리 사정이 어떤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나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북한이탈주민인지 확인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할 때도 기준은 있는 것 아닙니까.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탈북자

체류국과의 외교적 문제도 간단치 않습니다.

기 자 현 정부의 임기중에 또한번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 통일문제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획기적인 제안은 없습니다. 상대가 있는 문제인만큼 나만 좋다고 극적으로 꺾이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미 큰 제안(4자회담)을 내놓은 상태라 어떠한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 자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임기 1년을 넘긴 통일원장관이 됐습니다. 그동안 장관만 자주 바뀌게 아니라 대북정책도 오락가락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부총리 정책이 왔다갔다 한적은 없습니다. 김 대통령의 취임연설이나 지난 8·15경축사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정책이 아니라 스타일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왔는데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을 수는 없지요. 계속 외투를 입고 있지 않는다고 일관성이 없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옷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는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따져야 합니다. 아우가 잘 못됐을 때 매질을 할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를 그때 그때 쓰는 것이 오락가락은 아니지요. 굳이 말하자면 전략은 변하지 않았으나 전술은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의미있는 통일준비

96년도 송년사 (1996. 12. 31)

제가 1년전 이 자리에서 통일원에 처음 들어온 감회를 섞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을 돌이켜 보면 개인, 가족, 고장 등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달라진 것은 결론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우리가 돌이키면서 되새길 수 있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통일원에 부임한 직후에 우성호 석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6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에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도 했습니다. 그 후 바로 대북 식량지원과 선거가 있었던 봄에 뜻하지 않는 군사도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난후 4월에 4자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이 제의는 금년에 있었던 큰 제의입니다. 남북분단 50년사에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정전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정전협정이 성립된 다음해에 제네바에서 평화체제로 돌리기 위한 회의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후 너무 오랫동안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한 제안이 우리쪽에서 거의 없다시피한 속에서 한 50년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이와 직접 관련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이 같이 참여하

는 4자회담을 열어서 평화체제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입구같은 것이 마련될 것 같다는 짐작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남들과 상의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쌀을 성금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완전히 살리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아쉬움입니다. 그 후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어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작년의 경험 때문에 대단히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3백만불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보폭은 작지만 남북관계를 고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움직임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서 나진·선봉설명회가 뜻대로 되지 않고, 바로 겹쳐서 잠수함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의 인내심을 가진 여러 가지의 접촉, 특히 한미공조의 꽤거라고 할까, 또 무엇보다도 굳건하게 한국대통령과 미국대통령이 협의를 통해서 북한에게 강한 의지를 보인 결과로써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대로 어제, 그저께에 여러 가지가 풀렸습니다.

한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북한의 자세가 지금도 사과 전과 후가 반드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과의 접촉경험을 살려서 돌이켜 본다면, 저는 이번 일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용서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잊어버려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꽤 많이 잊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잠수함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용서할 때는 잊어 버리고, 과거는 물에 씻는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물에 씻는 것을 완전히 잊어 버리는 모양으

로 씻어 버리면 부주의한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전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 뿐 아니고 그 다음까지도 멀리 내다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 덕택으로 통일과 연관되는 분위기를 안정시키는데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년말이 되니까 작년의 우성호 송환과 마찬가지로 많은 것이 풀렸다고 저에게 인사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으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임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97년이 통일을 위해서 어떤 해였는가를 스스로 셈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해가 되겠끔 여러분 각자가 많은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세월입니다. 우리와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단상에 계십니다.

오늘 의식을 차리면서 통일원을 떠나시게 되는 아쉬운 석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떠나시더라도 원외에 있는 통일가족입니다. 밖에서 보면 통일원을 더 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의 충고를 듣고 우리의 내실을 기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기구도 바뀌는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환경이 달라지는데 따라 최소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바뀐 것입니다. 바뀐 것의 뜻이 살아나도록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남북관계의 반응보다는 주도

97년도 신년사 (1997. 1. 3)

얼마전 우리 교육원에서 중무식을 한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시다만, 또 해가 바뀌어서 지금 이런 의식같은 것을 가지게 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신한국당 대표의 조찬모임에서 통일관계 얘기를 하자고 해서 다녀 왔습시다. 처음의 일입시다. 그만큼 관심이 높은 것이 북한관계, 통일관계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올해 무엇을 할 것이냐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시다.

거기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시다만, 제가 강조했던 것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너무 들떠서 무엇을 한다 안한다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습시다.

그리고 북한에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주고 받는 것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 것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서로 볼 수 있게끔 관계가 되어야 그것이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떠벌이기 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려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추려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연초가 되면, 저도 작년에 통일원에 와서 재미없는 꽤 긴 글을 읽었습니다만, 올해도 공동사설이라고 해서 꽤 긴 글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대단히 공허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느낀 것은, 상당히 전투적인 용어가 많았던 작년에 비해 이번에도 물론 주조는 전투적인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만, 고난이냐 어려움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선동·선전으로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말의 행간에 뭔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동안에는 그런 이야기를 남이 하면 의세의존이라고 비난했었는데, 통일문제가 민족의 문제인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유관국들과 관계되는 국제 문제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50년 상대해 왔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불리 그것을 예단하고 덤빈다는 것은 맞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상깊은 대목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그런 뱃심으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계산해서 나아갈 구멍이 없을 때 일종의 체념같은, 일종의 절망같은 상태에서 내뿜는 소리같은데, 그것을 공동사설에 담고 있었다 하는 것도 하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올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입니다.

그러나 한편 올해는 우리 대통령 선거의 해이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의 공동사설 같은데서 지금 정부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국민들이 마음으로는 여러가지로 들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그 사람들도 국제관계 운운 했습니다만, 남북관계가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도 우리가 상당히 눈을 돌리고 그쪽으로 시야를 넓혀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해 북한과의 좀 지루한 관계가 될지 모르지만, 지루한 속에 우리는 뭔가 쌓아올리고, 쌓아올려서 그것이 민족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일이나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각자 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머리에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모두가 위의 지시다, 또는 누구의 뭐다 해서 ‘리액트’ 합니다. 반응하는 것 즉, ‘리액트’도 사람인 이상 해야지만, ‘리액트’보다는 ‘액트’,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년 건강하게 우리가 한발 한발 내딛도록 그렇게 다짐을 합시다.

고맙습니다.

평화는 안보가 확고할 때 가능

서울신문 인터뷰 (1997. 1. 29)

기 자 북한이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등 탈북감시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최근 중국을 통해 두 가족이 귀순하는 등 탈북자가 올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부총리 50년 분단동안 우리의 탈북자들을 보는 시각은 변해 왔습니다. 탈북주민들을 보는 눈도 이제 전쟁상태에서 귀순하는 모양이라기 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북에서 살기 힘들어 탈출한 사람들이 굳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꼭 한국에 오겠다는 것은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우리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쪽에서 모두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기 자 정부가 탈북자수용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전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법률은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아직 3분의 1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을 위한 우리사회 적응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시설이 갖추어지면 탈북자 전체를 우리사회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기 자 잠수함사건 해결 이후 북한의 대미·대일 접근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해 대남 비난·선동은 오히려 강화되는 등 태도변화가 없습니

다. 북은 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부총리 우리는 북한을 50년이나 지켜봐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일도 많았지요. 잠수함사건 같은 대단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은 늘 그래왔습니다. 잠수함사건 전후에 나진·선봉 투자포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시작한 날이 잠수함이 떠난 날입니다. 잠수함사건에 대해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는 말을 돼새겨 보아야 합니다. 북은 언제든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북과의 관계에서 잊지는 말자는 것을 제일 앞에 내세워서도 안됩니다.

기 자 북한 정권내에 강온 양파, 혹은 개방·반개방 세력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들간의 노선경쟁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부총리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정권 내부가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잠수함 사건도 강온파가 있어 통제가 안됐다가 보다는 한사람이 두가지 말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북한을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북한도 당국과 주민을 갈라서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우리와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기 자 통일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권력체제 연구는 많이 하지만 북한사회의 저변, 청소년·문화·교육·언어 등 총체적인 연구나 이해는 약하지 않습니까?

부총리 관심이 적은 것입니다. 체제나 정치적인 문제 등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매립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 잘못해서 핵폐기물이 북한에 묻혔다고 할 때 백년 천년 앞날을 내다보면 우리 국토를 망치는 겁니다. 국토가 망가진다고 할 때 우리가 통일후 뭘 얻을 게 있겠습니까.

기 자 대만 핵폐기물을 평산 탄광지역에 매립할 경우 김포평야나 서해

를 오염시킬 우려가 큽니다. 우리의 자위권 차원에서 수송로를 봉쇄하는 등 실력저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부총리 어떻게든 막아야지요. 방법은 여러가지로 강구되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싫은 것은 기피하려는 넘비현상이 국제적인 문제가 될 때 아시아지역이 평화롭게 갈 수 있겠습니까? 대만도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도 강산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옹기 문을 줄도 모르는 핵 폐기물을 갖다 물어가지고 어찌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민족적인 범죄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 자 잠수함사건 해결로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총리 정부당국끼리 얘기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달라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오는 4자회담설명회에서도 필요한게 있다고 얘기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차원보다 정부차원이 되면 규모도 클 것입니다. 굶는 사람이 있다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외면할 수 없겠지요. 민간차원의 지원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정부의 생각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현금이나 쌀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곧 적십자를 통해 북한에 밀가루가 갑니다. 별로 모아 놓은 것도 없으면서 적십자사와는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혼선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움직임도 있습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기 자 곧 뉴욕에서 4자회담설명회가 있습니다. 대북지원의 개념을 떠나 남북경협차원 등 전반적인 남북교류협력 전망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모든 것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은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북의 태도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빨리 할 것인지 늦게 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기 자 김일성 사망후 권력공백기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면 김정일은 김일성 3주기 이후 공식권력승계 등 정권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 여러가지로 미리 내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김일성 3년상이 주요한 정치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이겠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북한 신년사인 공동사설을 보면 풀죽을 먹더라도 우리는 안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바꾸어서 풀죽을 안먹게 하겠다고 해야 할텐데도 말입니다.

기 자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젊은세대들 가운데는 ‘왜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하나’, ‘서로 공존하면서 다른 외국의 한 나라로 지낼 수는 없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부총리 독일이 훌륭하게 통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동·서독은 전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서독보다는 우리의 경제력이 약하고 당시 동독보다는 북한이 못합니다. 독일이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나는 분단비용보다는 통일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일은 우리뿐 아니라 북한도 경제적으로 수지맞는 사업입니다. 분단의 비용은 평화유지비용과 같습니다. 안보유지 비용과도 같은 것이지요. 북한은 군사비가 GNP의 30%가 넘습니다. 그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다면 역시 통일이 더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힘이 뒷받침되는 대화

KBS-TV 「정책진단」 인터뷰 (1997. 2. 2)

사회자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한마디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은 한반도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북한땅에 핵폐기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국토를 통일했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땅에 핵폐기물을 묻어놓은 상태에서의 통일을 생각할 때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우리의 남북대화 추진방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제가 통일부총리로 취임했을 때 한 이야기이지만,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연관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분단이 우리끼리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고, 국제관계 속에서 분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가는데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축복 받는 통일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북한은 민족문제를 외국 사람들과 함께 다루려 한다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공교롭게도 우리의 통일문제는

민족문제가기도 하고 국제문제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분석가들은 이를 북한이 4자회담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회자 북한이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경제사정이 안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북한 식량사정이 아직 나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 북한은 경제사정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를 적극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북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동북 3성은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북한지역은 풍년이 들어도 자급자족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해도 있어서 식량사정이 올해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통일원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곡물이 작년에 생산된 것이 369만톤입니다. 아직도 200만톤이 모자랍니다. 특히 올봄쯤 부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4자회담 설명회 날짜까지 정했던 것을 50만톤 지원 안해 주면 참석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자 우리가 북한에 재작년에 쌀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북한의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북한이 쌀지원 등을 요청할 경우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부총리 북한이 쌀 등 식량지원을 우리 정부에게 요청할 경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스스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우리 뿐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자체를 나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다만 부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하는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부도 그런식으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당국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을 도와줘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 정부한테 요청한 바탕에서 검토해야겠습니다.

한편 북한이 어려운 식량사정을 국제기구에 호소했을 때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작년에 3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민간단체, 특히 종교단체들이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굶고 있다고 적십자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투명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방법보다 더 나은 방식이 없는 것 같아서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많이 보내주시되 가급적 적십자를 통해서 보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남북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북한경제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도록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많이 풀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관련 남북경제협력이나 대북경수로지원 방향에 대해 궁금히 여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총리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생각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경수로 사업은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경수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전 등에서 약 1,500명 정도가 북한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경협을 많이 하면 북한에 투자도 하고 재화, 사람들이 더 많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잠수함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남한 가족들은 이런 사태가 날 때에는 정부가 경솔히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항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는 빨리 남북당국간에 경제협력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EDO 사업을 정부가 막는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으며, 그 밖의 분야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북한지원에 대한 우리 내부의 태도도 대충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 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북한주민이 우리 동포이므로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로는 북한에 무슨 주민이 있는가, 전부 공산당만 있으므로 “무조건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가지 의견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세번째 입장이 우리 내부의 큰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큰 줄기가 통일을 뒷받침하는 사회의 건전한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조건적인 행동에 대해 지적하여 그것을 계속하면 북한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4자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이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4자회담의 성사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총리 4자회담 제안이 나왔을 때 북한이 4자회담을 직접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과 북한을 제외한 관련국들이 적어도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4자회담은 북한이 그 동안 주장한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문제를 우리도 회피하지 않고 다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것 외에도 한반도의 긴장완화 등 다른 분야 것도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제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여 이를 설명해주면 듣겠다고 하여 2월 25일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더 나아가 설명회 개최를 위한 또다른 설명회 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은 50만톤의 곡물지원을 조건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곡물지원 같은 문제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설명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자회담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논의의 입구로서 4자회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북한문제에 대해 비난도 낙관도 하지 않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올해도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현재 북한은 우리 내부분열을 일으키는 간첩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고 대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남북대화를 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북한을 관리한다는 것이 우리 내부적인 일 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북한자체를 관리한다는 정책 자체가 오리무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총리 북한을 관리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한다고 북한과 사이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되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관리의 기조는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시켜가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해야 하며 힘도 튼튼하게 키워야 합니다. 철저하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장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무장만 하고 대화를 안하면 평화는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 되는 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금년이 김일성 사망 3주년이 되고,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 전망도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부총리 물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정일이 지금 주석직에 오르지 않았기에 그가 원하는 바를 못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상당부분 제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사가 끝나면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권력 정치면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북한측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장난질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조심스럽게 대처해 가면서 큰 기대도 큰 실망도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올해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북한 붕괴가능성에 대해 외부에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 붕괴문제와 관련, 그것이 앞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에 유리한 것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부총리 정책이 곧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조장하는 것도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년전부터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착륙 가능성은 단지 희망으로만 보이고, 다른 사태로 될 것 같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북한은 빨리 식량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길은 남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정부는 일차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북한내에 김일성이 대원수 복장을 한 동상이 없어서 지금 다시 커다란 대원수 복장을 한 김일성 동상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남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 스스로 그런 쪽으로 가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사회자 탈북자 수용대책 등 올해 통일정책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도 어느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귀순자, 즉 싸우다 우리측에 항복해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다른 법체계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벗어나서 우리측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을 전부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해야겠습니다.

90년대 이후 탈북자의 통계 숫자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대비하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은 동북아 평화의 관건

「한·일·중 일간 3사」공동주최 국제심포지엄 특별연설 (일본, 1997. 4. 3)

마츠시다 무네유키(松下宗之) 아사히신문 사장님,
오명(吳明) 동아일보 사장님, 쉬종티엔(許中田) 인민일보 부사장님!
그리고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자민당 간사장님과 양쩐야(楊振亞) 전
주일 중국대사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오늘 한·중·일 세 나라의 대표적 일간지 3사가 공동주최한 국제심포
지움이 역사와 문화로 빛나는 이곳 교토(京都)에서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높은 경륜과 전문적 식견을 지니신 여러분과 21세기 동아시아의 장래
문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아사히신문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
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금 21세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백년, 나아가 새로운 천년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사는 동북아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한·중·일 세 나라는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인 그 아득한 시점부터 교류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변천 속에서 단절과 갈등의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각자의 독자성을 면면히 유지하면서 바다와 육지를 통해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 받았습니다.

교토에서 싹터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직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다니진오리(西陣織)에는 신라에서 건너온 하타노카와카스(秦河勝)의 전설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도 많은 문물을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 3국은 오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서로를 하나로 잇는 '동양문화'의 자랑스러운 자산을 함께 꽃피워 왔습니다.

장구한 세월, 한자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를 통해 의사를 소통하면서 수준 높은 문화를 함께 이루어 온 선린의 관계는 지구상에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 3국간의 아름다운 관계는 백년전 세계사의 격랑을 맞았습니다.

서세동점이라는 거친 파도위에서 동북아는 무기력의 혼란과 전쟁의 불행 그리고 식민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천년간 중국과 한국을 이어주던 황해는 단절의 바다로 변모했으며, 에도(江戸)시대 한·일간의 우정이 오가던 현해탄은 수난의 해협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금세기 중반에 이르러 동북아는 전쟁의 종결과 함께 전기를 맞았으나, 이번에는 냉전의 장벽이 동북아를 둘로 갈라 서로 반목하고 대결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보람과 기쁨으로 금세기를 마감하면서, 꿈과 포부로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 있지만, 동북아에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조류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는 이미 그 숭한 시련을 극복하고 전후 최고의 번영을 이루어 낸 희망의 지대로 떠 올랐습니다.

지난 시대의 단절과 대립을 극복하고 한·중·일 3국의 언론사가 이같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장래를 논의하게 된 것은 커다란 변화입니다.

백년 전에 이런 모임이 있었다면 동북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때의 절망과 비운을 생각하면 우리는 축복아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는 지금 근원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세가지 점에서 20세기 세계사의 모순이 극복되는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가 ‘이념의 시대’가 종식되었다는 점입니다.

전후의 세계를 동·서로 갈라 우리 동북아에도 전쟁과 단절을 가져왔던 체제의 대립은 지구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이제 이념에 얽매인 독선과 투쟁이 아니라 화해와 공존, 개방과 협력의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 자유, 평화, 번영 등 모두의 보다 나은 삶과 호혜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보편가치들이 인류의 공동목표로 떠 올랐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정보화의 거대한 물결은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질’보다는 ‘정신’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유럽의 산업혁명이 지난 세기 ‘물질의 시대’를 도래시켰다면, 정보와 혁명은 21세기 ‘마음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는 세계공동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2백년 가까이 국제관계는 민족국가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민족국가는 국민의 보호와 국가의 발전을 선도해 왔지만, 동시에 배타적 속성과 확장의 의지로 대결과 전쟁, 그리고 식민이라는 슬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더욱이 오늘의 세계에는 절대 빈곤, 기아, 환경, 테러, 국제범죄 등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민족국가의 틀은 국지적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크고,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화의 혜택위에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도시와 지역이 민족국가의 장벽을 넘어 교류와 협력으로 하나의 세계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보다는 부산과 이곳 교토가 더 가깝고, 서울과 신의주 보다는 신의주와 베이징이 더 가까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실로 문명사적 변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21세기는 바로 ‘동양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가 지난 수천년간 그래왔듯이 새로운 세기, 인류는 교류와 협력의 큰 흐름위에서 정신의 힘과 윤리의 가치에 의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소는 2015년이면 일본과 중국 그리고 통일한국 세 나라의 GDP가 세계 전체 GDP의 40%에 달하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북아가 인류와 세계를 위해 보다 더 큰 기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새로운 세기, 동북아의 밝은 장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고한 평화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지역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은 평화의 바탕이 없이는 언제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국가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지역안보협력체'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선례가 좋은 참고가 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는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가 가로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불행한 과거에 기인하는 민족감정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백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백년의 모순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금세기초 역사의 풍상 앞에서 단절의 어두운 시대를 겪어야 했던 한·중관계도 20세기가 다 가기 전에 다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의 관건은 바로 한반도의 안정 여부에 있습니다.

금세기 우리는 한반도의 육지와 해역에서 무려 다섯차례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유린될 때, 동북아의 평화는 깨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반도는 여전히 반세기 여에 걸친 대립과 반목이 지속되는 가운데 평화의 바탕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을 최대의 당면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4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한 것은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4자회담의 취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정전협정 주요관련국인 미·중의 뒷받침 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 스스로가 제기해 온 ‘평화상태의 회복’이라는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4자회담의 성공은 북한으로 하여금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군사적 신뢰를 확보하게 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4자의 일원인 중국, 그리고 동북아의 동반자인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바로 북한의 안정과 변화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과 고립을 원치 않으며 일방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정세의 유동성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가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고권력자가 사망한 지 만3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공식 권력승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90년 이후 7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공장가동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특히 북한은 '90년대에 들어 매년 2백만톤 이상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바로 우리 동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그 동안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는 '95년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의 인도적 활동에 대한 동참과 민간차원의 지원을 통해 모두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식량을 북쪽에 보내 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제사회 전체가 지원한 총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적은 규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일본 정부가 지난 '95년 50만톤의 쌀을 우리 동포들에게 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제는 돕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외부로부터 고기를 얻는데 익숙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어느 길이 북한을 더 어렵게 하며, 어느 길이 북한을 진정으로 돕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4자회담을 통해 남북한간의 농업협력은 물론 전반적인 경제협력 문제까지 협의하고 추진하자고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으로 북한이 외부로부터 식량을 사올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북한도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비와 체제 선전비를 계속 늘려간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비용의 단 1~2%만 아껴도 북한의 식량난은 훨씬 덜어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스스로를 위해 변화의 길에 나서는 첫발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장래와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북한의 안정과 변화를 위한 유관국들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보조를 요청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한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원래 하나이었던 민족이 타의에 의해 갈라져 있는 것은 역사적 순리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한, 동북아 전체가 결코 전쟁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 위기가 잠재해 있는 한, 우리 세 나라의 후손들이 도쿄에서 서울과 평양을 거쳐 베이징을 오가며 우정과 풍요를 나누는 시대를 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시대 냉전의 전초지가 되어 온 한반도는 이제 평화와 번영의 공동목표 아래 화해와 협력의 가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소중한 길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단된 한반도보다 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 나아가 세계에 더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것은 2차 대전의 진정한 종결이자, 새로운 백년의 튼튼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통일을 ‘세계와 함께 하는 통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도시대의 문인 바쇼(芭蕉)는 “시대에 따라 변할 것은 변하되 변화하지 않아야 할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화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분단이며, 변화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삼국간의 영원한 우정입니다.

한반도에 통일을 이루는 날, 바쇼가 동해를 바라보며 노래한 ‘사도섬 위의 은하수’는 진정으로 우리 세 사람 모두의 은하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한·중·일 3국이 동북아 평화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그 해결방향을 함께 모색해 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통해 역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진정한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와 인류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

일본 외신기자클럽 초청연설 (일본, 1997. 4. 4)

외신기자클럽 윌리엄 다우킨스(William Dawkins) 회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주일특파원의 경험을 한 바 있는 저로서는 여러분 모두가 반가울 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질문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질문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특파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였습니다.

당시 세계는 이념과 체제로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었고,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근대화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특파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냉전’과 ‘개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0세기 후반의 세계를 지배해 온 냉전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세계화·정보화의 거대한 흐름이 지구를 ‘하나의 촌락’으로 만들면서 우리 모두의 삶을 바탕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의 취재 영역도 매우 넓어지고 깊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사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이 동북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했던 이 지역에 이제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는 전후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의 새로운 중심지역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바야흐로 ‘평화와 번영의 21세기’를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기대는 한반도의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세기 들어 무려 다섯 차례의 전쟁이 한반도의 내부에서 또는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한반도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요인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최고권력자가 사망한 지 만3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공식 권력승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중심의 과도기적 위기관리체제 아래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의 수는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열에 황장엽씨 등 핵심층이 참여하고 있음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체제균열이 상층부까지 확대되고 있는 조짐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경제는 이미 '90년 이후부터 7년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2백만톤 이상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이같은 식량난을 같은 동포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95년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행한 바 있으며 작년과 올해, 연속하여 국제기구 대북지원에도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도 비정부기구를 통하여 꾸준한 대북지원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식량지원은 대략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지 않은 한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결코 적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국제사회가 우리 동포들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노력을 전개해온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북한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방법입니다.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아프리카 등지에서 겪고 있는 식량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북한의 경우는 자원배분 여하에 따라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공격적 무력의 증가 등 군사비에 연간 60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징적 조형물 건설 등의 체제선전비용으로 연간 20억 달러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의 단 1~2%만 아껴도 북한의 식량난은 상당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식량난은 정책의 '우선목표'와 연관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북한이 자구적인 노력을 적극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북한 식량난과 관련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기를 그냥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남북간 농업협력,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관국들이 북한 식량문제의 본질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5일, 미국 뉴욕에서 4자회담 공동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해 4자회담의 의의와 제의 배경,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4자회담은 어떤 전제조건도 없는 '열린 방안'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문제라면 어떤 문제라도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입니다.

4자회담은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신뢰 그리고 경제적 실

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자회담의 성공적 추진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의 초석을 마련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일·중 등 관련국들이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협력해 주시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되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올바른 남북관계는 ‘서로 주고 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은 반세기 동안의 적대와 단절을 극복하고 세계사의 진로에 발맞추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미 남북 사이에는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소중한 합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 양 한국인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평화통일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북한 당국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한꺼번에 이행하기 어렵다면, 상호 실천이 용이한 부분부터 협의·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단순히 작은 반도 하나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과 가장 큰 해양사이에 인위적인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의 길목이 단절된 채,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세계와 함께 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고 믿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의 한국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의 원칙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희생되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한국인 모두에게 파멸적인 재앙이 될 뿐 아니라, 세계인 모두에게 커다란 비극이 될 것입니다.

젯더미 위의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민주의 원칙입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결과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북한 양 한국인 개개인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통일은 그들 모두의 의견이 수렴되고 존중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통일은 남북 양 당사자 스스로의 뜻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타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은 더욱 더 자주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는 남을 배척하는 ‘닫힌 자주’가 아니라, 이웃과 조화하고 세계에 협력하는 ‘열린 자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바탕하여 북한의 형제들과 함께 평화통일을 성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의 안정을 원하고 있으며, 고립을 바라지 않으며, 일방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평화와 인류 번영에 더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홀로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한반도 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 유관국들의 뒷받침이 필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

기 자 황장엽이 언제 한국으로 옵니까?

부총리 관계국과 협조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크게 늦지 않는 기간 머
문후에 한국으로 올 것입니다.

기 자 중국의 대북지원 현황 및 한국의 대북지원 관련 중국과 협의하
고 있습니까?

부총리 중국의 대북지원은 비공개적입니다. 북·중관계에 비추어 보아
중국은 북한의 믿을 수 있는 우방임이 분명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국
경선을 접하고 있어 물자내왕도 있습니다.

북한지원을 위해 한·중간에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 자 북한이 대화를 거부해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부총리 정부차원에서 95년도 쌀 15만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제기
구(UN 등)의 인도적 계획에 참여하는 형태로 96년에 300만달러, 97년
에 우선 600만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차원의 지원으로서 적
십자사를 통해 200만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4자회담에 나오면 정부끼리 지원문제를 협의할 수 있
습니다. 국제기구와 민간차원의 지원은 북한에 어려움이 있는 한 지속
될 것입니다.

기 자 황장엽의 진술에 의하면 한국내에 50,000명의 간첩이 있다고 하

는데요?

부총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현재 외국에 있으며, 한국에 오면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 자 1~2년내에 북한의 붕괴조짐이 있습니까?

부총리 붕괴의 의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붕괴단계에 있느냐, 붕괴되었느냐 등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북한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 선전기관은 황의 망명사건을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나무가 쓰러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떨어지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 자 대북정책 관련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부총리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긴밀한 협조속에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4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 자 WFP는 국제기구지원 식량이 부족분의 10%에 불과하고 몇 개 월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부총리 개념상 혼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2억3천만 달러의 쌀지원과 일본의 50만톤의 쌀지원은 홍수피해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WFP는 숫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초기에 피해가 없다고 했으나, 얼마뒤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구호를 요청했습니다.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은 전반적으로 홍수가 없어도 200만톤이 부족합니다.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한국정부는 무한정 역량도 없는만큼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대화를 통해 알려고 하고 있으나, 필요한 측인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 자 북한의 탈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 김일성 사망전에는 10명 내외, 그러나 사망후에는 연간 50여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정부는 과거 적과 동지차원에서 적으로부터 귀순한 사람으로 탈북자를 쳐우했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들은 난민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법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 자 미국과의 협조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부총리 정부차원의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 언론보도는 협조가 원활치 못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본질적인 면에서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기 자 전직 언론인으로서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과거에는 정치적인 권한행사가 문제되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검찰, 경찰에는 수사권이 있으나 국가정보 주무부서인 안기부가 수사권이 없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고친 것이 지난번 개정이었습니다.

기 자 김정일의 권력승계 여부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 알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권력승계 없이도 통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다루는 만큼 북한에서는 권력승계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 자 군부와 민간, 세대간 등 북한내 갈등구조현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과거에는 권력층, 주민 들간에 일체감이 있었습니다. 요즈음 가끔씩 불협화음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군부의 불만도 알려지고 있는만큼 다른 집단의 불만은 더 많을 것입니다.

기 자 영국, 유럽 등 타국의 대북 접촉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기본적으로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만남 자체

를 특별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국은 접촉 전후에 한국과 협조하고 있으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 자 영국이 북한에 영어교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북한의 개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국제사회에의 초대를 북한이 큰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 자 중국내 탈북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구체적인 자세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으로의 탈출자는 일차적으로 중국이 관할합니다. 한국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한반도문제 관련 다자간 협의 필요

일본 朝日-TV 「News-Star」 인터뷰 (일본, 1997. 4. 5)

기 자 북한의 현재 경제난을 어떻게 보고계시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지금은 전세계가 북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경제사정이 매우 악화된 현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북한 밖의 사람들은 개방을 돕고 소프트 랜딩을 시켜야 한다는 등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북한이 그대로는 가기 어렵고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관된 평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북한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북한은 여전히 바꿀 필요가 없다며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까지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책임자들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나, 내가 볼 때 어려움이 수해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95년에 지원한 15만 톤의 쌀도 수해 이전에 수송이 시작되었고, 일본의 50만 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원래 사회주의권 교역이 70%, 자본주의권이 30%정도로 미미한 상태였으며, 주체경제라고 하여 교역을 억제하였습니다. 어느날 사회주의가 없어졌는데 돈이 없으므로 도처에서 북한에 빚독촉을 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교역등을 통한 경제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경제난의 기본적 상황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되어야 하나 북한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싫어도 오게되므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북한은 “전인민이 마음을 굳게하면 겨울이 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자신에게 맞춰서 겨울을 저지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고가 북한 어려움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굶는 사람은 차별한다”고 하면 기아가 해결되리라는 발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절약해서 군인을 먹여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생산보다는 오히려 분배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기 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자구노력과 농업구조 개선이 있어야 경제회복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대북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경상도 말 중에 “저 사람은 밥을 사주면 못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비빔밥을 해서 손가락을 걸쳐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비빔밥을 달라고 하는 격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밥을 가는데 필요한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단순히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작년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한국은 농업협력을 통해 도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원이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도울 용의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도 식량자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현실진단에 문제

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모아서 서로 의논한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모습을 볼 때 사실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기 자 한국 정부는 농업협력을 위한 제의를 이미 했는지 아니면 4자회담에서 할 것입니까?

부총리 도움이 필요한 쪽에서 문제를 먼저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4자회담은 농업협력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군사정전 문제와 정치까지 포함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입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것부터 협의·추진이 가능합니다.

기 자 아시아판 OSCE 같은 다자간 협의를 통해 평화구축 방안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4자회담을 이렇게 발전시키려는 생각이 있습니까?

부총리 그러한 구상은 아직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반도 내에서는 양 당사자간 협의가 바람직하지만 일본의 오키나와 문제 처럼 국제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한반도 문제입니다. 황장엽 사건을 보더라도 일본·중국·필리핀이 남북한과 함께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으므로 모든 유관국들이 함께 모여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SCE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이와 같은 형태의 시도는 바람직 하다고 여겨집니다.

독일 통일은 OSCE(전 CSCE)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통일은 지리적 통일 이전에 생각의 통일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정보소통을 막는 장벽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CSCE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정보소통이 가장 어려운 나라가 북한과 미얀마라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OSCE와 같은 완충기구를 통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한반도 만이 아니라 그 주변 언저리를 고려하면서 문제해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 자 이런 기구의 창설을 정부차원에서 제창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부총리 아사히에서 제창해 주시면……

기 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일간 협조와 일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현재 일본과의 협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여서 상이한 점이 있긴 하나 다른 점들은 협의와 이해를 통해 극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일 중에 만난 일본 정부 인사들에게도 이점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이웃의 희생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도 좋고 일본도 좋은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도 이점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너머의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과정을 통해야 합니다. 닉슨이 평화전도사처럼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만나 평화를 얘기할 때 모의 반응은 “평화가 최종 목표인가?”라고 하여 닉슨을 당황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평화가 가져다 줄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 평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평화 뒤에 있는 것을 모색해야 하는데 안정·평화·통일은 이를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통일은 이웃 관련국이 이해하는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통일

일본 統一日報 인터뷰 (일본, 1997. 4. 5)

기 자 과거 수차례 관직을 고사하다가 통일부총리직을 맡으신 지 1년 3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 느끼신 소감과 지난 연말 조직개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총리 수영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똑바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보이기 때문에 혼수를 둘 수 있지만, 직접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역시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관직을 고사했던 것입니다.

통일부총리 직을 맡게 된 것은 평소 내가 갖고 있던 의문을 풀어 보려는 생각이 있어서인데 어느새 일한 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통일원에 북한을 돕는 전담기관인 인도지원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으나 분단자체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된 것이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 힘 만으로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웃·세계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통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와 같은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논의에 있어 이제까지 총론에만 치중하고 각론은 미약했는데 각론적 통일준비를 하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불안적 시각을 가지고 잘못된 정권과 그 밑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 자 개정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법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탈북자 문제를 이제까지는 16개 부처에서 나누어 다루어 왔는데 이것을 통일원이 일괄해서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기 자 최근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쌀 지원과 경제계의 대북지원을 허용했는데 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총리 북한을 돕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아주 놀라운 발상을 해 왔습니다. 대북지원의 질서 유지를 위해 민간 지원은 한적과 국제적십자를 통하게 했고, 기업들의 지원이 공작적 차원에서 악용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통제해 왔습니다. 쌀은 한국인에게 있어 단순한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쌀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의미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95년 한국이 15만 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한 후 우리는 중국에서 쌀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굳이 쌀을 통제하지는 않으나 북한도 쌀보다는 다른 곡물로 많은 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 자 최근 보이고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도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부총리 지금은 4자회담 설명회에 대한 답을 받기 전에 실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도 북한이 4자회담에 나오면 어떤 것이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 참석이 한국에 득을 주는 것으로 “나가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 자 앞으로 민간지원을 확대할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 95년 우리의 쌀이 북한으로 간 후 WFP 등이 나서서 지원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미국이 200만 달러의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한 2억3천만 달러의 지원은 인도주의가 아니고 미국의 200만 달러만 인도주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쌀 지원에 대해 북한이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해 국민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통틀어 그 만큼의 양을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북한의 요구에 따라 ‘한국쌀’이라는 표시도 없이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최대의 관용이었습니다. 다만 지원이 계속 되지 못한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수해피해 등 북한의 발표 수치는 신용이 없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나쁘고 이에 대한 유엔 등의 지원 호소가 있어도 호응이 많지 않은 것도 북한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식량부족에 대한 통계도 다양합니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식량문제가 있으며 부족량은 1년에 약 200만 톤으로, 3억 달러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중 100만톤 정도가 절대부족량으로 파악됩니다. 이제는 북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양정도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자회담에 참여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 합니다. 한국 역시 곡물 자급율은 대단히 낮은 상태입니다.

기 자 북한이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설명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부총리 설명은 이제 끝났고, 단계마다 조건을 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기 자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 북한 스스로 문제와 해결책을 밝혀야 합니다. 비빔밥을 비벼서 숟가락을 놓아주는 식의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자구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 자 북한의 내부정세에 대한 견해와 최근 보도된 김정일의 비밀연설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김정일은 경제를 사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

습니다.

기 자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군부의 폭동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어떤 일이든지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태의 결과를 군부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 자 KOTRA 북한실장의 방북이 남북간 경제교류에 미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총리 대북경협이 공작적 차원에서 악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KOTRA 관계자의 방북은 그런 시각에서 잘 못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한은 “들어오라는 현관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밖에서 벽만 두드리는” 형국입니다. KOTRA 관계자의 방북은 나진·선봉에 무역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자 대북문제 관련 한·일간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대북 거간군이 많으나 하시모도 총리가 대북 문제는 외무성으로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한·일간 협의도 충분히 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친구사이에 놀라게 하는 일이 많으면 좋은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한·일 관계도 서로 놀라게 하는 일이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 자 황장엽 비서가 한국으로 들어온 후 그의 거취는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 먼저 오게되면 망명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 자 얼마 전 국회 답변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생각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부가 금년 2조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논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독일은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경제체질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난 노동계 파업으로 31억 달러의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먼저 일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일은 경제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 자 한국 국민은 통일비용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부총리 통일을 비롯한 정부정책은 무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인기보다 신뢰가 중요하고, 여론은 무드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기 자 민간의 통일노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현실적으로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을 도울 것인가 돕지 않을 것인가 하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부적절합니다. 양극단 보다는 중간계층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재일동포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남북 간의 분단 경험이 있었고 또 이를 극복하는 경험도 얻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축적해서 본국에 잘 전달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남북경협 활성화 위해 당국간 사전합의 필요

전경련 남북경협위원회 창립회의 기조연설 (1997. 4. 14)

이른 아침에 저를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남북경협위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하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미리 마련된 원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만 해도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남북문제에 대해 규제를 위해 통일원을 만들어 규제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이라는 특별한 것을 하니까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사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는 돕는 기능과 규제하는 기능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특별한 규제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경우에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남북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5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전쟁도 겪었고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다.

통일원의 규제가 없고 통상산업부적인 규제만이 남아있을 때 통일에 좀더 가까워지는 것이며, 또 통상산업부적인 것도 줄어들 때 우리는 선진국가로서 경제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큰 흐름으로 볼 때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는 최소한이 좋다는 것이 언제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대하는데 있어서 너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할 수 있다, 다른 상사는 할 수 없는데 너만 할 수 있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부터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너희는 이런 것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네가티브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가 통일원에 들어온 이후 이런 모임이 제 기억으로는 1년 전쯤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 때는 중소기업까지 포함되지 않은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전부 정부가 막아서 못하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정부가 막아서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대부분 북한 사람을 접촉하는 분들인데, 왜 막게 되어 있는냐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그 때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의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거의 전부가 북한 때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접촉허가를 받아 뭔가 상담을 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남한정부가 막아서 그렇다 하는 것이 대개 정형의 북한 교역과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경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자꾸 북한을 돕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막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 맞지 않다는 말씀과 북한과의 경험의 질이 잘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잘되고, 무엇을 안해야 되고 하는 것을 스스로 챙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챙기기도 합니다만, 기업도 스스로 챙겨 주십사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막고 있는 것이 한국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도 들어 있고 완전히 장사하는 것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는 부분은 제쳐놓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과 연관해서 한국이 막고 있다고 하는 국제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우리 외교관들도 얼굴을 들기 어렵게 자꾸 그런 공박을 당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밖의 여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것은 그 실태에 대해서 그 분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북한이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

고자 합니다. 약 2년전까지는 남이야 어쨌든 무조건 낙원이었기 때문에, 낙원이 밖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95년부터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일본에 가서 쌀 문제로 교섭을 한다고 하니까 그 때 정부에서는 동포 입장에서 '95년 여름에 쌀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쌀 지원으로, 북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때 사정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수재가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말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북한동포들이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돕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본도 나서고 했던 것입니다.

세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때 저희들이 지원한 쌀의 양은 15만톤 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에서 나간 돈으로 2천억원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환율로 해서 2억 3천만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이 정부수립 이후 그와 같은 돈을 한꺼번에 주는 원조를 했던 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누가 하기도 전에 2억 3천만달러의 돈을 정부가 지출했다는 사실은 지금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 첫번째 원조 물량이 갈 때는 수해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 대단히 큰 수해가 있어서, 그것도 15만톤이 가는 동안에 큰 수해를 겪을 때도, 처음에 수해가 났을 때는 더없이 큰 수해였는데, “장군님의 지도로 아무 피해없이 멀쩡하게 우리는 극복했다”고 했습니다만 열흘 후에는 아무도 믿지 못할 대단히 큰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때부터 무슨 널뛰기 시작하는 것 같은 대응이 북한에서 자주 나왔

습니다. 그것은 북한당국이 밖을 향해서 뭔가를 속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계획경제를 한다고 하면, 계획경제의 바탕이 되는 통계는 사실 실물이 있는 그대로여야 할텐데 그것이 굉장히 '인플레이트'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앞으로 북한과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북한의 통계부터 우리가 제대로 읽을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움직임으로 작년 초쯤 미국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200만달러를 유엔 어필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내고자 하는데 한국, 일본도 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한국, 일본은 호응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이 인도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준 200만달러는 우리가 준 것의 1/100도 안됩니다. 하지만 그 여름에 가서는 우리도 국제연합의 움직임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와 병행해서 강충제님이 이끄시는 적십자를 통해서 상당한 지원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인색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본이 약간 더 인색한 사람처럼 되어서 미국 언론으로부터 공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일본에서 50만톤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만톤도 살펴보면 15만톤은 무상이고 35만톤은 유상인 셈입니다.

그 값은 7천만달러 조금 더 됩니다. 우리는 2억 3천만달러였는데 그것은 액수로 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양에 있어서는 우리가 1/3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쌀이 그만큼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도 해나갈 일, 정부나 한국

이 절대로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남한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그와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성과 관련되는 얘기입니다만, 준 것이 배고픈 사람한테 가느냐 하는데 대해서 분명치 않습니다. 또 일부 군량미 운운하는 얘기가 있지만 군량미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먹으면 군인이 먹기로 되어 있던 몫을 다른 사람이 먹을 테니까 배가 부른 사람이 더 좋은 쌀밥을 먹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것까지는 없다는 의미에서 여러가지를 잘 살피고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정부가 국내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자꾸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사실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기업활동의 결과가 그 원 뜻과의 달리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남북당국간에 이야기를 해서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이런 큰 물 속에서 하는 것에 합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간에 얘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북한은 도도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냥 모양이 이상해서 “참, 그러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따라 다니는 것 같은 이야기로 듣는다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곡해하고 계

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경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남한에서 막는다고 하는데 막게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 그 사람도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태면,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왜 정부가 하라마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실지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정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하는 정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재산이라는 것도 전부 나라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이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투자되어 과실이 생길 때 송금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공개적으로 되지 않고 북한은 많은 경우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업계가 어떻게 북한을 대해야 되겠느냐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것을 협의해서 어떤 룰을 만드시고, 그 룰에 따라서 북한을 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 룰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신다고 할 때 정부는 적극 도우려고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생각입니다.

만일 통상산업부 규제만 해도 많은데 통일원까지 나서서 규제하는 것 같은 모양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자치적으로 하는, 밖에서 볼 때 좀 안심이 되게 질서있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그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협이 시작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

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력에 맞추어서 하시는 것은 길게 보아서 북한을 돕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소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금방 알아듣고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체제도 안되어 있고 지식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끈기있게 자꾸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따라서 북한이 변하도록,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도 길게 보면 낫다는 것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한 응변으로 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국도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열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좋은 일 나쁜 일을 간추려서 북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경제가 개방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을 늦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은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자’ 라고 여러분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말하면 정부가 어떻게 그것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뭔가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북한의 경우로 보아서 아직까지는 통일원이 필요한 소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클린턴 정부 초기에 소프트랜딩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많았는데, 물론 아직도 바람직하다는 사람은 대부분입니다만, 될 것 같다는 사람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안에서 그와 같은 변신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마음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사회는 사람도 없고 김정일이 하나만 있고,

북한의 사람들한테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 한 가지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보면 소프트랜딩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물론 누구나가 얘기하듯이 준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큰 방향이겠지요.

그러나 그것 뿐 아니고, 우선 작년의 쌀을 가지고도 군량미는 처음부터 떼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장도 잘 안되고 하나까 그것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김정일의 모습을 우리는 요즘도 여러 갈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농업생산도 몇 백만톤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비료도 있어야 되고, 뭘 할 해야 되는데 비료공장은 전부 문닫고 아무 것도 안합니다.

그런데도 수륙양용 보트라고 하는 그것이 전쟁 치르는데 얼마나 요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작년에 130대를 더 만들었습니다. 남한해안 같은데 기습상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좀 안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일만 계속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대단한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작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이 김일성 생일인데, 이번에도 큰 잔치를 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누워있는 궁전 앞의 뜰을, 김일성의 생일이 4월 15일이니까 이쪽으로는 415m를 하고, 김정일은 2월 16일이니까 이쪽은 216m를 해서 큰 광장을 둘로 만드는 일 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컨대 그 사람들과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안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의 구분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것이 북한의 실정입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북

한을 비난만 하고 있다고 해서 전세계에 열려 있는 북한의 사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50년 들어오던 소리같이 제3자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북한의 오늘의 모습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북한을 의식해서, 예를 들면 통일이 가까웠을 것 같은데 독일은 이렇게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까 통일기금을 만들어야 될것 아니냐..., 그러면 정부에서 출연을 해서 뭘 하고 뭘 갖추어 나가자, 그런데 그런 일상을 벗어나는 것 같이 남북이라는 것을 큐대를 놓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경우에 북한은 남한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하고 남한이 있기 때문에 할 것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정해서 남한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훨씬 개방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통일의 가능성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말로 하는 것과는 달리 남한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동서독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동독의 브란덴부르크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된지 작년 겨울이 6년 되는 때인데, 처음 2년 동안은 통일했다는 것을 후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때 하는 말은 체코나 헝가리 같은 데서는 동독보다도 더 못살았고 더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화색이 돌고, 2년이 지난 후에 3~4년이 되니까 이제 동독사람도 자존심도 있는데 맨날 서독한테 눌러서 서독의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를 국제적으로 하면 할수록 못난 동독놈은 그것 받아먹고 산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더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렌즈 만드는 것은 동독인데 그 좋은 렌즈를 만들어서 자기는 하나도 못팔고 서독이 다 뭐를 하는 것 같아서 안되겠다 해서 안경렌즈 만드는 것을 제대로 해서 40개로 나누어서 민영화를 시켰더니 20개는 금방 망하더라고요.

그렇게 더 안되다가 이제는 서독 사람도 사가는 동독안경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5~6년째 가서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도 있습니다.

폭스바겐 공장을 동독이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폭스바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모든 공장중에서 제일 생산성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자동화를 조금 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이 있는지도 몰라도 동독 사람의 프라이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역시 서독이 옆에 있다는 것이 이제는 좋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달라진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독이 원수였지만 지금은 서독이 역시 옆에 있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 관계도, 저는 지금은 원수가 옆에 없는 것이 좋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통일의 방향으로 간다면 북한 사람들이 역시 남한이 옆에 있는 것이 좋다 하게끔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해진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들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공적으로 내놓은 의미에서는 너무 수신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말을 안하고 남의 얘기 듣는 쪽, 정부는 뭘 하는가, 북한은 뭘 하는가, 미국은 뭘 하는가 식의 말을 합니다.

이제는 한국에 뭐가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 좀 잘 한다는 것 있

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역군입니다. 한국의 대표 선수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신자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놓으세요.

그것을 전부 사사로운 무엇에 맞추어서 밀실 속에서 보다는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하는 당당한 발신자가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발신자를 많이 가질 때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4자회담은 동북아 안보협력의 모태

민족통일연구원주최 4자회담제의 1주년 국제학술대회 축사 (1997. 4. 15)

참석자 여러분!

먼저 4자회담 제의 1주년에 즈음하여 민족통일연구원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해 4월 16일 제주에서 4자회담을 제의한지 오늘로서 만 1년이 됩니다.

40여년전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그 이후 진정한 평화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이 지역에 불안한 평화나마 유지하는 바탕이 되어 온 정전협정체제까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확고히 보장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은 물론 평화통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된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4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바탕한

것입니다.

4자회담은 실질적 당사자인 남과 북이 정전협정 관련국의 뒷받침을 받아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반목하고 대결하는 남북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화해하고 협력하는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현지시간으로 내일 뉴욕에서 한·미·북 3자간에 지난 3월의 공동설명회에 이은 후속협약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번 후속협약이 보다 실질적인 토의의 장이 됨으로써 4자회담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가 ‘위대한 아시아·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라는 신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 모두의 소망은 이 지역에 확고한 평화가 보장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평화의 바탕이 없는 한, 지역의 번영과 개인의 행복은 언제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북아가 안정 속에서 공동번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안보를 위한 역내 국가간의 대화와 협력이 긴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몇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안보협력체를 구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망은 밝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유럽안보협력체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앞서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확립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의 훌륭한 모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4자회담 참여국가들 만이 아니라, 일본·러시아 등 유관

국가들로부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입니다.

이 모임이 4자회담의 의의를 다시 살펴보고 그 성공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회의를 위해 멀리 해외에서 한국을 찾으신 분들에게 뜻깊은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자구적 노력 필요

중앙일보 인터뷰 (1997. 4. 21)

기 자 황장엽씨 망명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황씨는 ‘이론신앙집단’인 북한노동당의 통치이론을 만들어 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허구성을 한마디로 증명하는 셈이죠.

북한당국은 물론 주민들이 겪게 될 심적 충격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기 자 황씨 망명에 대해 북한은 “배신자는 가라.”고 했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까?

부총리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남북 긴장이 이번 일로 더 고조되거나 4자 회담 추진에 직접 영향은 없을 걸로 봅니다. 오히려 그 후로 남북간 대화는 다소 진전되는 분위기입니다.

기 자 황씨는 “전쟁을 막기 위해 왔으며,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망명동기에 대한 궁금증은 남습니다. 일부에선 위장망명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표시합니다. 그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부총리 황씨는 “민족앞에 큰 죄를 지어 부끄럽다.”고 사죄까지 했습니다. 그리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겠다고 했고,

일단 순수한 민족애적 발로를 망명동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자신이 추구하던 이상적 사회주의국가와 달리 오늘의 북한체제가 기형적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대한 강한 회의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에서 망명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를 따뜻하게 맞고 충분한 대화를 나눌 생각입니다.

기 자 항간에 화제가 되고있는 '황장엽 리스트'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총리 확인된 것이나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차차 확인할 수 있겠죠.

기 자 황비서가 상당한 북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란 전망인데 주로 어떤 종류의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 그는 김일성·김정일을 비롯해 최고위층과 생활기간이 상당히 긴 사람입니다. 또 최고의 이론가로서 주체사상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귀순자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남전쟁도발 음모의 실상, 주민통제, 식량난을 포함한 종합적 생활상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 자 기자회견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 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최소한 1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의 지위와 사상적 무게 등을 고려, 그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의 거취는 그런 뒤에나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기 자 궁극적으로 통일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부총리 황씨로부터 북한의 참모습을 알게 될 것이고 이는 남북이 서로의 진면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이는 또 긴 안목에서 볼 때 상호 이해의 폭을 좁혀 결과적으로 진정한 남북교류에 기

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자 이야기를 북한의 식량난으로 돌려보죠. 식량난의 정도가 실제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총리 연간 6백20만톤 정도 필요한데 생산량이 3백70여만톤에 불과, 매년 2백만톤이상 모자란다고 봅니다. 3년간 계속된 흉수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 자 그렇다면 군량미라도 돌려 주민들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게 상식인데 오히려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상황이 어렵다 보니 거꾸로 “우리는 끄떡없다.”고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기 자 우리 내부에선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엇갈린 견해가 있습니다.

부총리 맞아요. 두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동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도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와주어선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흐름들은 소수이고 “북한의 태도에 따라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는게 주류라고 봅니다. 이는 또한 통일원의 기본입장이기도 하죠.

기 자 북한동포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류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부총리 북한동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끼지 않고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 자 민간차원에서 대북지원이 매우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 찬동한다는 의미겠죠?

부총리 민간단체들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대북지원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고마운 생각마저 듭니다.

기 자 그러나, 일각에서 정부가 대북지원활동을 막고 있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총리 그건 잘못된 오해에서 그런 겁니다. 다만 창구를 일원화해서 질서있게 하자는 것 뿐입니다.

기 자 질서있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부총리 우리 적십자사를 거쳐 국제적십자사가 지원품을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는데다 지원품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 자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북한에 직접 들어가 전달하는게 왜 안되나요? 우리의 뜻을 북한동포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회도 되고 좋지 않을까요?

부총리 그것은 더더욱 곤란합니다. 자칫 순수한 지원활동이 북한의 공작적 차원에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중개인을 통하거나, 혹은 우리측 인사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등 은근히 경쟁을 부추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는 얼마 냈는데 당신네는 그 이상 내라.”고 요구하든지, 향후 개방에 따른 기득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기 자 외국에서도 우리정부가 대북지원을 막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던데요?

부총리 그것도 말이 안됩니다. 실제로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95년 지원한 액수가 2억 3천만달러(2천억원 상당)입니다.

우리 쌀값이 비싸다 보니 양은 15만톤이었지만 우리로선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유엔을 통한 지원금을 합치면 2억 5천만달러에 달합니다.

일본은 50만톤보냈으나 지원액수로는 7천만달러였어요. 그나마 35만톤은 유상조건입니다.

미국은 엇그제 1천 5백만달러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합쳐 지금까지 모두 3천 3백만달러입니다. 우리만큼 지원한 국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더러 인색하다니 말이 되나요?

기 자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도 왜 인색·졸렬하다는 비난이 국내외에서 나오니까? 적게 지원한 미국은 마치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게 하는데 말입니다.

부총리 96년초 유엔을 통한 지원금으로 2백만 달러를 내는게 어떠한 미국의 요구를 “우리는 이미 2억 3천만달러어치의 쌀을 제공한데다 남북된 우성호 선원도 석방 안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면서 거절한 적이 있죠. 그러나 일부 서방언론에서 “한국이 별로 인도적이지 못하다.”는 식으로 쓰기 시작하더군요

기 자 단순히 서방언론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자회담이 안되면 지원이 안된다는 방침이 그렇게 비친것 아닙니까?

부총리 우리는 4자회담에서 식량지원문제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북한쪽의 태도를 한 번 보세요. 쌀을 주었는데도 어떤 식으로 왔나요? 쌀이 가는 날 김영삼대통령을 원색 비난했고 우리 배에 인공기를 달도록 했죠. 선원까지 억류하고요.

어떻게 북한쪽의 태도를 보지 않은채 무조건 쌀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뜰이나 당시 국내여론이 쌀지원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위기였잖아요.

현재 그들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지 지원을 막고 있는건 결코 아닙니다.

기 자 북한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때를 놓치지 않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소박하게’ 대처할 수는 없는 거죠. 4자회담이라는 ‘좋은 현관문’이 있는데 괜히 담을 넘어 기웃거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기 자 북한 스스로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총리 북한이 연간 부족한 식량 2백만톤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3억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군사비 사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60억 달러예요. 우리 뿐 아니라 일본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또 이번 김일성생일 행사비로만 2억~5억 달러 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니 정부내에서도 국방부 같은데선 지원에 반대합니다.

기 자 정부내 공기가 지원 반대쪽이란 말입니까?

부총리 그런건 아닙니다. 북한당국의 비상식적 태도가 고쳐져야 한다는 거죠. 군사훈련비나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말고 부족분중 최소한 절반량은 자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들도 의심없이 지원대열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기 자 4자회담에서 제시할 우리의 구체적인 대북 쌀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4자회담과 관계없이 이 달내로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긴급구호 성격이죠. 구체적인 지원액을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

기 자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전쟁위기를 거론하는 측이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부총리 현재는 상당히 미묘한 국면입니다. 조심스런 접근과 해결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를 북한이 선뜻 받아들인 것도 한 예죠.

기자 ‘미묘한 국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한보사태에 발목 잡히고 임기말 현상까지 겹쳐 만약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 우려가 팽배합니다.

부총리 북한의 붕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득이 되지도 않는다는게 확고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이 갑작스레 붕괴할 상황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평화지향적 변화 촉구

KBS-TV 「정책진단」 인터뷰 (1997. 4. 27)

사회자 북한의 전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가 서울에 온지 오늘로서 꼭 일주일 쯤을 맞고 있습니다. 황장엽 망명에 대해서 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부총리 황장엽씨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본인이 망명도 귀순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장엽씨의 경우 북한을 나왔다는 의미에서 망명이겠지요.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도 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서 오는 분들을 그동안 귀순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지금 황장엽씨의 경우 그 분의 지위를 보면 좀 특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귀순이었다, 망명이었다, 말하는 것보다는 굳이 말하자면 북한을 이탈한 정치적인 신념과 목표를 가진 분 중에 대단히 용기 있고 지체가 높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북한에 핵폭탄이 있다든가, 남한에 뿌리 뽑을 수 없는 북한의 거대한 조직이 있다든지 하는 황장엽씨의 말에 대해 우리가 혼란스러운 입장인데 정부에서 시각을 정리해야 하겠습니까.

부총리 중국, 필리핀을 거쳐 오는 동안 두어달 넘었습니다만 아직 황장엽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위 그가 말하는 신념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않았습시다. 서울에 온 후 어느정도 안정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을 차츰 물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물어보는 자리를 만들 생각입니다. 기자회견부터 하는 일을 이번에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자 황장엽씨가 남한을 초토화 할 수 있는 무력이 북한에 있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것을 의심스럽다 했습니다.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은 황장엽씨의 입만 쳐다보는 것인데 정부의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것은 나도 궁금합니다. 저는 황장엽씨가 말하는 가운데 몇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북한의 리더십이 이제 효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방부도 그 동안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또 북한의 리더십이 저래가지고 되겠느냐는 것도 우리가 늘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황장엽씨가 하는 얘기가 큰 줄기에 있어서 우리가 놀랄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핵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그 분의 논문에서 언급했다고 하는 데 그것이 몇 개가 있고 어디서 보았고 하는 것 보다는 개연성으로서 핵폭탄을 가질 가능성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전쟁할 뜻을 가졌다는 것과 전쟁능력이 있다는 것을 갈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뜻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그런 능력이 정말 있느냐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황장엽씨는 군사전문가라 하기보다는 이론을 가지고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회자 황장엽의 말에 대해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말들을 다 믿어버리는, 소위 ‘황장엽 바이블’ 같은 현상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장엽의 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검증되기 전에 황장엽의 말에 대해 언론이나,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 말씀을 다 새겨서 정부는 대처할 것입니다.

사회자 황장엽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대 총장 및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지냈습니다. 북한의 핵심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이 북한을 탈출해서 서울에 온 것을 두고 북한지도체제 내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을런지요?

부총리 황장엽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북한내에 그 동안에도 꽤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개연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황장엽씨의 용기있는 탈출로 그것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들어와서 북한을 이탈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장엽씨의 경우를 가지고 북한의 선전기구들이 나뭇잎이 하나 떨어졌는데, 나무가 넘어간 것처럼 떠드는 것을 가소롭다고 말하는 것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잎파리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민감한 사람은 겨울이 온 것으로 예감도 합니다.

사회자 지난번 국회에서 부총리께서는 황장엽 리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만약 황장엽 리스트가 나왔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 국회에서 좀 추궁을 받았습시다만, 황장엽 리스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문을 하다 보면, 황장엽이 오래 높은 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소위 리스트라는 것이 생길런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정부가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지금 미국에서는 4자회담을 위한 3자 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잘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부총리 북한이 4자회담에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언제든지 무엇무엇이 안돼서 안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4자회담이 당장 열리고 안 열리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자회담에 나오는 북한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북한은 식량과, 4자회담이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 놓고서도 식량이 안되면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옛날에 서커스 같은데 가보면 입장은 무료인데, 장내 정리금은 내야 된다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자 북한이 4자회담과 식량문제를 분리한다고 말은 했지만, 4자회담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식량문제를 제기할 때의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부총리 한미는 식량을 주고 4자회담을 사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4자회담은 과거에 있었던 전쟁, 냉전 대결적인 구도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40년 동안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지금 당장 급한 식량이라든가 여러 다른 현안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같은 논의를 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같이 마주 앉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뭘 안하면 안하겠다, 뭘 하겠다 하면 안됩니다.

한국으로서는 북한 식량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2년전에 정부 수립후 최고의 액수로 최대의 관용으로 원조를 주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때 북한이 원조 받으면서 우리에게 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국민들은 다시 그와 같은 짓을 다시 하지 말아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북한의 '3+1회담' 제의에 대해 정부는 거부하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부총리 우리가 4자회담을 제의했고 무조건 만나자고 했는데, 북한이 4자 중에서 일방을 빼고 따로따로 하자는 제의는 우리가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회자 북한의 식량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북한돕기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굶주림의 실태를 황장엽도 말했지만 정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부총리 대단히 어렵다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렵다는 단어 하나로 모든 대책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식량이 모자란다는 것은 옛날부터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불과 2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그 쪽에서 쌀을 지원했던 일까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북한이 전체적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더 좁혀가지고 보면, 저희들은 1차로 95년 6월에 15만톤을 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안에서 왜 그만큼 많이 주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는 2억 3천만불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2천억원 가깝고요, 1천9백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보내는 과정에서 '인공기사건', '삼선비너스호 사건' 등을 도발하니 그것이 부각이 되어 바보같은 일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한국쌀이라는 표시도 하지 말라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것

을 수용하여 표시도 안하고 보냈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바보 짓일 수도 있지만 적대하는 관계에서 얼마나 관대한 일입니까?

그런 원조를 했던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그때 그 원조는 한국 사람의 프라이드가 되면 되었지, 그것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두번째 원조가 있었습니다. 여론은 북한을 무엇 때문에 또 돕느냐 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우리가 국제연합의 중요 멤버로서 북한을 돕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돕자 할 때도 냈었고 고베 지진이 있을 때도 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저런 상황인데 안낸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통 민간인들이 생각하기는 정부가 주는 것이나 국제연합이 주는 것이나 적십자가 주는 것이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고 할 때 쌀을 무턱대고 그 곳에 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얼마나 부족한지 그들과 의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국제기구의 호소에 따라 우리가 작년에 벌써 300만불 상당을 지원했고 올해 600만불 지원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이 적게 주고 일부러 안주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회자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밑으로부터 바라다면, 여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즉 창구를 넓혀서 많은 접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부총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소박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지금 말씀하신 대북지원을 공작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례가 포

착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A단체는 얼마 가져 왔으니까, B단체는 얼마 가져와야 한다고 하고 조작하는 것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또 종교단체 지원도 지원하는 양에 따라 평양이나 시골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허락한다는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시골에서든 평양에서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좋지 않느냐 말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이를 북한에서 공작적으로 이용할 때, 그것에 이용되는 것처럼 보이면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투자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은 기업들이 어느 곳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얼마를 가져오면 어디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유도합니다. 우리 기업가들은 경쟁심에서 그와 같은 유혹을 남한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만큼을 갖다 주면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십자를 통해 지원하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적십자라는 단체는 인도주의 구원을 위해 있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돕는 것이 진짜 돕는 것인가에 대해서 적십자만큼 아는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십자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북한적십자가 우리 적십자사와 직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간단체들이 직접 주고 싶은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적십자를 통해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마음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좀 참아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지난 25일이 인민군 창설일이라 해서 평양에서는 상당히 큰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장엽의 말에 따르면 김정일은 계속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굶주림을

돕기 위해서 쌀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 북한을 놓고 안팎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최우선으로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민군창설 기념행사는 5년마다 대단히 크게 하는데 우리는 마침 그날 김현철씨 청문회가 있어서 우리 미디어가 그 쪽으로 쏠렸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를 보면 장갑차, 미사일 등을 많이 동원하는 시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황장엽의 지적처럼 북한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십분 유의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전쟁을 선택하지 말고 스스로 변해 우리와 얘기도 하고 평화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서서히 평화지향적으로 변하고 우선 전쟁을 선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 통일이 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실제 있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소프트랜딩을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과 남북관계 보도

한국신문방송 편집보도국장 세미나 강연 (1997. 5. 2)

제가 앉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어제 와서 저녁할 때 성회장께서 친정에 온 것과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감이 납니다.

친정에 와서 무슨 적어 온 연설문을 읽어대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서두에 화두를 유도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신문과 연관해서 생각나는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얘기를 활발히 하시고 저도 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친정에 와서 안방에 뒹굴며 얘기를 주고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들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신문이 원점을 생각하자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신문을 하며, 우리가 오늘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좀 거창하게 잡으면 그런데, 제가 신문사에 있으면서도 그랬고 또 나와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작은 이야기입니다만 그것부터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로 시작해서 바로 신익희선생이 어디서 얘기하는 것

을 들었는데, 중국애기입니다.

중국에 가면 가격홍정을 안하는 점방이 있는데, 점방 이름이 ‘일언당’ 이래요. 한 마디로 한다는거죠.

두 마디, 세 마디 안한다. ‘한 일자’하고 ‘말씀 언자’라는 ‘일언당’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거기 모이니까 그 옆에 ‘진일언당’이며, ‘진짜 일언당’이란 점포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 옆에는 ‘진정일언당’이란 점포를 만들었는데 자기 경험으로, 또 중국 사람의 지혜로서 보면 ‘진일언당’, ‘진정일언당’은 ‘일언당’보다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일언당’의 원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 분이 하시면서 그때는 민주주의 하면 됐지 뭐 진보적 민주주의가 따로 있고 무슨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등 그것 다 틀렸다는 말씀으로 하시는 ‘일언당’ 얘기였습니다.

지금 신문과 연관해서도 여러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요즘 신문을 하는데 광고 같은 걸 ‘진일언당’, ‘진정일언당’이 꽤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문의 원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짚어지고 나라를 구해 놓는다고 덤벼드는 것 같은 모양은 좀 덜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얘기할 때 남북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니까 이걸 보도할 때 특별히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 그 얘기 자체는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혹시라도 신문이나 방송이 하고 있는 보도의 원점과도 다른 것을 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보도건 무슨 보도건 간에 보도의 진짜 요체는 간혀진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 요체를 빼놓은 남북문제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있

다고 하는 것은 요즘 저 혼자 느끼는 것이지만 무슨 규제를 없애자고 하면서 행정으로 도와준다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일종의 모순된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특별히 도와주기 시작하면 특별히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것은 규제입니다.

‘도와준다 이꼴 규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남북문제보도 관계도 특별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보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남북문제를 제대로 보도하는 것이지 보도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도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무어냐?

이전에 제가 잠깐 하버드대학에 가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만 리포트’라는 잡지가 나와요.

거기에 옛날 사람들의 얘기를 엮은 한 대목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 안 잊어 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편집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간단하지만 미국언론의 윤리나 책임감 등 편집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자면 많죠. 무엇이 사실이나? 무엇이 어떠냐? 또 사실을 보도한다는데 과거에 편집자가 얼마나 뭘 했느냐? 누가 잡아간다고 할 때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줄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편집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신문들이 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사실을 접하면 우리는 그런 것도 또 하나 느낍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보다 일종의 가치판단인데 저희들이 일선기자라고 뛰어다닐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압력을 넣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압력을 넣을 때 늘 하는 소리가 ‘환율 현실화다’ 이렇게 합니다. 환율

현실화라는 말은 한국 사람이 한국돈을 더 많이 줘야 달러를 사게 만드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때 많은 젊은이들이나 기자들은, 기자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저처럼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뭐 우리가 1달러 사는데 100원 주는 것보다 80원 주는 것이 애국심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된 다음에는 원화가 떨어지는 것이 수출을 더 조장하고 좋더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감있게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수출업자는 이것이 좋다고 그러고 하는데 내 개인적인 기분으로는 아직도 1달러 살 때 1원 주고 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대가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율을 놓고 본다고 하는 데까지는 한참 걸리더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사항들이란 것도 그때그때 그런 것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더욱 더 그런 측면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보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보도의 기본을 좀 제쳐놓고 남북관계니까 특별한 반공정신으로만 보도하자고 하는 것을 저는 요구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길게 봐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을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알면서도 그냥 보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잘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인들 뭘 다 압니까? 어떤 때는 신문보다도 더 모르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깨우쳐 가면서 하죠.

요컨대 신문에 나온 것을 완전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완전한 신문이란 것은 없겠지요.

저는 민주주의도 신문의 질도 영원히 저 앞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모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경제지표가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분류되기도 합니다. 저는 신문의 질이 그 나라의 선진국, 후진국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신문을 읽고 그 나라의 돌아가는 얘기를 딱히 알지 못하고 그 나라의 신문이 많이 흥분해 있다는 사실만을 알게 되면 좋은 신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사에 다닐 무렵에 많은 것이 핑계말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내 구호 전부가 “내 탓이다.” 남의 탓이 아니고 내탓이다 고 하는 ‘내 탓이오’라는 운동이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부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 바로 그런 운동을 스스로를 향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감히, 고언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대단히 사소한 일입니다만, 거짓말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보입니다만, 이게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프린트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있다. 그것은 신문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없이 했기 때문에 고백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석간신문을 만들 때 기사마감을 낮 11시쯤 하는데 그날 오후에 있는 일을 놓고 모두 했다고 씩니다.

방송은 그때그때 보도하니까 그와 같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이 서로 상호 좋은 점을 취하면 좋습니다. 때때

로 보면 신문의 한계가 되는 나쁜 점을 방송이 그냥 하고 방송의 나쁜 점을 신문이 배우는 것 같은 것도 많아 악순환 같이 보입니다.

나는 작은 거짓말일지라도 프린트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는 지금 한국에서 신문을 만들고 있는 현황으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신문 업계 내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어느 나라에도 석간이란 이유로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다고 과거 시제로 쓰는 신문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OECD 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있어요. 국회가 오후 2시에 열리고 하면 오늘 “○○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신문이 배달될 때는 벌써 국회가 끝나 있을 테니까 배달될 때에 맞추어지는 것이죠. 배달될 때에 맞추는 편집자는 잘못된 편집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할 때 과격한 농담으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죽었다고 쓰면 특종이 되죠. 언젠가 그 사람 죽을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사를 쓸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우를 우리가 자꾸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석간에 ‘했다’라고 쓰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것은 편집자가 알고 그것을 쓰는 기자도 다 안다고요.

아직 시간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했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쓰는 것은 석간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짓말을 써도 아무렇지도 않고 쓸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석간들만 가지고 있는 일종의 비극입니다.

제가 동아일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는 않으려는 것이 잘 안돼요.

지금 저널리즘을 다시 찾고자 하는 신문계의 움직임이 편집인협회를 중심으로 약간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합니다.

한 때는 신문이 전부 광고료와 부수의 숫자 경쟁으로만 흘러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신문계를 이끌었던 하나의 추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어느 한 때 규제가 좀 풀리면서 일종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할 때 자유가 나쁘게 흐른 대표적인 예로 꼽고 싶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정치적으로 의도하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무슨 동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나쁘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 예를 들면 조간신문의 경우에도 사진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올림픽이 50일 남았다고 할 때, 50일 남았는데 올림픽 준비는 잘되어 있느냐는 기사를 쓸 때 사진을 곁들이는데 시청앞의 D-50 하는 시계탑을 사진으로 넣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50이란 날자를 찍으려고 사진기자단이 50이라고 시계 바늘을 돌려서 찍게 만들어 가지고 51일 때에 신문에 프린트해서 배달 때에 맞추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아까 석간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프린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누구한테 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한 저널리즘은 안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안하느냐? 거짓말 프린트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하고, 누구한테도 해를 주는 것이 아니잖느냐? 해를 주는 것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그때 만드는 사람이 제멋대로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죠. 있는 것을 있다고 쓰는 것입니다.

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자기를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실제로 있지 않는 것을 프린트해서 이로 인해 이웃에 있는 아사히 신문의 사장이 그만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만, 얼마전에 일본에서 지금 사장

말고 먼저 그먼저 사장 히도츠야나기 사장이 환경캠페인을 한다고 환경을 해치는 여러가지 사례를 사진을 곁들여 일종의 캠페인 보도를 했습니다.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바다 밑의 산호초를 어떤 사람이 내려가서 그 밑에까지 잠수를 했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산호초에다 자꾸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환경파괴라고 고발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고발하는 사진을 찍으려 잠수해 보니까 물속에서 찍으려니 사진이 아무래도 잘 안나올 것 같으니까 흔적같은 곳이 있으나 그 사진만으로는 안될 것 같아서 열쇠꾸러미 같은 것으로 이것을 끊어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이니셜을 해서 사진을 찍어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지역의 잠수부클럽의 항의를 받았어요.

처음에 자체조사를 할 때 사진기자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다가 당시 그 쪽을 안내했던 사람이 자기도 생각컨대 그 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 확실한 것을 알려달라고 해서 다시 조사했더니 역시 기자가 굵적굵적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었지만 사진을 찍기 전에 있는 그대로 찍지 않고 굵적굵적 했다는 행위, 그것을 감추었다는 부도덕, 이런 것을 가지고 사장이 그만 뒀어요.

나는 그것이 지나친 결백이라고 그 때 생각했습니다만 좌우간 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저널리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전날 시청출입 사진기자단이 모여가지고 '50일로 돌려라'하고 찍고 다시 51일로 돌려놓는 말하자면, 조작이 우리 보기에 또는 신문이 보기에 그것을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것도 안한다는 강한 윤리의식이 신문한테 요구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무슨 정치적인 동기배이션이 있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한다는 것

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국민소득 1만달러, 뭐 OECD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서 석간이나 조간에서 그런 사소한 일에 거짓말인 것을 다 알면서 그대로 프린트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쌓아 올려가지고 절대 안하기로 된다고 하면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많이 달라지고 바뀌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옆의 사람들과의 경쟁관계를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걸 안한다고 저쪽 집도 안해주면 좋은데, 저쪽 집은 하는데 우리가 안하면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지고, 그것은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산자 쪽의 논리입니다.

그 경쟁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자기의 가족도 보는 신문인데 그 보는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것은 “철저하게 지켜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많이 보는데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특히 오래 남북관계를 추적해오는 기자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하면 “잘 안될 것이라고 고위당국자가 말했다.”고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고위당국자가 없다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는 어법은 6하 원칙에 맞추어서 기사를 쓰라고 교육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버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작은 이에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나의 거짓말과 연관해서 동아일보사에 있다가 그걸 한 사람으로서 동아일보 얘기를 또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얼마되지 않았을 때죠. 얼마되지 않았다고 해도 아마 작년 이때쯤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세팅이 똑같습니다.

작년 이맘 때도 북한은 쌀이 어떻게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경 쌀회담이란 것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도 않느냐. 우리가 북경가서 기다릴 테니까 나와라. 이런 종류의 팩스를 우리에게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팩스인줄도 모르고 있을 때죠. 도쿄같은 데는 조총련이나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걸러드는 거예요.

그 때도 나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북경에서 기다리겠다고 띄워놓고 도쿄의 조총련으로 하여금 곧 무슨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도쿄에 있는 우리 특파원한테 “수상급의 남북 접촉이 있다.” 라고 일본에 있는 어떤 북한소식통에 밝은 사람이 말했더라는 보도입니다. 1면에 톱으로 아주 크게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아침에 누구누구 기자라는 것까지 집에서 보고 이렇게 막 거짓말을 써도 되는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같은 구세대들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아주 토피칼하게 거짓말을 다른 회사들도 다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신문사의 누구누구 기자가 쓰는 것이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진다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끔 만들지만 뭔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필자의 이름을 쓰기도 하는구나, 내가 최근까지 신문사 사장을 하던 사람으로서 그건 좀 의외였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이걸 또 문제라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라인이라든가 날짜라는 것도 거짓말 같으면 거짓말을 안쓰

는게 맞습니다. 거짓말을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왜 쓰느냐 이겁니다.

신문기자가 아니라 대통령도 부총리도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때때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큰 무엇을,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런 궤변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오래 갈 수 있는 궤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신용을 하루하루의 작은 것을 위해서 남용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라도 이것이 거짓말인지 알고 있으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아까 고백같이 했습니다만 석간할 때 그런 것이 꽤 많았어요.

자꾸 얘기해도 저 사람은 저혼자 무슨 원칙 좋아해 가지고 신문에 몽땅 터지는 데도 그대로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해가면서 이것을 언급했었는데 그와 같은 연장이 지금 신문계나 방송계에서는 통할 수 없는게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세미나에서 남북관계를 놓고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는 “더 좀 조심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것을 이유로 거짓말도 쓸 수 있고 횡포를 부릴 수도 있고, 또는 정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가 여러분들한테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진실된 것에 달려들어 진실을 캐내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다른 것처럼

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나는 정치 보도에서도 그렇고, 사건 보도에서도 그렇습니다. 보도의 제대로 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때때로 큰 일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정부가 무슨 청을 할 것입니다. “청을 할 때는 정부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언론계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행 비슷한 것을 누가 고치겠는가 하면 역시 편집인협회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편집인협회에서 대단히 작은 일을 하나 했던 것을 사례로 듭니다. 제가 편집국장을 할 때니까 7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는 편집인협회가 지금처럼 국장이 많지 않았으나 상당수가 모여서 할 때입니다.

그 때 편집인협회장 할 때, 별 언론자유 투쟁도 못했었으니 그런 속에서 그나마 신문이 없는 것보다 신문을 프린트해서 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대로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신문을 낱알이 프린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큰 실수가 있었다는 사례로 종종 말씀드리는데, 신문이 그 때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해가 나면 수해의연금을 각 신문사가 모집을 합니다.

우리 신문에 많은 의연금을 가지고 왔다고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의 사진을 크게 낸다든가 하여 사세 경쟁처럼 각 신문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을 보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기사면을 너무 많이 먹어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해서 돈은 조금 갖고 왔지만 어떤 할머니가 애써 모은 돈을 내놨다고 하면 기사거리이고 상당히 많은 돈을

내놨다 해도 무슨 재벌 2세가 그냥 발끝으로 주는 것 같은 것은 그렇게 큰 기사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정한 선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편협’은 운영위원회, 지금 편집국장 모임같은 모임에서 “그렇게 한번 합시다.”하여 딱 지켜졌어요. 나는 대단히 독자를 위한 서비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독립기념관을 건립할 때 그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편협’이 나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신문이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덜하게 하도록 ‘편협’에서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첫머리에 신문의 ‘원점’이란 말씀을 했습니다.

원점이 각 신문마다 따로 있을 수 있고 어떤 신문은 일제시대에 무얼 했기 때문에 ‘독립’을 어떻게 한다든가, ‘민족자존’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신문도 있고 여러가지 원점이 각각 신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틀어서 제가 생각하는 “신문은 무엇을 하기 위해 있는냐.”에 대한 말씀이 참고가 된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평화를, 민주주의를, 뭐를, 꼭 잡아서 우리가 저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신문이 바로 그것을 하게 돼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 국민이 한글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잘 정보제공이 돼야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잘 정보제공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형성된 하나의 퍼블릭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제2의 퍼블릭을 만드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기분좋은 특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퍼블릭은 무엇이나도 따

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퍼블릭과 매스에 관해서 역으로 내 나름대로 풀이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해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로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매스라 하는 것 하고 퍼블릭이라는 것은 좀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학자가 나서서 뭐도 하고 해야 좀 권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는 제가 느낀 그것으로는 우리가 한 때 내이션 빌딩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퍼블릭 빌딩이 되지 않고는 잘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빌딩이란 무엇이겠는가고 말할 때 퍼블릭은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히틀러가 휘어잡았던 독일의 대중은 매스입니다. 그런데 히틀러 밑에서 계속 음악회 지휘자로 남아있어 나중에 뉴른베르크 재판에서 전범으로 법정까지 섰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던 유명한 지휘자에 푸르트 벵글러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망명한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히틀러한테 봉사하느라고 지휘봉을 들고 그 앞에서 연주를 하려고 망명을 안했지 않는 규탄을 받았을 때 그 분이 말한 답에 퍼블릭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독일음악의 전문가인데 독일음악은 미국가서도 연주할 수 있지만 독일의 청중인 퍼블릭이 없는 음악회장은 자기가 생각하는 음악회장이 아니다. 독일의 퍼블릭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매스가 아닌 퍼블릭이다. 그런 구별을 내가 어떻게 제대로 해야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퍼블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퍼블릭에 봉사하는 것이 지휘자 그 사람이고, 퍼블릭 그것에 봉사하는 사람이, 우리의 저널리즘이고, 퍼블릭 그것을 아직 형성이 덜 되어 있다면 형성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점이다. 저널리즘이 잊어버려서는 안되는 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신문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방송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관련되는 정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하고 질럼보다 못하겠습디만, 민족통일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았는데 46%가 방송을 통해서 북한소식을 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단순한 매스에 그치지 않고 퍼블릭이 되게끔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방송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들을 북한에 대해서 잘 전달되게 만들어 주면 우리가 대북정책이나 대북의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참 건전한 무엇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하루 일하시다 보면 눈금을 놓고 다투고 마감이 거둬지고 요즘 특종이라 해박야 5분짜리 특종이 많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는데 대해서 자존심도 가지시고, 또 자존심을 가진 만큼 책임감도 가지시고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방송이나 신문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기자들을 보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은 약해진 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선배로서 잊어버리는 후배들에게 한번씩 귀뜸도 해 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저널리즘에 있어서의 일종의 획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사가기 한참 전에 일본에 ‘도요 게이자이신포’라는 주간지를 내는 잡지사가 하나 있는데 그 잡지사 사장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때 그 양반이 남기고 간 말이 지금도 안 잊혀져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도요 게이자이신포’는 경제지로서는 상당히 전통이 있는 잡지사인데

그 잡지사의 사장이 “일본의 경제가 한국경제의 20배가 된다. 어떤 때는 100배가 된다고 하며 이렇게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일본은 경제일간신문이 하나 밖에 없느냐.”고 주위에서 꽤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한국에는 경제신문이 7개나 있다.”고 해서 서울에 와서 경제지의 가능성을 다 조사하고 돌아갈 때 저한테 왔는데 “한국은 경제지가 여러 개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신문은 하나다. 신문이 똑같다. 모든 뉴스 소스가 요즘식으로 하면 재경원, 한국은행 등 그저 그런 것이 씌어진 포맷이 똑같다. 그래서 일본에는 ‘닛케이신문’이 하나의 독보적인 신문으로 있는데 자기가 만일 신문을 낸다면 그거하고 다른 신문을 내야 되겠는데, 다른 신문을 내고자 하는데 자신이 없어 지금까지 못내고 있었다. 한국에 신문이 많은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일본은 훨씬 경제 불륨이 큰 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는 아마 추어가 말할 때 그 말씀은 맞지만 자기가 그걸 듣고 거기 맞춰서 신문을 또하나 낸다는 것은 한국의 사정은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걸 보면 경제신문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남북관계를 얘기할 때 작년, 제작년에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 보도는 민족의, 조국의 통일을 무얼하고... 말하자면 상당히 뭔가 실려있는 선언문도 내고 했습니다.

선언문에 의하면 관급자료는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써야지 국민의 여론을 오도할지도 모르는 관급자료를 주의깊게 써야 된다. 이것은 비단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관급자료를 주의깊게 보는 것이 저널리즘의 할 일입니다. 무얼 특별히 선언문을 낼 것까지 있느냐, 그러나 그 선언문을 낸 이후에 관급자료에 대한 체크를 했느냐, 내가 볼 때 안했어요. 또 관급자료를 내놓지 않는다고, 관급자료 왜 안주느냐고 고함만 질렀지요.

그런데 이런 선언문을 쓸 때는 관급자료를 다 점검해야 합니다. 저널

리스트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당연한 일같은 것을 선언문에는 해놓고 별로 하지도 않더라. 즉 관급 의존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정치부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무슨 정당의 당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치체제가 민주화가 안되고, 무슨 당내 민주주의가 안되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 모순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요새 그런 것을 느껴요.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합시다만 무대 위에 있는 것만이 정치가 아닙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무대 밑의 사람이, 누구를 무대 위에 올릴 것이냐를 판정을 밑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밑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는 취재 보도하는 그 자체 문법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저널리즘 문법을 바꿔야합니다. 문법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는 정치는 ○○당, ××당, △△당에 기자들이 가서 무슨 간담회하고 한 두마디 하고, 또 우리 언론계 출신이 많습니다만 대변인이란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걸 대서특필하는 식의 정치보도입니다. 그렇게 보도를 계속하는 한 정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가 안 달라졌다고 손가락질하는 대상쪽에 안 달라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우리쪽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정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이런 편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스스로 자꾸 체크합니다마는 “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신문에 대해 저는 독자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난 연말부터 연초에 걸쳐 겪은 경제위기의 뇌관과 같이 터졌던 것으로 생각하는 노동법파동 때의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신문 또는 방송이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는 마음의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파업의 의미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져왔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져 왔고, 개방과 어떤 연관이 있고 하는 것을 잘 해설해 주는 기사를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노동법 파동이 있었을 때 그것을 신문의 보도하고 연관시켜 보게 됐던 것은 바로 제가 맡은 소관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렇구나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한 두분에게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자리가 열렸으니까 말씀입니다.

한참 스트라이크가 있을 때 어느날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갈 때, 뉴스시간에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보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한국의 당국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안드는 편을 칠 때 이북에 동조한다, 북한한테 동조한다는 논리를 잘 써먹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 노동법을 가지고 한국정부가 그걸 써먹는다고 보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노동법은 노동법이지만 북한쪽 하면 우리의 소관도 있기 때문에 어떤 문맥으로 그와 같은 보도가 나왔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스트라이크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쓰는 것이 좋은 기사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내가 스트라이크 하는 기사를 찾아보지도 않았을 테지요.

그 때 찾아본 기사가 뭐였느냐 하면 한국의 이번 스트라이크는 큰 쟁점이 아니다.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노동투쟁이다. 그게 리드입니다. 왜 그러느냐? 노동자들에 물어봤더니 전부 자기네 기업하고 싸우고 있지 않고 전부 정부가 미워서 그렇고 자기 기업이 잘못되면 안되겠다 하는 사람이 전부 노동자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파업입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더라도 자기 기업에는 큰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그저 점심시간을 좀 오래 나가 시위하고 있다. 그런데 명동성당에 모여서 뭐하는 언저리에서 무슨

정강이 나왔는데 그것을 놓고 한국경찰에서 파업한 것은 북한 쪽에서 그것을 자꾸 선동하고 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동안 노동운동이나 뭔가 있을 때는 흔히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당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의 경고를 듣는 노동조합 쪽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한계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노동운동이 크게 되는 것이 아니냐, 70만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70만에는 많은 사람이 그냥 점심시간을 오래 태업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다.

그리고 울산에 가보니까 현대중공업 노조쪽에서는 파업을 하라고 하는데 파업을 안했다, 현대자동차 쪽에서는 했다, 운운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가지고 뉴욕타임즈는 한국 당국이 노동운동은 전부 북한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말로 했다고 외마디로 보도하는 것은 나는 한국 저널리즘의 일종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대로 방송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왜 지금 그와 같은 종류의 보도는 한국신문에서는 읽기가 어려우냐 이것입니다. 누가 그걸 맡아 갖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업 현장에 관한 보도같은 것이 대단히 우리한테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파업으로 날린 것이 31억 달러라고 하는데 한국전체 GNP의 2%도 안되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충분히 이것을 관리할 만한 저력이 있다. 그런 것으로 타임즈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그 때 우리가 보기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파업을 다 합친 것보다도 지난 번 노동법파동 때가 더 컸다 라는 보도가 우리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큰 것이었지만 한국경제에 더 큰 불똥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경제는 크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가 맡고 있는 쌀지원과 연관해 가지고 제가 북한에

도대체 쌀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를 여러 사람이 많이 묻기도 하고 저
도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산술이 있는데, 북한은
수해가 없어도 한 200만톤이 늘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 200만톤을 우리
가 다 갖다 메울 수는 없으니까 100만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굶거나 배
급량을 줄이거나 해서 메우고 적어도 100만톤은 밖에서 들여가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100만톤이란 것이 또 값으로는 얼마나. 옛날
에 우리가 주던 한국의 최고 좋은 쌀을 주면 100만톤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지만 좋은 쌀을 주지 않고 요새 말하는 옥수수, 콩 같은 것으
로 한다면 약 3억 달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억 달러로 북한의 식량문제는 1년간 해결됩니다. 이번에 스트라이크 피
해가 31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북한 식량 10년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수로 보내는데, 경수로 2기가 무슨 50억, 60억이라는데 그 반은
충분히 되는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1기 값은 충분히 된다 이거죠.

그럴 정도의 경제손상을 우리는 그냥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통일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
냐고요. 글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금을 만들기
전에 저는 파업을 안하면 그 돈이 그 돈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비한다고 할 때 또는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할 때 무슨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하고 국회에서 결의를 하고 법석을 치는
것보다도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체질이 강해질 때, 독일의 어
프로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일기금을 만들자고
결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파업을 안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자기의 분수를 지켜가면서 우리의 체질을 높여갈 때,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에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의 평화 · 번영

일본 日經新聞주최 국제회의 특별연설 (일본, 1997. 5. 16)

쓰루다 타쿠히코 니혼게이자이신문 사장님,
리관유 싱가포르 선임장관님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세계적 권위의 경제지인 니혼게이자가 주최하는 이 국제 회의에 평소 깊은 경의를 간직해 온 여러분과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을 행운으로 여깁니다.

세기가 바뀌는 이 시점에서 국제적인 지도자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아시아의 21세기를 위해 논의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제게 주신 니혼게이자이 신문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희망과 기대로 새로운 백년, 나아가 새로운 천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금세기 전반, 아시아인에게 식민과 가난, 그리고 전쟁을 안겨주었던 지배와 패권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지난 50여년, 나라와 지역을 진영으로 갈라 서로 대결케 하던 이념과 체제의 벽 또한 더 이상 우리 앞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의 가치가 인류의 보편원리로서 이 세계를 풍미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새로운 흐름 아래 지구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촌락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국제정치 구조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기운 아래 다극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환경, 핵문제, 난치병, 절대빈곤, 마약, 범죄, 테러, 난민문제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해결과제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국제관계의 주역이 되어온 ‘민족국가’는 이제 그 의미와 역할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들은 역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식과 발상, 그리고 행위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20세기의 자로 21세기를 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 새로이 눈을 뜬 아시아는 그 동안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역동적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역동적 발전은 서구인들이 가장 ‘먼지역’이라고 한 ‘극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부흥은 기존의 그 어떤 사회과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해한 역사였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정체’를 말했지만, 오늘 우리는 ‘아시아의 역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1세기에는 아시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절반 이상을 떠맡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중국이 세계의 변영에 얼마나 큰 몫을 하게 될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역동성과 무한한 가능성은 21세기를 앞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21세기의 키워드는 바로 아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질적 변영만으로 아시아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시아인들이 수천년 면면히 키워 온 정신적 가치야말로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21세기를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서 몇가지를 꼽아보려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상호의존성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변혁은 지구전체를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농경문화가 빚어낸 동양사회의 사회의존성은 산업사회의 시대에는 빛을 발할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1세기 지구공동체의 시대는 나라와 지역, 개인과 민족간의 깊은 상호의존 아래 꽃피워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다양성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는 지리적 광대성과 문화적 복합성, 그리고 경제발전 단계의 상이성 등으로 그 자체가 무한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는 단색이 아니라, 대단히 칼러풀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럽의 통합이 물질물명의 특성과 근대국가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아시아는 다양성에 기초한 개방과 조화를 통해 위대한 지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지역협력체 구성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협력체들이 다양성에 기초한 개방과 조화를 통해 거대한 아시아의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번째로 자연을 정복하고 이기기 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화시켜 공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사가 국가대 국가, 민족대 민족이라는 인간끼리의 관계를 기본적인 틀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인류가 겪어 온 불행과 비운은 실로 적지 않다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저는 21세기 우리 모두의 과제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대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전환하여, 상쟁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들이 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21세기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앞날을 논의함에 있어 당장 우리가 그 조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기초입니다.

지난 백년동안 아시아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엄청난 희생과 재앙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아시아 사람들이 그토록 평화를 갈구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유린되어 고통을 받아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그런 악몽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평화의 주춧돌 없이 아시아라고 하는 큰 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화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억압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

닙니다.

아시아는 금세기 전반, 정의롭지 못한 평화가 세계적 규모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비극을 몇번씩 겪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평화 또한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냉전시대의 경험을 통하여 이 일을 충분히 겪어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굴종과 단절이 아니라,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역할을 키워가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화는 필수불가결하나, 그것 자체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평화를 넘어선 아시아인 모두의 지향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집이 우뚝 서자면 기초는 물론, 그 위의 구조물도 튼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바탕으로 하여 추구하는 바는 바로 자유속의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동아시아 지역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하나의 모델로서 그 역사나 조건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유럽안보협력체(OSCE) 같은 것이 좋은 참고가 된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안보협력체가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는데 유용한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21세기 아시아를 생각하며 우선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상실된다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나 세계의 평화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는 지난 '53년 포성이 멎은 지 반세기가 다하도록, 그리고 냉전이 끝났다고 누구라도 믿고 있는 현재에도 아직 첨예한 대결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동안 불안한 평화나마 유지해 온 휴전협정까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반도 북쪽 체제의 불안정성은 언제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인의 이목이 북한의 정세변화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아래서는 당연한 일일 지도 모릅니다.

한미 양국이 96년 4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 자리를 함께 하는 4자회담을 제의한 것, 그리고 1년이 넘게 그 성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4자회담 제의 후의 경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4자회담은 96년 3월과 4월 미국 뉴욕에서 공동설명회와 그에 이은 후속협의를 있었지만 현재 담보상태입니다.

4자회담의 첫째 목표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변국가들의 뒷받침을 받으며 휴전협정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평화체제 문제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문제도 논의할 것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4자회담은 한반도의 외형적 평화는 물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진정한 평화, 나아가 평화를 넘어선(beyond peace) 공동번영의 실현까지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들에게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실리, 그리고 군사적 신뢰를 안겨줄 4자회담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4자 모두가 참여하는 이 회담에 하루 빨리 호응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96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혔듯이 한국은 북한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같은 동포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국민의 뜻에 바탕하여 한국 정부는 '95년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쌀을 북한에 직접 지원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걸쳐 국제기구를 통해 이미 9백 3십여만 달러 상당을 지원했으며, 조만간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 더욱 큰 규모로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지원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 바 있습니다.

대북식량지원을 남북간에 직접 원활히 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간 접촉을 오늘 두번째 제의했습니다.

남북적십자를 통한 대북직접지원이 민간지원의 규모확대, 전달비용과 시간의 절약, 나아가 남북간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인 것입니다.

한 두번의 긴급지원으로 풀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경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개혁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또한 자원배분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북한이 연간 투여하고 있는 60억 달러의 군사비와 9억 달러에 가까운 정치선전비용의 단 몇 %만 줄여도 그들의 식량난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는 군사력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4자회담의 의의를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회담을 통해 북한의 식량지원문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앞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한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들의 21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족쇄를 벗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기가 다하기 전에, 이 시대가 남긴 모순들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원상회복 없이는 아시아에 남은 2차 대전의 유산과 냉전의 잔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시아인 모두가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하나이던 민족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역사의 순리입니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동·서 양진영의 사이에서 완충지대가 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21세기 한반도는 동양과 서양, 대륙과 해양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통일한국은 세계와 인류에게 더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국민은 이러한 우리들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응답】

토론자 한국은 북한과 무역교류 등을 통해 정치·경제관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추진해 나가면서 한국정부는 직접투자나 위탁무역을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으나, 보다 발전을

위해서 북한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우선 4자회담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 틀 속에서 협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한의 경제문제를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고 북한이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차원에서도 일부 신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나, 북한의 한국정부를 배제하려는 인위적인 태도가 진전을 막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도 포함하여 전체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바로 4자회담입니다.

토론자 보다 밝은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 번영을 포함하여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을 고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자세에 의해서 빈곤과 의료 등의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완전히 동감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아시아는 국가로 분리되어 여러가지 문제를 개별 문제로 취급하여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현재와 같은 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공동체 수준에서의 과제가 더욱 늘어나리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아시아 베이스'로서 문제 설정을 시야에 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다양한 특징이 있어 그렇게 간단하게는 해결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세계 베이스'의 문제해결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항상 가지면서 아시아 수준에서 접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직 총론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 각론적인 이론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부터 과제로서 신중히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토론자 언론인으로서 한국의 부총리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노력해야 할 분야는 미디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전례가 없는 인간을 개발하

는 능력을 마스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미디어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미디어의 많은 부분은 무지이며 오만입니다. 확실히 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멋대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말로 미디어가 이해 증진이나 우호관계에 공헌하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적의 무지에 공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식의 양성에는 공헌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생각입니다만, 저 자신도 마스크에 몸을 두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권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 소피씨의 이야기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소피씨가 처음 말을 하였을 때, 제가 신문사로부터 정부에 간 것에 대하여 높아졌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듯하나, 지금의 말씀과 같이 제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무지하거나 오만하거나 시간에 쫓겨 대충하여 불충분한 상태로 보도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에 대하여 항시 반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세기는 아시아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억압되고 분열되어 나쁜 일이 거듭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백년 전에 이러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20세기 아시아의 역사는 훨씬 다른 모양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오해하도록 하고 철저하게 오해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는 또다른 세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낙관적이라고 비판하실지 모르지만 과거 100년간의

한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의 시대보다 훨씬 나쁜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100년은 나쁜 것의 결집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20세기말에 와서 우리들도 낙관적으로 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토론자 권부총리가 말씀하신 동아시아 안전보장은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생각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모든 토론자에게 묻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SCE와 같은 안전보장체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트랙1에서 4시까지가 임계에 달함으로써 뭔가 안전보장의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ASEAN 지역포럼(ARF)이라는 것을 발전시킬 것인가. 혹은 결국 이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미국에 신뢰를 둔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총리 유럽과 우리들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OSCE형의 조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조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OSCE적이라고 할까,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 이외는 나가라고 하는 ‘배타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도 참여케 하려는 ‘포함적’인 사고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전보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SCE를 예로 든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도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 될 것인지 어떨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과 닮은 생각을 가지고 OSCE의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안전보장의 길은 아닐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론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발상, 생각으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토론자 권부총리께서 ‘OSCE’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적’을 형태로 하여 겨냥해 나간다고 생각되고, 또 그 과정에서 대단히 가벼운 것부터 시

작하는 대화는 나름대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OSCE와는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선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유럽의 각국은 전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대체로 이 정도로 너무 현상을 바꾸는 것은 그만 두고 싶다고 하는 개별의 이해는 별도로, 대단히 넓은 의미에서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현상을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유감스럽게도 대단히 힘이 강한 나라가 참가하고 있는 것이 OSCE를 만드는데 기여하였다는 것도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되어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형태로 보면, 제가 말한 것은 참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다른 분들의 의견에 반론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공을 하였을 뿐입니다.

토론자 저는 1963년 출생으로 오늘 말씀하신 분들 모두 저보다 25세로부터 30세 이상의 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50년 정도 또는 100년 정도 후를 내다본 이 지역의 이야기를 여쭙고자 합니다. 안전보장의 문제는 저의 이해로는 '싸움을 하지 않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권위와 동기로 모두가 평등한 세계에서 싸움을 하지 않는 장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유럽의 OSCE와 같은 형태로는 좀처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령 유엔에는 유럽본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유엔 아시아·태평양본부와 같은 것을 만들어 그곳의 권위로서 식량, 에너지, 인구가동 및 그 외의 여러가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 5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보았을 경우의 하나의 질문입니다.

백년정도의 간격으로 보았을 때의 질문으로서는 지금 단상에 올라가 계신 분들 가운데 세분은 박사학위를 갖고 계십니다. 권장관님도 언론인으로서 대성공하신 분입니다. 저의 손자 정도의 시대에는 적어도 APEC대학과 같은 것이 생겨서 거기서 15세나 18세부터의 젊은이가 모인다면, 일부러 열심히 모이지 않아도 토론이 가능한 장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출발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정부가 돈을 내어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현재도 한국과 일본간에는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세 때에 일본에 특파원으로 왔었고, 현재는 66살입니다. 따라서 36년이란 기간동안 일본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쌓아왔습니다만, 한일관계는 지금도 좋다고 단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그 당시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러한 관계를 쌓은 것은, 문제는 꽤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가 국가간의 분쟁이나 문제가 있는 것을 염려하여 서로가 모르는 척하기보다는 관계를 맺어 관계가 깊어짐으로써 긴장이 늘어나는 편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이 고조된다는 것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여 가면 좋을 것인가에도 연계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여러가지 차원의 대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시다만, 그러한 것이 모두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다 격렬한 싸움이 되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도 그러합니다. 유엔이 만들어지고 나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나, 유엔은 아직 구멍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엔은 불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유엔을 중심으로한 국제관료는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역사를 보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50년후, 100년후를 바라보면 미디어는 많은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36년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니다. 일본도 가난하였으며 한국은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1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일본은 당시 말레이시아보다도 1인당 소득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라별로 그 나라 내의 사회정의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가운데 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본은 그것에 성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눈을 돌려보면 사회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후에는 지금까지의 100년보다 훨씬 좋은 시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 평화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회합이라면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특히 필요한 것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이 이야기하고 인접국의 문제는 인접국 상호간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에 취임후 곧바로 하신 말씀은 일본에 대하여 미래지향의 외교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 중국, 한국이 대화 협력의 장소를 갖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났습니다만 권부총리의 전문분야인 한국의 미디어는 이것에 대하여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호소카와 수상이나 하시모토씨에게 조금 이야기한 것 뿐이었고 한국의 미디어는 전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총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논하였으나 한국의 미디어가 그것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듯이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와 비교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미래 사고적이라고 하는 말이 지도자의 입에서 몇번이나 반복되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몇 번이나 반복하여 신문에서 그것에 대한 보도가 많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의 미디어가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 시점에 한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에 비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 어떤 계기를 지나면 그러한 방향으로 성큼 다가서겠지요. 신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일관계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우리들은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상황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관계가 모두 만족한 관계로, 그리하여 완결형·완성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현재 4자회담이란 것이 실제로는 3개국 협의가 추진되는데 그치고, 그다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이나 일본, 그밖의 동아시아 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가 있어 북한의 아시아회의 참가문제에 대하여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점을 포함하여 한국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 저는 4자회담에 대하여 조금전에도 나름대로 이야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현재 제안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단순하여 그렇게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에

대한 대응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서 행한 회담은 영어로 ‘조인트 브리핑’이라고 합니다만, 그 ‘조인트 브리핑’이 있는 후 북한은 “잘 알았다. 평양에 돌아가서 회담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아직 응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4자회담이 열리면 거기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군부를 포함한 내부사정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 처한 모양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이러니까 저렇고, 저러니까 이렇다고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적십자관계자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의 식량원조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을 때, 우리들은 60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일본은 1,000만 달러를 넘는 지원을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하면서 4자회담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나올 수 있도록 우선 초대장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일본정부의 입장은 납치사건 외에도 북한에서 결혼한 일본인처가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마약을 잠입하려는 문제 등이 있어,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원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론자 메스미디어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 일본, 한국, 중국, ASEAN에 그치지만, 상호의존을 고려할 때, 천연자원이라고 하면 석유, 석유라고 하면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연방의 중앙아시아 제국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량의 석유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ASEAN, 일본은 그러한 곳으로 부터 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개발 석유를 개발하는데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중국을 횡단하여 동해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설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등 미묘한 곳도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ASEAN의 변경은 점점 서쪽을 향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인도가 ASEAN에 들어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말의 현재 정의는 곧 무의미해 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아시아라고 할 때, 가령 아시안게임과 같은 스포츠 대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꽤 서쪽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저는 베트남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 베트남에 개입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였을 때, 어느 정치가가 “미국은 태평양 파워이기는 하지만, 아시아의 파워는 아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발언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가는 그후 정부의 요직에 취임하여 미국의 퍼시픽 파워의 정의를 “아시아 퍼시픽 파워”라는 식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조금전에도 APEC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시아 쪽은 아시아 퍼시픽 쪽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 안정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면에서 아메리카의 입장이 꽤 중요하다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중앙아시아까지도 포함하여 아시아라고 정의한다면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시아적 보편성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한 점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서 아시아를 생각해 간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시아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재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21세기를 논할 때, 보는 방법에 따라서는 보편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그 특성을 무시한 보편성은 보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세계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세계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과 연계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세계의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시대가 21세기로서 20세기보다도 좋은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문제와 한·중협력

한국국제교류재단주최 제4차 한·중 미래포럼 축사 (1997. 5. 29)

존경하는 류수칭(劉述卿) 중국인민외교학회 회장님,
김정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이번 한·중 미래포럼에 참가하신 양국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한·중 양국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보다 밝은 앞날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여깁니다.

아울러 이번 한·중 미래포럼을 위해 한국에 오신 중국측 참석자 여러
분에게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어에 “친구가 먼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해를 건너 여기에 오신 중국 대표단을 맞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한
국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한·중 양국의 각계 지도자 여러분!

우리 한·중 두나라 관계는 '92년 수교 이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왔
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문화·사회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괄목할 만큼 확대·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지금까지 6차례의 정상회담과 20차례의 외무장관회담이 있었습니다.

민간차원에서는 작년 한해 약 70만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했고, 10만명 가까운 중국인이 이곳에 왔습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지난해 양국의 교역액은 2백억 달러로서, 중국은 한국의 3번째, 한국은 중국의 5번째 교역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불과 5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두나라 국민들이 아득한 고대로부터 지난 수천년간 발전시켜 온 우호와 협력의 역사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금세기 우리 양국 국민에게 좌절과 고통을 안겨 주었던 역사의 모순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 세기가 다하기 전에 우리 두나라 사이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두나라 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할 나위없이 긴요한 일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가 동북아의 앞날을 설계함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북아 전체에 평화의 바탕을 공고히 하는 일입니다.

평화의 확고한 보장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화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자유와 번영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나아가 지금 식량난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안정속에 변화를 갖는 것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그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가 '95년 이래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최근 민간 주도의 대북지원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제의하였고, 그 결과 며칠전 북경에서는 남북적십자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와 관련한 그 어떤 문제도 지리적, 역사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중국의 협조없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중국이 4자회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등 그 동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대한 믿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 어느 곳보다 역동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실에서 아시아·태평양시대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동북아지역은 이러한 역동적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 10% 가까운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이 21세기 세계의 번영을 위해 맡게 될 역할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도 온 국민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불과 한 세대 남짓한 짧은 기간에 최빈국의 위치에서 세계 10대 교역국의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한·중 양국간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우리 양자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우리는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두 나라간의 교류와 협력은 아·태시대를 활짝 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더 크게 기여하는 확고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끼리 뜻과 힘을 합한다는 것은 이처럼 소중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올해로 4년째를 맞는 한·중 미래포럼이 양국간 우호협력을 보다 돈독히 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중국의 친구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번 여행이 즐겁고도 보람찬 여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범국민적 합의와 참여하의 통일준비

「민주평통」 운영·상임위 합동회의 연설 (1997. 5. 30)

존경하는 오자복 수석부의장님, 정호근 사무총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운영위원과 상임위원 여러분,
오늘 제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마감하는 마지막 합동회의에 참석
하여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평화통일을 위해 진력해 오신 국내외의
모든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지금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식량난을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전도에 대한 국
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 체제가 수립된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GNP, 대외교역 등 모든 경제지표는 북한의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식량난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 전부
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배급체계의 와해와 수송상의 애로에 따라 평양과 여타지
역, 서부와 동부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부분적으로 기아가 발생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 등 외부로부터의 식량도입이 순조로울 경우, 올해의 식량위기는 일단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해 곡물생산량과 작년 11월 이후 외부도입량 그리고 앞으로의 도입예정량 등을 종합하면, 하곡수확이 이루어지는 올 8월까지 지탱 가능한 양을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과 농업생산성의 저하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원적 개혁이 없는 한, 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만성적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난은 경제 전체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내 공장가동률은 현재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극심한 경제난은 이제 체제균열과 사회이탈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의 보호에 들어온 주민의 수는 '80년대 까지만 해도 6~7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과 동구를 비롯한 공산권이 해체된 '90년대 초부터 연간 10여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김일성 사망 후부터는 40~50명선으로 격증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어제 서울에 온 5명을 포함, 현재까지 46명으로 연말까지 100명 수준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같은 탈북상황은 수적으로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내용에서도 현저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황장엽씨 등 핵심층의 망명과 가족단위 탈북의 증가가 그것입니다.

어제 온 5명중에도 3명은 앞서 입국한 가족을 따라 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군부중심의 과도기적 위기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가까이 북한에서는 공식 권력승계가 부재한 채, ‘최고사령관’이라는 군사직으로 당·정을 통할해 온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대대적으로 치뤄진 인민군 창건기념일 행사는 전시체제하에 놓여 있는 북한의 단면을 잘 나타내는 예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김정일 또한 군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후 지금까지 수 차례의 대규모의 인사가 있었는데, 그 중 대부분이 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대는 현재 1,300여명에 달하는 장군을 지닌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김정일의 공식대외행사 중 군관련 행사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군에 대한 배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김정일은 군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북한 내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는 북한에서의 권력이양작업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 체제에 도전하는 특별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의 고위인사들은 김일성 탈상(7.8)이후 김정일의 공식직위 취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정일의 공식권력 승계를 전후하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개편과 정책노선 방향에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은 국가주석, 당 총비서, 정무원 총리, 인민무력부장 등 주요 자리는 물론 당 중앙위원회 위원 140명 중 14명의 자리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또한 정치국, 비서국 인사 21명중 17명이 70세이상의 고령입니다.

이것은 김정일의 공식직위 취임을 전후한 북한의 권력개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북한이 앞으로 채택할 정책노선은 북한 내부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대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완되는 내부를 통제하고 불안한 체제를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 적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북한은 4월 이후,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고 불안정을 부추키는 선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여러가지 상황을 겨냥한 것이지만, 앞으로 대통령선거 등을 틈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금년 하반기는 북한의 향배와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튼튼히 하는 바탕위에서 남북간의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안정적 변화가 있도록 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의 추진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의 공동설명회에 이어, 4월 16일 후속협회가 뉴욕에서 있었던 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측은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4자회담 개최전에 식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4자회담의 추진과 관련, 우선 중국을 제외한 3자간의 회담을 먼저 하고 적절한 단계에서 4자회담으로 이행하자는 이른바 '3+1'방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4자회담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4자회담은 현재 담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 4자회담의 개최를 위해 유관국들과의 협조를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4자회담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나갈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 식량난과 관련하여 같은 동포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95년 정부차원에서 쌀 15만톤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해부터 국제기구의 호소에 부응하여 2천만달러에 가까운 곡물과 현금을 보내고 있으며, 민간차원에도 상당량의 식량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에는 민간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품목에 외국곡물을 포함시키고,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북경에서 남북적십자대표 접촉을 갖고, 앞으로 대북지원은 남북적십자간에 직접 전달하며, 7월말까지 옥수수 기준 5만톤 규모의 식량을 지원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남북적십자간에 지원품목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대북지원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며, 길게는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데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정기탁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산가족이나 실향민들이 고향과 친인척들에게 물자 및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은 소

중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물자에 지원주체를 명기할 수 있고, 수송경로와 분배지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은 동포들에 대한 식량 지원의 실효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서의 채택은 1985년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방문 합의 후 12년만에 이루어 낸 의미있는 남북적십자간 합의가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4자회담이 개최되면 본격적인 대북지원은 물론 농업협력, 나아가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북한과 논의·추진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현재 매년 50억달러 가까이를 군사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9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 비용을 정치선전비에 쓰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군사비와 정치선전비의 단 몇 %만 아껴도 얼마든지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이자리를 빌어 북한당국이 식량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자구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북간의 접촉을 확대해 나가는 일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안정적 변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북교류협력과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그 실질적 견인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정부가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유보해 온 일부기업에 대해 협력사업과 협력사업자 승인조치를 취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북경수로 지원사업도 의정서 체결, 부지조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의무불이행시 조치의정서'도 타결되었으며, 7차 부지조사단이 현재 신포에서 시추작업·지질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1차 KEDO실무협의단이 해로를 이용, 남북을 왕래한데 이

어, 제2차 실무협의단이 내일 북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남북관계가 안타깝게도 불신과 단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꾸준한 인내와 일관된 노력은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2~4년간은 남북관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화해협력의 세계사적 흐름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평화통일의 큰 길을 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북한당국이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통일은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각 분야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는 일입니다. 정부는 물론 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준비는 범국민적 합의와 참여하에서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남북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가일층 확고히 하면서, 통일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줄기로 모으고 그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민주평통 운영위원, 상임위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정세와 대북정책 방향

고려대 언론대학원 강연 (1997. 6. 25)

마침 6.25날 아침입니다.

47년전인 일요일날 새벽에 사변이 났습니다. 그 때 저는 물리같은 것을 공부하는 이과 지망의, 요즘 같으면 고3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과 공부도 못하고 통일원장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된 반세기의 원점같은 것이 역시 6.25에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오늘 되씹게 됩니다.

조금의 감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남북한관계가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50년 변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정부에 참여한지는 1년 반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도 안변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크게 변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변했나 지적하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인 감회를 섞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북한문제 하면 전쟁, 국방, 대결, 이데올로기, 주의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북한문제가 뭐냐 식량문제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문제는 식량문제다 하게 된 것은 불과 2년밖에 안됩니다. 그 2년이라는 것은 '95년에 저희들이 식량지원을 한 때가 바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를 식량문제로 보게 된 첫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초에 우리가 너무 민첩하게 움직였는지 돈으로 따져서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저희들이 건국이라 그만한 액수를 한꺼번에 주어 버리는 원조로 썼다는 것은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2억 3천만달러에 해당하는 식량지원을 성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주는 손이 물린 것 비슷하게 되어서 모두가 얼마나 큰 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보다는 받는 놈이 저럴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식량문제가 작년 이맘때는 우리는 안할 것이다 하는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는 조금 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세계가 전부 식량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유엔에서도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소위 어필이라는 것에 각 산하단체들이 호응을 보였습니다.

2억 3천만불을 낸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국제사회가 2년에 걸쳐서 북한에 식량 지원한다고 떠들었지만 저희들이 준 것을 제외한 국제적인 모든 지원을 합해도 저희들이 준 것보다 적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고 남이 뭐라고 하면, 어제 인가 그제인가 우리 야당 지도자께서도 우리는 남이 주려고 할 때 주지말라고 하고 민간이 주려고 할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주지말라고 하고, 이렇게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능숙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이맘 때 국제적으로 한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아주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300만불을 국제연합의 여러 지원기구에서 내는 데 동

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불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이 정하는 기구라는 것은 나중에 추인을 하는 기구에 불과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북한 관계에서 식량을 얼마준다, 언제준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합니다. 그 회의에 걸어서 토의를 한다고 할 때는 장관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관이 다 알게 되고 기획실장이 검토해야 되고 전 정부가 다 알게 되는 대단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서 300만불을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발표하는 날이 마침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은 국무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무회의가 있는 날 아침 일찍이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면면을 살펴보니, 농림부장관이 안계셔서 왜 오늘 안 나오셨냐고 했더니 원래 멤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전에는 식량문제는 북한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년 이맘 때 겨우 정부는 농림부장관이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이제는 나오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북한문제는 식량문제이다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세계문제가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들이 줄 때는 일본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모양새가 그래도 우리가 줘야지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나서서 남이 안줄 때 빨리 주자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의 식량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야기는 이미 결정적으로 국제적인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4월 4자회담이 제의되었을 때 우리 통일원 안에서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당사자원칙은 어디 갔느냐? 우리 민족문제를 왜 중국과 미국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반도문제는 국제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우리만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착각이었다는 생각을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4~5년전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국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잉크도 마르기전에 아무도 안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북이 큰소리는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 자치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기본합의서이기도 합니다. 기본합의서는 대단히 아름다운 문구입니다만, 그것이 집행이 안될때는 하나의 작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작문에 해당하는 것 같은 합의를 자꾸 해가고 그것이 뭐인양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어린애들의 얘기 아니냐? 구체적으로 뭔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제적인 포럼에서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버리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또한번 대단히 남에 의해서 먹살이 잡혀서 끌려 다니는 21세기를 여는 것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있는 국제적인 포럼을 거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관여 또는 참여하겠다는 것을 배척하면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결코 건강한 해법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하간에 얼마동안 사이에 대단히 국제적인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덴버에서 하는 G-8 회의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지요. 그것이 우리는 대단한 거부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거부감만을 내세우는 것은 제대로 된 자주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문제가 한마디로 해서 갑자기 식량문제가 되어 버렸고 지금 국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한 변화라는 것입

니다. 지금도 북한에 성묘도 못하고 내왕도 없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 달라진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모양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단히 큰 물리적인 변화는 없는지는 몰라도 화학적인 변화같은 것은 꽤 있는 것이라는 것이 남북관계입니다.

또 하나 저는 약간의 앞서가는 감각으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한국의 국제신용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그 안에 왜 떨어졌느냐, 그 안에 북한사정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의 사정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는 우리도 언제든지 북한 대 남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즘 여야도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뭐 잘못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상당히 득점하는 것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도 남한이 뭔가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아주 잘하는 것의 표시인 것처럼 떠드는 경향이 있고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별로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저희들의 경제적인 국제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가 나빠져서 붕괴되는 경우에, 리스크는 남한경제가 진다고 하는 것이 벌써 오늘 우리의 국제신용도를 따지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적십자 관계로 해서 5만톤 주기로 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그것을 준다는 것은 아까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의 5만톤이 거기로 가니까 안주는 것이 더 좋고, 준다는 것은 우리 손해고, 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의 5만톤이 가서 저쪽의 5만톤이 되니까 차이는 10만톤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야박한 계산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동안의 남북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일 우리가 5만톤의 쌀을 주어서 북한과 남한의 관계

가 그렇게 각박하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질 때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외국에서 빌리는데 이자율이 조금 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해서 오늘 어떻게 하는 얘기를 숫자를 내놓고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러한 것이 가치있다, 어떻게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북한의 경제는 이미 한국경제의 관할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이 국제사회는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크게 잘못이라는 꾸중은 안듣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통틀어서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훑어보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결론지어서 이미 남북관계는 1:1로 하는 관계는 아닌 것이 되었다 라는 말로 대신하는 학자분들,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렇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과도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객관화해서 보는 것이 아니냐, 이 비유가 우리를 나쁜 쪽에 두는 것 같은 비유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아드의 싸움을 놓고 그 때 어떤 전문가가 분석을 했다고 하면 아마 절대 골리아드가 이겼을 것입니다. 키가 커도 그 사람이 더 크고 힘이 세도 그 사람이 더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옛날 얘기에서 다윗이 이기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같은 것은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할까 현실을 움직인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꿈으면서 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흔한 말로 안보의식이 헤이되면 안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간 대단히 많은 것이 변했는데, 그러나 6.25날 아침을 생각하면 별로 변한 것도 없다, 물론 그 때는 이런 좋은 식당도 없었을테니까, 그것도 변한 것입니다만, 그것은 테두리 안에서 얘기이고, 아직도 북한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7천만 동포의 안타

까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특별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간추려서 북한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북한을 나무란다든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북한은 잘 모르겠다는 집단으로 밖에는 표현이 잘 안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를 말씀드리더라도 그것이 북한을 알고 하는 이야기라고도 감히 단언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어찌면 김정일도 북한의 진짜 사정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것은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북한이 그동안 자기네 형편을 숫자를 가지고 밖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낙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있었고, 얼마전까지는 낙원이라는 것을 주관적인 이야기로 계속 하고 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2년전까지는 낙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2년전부터 갑자기 달라져서 지금은 자꾸 뭐가 없다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황장엽씨가 지상낙원에서부터 빌어먹은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장된 말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유엔에서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분담금을 북한이 0.05%정도 내는 것이고, 그것이 1년에 65만불인가를 내야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게 내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표부가 유엔에다 낸 자기네들의 GNP가 공개되었는데, 그것도 너무 터무니없이 되어 있는 것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담금을 0.8%인 1천만불 되고, 북한이 65만불 정도 되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더 낮추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의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는 것이, GNP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만큼 내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분담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GNP 자체를 낮추어야 된다고 해서 낮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는, 과거에 너무 높여놓아서 굉장히 낮아진 것 같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여러 가지의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숫자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94년에 GNP가 93억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3억불이라고 해도 2,200만의 인구로 따져보면 과거보다 굉장히 내려온 것입니다. 과거 국민소득은 1천불은 안되지만 900불이 넘는 것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4년에 와서 그렇게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95년은 더 떨어져서 52억불이라고 하는데, 1년 사이에 GNP가 40%이상 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과거에 발표했던 것에, 우리가 무엇을 발표하려고 해도 과거에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정합성을 따져서 올해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보기에 그것까지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 52억불만 놓고 보면, '95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조를 했던 해가 아닙니까? 또 원조를 했던 그 해는 우리가 수해가 많아서 잠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북한의 식량문제는 한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것이니까 많은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런 데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그것도 제가 좀 이상하게 느꼈습니다만,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최근에 권 아무개라는 나쁜놈이 자기네 체제를 비방하는데 1회로는 안된다고 하고 다니는데 우리 사회주의가 멀쩡한데 저놈이 헛소리 하고 다닌다는 것을 이름을 적어서 지금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그러합니다.

좌우간 그 사람들은 수해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첫 번째 원조를 보낸 것이 2년전 6.25날인데, 그 날 보내게 된 것은 그 때 수해가 있던 때가 아니고 그 해 늦여름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

해하고 바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 수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해얘기를 놓고도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 수해가 대단히 났을 때 저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겪지 못한 큰물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김정일 장군의 제대로 된 지도하에 아무 사상자도 없이 잘 극복했다고 초기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수해라고 하는 것이 밖에도 알려지면서 갑자기 150억 불의 수해피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통계에 의하면 GNP 전체가 52억불입니다. 그러면 GNP의 3배나 되는 수해가 났다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또 이번에도 보면, 얼마전에 자기네들이 내놓은 여러가지 것을 모아보면, 재정규모만 해도 GNP보다 더 큼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획경제라고 할 때 계획을 하려면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그 숫자는 전부 엉터리니까 계획이 되지 않지요.

그런 것이 상습화된 속에서 50년을 해오니까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지금은 헤어나기가 어려운 정도의 숫자 통계의 늪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북한의 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 숫자는 숫자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 4자회담을 한다고 할 무렵에 150만톤이 당장 필요하다고 정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도, 군인도, 장사치도 전부 나서서 150만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꽤 많은 지원이 들어갔는데, 들어갔으면 그것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도 150만톤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교섭의 전제같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이 제대로 있으면 여기를 찢리면 아픈데 대한 반응이 있는데 전부 여기에서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찢렸는지 끊겼는지 하는 것이 카운트 되지 않고 그것을 하나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어려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는 아직도 세다고 남한테 내보이고 있고, 불끈 쥔 주먹을 가지고 매일 시위하고 있으니까 주먹만 보면 아직도 싱싱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북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러한 북한과 우리는 어떻게 어울려야 될 것이냐에 관해서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외국사람들도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흔한 말로 적이 약하면 다루기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만은 예외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자꾸 약하니까 더 다루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 것이 북한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주먹은 하나 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 주먹을 휘두를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놓고 굉장히 모순의 덩어리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니까 모순이 아닌 것으로 만들려면 모순을 모순이라고 봐야 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들은 질문이었는데, 북한은 도대체 적이나 동포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그 중 어느 하나라고 할 수 없어서 양쪽 다라고 했는데 양쪽 다라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순된 덩어리가 북한입니다. 그 모순된 덩어리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것이 어려움인데, 그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최근에 우리의 텔레비전과 신문이 전부 무슨 수용소다 하는 것을 내니까, 저는 그것을 요즘 사진의 힘이라고 합니다. 사진의 힘이라는 것은 인류역사에 대단한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무렵에 사진이 처음으로 미디어를 타고 왔다갔다 한 모양인

데, 그 때도 무슨 남군수용소에 갇힌 북군을 지금 북한사람처럼 마른 것을 사진을 찍어서 돌리면 북쪽에서 적개심이 올라가고 굉장했다는 것은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에 무엇을 하더라도 사진 한 장이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도 그런 것이 나오면 민간부터 종교단체 해가지고 전부 돕자고 하다가, 그 다음날 북한 군인들이 창건기념일이라고 퍼레이드를 요란하게 하는 사진이 나오면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진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만, 지금 북한의 사정이 우리한테는 주는 것은, 사진은 대부분 진실이지만 사진이 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KBS에서 냈다든가 하는 것은 비디오, 사진이고 사진 자체로서 틀림없겠지만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데 사진을 연결시켜서 같이 내놓는 효과라든가 해서 본의 아니게 북한을 전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치우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에 그런 비극이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북한의 전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주의하면서 북한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북한의 경제얘기를 하게 되면 숫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숫자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하나 하나 내놔도 그렇습니다만, 북한을 돕는데 있어서 나라 전체가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북한을 도와준다고 할 때 지금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주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가 어떻게 주느냐에 관해서는 조금 관심이 약합니다. 또 어떻게 줄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놓고 많은 얘기를 하는 중에는 너무 많이 하고싶은 것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를 덜 따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놓고는 동포가 굶는데 쥐야지,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어느 신문사인가 어디서 그것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쌀을 싸오라고 해서 모아보니 어느정도 되니까 그것을 들고 적십자에 갖다 주는 사진을 찍으면 북한 어린이가 배가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가느냐에 따른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고 할 때 그것까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북한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쌀같은 것은 그렇게 모아놓으면 이 쌀을 한꺼번에 섞어버릴 수도 없고, 쌀 보따리를 적십자에 들고가서 적십자가 북한에 가겠다고 교섭을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한적십자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적십자에 갖다 주니까 다시 가져가시오 할 수도 없고 해서 자기네들과 관련있는 병원에다 좀 사가지고 쓰라고 하면 병원에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모아서 다음에 지원이 갈 때 그것을 생각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쌀은 북한에서도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한국 쌀이 비쌉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쌀을 먹어야 되는데 쌀을 정부에서 못보내게 해서 큰일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아마추어의 선의가 도우는데 있어서는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중국에서 사서 북한에 보내는 것 중에 죽은 쥐도 들었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메카니즘에

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150불짜리를 샀다고 하니까 우리는 140불에 산다고 가서, 중국은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계획경제지만 옥수수의 일정한 가격이 있습니다만, 옥수수가 노르마 이상으로 생산하면 개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것이 된 그 부분은, 제가 다 아는 것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습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에 북한을 빼놓고 모든 주변지역이 대풍이었고 우리도 대풍이었습니다. 중국 만주지역도 대풍입니다. 남아 돌아가던 옥수수를 한국에서 돈주고 사서 북한으로 들어가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만 자기 것을 팔려고 하는데, 무슨 기독교단체에서 사러 오니까 싸게 준다고 해서 싸게 받아서 그것을 화차배정을 받아서 그 화차배정에 날짜를 맞추어서 어느 지점으로 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지난한 일입니다. 그것을 그냥 선의만 가진 어떤 목사가 가서 사겠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잘 못하고 우리는 하니까 되는데 정부에서는 서쪽으로만 주는데 우리는 동쪽에 주어야 되겠다. 동쪽의 함경도에서 누구를 만주로 불러내서 하는 것은 다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하니까 받겠다고 해서 화차를 배정해서 하니까 나중에 평양에서 그 정도 가지고 오는데 뭐 그쪽으로 들어오느냐, 신의주로 와라, 다 도문에 갔다 왔는데 신의주로 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연결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래돼서 썩기도 하고, 또 험하다 보니까 안에 이물질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생각하건대 또 그렇게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러 다닌다고 할 때 그런것을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은 쥐를 넣은 푸대가 본의 아니게 보내졌다고 할 때 북한에서 그동안 하는 방식으로 하면, 남한의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도 돼지도 못먹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굶는다고 한들 이런 것을 보냈다고 나쁜놈들이라고 하면, 또 우리는 주다가 당했다고 해서 야단법석을

치면 진짜 배고픈 사람은 그런 호통 잘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더 고티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를 주는 것도 주는 사람 마음만으로 하고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알았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중국의 동북쪽에 가서 옥수수 사는 방법부터 화차를 어떻게 계약해서 어떻게 보내느냐, 지금 중국에서 화차를 북한쪽에 배정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차는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화주한테 안돌아오는 그 돈까지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조라는 이름의 좋은 일을 하는 그 그늘에 그와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원조입니다. 선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의만 가지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엔의 난민고등판무관을 하고 있는 오가다라는 일본여자가 있는데, 그 분이 지난번에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아프리카에 원조를 해보면, 일본의 NGO라고 하는 것이 요새 돈이 많아서 많이 들고 다니는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의 선의의 종교단체, 또는 그런 단체와 비슷합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사서 우리가 주려고 하는데 왜 서양사람이 와서 너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고 하는데 따라다녀야 됩니까, 안됩니다 라고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줘야 될 사람한테 주고 주어야 될 사람한테는 안주고 이런 것도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누구를 돕느냐 보다도 어떻게 돕느냐에 관한 것이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식량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개요를 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김일성 때만 그

런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농사지어 가지고 다 먹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로써 다 안될 때는 외국에서 농산물을 사들여 올 수 있을만한 다른 것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오고, 지금 남한 경제가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의 식량자급도는 통계에 의하면 27%입니다. 72~73%가 외국 것입니다. 쌀은 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떤 때 대풍이 들면 남는 것까지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에 저희들이 15만톤을 지원하고도, 나중에 좀 수입을 했습니다만, 쌀은 그런데 그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사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또 못하다 보니까 지금 대단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급자족이 되는 것은 대충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김일성이 '70년대 농업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한 내용안에 보면,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면 하루에 1만톤 든다, 1만톤을 생산해내지 못해서 너희들이 되겠냐 하는 연설이 있습니다. 하루에 1만톤이면 1년에 365만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365만톤이라는 것은 조금 낮게 잡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한 400만톤은 든다고 보아야 되는데 생산 전체가 잘하면 한 400만톤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료도 있고 하니까 사람 먹는 것만으로는 400만톤을 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수요는 600만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만톤에서 잘 생산해서 400만톤이 나오면 200만톤은 매년 절대부족입니다. 그런데 200만톤을 우리가 다 갖다주면, 우리하고 비슷해지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200만톤중에 100만톤은 자기네들이 뭔가 좀 아껴보고 증산을 하는데서 뭘 하고, 밖에서 주는 것은 최소한도 100만톤도 있어야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수해가 큰 것이 있다든가 하면 부족분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 정도의 양이 우리가 주어야 되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을 국제시장 값으로 따져서 얼마가 되느냐 하면, 쌀로 한다고 하면 꽤 비싸고 한국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탱도 못하고, 한국쌀이 국제시장 값의 4~5배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 1/5되는 정도의 쌀을 가지고 해도 한 5억불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것을 강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낮추는 것으로 해서 100만톤 하면 제 생각에는 한 3억불은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3억불 정도가 매년 필요한 것입니다. 3억불이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간단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95년에 준 것이 2억 3천만불이니까 7천만불 모자라는 3억불입니다. 그 때 얘기로 숫자 풀이를 하나 더하면, 일본이 50만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은 썩은 이상한 쌀이 되어서, 그 때 준 사람이 지금 자민당 간사장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주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돈으로 얼마 되느냐 했더니 7천만불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1/3보다도 적은 양을 우리 쌀로 주느라고 돈으로는 그 사람들의 3배 이상을 쓴 것이 '95년 쌀지원의 산술입니다. 그러니까 7천만불을 가지고 50만톤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7천만불 선의 것을 가지고 준다면 제가 말하는 100만톤을 준다고 할 때 한 1억 몇천만불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형편없는 것만 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3억불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 사람들의 수요나 이런 것을 다 맞추어서 이야기가 잘 되어서 줬다면 우리의 2억 3천만불이 그 해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액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쌀을 주었다고 하고 싶은 것이고, 저 사람들은 받아서 위에서 다 먹어버리고 하니까 진짜 굶는 사람한테는 큰 도움을 못주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일일

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4자회담에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도리어, 수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수해가 안났던 것보다 수해가 났기 때문에 더 호소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톤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작년 11월부터 지금 7월말까지 약속된 것까지 합한다든가 하면 금년에 하곡이라고 해서 뭔가를 뜯어먹기 시작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하면, 풍족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큰 기아가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의주에는 쌓였는데 함경도는 그대로 굶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 신의주 것을 함경도로 보내는 수단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제적십자 사무총장이 여기에 왔을 때 만났는데 그 분이 그런 호소를 하더군요. 북한 안에서 움직이는 것, 우리는 원조를 한다고 할 때는 북한에서 얘기하는 어느 지점까지 가지고 갑니다. 지금 국제적십자가 하고 있는 것은 남포와 신의주인데, 그 양쪽으로 갖다 놓으면 이것을 가져다가 주는 것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 적십자가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였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적십자나 WFP도 이번에 지역과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수해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함경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포라는 것이 서쪽이고 신의주도 서쪽인

데,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굶는다고 얘기를 듣는 것이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쪽입니다. 우리가 너희한테는 아무리 쥐봐야 거기로는 안가지 않느냐, 거기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하게 하자고 해서 북쪽과 얘기를 해서 도문 남양도 들어가고, 흥남쪽으로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트자고 했던 것이 우리들의 원조하는 모양인 것입니다.

지금 적십자가 1차로 원조를 해주고 있는 관계로 해서는 그냥 내외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물질이 들었다든가 하는 것, 저사람들이 지금도 적십자 통지문을 보내고 할 때는 꼭 잡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19일까지 1차분을 다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화차사정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까지는 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2차는 더 빨리 가고 있고, 지난번에 보내는데 시일도 못지키고 안에 이물질이 들었고 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고맙다하는 식으로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말에는 김정일이 식량원조는 제국주의가 물어들어오는 것이고, 제국주의는 하나 주고 백개 뺏어가는데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받아먹는 것이 아니다 하는 논문을 냈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그것이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북한을 대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대표단과도 얘기를 합니다. 뭐가 오늘 되었다고 해서 그것 잘됐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갔더니 부드럽게 나오고 말이 잘 되더라, 그런데 그것 좋다고 하면 안됩니다. 아침에 그러다가 점심때 언제 봤느냐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북한입니다. 또 안된다고 해서 낙담을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될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최고로 안되고 있는데 더 안될 것은 없고 조금이라도 좋아질테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좋아하지 말고 안됐다고 슬퍼하지 말고 북한을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EDO는 국제적으로 하는 하나의 북한 지원인데, 이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의 인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KEDO가 처음에 생길 때 우리는 제네바 합의 이행의 하나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네바 합의라는 것은 핵확산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던 나라가 갑자기 탈퇴해서 우리는 그것 안하겠다고 하니깐, 안하겠다고 하면 벌을 주어야 되는데 벌이 아니라 원자로를 두개 갖다 주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바로 거기에 참여를 충분히 못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담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지불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많고 미국의 공화당쪽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할 때, 그 비판하는 사람이 다른 안을 못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길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의회는 공화당이 다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KEDO의 예산은 내기만 하면 반으로 깎아 버립니다. 반으로 깎이고 나니까 중유를 못준다고 하면 우리는 중유는 우리 것 아니라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도 부담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으로, 사실 KEDO는 출생이 이상한데 내놓고 보니까 잘 큰단 말입니다. 이 놈이 무슨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KEDO를 들여다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부모들이 여러군데서 나와서 EU까지를 참여를 해서 제법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사진보면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KEDO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십억불씩 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양내는 것이 더 좋지요. 그

러나 저는 이것을 좀 바꾸어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국회의원들한테 합니다. 우리가 몇십 억불 내더라도 그것이 한전이 가지고 가는 돈이다, 한전이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한전의 발전소 수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이다 보니까, 또 북한이 당장 지불능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세팅은 어떠냐 하면 10년까지 한 후에는 북한이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반 원조같은 것이지만 일단은 장사입니다. 우리의 최고 전력회사가 한국형이라고 떠드는 바람에 전세계가 다 압니다. 그것을 남한에서는 어느 군에 짓는다고 할 때 그 군수가 지었다가는 큰일나게 생겼으니까 아무도 안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곧 통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전소를 우리가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인데, 거기에 일본도 좀 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해야 되느냐, 또 그것을 하면서 우리는 부수적으로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공 2년후에는 우리가 통신, 방송을 그 지역과 할 수 있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AFKN 비슷한 것이 신포지역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며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의사도 가서 아픈 사람 치료도 해주는 이런 것은 본래의 사업에는 안들어 있지만, 그런 사업같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나서가지고 절대 못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계산을 어떤 부녀들 모임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전수출인데, 또 저쪽에서 전력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한전이 지금 유일한 회사라면 북한까지 자기 시야에 넣어 놓으면 한전의 통일후의 계획안에 이런 것 다 들어있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전이 북한의 전기사정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할 때, 전기료를

3% 올리지만 국회가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자기네들이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새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규제도 하고 도와주고, 도와준다는 말이 규제가 같이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전이 맡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주부들 모인 자리에서 전기료가 100원인데 103원 내면 북한에 발전소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남편이 다 모아가지고 그 3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기료로 내느냐, 아니면 세금으로 내느냐의 차이인데, 세금은 남편이 큰소리 치면서 내지만 전기료는 여러분들이 3원씩 보태면 되는데 어느쪽이 더 좋습니까 하니까 전부 3원 더 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 저는 그것은 또 전기료를 3% 올리면 모든 물가가 연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안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발상으로서의 그와같은 여러가지 발상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주부가 나중에 통일한 후에 비용을 그 때부터 내겠다고 하지 말고 오늘 벌써 내는 것입니다. 적십자를 통해서 내는 것도 오늘 벌써 통일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KEDO가 잘되면,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보면 북한도 에너지가 충족되고 해서 북한이 좀 낫다고 하면 우리의 경제부담도 덜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KEDO의 비용만을 생각 말고 그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같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권력승계니 하는 이야기들이 관심을 끄니다. 그런데 3년상이 지나면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고, 하고나면 상당한 세대교체가 있어서 권력싸움이 있지 않겠나, 지금도 정치국원이 21명인데 그 중에 17명이 70세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정무원 총리, 인민

무력부장 등 핵심적인 요직이 비어있다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되는 계절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절차로써 가령 국가주석을 다시 뽑는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 있는지 몰라도 한 두 달전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언제라고 날짜도 정하고 소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미는 지금 별로 포착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고 아직도 좀 두고 보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만, 딱히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진·선봉지역이라는 것을 따로 특구라고 만들었고, 거기에 외국 사람들도 내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환율을 100배정도 다르게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은 북한화폐와 달리하고는 2:1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우리가 좀 있는 환율이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200:1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는 나진·선봉의 임금체계를 보면, 계약관계가 아니고 거기에서 일하는 제일 낮은 사람은 80불이다 하는 정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80불은 미화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80불이면 160원이거나 이런 정도를 받을텐데, 그 160원이 80불이라는 소수가 밖에 있을 경우에는 160원이 아니라 16,000원이거나 이렇게 될텐데, 지금 KEDO가 거기에 가서 나진·선봉의 임금체계와 KEDO의 그것을 병행해서 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교섭을 뉴욕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환율이 바뀌면서 100배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에 사정이 안정적이 아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자회담은 아마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회담을 하는 것까지, 날짜까지 해놓았는데 또 마지막으로 평양의 훈령이 있

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보면 다 했다가 마지막에 훈령이 안온다고 하면서 안하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정부에 들어갔을 때 자꾸 왔다갔다 한다고 하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여론이 이리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밀고 나갈 배짱도 없다, 그러니까 여론에 호응을 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하나, 다만 여기서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입니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양분법으로 무엇을 물으니까 답이 좋게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식량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이분법으로 물으니까 나는 안준다든가 준다든가 하는 이렇게 답을 강요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지난번에도 통일원에서 그것을 물을 때 그런식으로 묻지 말도록 하는 것을 권했는데, 지금도 저는 6.25를 겪은 우리가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적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인도주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리 그렇지만 무조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주라와 무조건 주지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소수입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이것이 남북화해와 통일에 보탬이 되는 것이 될 때는 자꾸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에 역행할 때는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류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류가 얼마나 크냐를 우리가 봐야지, 그렇게 보려면 삼분법으로 물어야지 양분법으로 물어서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토막을 중요시하고 통일원은 적어도 그 가운

데 토막을 얻고 통일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부서라는 자부를 하고, 그 가운데 토막에 타라는 지시를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 들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론화 · 전문화 · 국제화

민족통일연구원 이전식 격려사 (1997. 7. 1)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국회 통일외무위원회 정재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이상옥 이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이전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오신 민족통일연구원의 임직원과 통일교육원의 관계관들에게도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유서깊은 이 북한산 기슭에 민족통일연구원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민족통일연구원은 창설된 지 만6년에 불과한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통일문제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취가 있기까지 그동안 비좁고 열악한 연구환경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오신 연구원의 모든 분들께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과 북의 관계는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북한의 전도가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북한의 식량문제가 한반도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모든 면에서 서로 대등하던 시대는 지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왔던 냉전체제는 오래전에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터위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기운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은 단순한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적 과제로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과정을 관리하며, 나아가 21세기 통일국가를 완성할 방향과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연구원이 '보다 각론화되고 보다 전문화되며 보다 국제화'된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해 통일문제에 관한 세계 최고수준의 썩크 탱크가 되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족통일연구원의 북한산 시대를 개막한 오늘은 연구원이 거듭나는 첫 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쾌적한 연구환경아래 새로이 출발하시는 연구원의 여러분들은 이러한 저의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기관과 교육하는 기관이 함께 한 지붕아래 있게 된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서로 이어짐으로써 연구에는 실사구시의 정신이 깃들게 되고, 교육에는 학문적 전문성을 뒷받침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곳은 통일을 앞당길 정책들이 개발되고, 통일을 주도할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명실상부한 '교육·연구 종합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두 기관의 모든 분들께 서로 한가족으로서 상부하고 상호해달라는 점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공간을 기꺼이 내준 통일교육원의 여러분과 이주과정에서 호양의 정신을 발휘한 민족통일연구원의 여러분은 이미 한식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긴밀한 협조아래 두 기관이 무궁히 발전할 것을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비용 극복가능

태국 Bangkok Post 인터뷰 (1997. 7. 15)

기 자 통일이 남한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정부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통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문제는 통일비용문제 및 통일 한국의 경제적 생존문제와 긴밀히 연관됩니다.

독일 통일이후 통일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비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통일 이후 북한주민 부양과 북한경제 재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비용 문제는 통일의 시기와 방법, 통일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평가에 의하면 통일이후 약 10년간 적게는 3천만 달러부터 많게는 3조 달러까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통일비용 논의는 한국경제가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후퇴할 것인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독일의 경우 서독인 4명이 한명의 동독인을 부양하면 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남한인 두명이 한명의 북한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볼 때 그러한 의문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 대한 해외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남한에 대한 투자도 북한체제의 도발가능성이라는 위험요소 때문에 다소 저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투자가의 눈으로 볼 때 통일은 남한과 북한을 합친다는, 말하자면 시장의 확대인 동시에 투자에 대한 장벽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남한의 통일비용 논의는 다소 과장되었다고 보고, 통일 이후 활발한 민간투자로 인해 통일한국의 경제는 건실한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통일직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곧 안정을 회복할 것이며, 한국전쟁 이후의 잿더미로부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인들이 다시 통일한국의 경제를 눈부시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다한 통일비용 등 통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신속하게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민간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시말해 국내외의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통일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북한경제가 절망적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식량지원, 남북경제교류 등을 통한 북한경제 회생방안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 자 독일식 통일 및 홍콩-심천 등 다양한 통일 접근방법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독일식이나 홍콩-심천 통일접근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독일식 접근방법은 공산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완전히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동서독의 노동·자본·상품시장의 완전한 통일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체제의 단일화, 민

주화를 뜻합니다.

이러한 독일식은 그 통일의 완전성이나 민주성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에서처럼 통일 초기에는 경제·사회적 불안정이 수반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독일식을 따르게 될 경우 통일 직후의 혼란이 매우 심하고 엄청난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완전한 통일이며 해외투자의 증대로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홍콩-심천 방식은 일국양제로 특징지어집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주도아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때 홍콩-심천은 중국의 여타지역과 분리되어 특수한 지역(경제특구)의 지위를 누립니다.

홍콩-심천 방식은 점진적인 접근방법으로 전국에 걸친 혼란이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구형식은 그 지역이 완전히 분리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범위일 때에만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계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통제력 장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홍콩-심천 방식을 한국통일에 적용한다면 통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불완전한 통일이며, 남북한의 경계선 유지가 대단히 곤란할 것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난에서 벗어나고 남북대화를 통해 서로 접근하고 서로 돕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독일식의 흡수통일이나 홍콩식의 분리관리방안 등은 학술적으로 가능한 대안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당면정책과제로 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 자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문제는 무엇인지요?

부총리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난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한 모두와 통일을 위해 먼저 필요한 과정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식량난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더욱이 소련을 비롯한 북한 동맹국들의 붕괴로 더 이상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한계상황입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구축에 동참한다면, 한국 정부는 농업부문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경제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먼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인 4자회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4자회담에서는 평화체제 뿐 아니라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든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경제적 접근 필요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 강연 (1997. 7. 23)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통일원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민망스럽습니다. 분단상황이라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전세계가 냉전이 끝났다고 하지만 한반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지루한 마음으로 분단을 지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밖의 형체와는 달리 남북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이데올로기 문제로서 나오기만 하면 늘 주의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반공주의 이야기가 앞서 있었던 것이 남북관계입니다.

지금 북한문제하면 전세계가 이야기하는 것이 식량문제입니다. 북한문제가 식량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깜짝 놀랄일입니다만 우리들은 그동안 식량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북한문제가 식량문제가 된 것은 2년밖에 안됩니다. 북한은 지상낙원이었던 나라이었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원조를 받는다는가 하는 것 또한 그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망명한 황장엽씨는

낙원에서 빌어먹는 나라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쪽에서 대비하는 것도 제가 실감나게 한가지 느끼는 것은 재작년부터 북한을 돕는다고 쌀도 보냈습니다. 그것이 거의 전부 정치적인 의미를 붙인 이야기 꺼리로 오갔었습니다. 지금도 쌀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서 작년 4월에 4자회담 제의가 있는 후 6월에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3백만 달러를 참여하기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일관계장관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일부가 나가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한참 이야기를 한 후에 살펴보니 농림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식량문제는 북한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40여년동안의 생각이 농림부장관이 통일관계장관회의의 멤버가 아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농림부장관이 통일관계장관회의의 멤버로 되어야 하지만 현재 정 멤버는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북한문제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문제는 남북간 1대 1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실지회 북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의 연장으로써의 통일이 있어야지 그것의외에는 통일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얼마전까지 저희들은 1대 1의 교섭을 통해서 통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습시다만, 지금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1대 1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통일비용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독일의 예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제라고 할까, 때를 놓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통일은 아직 아니고 한

참 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민감하게 통일과 연관된 것을 감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통일은 이미 우리의 품 안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바로 경제인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맡은 각료들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북한이 뭔가를 실패를 하면 그 자체가 우리의 성공인 것처럼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못났다는 증거로 북한경제가 형편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금 한국이 외국에 돈을 빌릴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경제가 제대로 갈까, 혼한 이야기로 한보사태, 은행 등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밖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경제의 최대의 약점은 북한이 무너질 때 껴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경제가 나쁜 것은 오늘 현재 한국이 돈을 빌리는데 있어서 악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경제는 한국경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크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울타리를 쳐놓은 모양은 50년동안 변함없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쪽에서 쟁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옳게 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문제는 통일원이라는 관청이 맡아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처별로 모든 것이 각론으로써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KEDO가 잘 움직인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도 연결되고, 핵과도 연결되고, 재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한전의 경수로라는 원자발전소 수출입니다.

그 수출이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돈을 다 내야 되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내고 일본이 약간 내고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국가대사로서의 측면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한전의 한국형 원자료를 어느 나라도 사가지 않는데 이번에 KEDO가 사가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원자료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북한에 만든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치과의사인데, 그 사람 말이 통일이 잘 되어 가느냐 하고 묻길래 내가 그 사람에게 혹시 북한에 치과가 어떻게 생겼고, 치과의사가 몇 명이고, 이가 나쁜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북한의 치과사정에 대해서 조금 아느냐 하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는 만큼 통일이 안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한 것을 각기 알고도 한참 후에 되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 속에서 통일원에서 통일구상을 먼저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알 것처럼 생각합니다, 독일형식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독일과도 거꾸로이고 중국에서 1국 2체제로 해서 대만과 교섭하고 홍콩을 흡수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 사전에 굉장한 것이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공적인 일들이 톱-다운방식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된 것을 밑에 사람이 집행해 나가는 방식이 익숙합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이것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꾸준히 버텀-업방식을 통해서 쌓아올려 가야 됩니다.

경제교류도 하고 사람들이 내왕을 해서 하나하나 쌓아올려 가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고위급 회담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총리급 회담을 8차례 했습니다만 거의 교역도 없고 내왕

도 없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2백억불의 교역이 있고 1백명 이상이 내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머리 속에서 그리면서 우리의 통일관련 이야기를 살피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북한에 대해서 통일원이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북한 동향은 한편으로는 4자회담 예비회담을 8월 5일에 뉴욕에서 열기로 합의를 했고, 또 며칠전에 중부전선에서 대포까지 동원되는 20여분의 교전이 있어서 이것이 주는 충격이 대단히 큼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북한을 얘기할 때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습니다.

경수로 사업은 8월 중순쯤에 착공식 예정입니다. 착공을 하려면 7월안에 상당량의 장비가 올라가야 되고 장비가 올라가게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보내려면 바지선에 신고 가야 되는데 신고 가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바지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내륙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충돌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냈느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충돌은 별 것이 아니니까 자꾸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사진의 위력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참상이 한국신문에 보도가 되면 갑자기 무조건 쌀을 보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군사 퍼레이드하는 것이 보도가 되면 파고다 공원에 계신 노인들이 모금을 하고 있는 통을 발길질로 차 버리고 하는 등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그때 그때 보도에 움직이는 것은 덜 적절하고, 그 덜 적절한 것을 우리들이 뒷받침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던 여론조사방식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몇번 했습니다. 예전 방식은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묻는 것은 신문에 사진이 하나 실리면 이쪽이 많아졌다가, 다른 사진이 나면 저쪽이 많아졌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쥐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지 말아, 조건부 지원의 3분법 방식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15%가 무조건 쥐라, 12%가 무조건 주지 말아라, 73%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쌀의 투명성 등의 조건들을 붙였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이행할 때는 지원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73%가 통일원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쥐라, 무조건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은 국민의 주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은 모양새로는 왔다갔다 하지만 가운데 70% 이상이 대충 합의를 하고 있는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배경으로 통일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충돌이라든가 또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크게 봐서 큰줄기를 놓치지 않도록 통일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자회담이 8월 5일에 예비회담으로까지 가게 되어서 우리도 상당한 성과고 미국도 클린턴정부의 성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8월 4일 저녁에 못 나오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무엇이 지금 좋다고 하느냐, 또 그것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과 한 두개 합의를 했다고 해서 큰 길이 열릴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연한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이 필요없이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이 있는 직후에 외교부성명을 통해서 4자회담을 은근히 걸고, 북한은 남한에서 도발을 했다고 주장합

니다. 4자회담을 하자고 해 놓고 이러한 도발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4자회담에 나가야 할지 의심스럽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8월 5일의 만남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장엽씨와 관련된 이야기로 저는 황장엽씨가 저희들에게 와서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즐거으로써의 북한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짐작하고 있던 것도 확인도 되는 등 북한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든가, 공작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황장엽씨의 언급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에 조선일보가 김정일에게 백성도 굶기니까 물러가라 하는 사실을 썼다고 해서 북한의 미디어가 동원되어서 법썩을 떨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이러한 작태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세상에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바로 물러나라에 해당하는 것 같은 반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출생한 1912년을 주체원년이라고 하면서 연호를 쓰겠다고 하고,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근대적인 국가가 아닌 것같은 작태가 있습니다.

김일성은 인민공화국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궁전 앞에 광장을 만드는데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니까 한쪽은 415미터로 하고 한쪽은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이니까 216미터로 하고, 또 김일성이 올해에 85세가 되기 때문에 탑을 85미터로 세운다든가 하는데 의미를 두고, 또 여기에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이면 굶는 사람에게 줄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사망 3주

기가 지나면 김정일이 주석이 된다, 혹은 총서기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석이 되고 총서기가 되는 것이 이미 김정일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임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정책이 바뀌는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북한의 경제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나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에 관한 한 어느 숫자도 지금 정확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원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분석을 해서 내놓고 있는 것은 214억달러의 GNP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전에 북한에서 유엔에 GNP를 보고했습니다. GNP에 따라서 유엔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GNP를 일부러 낮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95년의 GNP가 52억달러라고 합니다. 95년은 수해가 있던 해입니다. 수해가 컸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40%이상이 줄어서 52억불이라고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95년을 돌이켜 보면 북한은 체제에 잘못된 것은 없었고 일시적으로 수해 때문에 식량이 모자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5년에 우리가 식량을 보낸 것은 수해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15만톤을 보내면서 첫번째로 보내는 것은 6월 25일에 보냈는데, 그 때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좌우간 수해가 있는 직후에 김정일의 영도아래 아무런 피해없이 잘 지나갔다고 처음에는 방송을 하다가 나중에는 달러로 환산해서 150억불의 피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150억불이라고 한 그 해에 GNP가 52억불이라고 유엔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피해를 조사하러 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유엔의 책임자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 요원들의 평양에서의 일상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그냥 따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간다고 할 때 갈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안되고 신청하면 일주일쯤 후에 오라고 해서 가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주는 숫자 이외에 어떤 숫자를 가질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주는 숫자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엔이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또 어떤 국제기구 요원은 영양실조인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모였는데, 병원에 모인 사람들을 시찰하라고 해서 시찰했더니 노인,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그 시찰단이 돌아나오자마자 그 사람들이 모두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시찰에 관련된 연극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압도적으로 굶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거짓말한다는 사례로 여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북한은 풍년이 들면 400만톤 정도의 식량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양은 600만톤 정도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김일성이 농업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한 내용에 하루에 1만톤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운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1만톤이니까 1년이면 365만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에 의하면 그것만 가지고 보통 먹는 분량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좌우간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일성의 생각이었습니다.

수해가 크게 발생했다고 했을 때 어느정도 감소가 되느냐를 볼 때 크게 잡아서 10%가 감소한다고 봅니다. 400만톤의 생산이라면 수해가 크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40만톤정도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360만톤정도는 수해를 입었다고 해도 생산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종자, 사료 등을 제외하면 먹는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국제기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WFP, 국제적십자에서 보내고 있는 것은 수해지역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함경도는 수해지역에 해당이 안됩니다. 평안도와 황해도지역도 까다롭게 따져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가 주는 식량은 남포에 갔다주면 국내운반은 북한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운반수단이 모자라서 어떤 때는 비가 와서 썩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쌓여있고 한쪽은 굶고 있기 때문에 식량수송을 도울 길이 없느냐 해서 우리도 관심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량관련 문제는 전체적으로 숫자도 딱 떨어지게 맞지도 않고, 또 언제 어느 지역이 급하니까 그쪽으로 빨리 보낸다고 하는 것이 파악된 것도 없고 해서,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쌀이 있다고 해도 유효하게 돕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정이 가로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모자라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의 공장 70%가 쉬고 있다고 하고, 나머지 30%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력난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중유를 보내는데 중유를 저장하는 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그 일대가 오염이 되어 크게 낭패를 보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나라대 나라의 관계 또는 정치대 정치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을 주변국이 불안해서 한국만 해도 강한데 북한까지 합해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고 혹시 중국이 생각한다든가, 또는 커져서 우리가 위협을 받지 않을까 라고 일본이 생각한다든가, 또는 러시아가 어떻게든가 하는 여러가지 생각할수 있습니다. 통일한국이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를 굴러가야 성공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사정이 허용하는 한 비덤-업방식, 경제협력 등을 많이 통해서 하나하나의 신용을 쌓아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들이 환경으로서 조성이 되어야합니다. 통일을 우리가 안되는 것을 한다고 덤비는 것보다 통일이 되게끔 만들어 간다는 쪽으로 통일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진정한 냉전의 종식

민족통일연구원·세계정치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축사 (1997. 8. 19)

학술회의 참석인사와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정치학회 제17차 세계대회를 맞이하여 민족통일 연구원이 세계정치학회와 함께 개최한 국제학술회의가 성황리에 이렇게 열리게 된 데 대해 대단히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의 서울대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신 중에,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해외의 손님 여러분에게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때,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라는 주제하에 세계적인 석학여러분들과 견해를 나누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바로 이 시각, 한반도 북녘 동해안의 금호지구에서는 경수로 부지준비 공사 착공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이제 본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4년전, 핵문제로 인해 긴장으로 치닫던 당시를 돌이켜 보면, 이는 큰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경수로지원은 남북관계사에 있어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5일 뉴욕에서 남북한과 미·중 4자 모두가 참여하는 예비회담이 열린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4자회담이 제의된 지 만 14개월 만에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바와 같이 이제 한반도에서는 무력적화노선의 포기아래 상호존중, 신뢰, 협력으로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동안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지원 총량은 액수로 2억 6천만달러를 넘는 세계 제일의 큰 규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같은 동포의 입장에서 이같은 지원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북지원의 투명성 보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다각적인 협력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북한 당국도 이제는 스스로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선 자원배분을 합리화 한다면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당국이 어려움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늦게 오는 자는 역사의 별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시간이 결코 자신들의 편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통일은 한국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냉전의 진정한 종식이자, 21세기를 여는 세계사의 방향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의 길목이 막혀있는 채로 세계공동체시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국제사회의 축복과 협력아래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통일국가를 이루어 온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더 크게 기여함으로써 세계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국인의 이러한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그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처럼 뜻깊은 모임을 마련하신 세계정치학회와 민족통일연구원,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주도 · 정부지원의 통일교육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공청회 개회사 (1997. 9. 1)

참석자 여러분!

오늘 통일대비교육지원법에 관한 각계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원이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미 현실의 과제로 다가온 통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통일의 객관적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분단과 대결의 아픔을 안겨주었던 냉전이 역사속으로 사라진 지 한참 되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국제적 조류는 평화통일의 성취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도 그에 따라 크게 변했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 남북관계는 단절과 적대의 벽이 여전하지만 내면으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남북이 대등했던 시대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어려움이 이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북한에 대한 식량과 경수로 지원 등 남북간 협력은 남북관계를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민족의 장래를 앞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통일의 선례는 우리에게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하에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적 자세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해 나가려는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통일교육에 기울인 우리의 노력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통일교육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민교육과정에서 쌓인 불신은 통일교육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아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법적 규범위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립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일교육의 법제화는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지는 새로운 현실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간부문이 각자의 영역에 맞는 통일준비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교육에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통일대비교육을 재정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통일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대비교육은 그 실시체제를 법제화하는 것 못지않게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하고 그 바탕위에서 남과 북이 참다운 하나가 될 수 있는 국민적 자세를 확립하는 것은 통일대비교육의 긴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북한동포와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내적통합을 완성할 수 있는 역량을 미리 가다듬을 필요도 있습니다.

통일과정에서 남북의 심리적·정서적 통합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은 ‘통일대비교육지원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통일대비교육제도를 세

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공청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통일대비교육을 실시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가 폭넓게 모아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수로 사업은 주변국가에도 기여

미국 Los Angeles Times 인터뷰 (1997. 9. 5)

기 자 뵙게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내일 중국 상해로 가서 전 상해시장과 대만관계에 대해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부총리 우리는 현재 남북관계에 관한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기 자 그냥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면서 통일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계신 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다리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이상을 기다려 오고 있습니다.

기 자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을 한국은 원하고 있으나 북한은 결국 자신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부총리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동당 즉 북한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 정권은 대단히 완고한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천2백만의 북한 주민 중에는 현명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어제 본인이 참석했던 한반도 관련 회의에 스킨레튼씨가 주장하기로는 “북한과 알바니아의 유사점을 말하는 이들이 많으나 알바니아는 실패한 구 공산권 국가들에 싸여있지만 북한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 싸여 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총리 북한과 알바니아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 자 현재 떠돌고 있는 소문에 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과 미국의 CIA는 4자회담을 오히려 천천히 진행시켜서 북한이 현상태를 끌고 가다가 몰락하게 하려한다는 것입니다. 장대사의 망명이 그 예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기 자 본인이 중국에서 전기침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그가 피력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지 않으나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추진 과정에서 미군철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지요?

부총리 통일 후 한반도의 위상에 대해 본인은 전기침 부장의 의견에 특별한 반대는 없습니다. 다만 통일추진 과정은 여러가지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군철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통일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먼저 평화에 관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평화와 통일은 상충하는 것은 아니나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관해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은 장애보다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 자 한반도의 통일 논의는 이제 외부세력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한반도 통일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 미·중 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 자 오늘 드린 저의 칼럼에서 저는 중국 주석의 미국 방문에 관해 예상되는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방문에 대해 미국인의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미국인은 외교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만일 미국민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으면 “중국은 여전히

히 변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것이고, 이로 인해 워싱턴과 베이징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서울과 베이징의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국제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강택민이 모택동이 즐겨입던 인민복을 더 이상 입지 않습니다. 미·중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중국이 합중국(United States of China)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없는지요? 일부 일본인들에 의하면 모택동이 “미국은 합중국체제라서 강하다. 중국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땅 크기와 태평양 국가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기 자 본인이 베이징에서 일간신문 편집국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중국이 변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따라갈 만한 언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민회의에서 더 많은 사유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유화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중국의 사유화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한다(경제논리와는 상충되는)고 대답했습니다.

부총리 북한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변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면에서 동일한 언어로 지배되고 있으나 본인은 ‘화학적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보면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기 자 어제의 회의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키노네스씨는 자신은 92년 이후에만 북한을 13회 방문했다고 하면서, “서방에서는 북한에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WFP, UNICEF, KEDO 등만 보아도 북한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총리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선전기관들이 황장엽씨의 망명에 대해 “나뭇잎 하나가 큰 나무에서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민감한 시인은 이를 보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겨울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 자 한국 정부는 현재의 북한 정권과 통일논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권이 나타나야 하게 될 것인지요?

부총리 북한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진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현정권에 대해서는 통일보다는 우선 평화에 대해 대화를 해야합니다.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의 유훈이라며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남한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 자 그것이 북한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일 것입니다. 중국이 두 얼굴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중국은 거대한 나라이고 수많은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얼굴 표정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기 자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표정이 단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중국은 여러 언어를 쓰고 있으며, 남북 지역간 사회·문화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기 자 황장엽의 증언 중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만한 것이 있었는지요?

부총리 놀랄만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망명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떨어진 하나의 나뭇잎 이상일 것입니다.

기 자 본인은 한반도의 통일이 결국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부총리의 의견은?

부총리 정치는 수학이나 과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예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은유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상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전망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 자 본인은 라빈 전 이스라엘 수상 방미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과의 평화구축'은 필요하고 꼭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라빈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가 오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 한반도 문제가 독일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이가 많으나 본인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상황과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반목과 의심을 갖고 대결해 온 관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땅을 내어주고 평화를 얻었고, 한국은 북한에 식량을 주고 평화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 자 본인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대량 식량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 한국 사회에는 얼마 전까지 대북지원에 대해 양 극단의 의견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쪽은 종교단체 등에서 주장하듯이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입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주류의 의견은 직원 식량의 분배확인과 대남비방 중지 등의 조건이 부합되면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무조건 지원 15%, 지원 반대 12%, 조건부 지원 72%), 그런데 KBS TV에서 북한의 식량난 실태를 보도한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조금의 차이를 보였습니다.(무조건 지원 18%, 지원 반대 9%, 조건부 지원 72%), 중요한 것은 주류인 72%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 자 제가 이에 대해 촌평을 붙인다면, 여론보다는 거시적인 국익을 위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라빈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72%의 주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빈도 같은 입장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 자 본인은 작년에 한반도문제에 대해 6건의 칼럼을 쓴적이 있는데, 한·미 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윈스턴 로드 당시 국무부 차관보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한·미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주 공고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주일 뒤에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총리 본인이 20개월 전 처음 통일부총리에 취임했을 때부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세가지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 한국이 배제된 제네바합의 및 경수로사업,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비인도적 입장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비판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과거에 비해 안정적이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 한국인들은 남북문제에서 외국의 간섭을 전혀 배제하는 자주를 주장했으나 오늘날에는 KEDO, 4자회담, 심지어는 적십자지원 까지도 국제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북 간의 접촉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이제는 급격한 관계 진전이 아니라면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기 자 미국의 입장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미·북관계의 급격한 진전과 같은 전략적 재편성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클린턴행정부 가 원하는 바도 아니거니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KEDO는 비핵화의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대단히 이상한 과정을 거쳐 탄생된 것이기는 합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KEDO의 출발이 가능했고, KEDO에 대해 한국 민도 이제는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KEDO에 대해 한국의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의회의 보수 진영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EDO는 사생아로 출발했지만 자라면서 좋은 기대를 갖게 하고, 한국인들은 우리의 중심역

할에 대해 점차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진영 정치인인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대선후보 토론에서 한국의 경수로 사업비용 부담액을 50억 달러까지도 고려한다고 말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 자 대선과정에서 KEDO, 통일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부총리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하께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미국이 KEDO사업에 역할을 해야합니다.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수로사업에 있어서 상징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상징적 역할이 무역할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미국이 20억 달러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 자 아시다시피 클린턴 행정부가 외교정책에 있어서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까닭에 거의 연정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본인의 조언이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는 두 가지가 기억됩니다. 첫째는 작년에 클린턴의 한국 방문 전이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로드 차관보의 방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20억 달러 부담에 대해선 자신이 없습니다. 북한에 경수로가 건설되는 것은 종국적으로 한국과 북한에 득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총리 제네바합의는 클린턴 대통령의 작품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경수로 사업의 성공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 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일관성 유지하는 대북정책

금호그룹 임직원 강연 (1997. 9. 5)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김정일도 오늘의 북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북한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으로서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95년말에 정부에 들어갔는데, 그 때 통일과 관련해서 세가지 지적을 민망스럽게 들었습니다. 첫째는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KEDO와 관련되는 제네바 합의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단히 인기가 나쁩니다. 북한과 미국이 앉아서 정했는데 돈은 우리가 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주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95년 여름부터 15만톤의 쌀을 주면서 북한에 도움을 준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제일 큰 액수를 주었는데, 주다가 손을 물렸습니다. 모두가 나쁜 짓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조금 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국제적으로 북한을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자꾸 주지 말라고 하고, 더구나 민간인들이 주려고 해도 주지 말라고 해서 한국정부는 비인도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응하는 것이 통일원에서 주로 하는 일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
다든가, KEDO는 나라를 망쳐 먹는다는 것이라든가 또는 우리는 북한을
돕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 오늘의 형편이라서 대단히 다행입니다. 그 다행이라는
것은 곧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간다는 큰 줄기는 잡았다는 생각으로 믿고, 그렇게
저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관계를 지금도 보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 실감으
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문제는 분단이후 50년동안 같은 문제입
니다. 그런데 북한문제 하면 요즘 떠오르는 것은 식량문제라고 되어 있
습니다. 북한문제가 식량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북한이 제가 정부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소위 말하는 낙원이었기 때문에
남의 원조를 받고 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원조를 받기 시작하
면서, 아마 이런것이 북한의 모순이었을 것입니다. 낙원인 나라가 원조
를 받아야 하니까 그 사이에 북한도 홍역을 치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
니다.

한가지를 소개하면 95년 여름에 지원을 하기 시작할 때는 큰물피해가
있기전입니다. 수해는 95년 늦여름입니다. 그 때부터 원조를 받으면서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이 조공으로 받칠 것 같으니까 받아서 사료로
사용한다는 말도 했고, 일본이 준다니까 한국것도 받아주었다는 식으로
초기에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수해 초기에는 사상유래없는 큰물이
쏟아졌지만 김정일의 영명한 영도로 아무 피해없이 잘 넘어갔다고 2주동
안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50억불의 수해피해가 났다고 했
습니다. 150억불의 수해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던 것은 전체 GNP가 200억불 내외라고 보고 있을 때입니다. 150억불의 수해피해가 났다고 하니가 이상하다 하고 있었고, 그 때 이래로 북한은 수해피해가 많고 굶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선전처럼 과장되게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여기에 사족을 더 붙이면 유엔에 분담금을 내는 것은 GNP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였겠지만 95년에 GNP를 50억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GNP가 50억불인 나라가 150억불의 수해피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정도로 북한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좌우간 이러한 수해피해가 있는 후에 전세계가 나서서 돕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북한문제를 식량문제라든가, 경제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작년부터 주었던 것에 대해서 자꾸 시비가 붙어서 좋지 않게 되니까 우리나라 여론이 주지 말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프리카도 지원하고 일본의 고베지진 때에도 지원하고 했었는데 북한이 현실적으로 굶는다는데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약 300만불을 주기로 하고, 지원하는 것은 식량입니다.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합의를 해야 남북협력기금에서 300만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보니까 농림부장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은 통일관계장관회의의 멤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문제는 농림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무장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북문제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옥수수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이 옥수수만 먹으니

까 영양이 불균형이 되어서 어떤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병에 걸리기 때문에 서울의사회도 나서고 해서 북한을 도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보건사회부장관이 통일관계장관회의의 멤버가 아닙니다. 통일관계장관회의라면 남북이데올로기 대결의 전문가라든가, 국방부 등이 북한관계의 창구였는데 이것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자회담을 하는데도 4자회담 테이블에는 농림부는 없지만 농림부가 주관하는 식량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북한문제는 주무가 어떻게 되느냐 할 정도입니다. 또 WFP에서 무슨 발표가 있을 때 외무부 정무과, 통일원 정책실에서는 WFP의 움직임을 잘 모르지만 농림부는 WFP가 있는 로마에 주재관이 나가 있어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북한문제가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의 세가지 이야기 중 KEDO이야기는 KEDO를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안에서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기준에 비추면 북한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이고 남북문제인데 국제적으로 하는 것은 싫다, 당사자원칙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KEDO가 이루어져서 처음에 부담도 부담이지만 당사자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것이 우리 국내에서 합당치 않다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4자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참여를 합니다. 이 때도 정부안에서도 당사자원칙의 포기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또 하나 달라진 것입니다. 대북문제가 경제가 전면에서 나서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국제적인 문맥 속에서 대북문제가 풀려나가게 되어 가는 것이 그 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국제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우리 이웃에서 우리가 통일되면 큰일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옆에 살면 통일을 해도 축복도 못받고 건강한 통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통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기웃거리는 속에서 우리의 주도가 살아나야 우리의 주도이지, 우리와 관계되는 것은 결눈질도 하지 말아라 하는 모양으로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우선 첫째 분단을 우리끼리 하지 않았는데 통일을 우리끼리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열려 있는 속에서 자주적으로 한다는 것이 진정한 자주이지, 달아놓고 자주를 한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형세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남북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국제적인 문맥 속에서는 뭔가 풀려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 KEDO입니다. KEDO는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도 너희끼리 만나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우리가 좋아할 리가 없지만 크는 것을 보니까 제법 토실토실 잘 크는 것 같아서 괜찮겠는지, 제대로 크겠는지, 제대로 크면 무슨 몫을 할 수 있겠는지, 아직 확신은 없지만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또하나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KEDO가 기공식을 한 이후에 한국사람들의 눈에도 좋은 것으로 비치는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대통령후보토론회에 나왔을 때 KEDO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KEDO는 부담을 질 각오를 해야 된다. KEDO사업이 요즘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50억불까지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이제는 KEDO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KEDO사업에 대해서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정당이 자민련 쪽입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NPT탈퇴를 하고 무법자 처럼 놀고, 무법자로 선언을 했을 때 벌을 줘야 되는데 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공화당 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처음에는 좋지 않은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사생아처럼 태어난 것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양으로 비

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생각이 국제적인 것도 어느 의미에서는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담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부담이 크다는 말은 몫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KEDO에서 우리의 몫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소리이고 그 영향력을 키운다는 것은 역시 부담이 따라야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부담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영향력만 키우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할 때 우리는 KEDO를 잘 키우면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열어놓고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몫을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처음에 KEDO가 나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에도 우리가 KEDO사업을 통해서 50억불을 내든, 60억불을 내든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 돈은 한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전이 장사하는 것을 돕기 때문에 결국 우리한테 떨어질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북한문제를 경제문제로, 북한문제를 국제적인 문맥 속에서 보는 시각으로 키워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KEDO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신문은 조그만한 일들도 크게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옛날에 팽이들고 땅을 팔 때 불도저가 와서 밀고 가면 놀라고, 그 다음부터는 불도저에 익숙해져서 불도저가 없으면 땅을 안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팽이다, 호미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바윗돌이 있으면 정을 쳐서 폭약을 넣어 한 이틀씩 걸려서 하는 것을 우리는 몇시간

만에 처리해 버리니까 확실히 앞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 중 한글은 북한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회의를 해도 우리는 금방 가지고 오는데 북한은 안된답니다. 그래서 해주면 그것을 배워서 라이선스를 사지도 않고 자꾸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압도적으로 경제문제가 앞에 나왔다는 것 하고, 또 상당부분 국제적인 시야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동안 대북 태세가 군사, 대결이 강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덜해지고 국제적인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중국과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 있을 때, 같이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그 주고 받는 이야기 속에서 아주 귀중하게 해결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한 두개씩 발견되고 해서 우리도 제법 국제적으로 외교력이 높아졌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되어 가는 것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강조하는 것이 될지 모릅니다만 북한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통일이 되면 그때부터 힘이 들 것입니다. 특히 서독의 예를 들면서 앞으로 준비를 많이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재 북한경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우리가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북한경제 때문에 한국경제가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리적으로는 북한경제는 우리 것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한국에 돈을 빌려 줄 때 돌려 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전쟁의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히 못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숙명적으로 한국경제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한다고 할 때 한국의 현재 경제상황으로 북한을 담당해 버리면 언제 우리 돈을 받느냐?

현재 한국경제의 취약점의 하나로 북한경제가 첫째로 나와 있다는 것을 요즘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사실일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경제의 어려움이 한참 후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문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북한관련으로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할 때, 물론 잠수함이 내일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경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인 틀 속에서 보지 않으면 풀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국제적이라는 것을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황장엽씨 망명도 보면 중국이 관계되고 필리핀이 관계되는 등 국제문제입니다. 그리고 일가족이 북한을 탈출해서 나오는 것도 중국, 홍콩을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북한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한참 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세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해서 해준다 하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제의를 했는데 안한다고 버티다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4자회담을 해서 득이 될 것은 북한입니다. 그 득이 된다는 것을 북한에서도 외교부쪽 사람들은 알지만 다른 쪽에서는 버티고 있습니다. 버틴 결과가 북한에 좋게 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북한의 편이 아닌데 자꾸 버티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러한 태도를 한편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 미국, 남북한이 참여하는 회담에 나와서 한반도문제의 평화문제를 논의하게 된 하나의 트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쪽도 북한이 늦추자고 하면 안달이 나서 자꾸 줄라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4자회담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국제인권협약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했습니다.

이 조약에서 탈퇴한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효과는 결의안을 보면 북한의 인권문제라는 것이 국제적인 문맥 속에서도 중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응분의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가지로 북한 체제를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천왕의 지위에 따라서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북한이 사용하는 방식은 또 다릅니다. 주체연호를 금년 9월 9일부터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말하면 1997년 9월 9일이 주체 86년 9월 9월입니다. 주체 86년이라는 것은 김일성이 태어난 해가 주체의 원년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천왕이 즉위한 해입니다.

또 김일성 시신이 있는 궁전이 있는데, 대리석으로 지어서 굉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두가지 조형물을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광장입니다. 광장을 만들었는데 한쪽은 415미터이고 한쪽은 215미터라고 합니다. 이것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생탑을 세웠는데 영생탑의 길이가 82미터인데, 김일성이 82세에 죽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계내는 사람들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만 통일원 집계로는 이런 상징물들을 만드는데 9억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최소한 필요로 하는 식량이 600만톤인데, 평년작이 400만톤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작년, 올해는 생산량이 낮아져서 400만톤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20만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수해가 없이 평년작이 되어서 200만톤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200만톤중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적게 먹는 것으로 100만톤을 절약해도 100만톤은 외부에서 지원해 줘야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00만톤을 쌀로 주면 4억불정도가 들어가지만 옥수수로 주면 지금 시세로는 1억 5천만불입니다. 그래서 3억달러 정도면 식량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9억달

러씩 들여서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 실태는 나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995년의 북한 GNP는 214억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엔에 보고한 GNP는 52억불입니다. 또 군사비를 GNP의 30%를 쓴다고 말을 할 때는 214억불의 통계를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면 우리 통계가 다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들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일인당 GNP도 910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국대사와 이야기하다가 중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해서 중국의 GNP가 400달러라고 하는데 400달러 GNP가 910달러인 북한에게 원조를 준다고 곡식을 모아주는 것을 알았다면 중국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했더니 910달러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이고 계획경제는 통계를 세우고 하는 것인데, 통계가 없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도 아니라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소화 17년인가 될 때 생산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기 전입니다. 해방이 되어서 일본 밑에서도 생산이 좋았기 때문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10% 증산하기로 결의를 하면 10% 증산이 되었든 안되었든 결의된 내용이 통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의가 근거가 되어서 현물세도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통계가 됩니다. 농장에 농장장이 바뀌면 먼저 농장장보다도 10% 늘리면 그러면 또 10% 올라가서 통계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자꾸 올라가서 낙원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갖다 준 것을 액수로 집계해 보면 금년 상반기까지 전체 금액이 5억달러입니다. 5억달러 중에

우리가 준 것이 2억 5천만달러 정도입니다. 전세계가 준 것 중에 우리가 절반을 주었는데 우리는 안준 사람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미국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말하고, 최근에 국내 종교계 사람들을 만나서도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만 주고 끝날 일도 아니고 내년에 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슬기롭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0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서 50만톤을 정부가 내라고 했습니다. 종교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전세계가 북한을 돕는 것 중에 그 절반을 우리가 주었다고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을 돕는 것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분법으로 하니까 주라가 몇%, 주지 말아라가 몇%, 잘 모르겠다가 몇% 해서 별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어떠한 태도가 되겠느냐에 대한 것을 정하는데, 묻는 것을 옳게 물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는가를 찾아내야 하겠다. 그 주류를 찾아내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통하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무조건 쥐라, 무조건 주지 말아라, 조건을 붙여서 충족되면 주어라 라는 삼분법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는 무조건 쥐라가 15%, 무조건 주지 말아라가 12%, 나머지 72%는 조건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지원해라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KBS가 강에 떠내려가는 시체장면 등 북한 특집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직후에 조사를 했더니 무조건 쥐라가 18%, 무조건 주지 말아라가 12%에서 9%로 떨어졌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가운데 72%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 대북정책에 안정을 찾으려면 72%가 지지하는 대로 하는 것이며 통일정책의 배경은 72%이라고 여기고 임하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의 식량문제에 관련해서도 초기에 행사적으로 할 때는 가슴뭉클한 것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해까지 정부가 주는 것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겠습니다만 민간부문을 통하여 적십자가 하고 있는 것은 1차, 2차까지 지원했습니다만 모금액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거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작년에 남한이 대풍이고 중국의 동북3성이 대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싼값에 사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중국도 한해가 겹쳐서 작년대비 40% 감소가 되어 값이 오르면 우리가 내년에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돈이 더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돕는데 있어서의 산술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해 15만톤의 쌀을 줄 때 쌀의 양으로는 15만톤이니까 많지 않습니다. 적십자가 올해 옥수수를 주는 것이 3차까지 가면 15만톤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쌀은 15만톤이지만 값은 2억 3천만달러나 됩니다. 한국 쌀이 많이 비쌉니다. 같은 해에 일본에서 50만톤의 쌀을 지원했는데, 15만톤은 무상으로 주고 35만톤은 장기로 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 쌀의 양으로 비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3배나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값에 있어서는 우리는 2억 3천만불이나 되지만 일본의 50만톤은 7천만불정도 됩니다. 양으로 하면 일본이 3배지만 액수로 말하면 우리가 3배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북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경제적으로 산술도 따지면서 품목도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작황은 올해도 상당히 나쁘고 한해 때문에 80만톤 정도 모자란다고 하니까 올해 320만톤이 나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FP에서는 270만톤밖에 안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북한의 식량문제를 우리가 떠맡은 것이나 비슷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움을 주는 것이 북한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으로 너무 부담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에너지난도 대단합니다. 공장도 군수공장 이외에는 거의 다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또 발전도 나진-선봉지역에 미국이 제공하는 중유로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중유를 저장하는 시설이 좋지 않아서 위성사진을 보면 중유가 새어나와 그 일대가 중유로 오염된 것이 다 보입니다. 북한이 중유를 저장하지 못하니까 그 값으로 곡식을 주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네바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학자들의 아이디어로 제안되었다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다되어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변화 적극적 유도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연 (1997. 9. 11)

경제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모임을 가지시는 것을 저는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문제를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늘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이 첫머리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익숙치 않습니다. 제가 정부에 참여한지가 20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구성원 중에서는 한분만 저보다 오래 계시고 제가 두 번째로 오랫동안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원에 들어와서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고, 들어올 때와 현재 사이에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의 북한정세와 통일정책의 방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관계 얘기를 할 때 뿐이 아니고 21세기는 경제가 중요한 세기라고들 얘기하고,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만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데, 이 모임에 인간개발이라는 것이 붙어서 이것이 가치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북한에서 이와같은 모임이 있게 된다면 그 때는 아마 통일이 되

기 전이건 후건 거의 통일이 다 된 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모임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북한을 그런 시각에서 들여다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을 들여다 본다는 것은 대단히 안보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와같은 이야기를 소홀히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문제는 세계문제가 되어 있는데, 세계문제가 된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식량문제입니다. 북한 문제가 식량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북한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이 크게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정부에 참여한지 20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50년 분단사에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북한은 터무니없이 욕을 해대고, 얻어 가면서도 욕을 해대고 있는 상황 그대로고, 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안보의식이 헤이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50년 해오던 소리인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화학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잡담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선 북한문제가 식량문제다, 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아주 최근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최근까지 낙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하기로, 한국이 처음 우리 쌀을 전국의 정미소가 다 나서서 일제히 비상 도정을 해서 보낸 것이 밖에서 식량을 중심으로 해서 원조를 주는 최초였습니다. 그런 때에,

사실은 요즘 북한에서는 얘기하기를 수해 때문에 지금 임시로 필요한 긴급구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95년 6월 25일에 첫번째로 원조 식량이 떠났는데, 그 때는 수해도 없었습니다. 그 해 늦여름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밖의 원조없이 지탱해 나가기 어려운 속에서 버티다 버티다 받기 시작한 것이 그 때입니다. 누적된 모순이 이제 밖으로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늦여름에 수해가 났는데, 그 수해를 놓고 북한에서 최초 일주일 동안의 방송의 반응은 옛날처럼 터무니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방송을 듣고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만, 그 큰물피해가 있는 직후에 장군의 지도밑에 아무 피해도 없이 거뜰히 넘겼다고 했던 것이 한 일주일 가까이 선전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갑자기 150억불의 수해를 당했다고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대단히 큰 수해를 겪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숫자놀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이, 그 150억불이라는 것이, 북한의 GNP 집계가 나와있는 것이 200억불 좀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의 3/4 정도가 수해로 없어졌다고 하는 발표여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무렵에는 그랬는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북한에서 유엔에 보고를 하는데, GNP대비로 유엔분담금을 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분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좀 낮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1995년 GNP가 52억불이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유엔에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북한의 GNP는 200억불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피해가 150억불이라고 발표를 했던 당국에서 1년인가 2년 후에는 GNP가 52억불로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GNP의 3배가

되는 비 피해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보고같은 것을 보면 정확성 이런 것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 북한의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사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어떠했느냐 하면, 이것은 정부안의 얘기가 되어서 좀 부끄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바뀐 북한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 15만톤의 쌀을 보냈는데 그것은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쌀이었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서 나간 돈이 1,900억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그 때 환율로 해서 2억 3천만불 되는데 그것을 성금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조를 해주는 손을 물고 늘어지는 사건들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원조물품을 싣고 가는 배에 인공기를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의 여론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95년 연말까지 저 사람들의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면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어떠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그해 늦여름에 큰 수해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유엔의 구호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구에서 나서서 도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또 미국도 그 때쯤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 이미 주어보니 고맙다 소리도 안하니까 주지 말자, 안주는 것이 버릇 고치는 것이다 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을 때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주지 말자 하는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에 비쳐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에 움직이기를 한 200만불 정도의 식량을 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200만불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우리들과 상의를 하는데 우리는 2억 3천만불 주어봤는데 손이 물렸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신중히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페이스로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처럼 되고 미국의 여론에서 한국은 아주 인도주의적인 원조도 안할려고 하는 나라처럼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북한의 어려운 사정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니까 전 세계에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관심있는 많은 나라들이 조금씩 낸다 하는 것이 유엔을 중심으로 그와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던 해를 넘기고 그 다음해인 작년 봄에 4자회담 제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어려움이 하나도 덜어지지 않으니깐 자꾸 원조를 하는 추세속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국민감정도 어느정도는 격앙되었던 것이 낮아지는 추이가 있어서, 그 해 여름 6월달에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돕고자 하는 어떤 어필이 있다든가 할 때는 우리도 거기에 참여한다는 쪽으로 정부의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바꾸었을 때에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이나 이런것을 쓰게 되니까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루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농림부장관이 안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식량원조를 하는데 농림부장관이 왜 오늘 안나오셨냐고 했더니 원래 멤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일관계장관회의는 농림부장관이 상관이 없는 회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문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량문제, 식량문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줄 것이 있건 없건 북한의 굶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우리 정부안에서 1차적으로 보는 사람은, 역시 통일원도 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통일후까지를 내다보면서 사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의 길을 찾고 국제적인 공조를 하는 것이 농림부장관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멤버도 아니었는데 물론 지금은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웃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저쪽에 옥수수를 많이

원조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먹으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무슨 병이 생긴답니다. 그 병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수술을 하면 피가 몇지를 앓는다든가 해서 다른 영양분을 많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최근에 서울시 의사회가 북한 돕는 캠페인을 할 때 그 병을 막는 특별한 비타민 같은 것이 든 원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것이 어느 신문과 연계해서 돈도 모으고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보건복지부장관이 또 통일관계장관회의 멤버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의 대북관계와 지금 우리가 북한문제라고 말할 때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들의 감각이 지금도 완전히 그렇게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단히 국제적이 되었다 또는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4자회담을 제의했을 때 우리의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 전에 남북간에 기본합의라는 것도 하고 민족문제는 우리끼리 하지 남들은 기웃거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크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밑바닥에 깔린 하나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4자회담이 제의되었을 때 당사자원칙이라는 것은 어디갔느냐 한다든가, 왜 우리의 통일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기웃거리게 만드느냐, 배제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다든가, 또는 KEDO같은 사업이 북한의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서 막아야 된다고 했을 때, 특히 미국과 북한이 어물어물, 한국은 제대로 참여도 못하는 속에서 제네바 합의라는 것을 해서 그 결과로 우리는 왕창 큰 부담만 안은 것 아

니냐, 외국이 개입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마음씨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를 통한 북한의 원조만 해도 남북적십자가 다 해야 되는데 공연히 국제적십자연맹이 끼어서 이렇고 저렇고 그 자체가 나쁜 것처럼 이렇게 보는 또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본다면, 특히 핵과 연관되는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결정이 그렇게 집행되고 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우리끼리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덜 달가운 것인지는 모르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추세를 어느정도 심리적으로도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2년동안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실감하고 있는 것이 KEDO사업 같은 것입니다. KEDO사업은 우리가 북한이 느닷없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고 하고,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일종의 불한당 같은 행태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벌을 주지는 않고 경수로 200만 kw짜리를 상주듯이 주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되니까, 그 때 미국의 공화당 계열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은 말도 안된다고 해서 반대가 컸습니다.

또 우리는 외교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감각으로도 우리가 모든 분야에 일일이 참여해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가 떠안는 것처럼 되니까 아주 좋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2년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북한이 그런대로 핵을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미국이나 IAEA나 이런 쪽에서 그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행동을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합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담을 준다, 우리가 부담을 안고 넘어진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덜 좋게 생각했던 것이 초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의 생각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도 저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부담을 진다는 것이 반드시 한반도의 긴장완화나 통일을 놓고 마이너스 요인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 KEDO같은 것도 놓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꽤 씹하다, 안준다고 했을 때 우리아닌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의 부담을 지면서 북한과 어떻게 어울려 들어간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더 옳지 않은 모양으로 사태가 진전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본이 나서서 한다고 할 때 그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싫은 것이지만 부담이 곧 몫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경제하시니까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제일 큰 주주이고 제일 큰 주주가 주도하는 것이 회사입니다. 돈을 많이 내놓고 주도도 못하면 그것은 좀 못한 사람이지만 돈을 하나도 내지도 않고 주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염치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EDO를 보는 눈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부담한 것이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같이 북한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 후에서 전개되는 것이 많이 다를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KEDO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변화가 나는 중요하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국제적인 공조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만 가지고 있지 않고, 거부감을 가진 분이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리어 국제공조 속에서 하니까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해도, 가령 기본합의라고 해서 남북이 국제적인 관여없이 했던 합의는

잉크도 마르기전에 안지켜도 그만인 것처럼 되니까 그냥 말로 하는 합의에 그쳤는데, 지금 KEDO 관계라든가 이런 쪽은 그런 합의를 지탱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국제적인 보장같은 것을 같이 붙여준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저는 그것이 눈에 띈다고 할까 귀에 바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얼마전 김종필 차민련총재의 대통령후보 방송토론에서 어떤 패널리스트가 물었습니다. 마침 그 때가 KEDO 착공식이 끝난 직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종필총재께서 자꾸 부담이 커진다고 하시면서 처음에 40억불이라는 말이 있더니 그 다음에 60억불이라는 말이 있더니 최근에는 80억불이라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한 50억불 정도는 물어야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지불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김종필총재 개인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필총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담을 많이 지는데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그것은 왜 터무니없는 부담을 지느냐 하는 말씀으로 그동안 KEDO합의 같은 것을 꾸짖는 상당한 어른 같은 분이 김종필총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이 한 50억불은 우리가 물어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대단히 현실적으로 그것이 바뀌지 않았냐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북한문제 하면 전부 국방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 이런 것이 앞에 있다가 지금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식량문제, 경제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크게 변한 것이고, 또 북한문제를 보는 눈이 북한을 돕는다고 할 때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가 어떻게 전부 다를 어떻게 하겠느냐? 북한의 식량문제 같은 것은 일종의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국제공조로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통일문제로 보는데 있어서 좀 거부감을 가진 모양으로 국제적으로 뭔가가 되는 것을 싫어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도리어 수용해서, 또 우리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것 만큼 나쁘다하는 것이었는데 부담은 곧 영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영향력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지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생각들이 좀 바뀌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견상의 모양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북한을 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라고 할만한, 또 하나 제대로 눈여겨서 보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북한을 대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것을 이분법 발상이라고 하는데, 북한을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태도를 묻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외마디로 돕자, 말자라고 이분을 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태도를 갈라서 집계를 내고 하는 것은 안맞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 개인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장관이 되어서 그 해 바로 국회가 있어서 갔는데, 인쇄된 질문서안에 어느 의원이 도대체 북한은 동포냐 적이냐 통일원장관 답변을 하시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포럼 자체에서 하계끔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만, 저는 답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이면서 동포라고’, ‘적이면서 동포’니까 대단히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적이기만 하면 죽도록 싸우면 되고, 동포이기만 하면 껴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일문제의 어려움은 적이면서 동포인 이상한 상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간다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통일원에서도 무슨 여론조사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이분법으로 통일관계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은 답을 틀리게 나오게 만드는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포니까 무조건 도와라 하는 사람들이 한국안에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때 아버지를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은 북한에 무슨 인간이 있느냐, 공산당만 있어서 제일 '빅 브라더'가 한마디 하면 전 나라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는 판에 뭐 민간은 어떻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전부 적이다, 무조건 주지 않아야 된다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두 모양으로 한국을 가운데로 갈라서, 그러면 어느쪽이 많느냐 하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가운데로 갈라서 양분하는 방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포이면서 적인데, 이것과 어떻게 대하느냐 할때는, 예를 들어서 식량을 준다고 하면 굶고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는것 같으면 주라고 한다든가 또는 받으면서 자꾸 욕을 해대면 문제가 있고, 앞으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주어라, 말하자면 조건이 한 두 개 붙은 모양으로 주는 것, 이것이 나는 우리 사회의 주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그렇게 해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통일원에서 두 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늦봄에 조사를 했더니 15%는 무조건 주라는 것입니다. 12%는 무조건 주지 말자, 그 다음에 72%는 주기는 주되 제대로 따져보고 주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72%가 우리 사회의 주류이고 72%가 우리의 통일정책을 뒷

받침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지금 무조건 주라고 한다면 무조건 주지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주류는 72%라고 생각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와 같은 것이 늦 봄에 있었는데 그 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KBS의 일요스페셜에서 북한의 비참한 상황을 방영했었는데, 그 방영이 있는 직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나온 결과가 무조건 주자고 하는 것이 3% 올라서 18%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지말자가 3% 내려서 9%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2%라는 가운데 토막은 그대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안정된 북한을 보는 우리 사회의 주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그동안 정의하지 못해서 우리가 북한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주자가 40%, 주지 말자가 31%, 모르겠다가 20%라는 결론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론을 가지고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묻는, 말하자면 일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묻는 것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것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정치일반에서도 여·야하고 갈라버리는 이분법이다, 그렇지 않고 다양해지는 사회가 된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만 가르치는 것, 혼한 말로 흑·백으로도 얘기합니다만, 좁 물을 때 폭을 가지고 묻는 것이 제대로 된 답을 끄집어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북한문제가 경제문제, 식량문제가 앞에 나오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굉장히 국제적인 시

각이 필요해졌고 중국과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도리어 단단한 의미의 북한정책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을 보는데 있어서 주류가 있다는 것, 저는 이 세가지를 20개월 있는 동안에 변화라면 변화라고 꼽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정부에 들어갔을 때 세가지 대단히 듣기싫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통일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참여도 못하는데 부담만 지고 와서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놈이 먹고 하는데 KEDO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욕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한국정부는 미국이 주려고 할 때도 주지말라고 따라다니고 다른 국가들이 주려고 할 때도 계속 주지말라고 따라다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종교인들이 주려고 하면 주지말라고 하고, 아주 비인도적인 정책만 계속하고 있다, 이런 세가지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았는지 요즈음은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상당한 안정기조 속에 있다, 좀 아전인수가 되어서 우습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하나 요즘 정치하는 분들 사이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1:1의 상대는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면 공산당을 몰라서, 안보의식이 해이해져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1:1적인 북한에 대응하는 조치나 생각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 하면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 믿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편견을 먹는 것 같은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GNP가 50몇억불 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요. 통일원에서 저 사람들이 쓰는 1년 군사비가 얼마나 하면 한 60억불 된다고 얘기를 합니

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유엔에 갔다 낸 것은 GNP가 52억불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맞지 않지요.

그러나 좌우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안정된 모양으로, 또는 1:1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모양으로 북한문제를 보는, 제가 알면서 저준다고 하는 것도 한 두번 연출이 되어도 감내해 냈을 것입니다만, 예전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건에 대해서 모든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이겨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알면서 저주는 것은 크게 보아서 이기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여유가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가령 KEDO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모두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한 전 장사도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여유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것은 그런대로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주 심리적으로는 공산당 대하는데 약하게 나온다고 해서 경고를 받을 성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거꾸로 되었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단 50년 역사를 통해서 제일, 어느 의미에서는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정된 자세로 북한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는 이야기들에 관해서 몇가지 최근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신문사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 신문이 전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매스컴이 전하는 것이 때때로 상당히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많고, 그것은 외국의 저널리즘에서는 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신문은 그것을 그렇게 보도를 받아서 하지는 않았습니 다만, 부산일보 하면 지방지 중에는 제일 큰 신문입니다. 이 신문 9월 9

일자 1면 톱기사에 김정일이 주석이 된다는 보도를 했고, 보도 발원자는 캐나다에 사는 우리 교포인데 캐나다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의해서는 아닌데 캐나다 사람으로 북한에 갔더니 누가 자기보고 9월 9일 날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간부가 하더라 하고 커다랗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것을 확실히 뒷받침 할만한 것이 없어서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상황이라는 것은 누가 큰소리로 한마디 하면 그것이 아닌 것을 증명 못하면 그런 것처럼 쓸려가는 것 같은 것이 북한 정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나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문에 한 두가지 크게 나는 것으로 너무 놀라시거나 하지는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그것이 지금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총리도 없고 국방상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도 없고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탈상도 했으니 어떻게 되지 않겠냐 하는데, 10월 10일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당 창건일이라고 합니다. 그때쯤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낚시는 관계기관 같은 데서 감지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하리라는 것은 아직도 말하는 것은 확신이 안서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숫자로는 GNP가 214억 달러라고 우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GNP에 비하면 1/22인가 되는 것이고, 1인당 GNP가 910달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가지고 제가 잡담을 하나 하면, 지난번에 중국대사께서 오셨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사가 저하고 농담도 하고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어느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아직 민주국가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했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북한을 많이 도운다는데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400불 된다고 하는 통계도 있고, 좌우간 통계를 잘 믿을 수 없지만 한 400불 된다고 하는데 북한은 900불이 넘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400불도 될까말까 하는 사람이 900불짜리를 도운다고 곡식도 주고 뭐도 준다고 하는 것을 만일 중국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 안다면 그것 참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할 텐데, 그럼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910불은 말도 안 되는 것이 그것은 그냥 갖다 붙인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평양도 가게셨던 분입니다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하기는 계획경제니까 계획경제가 숫자 가지고 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의 숫자가 엉터리인데, 그 이유는 숫자가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서 어떻게 그런 숫자가 만들어져 나오느냐에 관한 하나의 모델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령 북한에서 식량이 얼마만큼 산출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통계를 내는 밑바닥에, 해방직후의 이야기 같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소화로 따져서 17년 상당히 곡식생산이 좋았던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된 것이 소화 20년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전에 그렇게 괜찮은 일들이 있었는데, 해방이 되어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일제밑에서도 이만큼 생산을 했었는데 해방이 되어서는 10% 증산이라고 결의를 한답니다. 그러면 증산된 것을 근거로 해서 현물세도 받아가고 그것이 통계로 잡힙니다. 그 다음에 간부가 바뀌면 와가지고 또 10% 증산이라고 결의를 하면 곡식은 나오지 않았는데도 10% 올라간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는 통계같은 것이 그쪽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것과 통계로 얘기하는 것을 비교하면 대단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중앙에서 어떤 깃대를 흔들면서 나라를 하나로 모아갈 때 도움이 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요즘 어떤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중국이 그랬듯이 일정한 양의 이상을 생산하면 자기의 몫으로 가지도록 하는 생산체제를 북한도 해보면 어떠냐고 권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일정한 노르마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밀의 수치가 10%씩 자꾸 올라가서 너무 높은 것이 되어서 그 자체도 굉장히 낮추지 않고는 그와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도 어려운 것이 북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만, 아마 그런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량난 관련으로는, 제가 따져보면 북한이 식량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제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양을 600만톤 정도가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평년작으로 괜찮게 수확을 한다고 할 때 400만톤 나오는 것이면 괜찮은 수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00만톤은 모자라는데, 그 200만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생각해 보면, 100만톤은 자기네들 허리띠 졸라매든지 어떻게 해서 하고 밖에서 100만톤 정도는 들어가야 그대로 죽지는 않고 지탱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해, 한해가 겹치면 1, 2할씩 감소되니까 대단히 어려워지고, 지금은 내년의 경우에 한해를 감안해서 300만톤 보다도 더 내려가는 2백 수십만톤 밖에 안나온다고 내다보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다 차치하고 한 100만톤 필요로 한다고 할 때, 100만톤이 값으로 따지면 쌀로 할 때 4~5억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강냉이로 하면 1억 5천만불 정도 됩니다.

또 북한의 식량애기를 계속하면, 작년에 만주쪽이 굉장한 대풍이었습니다. 옥수수 같은 잉여생산물이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돕는데 그 옥수수가 거의 다 활용이 되었고, 돈은 물론 외국에서 내지만 옥수수 자체는 비교적 헐한 옥수수가 공급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지금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95년 여름부터인데, 그 때부터 지금 '97년 여름을 지난 2년동안 국제기구에서 준 것, 우리도 준 것 해서 전체 집계를 내보면 한 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억 5천만달러 정도 들어갔으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 기근이 많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실제로 원조기구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남포나 신의주에 구호물자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분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니까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쌓아놓고 있는데 비가 온다든가 해서 썩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수송을 할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체계가 좋지 않아서 굶는데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사진찍으면 굶는 사람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층별로도 높은 사람들은 700g을 주는데 어떻다든가, 또 군대는 700g인데 또 어떻다든가 해서 격차가 많아져서 생긴 기근도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년에 강냉이로 하면 1억 5천만불, 쌀까지 올라가면 4억불, 이 사이에 왔다갔다 한다면 그 중간쯤 해서 한 3억불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북한에서 굉장한 어려움은 올해 이렇게 주면 내년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열번 들어도 그것은 출구가 없습니다.

요즘 북한의 농업기술자들이 미국에 6명이 가서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

으면 놀랍다고 감탄하는 얘기만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곡식의 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당원들끼리 어떻게 하는데에 중점이 가야지 궤기대회를 해서 마음씨를 단단히 해라, 장군을 잘 모시자 이런 쪽으로 농업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지요.

물론 우리 한국도 지금 식량자립은 3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70%이상을 외국의 쌀을 사먹는데, 우리는 사먹을 수 있는 돈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지형을 놓고 거기에서 농사만 지어서 자급자족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옳은 투자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모양으로 보아서 무슨 공업화를 하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다른 돈을 벌어서 외국의 곡식을 사서 먹도록 하는 경제가 되어야 될텐데, 그렇게 하는 발상이 없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북한문제는 꽤 시간을 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만주쪽도 대풍년이었는데 북한만 안좋았습니다. 올해도 한해라는 것이 대단히 그런 모양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는 중국쪽도 대단히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한 40% 감수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북한에 어려움이 그대로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사서 줄 곡식값이 내년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에너지 얘기할 때 나진·선봉에 서방쪽에서 주는 중유를 가지고 돌려서 하는 화력발전은 어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화력 발전을 하기 위한 중유를 받아서 저장할 하는데, 그 시설을 잘 만들지 못해서 기름이 탱크에서 새서 그 지역 전체를 크게 오염시키는 그런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배우겠지요. 배우고는 있습니다만, 배워서 그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잘못되어서 확산되는 것이 더 빨라서 지금 북한에게만 맡겨놓아서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재미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지난 9월 9일부터 주체연호를 쓴다고 하는데, 주체연호라는 것이 외국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외국에서 하는 것은 왕이 즉위를 하면 그 때부터 새 연호의 원년 해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하다가 평성인가 이렇게 되어서 하는데, 지금 김일성의 경우는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가지고 주체원년이라고 하니까 올해가 주체 8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9일을 모든 공문서나 이런데에 주체 86년 9월 9일 이렇게 바꾸어 쓰기로 해서 그것을 요즘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 생일과 관련시켜서 뭐를 만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 김일성이 누웠다는 금수산궁전을 새로운 모델로 해서 무엇을 많이 하는데, 앞에 탑을 하나 세우는데 그 탑의 높이가 82m다, 왜 82m냐 하면 김일성이 82세에 죽어서 그런다든가, 또는 앞 광장의 길이를 김일성의 생일에 맞추어서 415m로 하고, 넓이를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에 맞추어서 216m로 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접근방법이 약간 미신적인 발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계같은 것을 보면 김일성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1년에 9억불 가까이 썼다고 하는데, 9억불이면 제가 아까 식량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3억불 된다고 하면 그 3배쯤 쓰는 것인데, 그것을 덜 쓰고 1/3만 식량으로 돌려도 식량문제를 해결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안한다는 것이 북한의 체제입니다.

우리의 대북관계는 4자회담의 2차 예비회담이라는 것을 내주에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북한대사가 망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북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안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북경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 1차로 만났는데 아마 결말이 나지 않은 것 같고 한번쯤 더 만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야 내주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마디로 북한을 얘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 북한을 설명하는 것 외에 길이 없으니까 두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끝맺음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가령 4자회담은 안한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에서 하자고 하니 해준다는 이런 모양의 자세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터무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4자회담을 하면 여러가지로 득을 봅니다.

그래서 4자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안하겠다고 하면 한국이나 미국이 빨리 하고 싶어서 구걸을 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늦추어지는 것이, 지금 상태로 시간을 끌고 있으면 자기네들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꽤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봅니다.

저는 고르바초프가 동독에 가서 개혁을 촉구하면서 러시아 속담인가 그런 말에 “하늘이 늦게 오는 사람한테는 늦게 오는 별을 준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동독의 개혁에 불을 붙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늦게 오는 것 중에서 제일 늦게 오는 것인데, 좀 빨리 오도록, 또 그것이 남이 팔을 비틀어서 빨리 오게 하는 것도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고 자기네들 생각에 빨리 오도록 되게끔 바뀌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대비를 위한 통일교육

교육행정연수원 강연 (1997. 9. 24)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전국 각처에서 2세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나름대로 요즘 돌아가는 남북관계의 이야기와, 통일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 또는 제가 있는 통일원이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정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인수한 후 여섯번째의 통일원 장관이었습니다. 그 때 통일원 장관이 제일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어왔었는데, 지금 어찌다가 보니까,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내각에서 두번째 오래된 각료가 되었습니다.

그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남북관계나 통일문제가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꼽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50여년 계속해서 북한은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있고, 우리의 적대감이 그렇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날 위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 백성들을 잘 먹이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잘 못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를 모시고 있

고, 지금도 그런 추세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통일관계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저같은 사람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을 놓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소리밖에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상황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북한문제라는 문제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이 달라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북한문제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국내보다 밖에서 더욱 “북한문제가 무슨 문제냐? 아, 식량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부안에서 실감나는 예를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국제연합의 어필에 호응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들었을 때, 정부에서 식량지원관련 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었는데, 농림부 장관이 안계셨습니다. 왜 농림부 장관이 여기 안계시느냐고 알아보니 통일관계장관회의에는 원래 농림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량원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전까지는 통일관계장관회의에 농림부는 소관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의 성격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요즘 북한에서 강냉이만 너무 먹어 비타민 섭취에 균형을 맞출 수 없으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일종의 병이 되는데, 그 병은 수술을 하면 피가 몇지를 앓는 무슨 이상한 병입니다.

그 병과 관련하여 서울시 의사회가 무슨 특별한 비타민을 보내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제는 통일관계장관회

의에 오셔야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정멤버는 아닙니다.

만일 지금 북한의 해주에서 무슨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면, 남한의 인천이 대단히 위급한 방역지역으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가 앞에 나서야 하는 현상이 오늘의 남북관계입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50년 여일하게 하나도 안변한 듯 하지만 상당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또 이데올로기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아야 되지만, 그것 못지 않게 농림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곳들이 모두 통일과 연관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교장선생님들이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통일원은 지금 통일교육지원법이라는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 예고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일교육이라면 그동안 반공교육이 전부였었습니다. 통일교육을 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속아넘어가면 안된다고 하던 식의 방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 또 된다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민주주의 또는 시장경제 원칙 등 우리가 확실히 지켜가야 한다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통일문제는 국제적으로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국경을 넘어서고 넘나드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환경이나 인권문제 등 이런 것들도 한데 모아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몇년 사이에 대단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것을 교장선생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통일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각론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량문제, 방역문제, 건강문제, 교육문제 등의 강조가 50년 동안의 분단사를 통해서 계속 반공 이야기만 되풀이하면 되었던 과거와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걸모양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속사정은 상당히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개념상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남북관계는 ‘물리적’으로 달라진 것은 많지 않는데, ‘화학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동일문제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큰 테두리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남북분단은 남북이 앉아서 “야, 내일부터 분단하자”하고 합의해 분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국제정치의 압도적인 영향 속에서 남북이 분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냉전 때문에 분단이 되어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고 북쪽은 공산주의 진영이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50년을 흘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냉전이 모두 끝났다고 합니다. 전세계에서 아직까지 냉전을 하는 곳은 없고, 한반도가 마지막 냉전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정도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냉전시대 동북아시아의 군사대응 체제라 하는 것은 소련과 대륙중국을 적으로 삼는 모양으로 배치되고 생각하고 하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모두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소련을 이제 적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 나라가 지향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소련은 이제 우리의 큰 적이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깥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반도 안의 분단상황도 달라져

야 마땅하다는 것이 오늘의 사정입니다.

분단이 바깥의 사정 때문에 생겨났듯이 통일도 바깥의 사정 때문에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꼭 통일이 이룩되도록 여러 방면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통일과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통일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나라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 그 통일된 이후의 나라를 생각해볼 때,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통일조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것이냐를 마음속에 형상화시켜 볼 때가 된 것이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전 이후의 남북관계가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어떤 이는 이름을 붙여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학자들 나름으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남북간에 전쟁을 일으켜 통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통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쟁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어쩌면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 이야기를 할 때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평화적으로 하려면 현상을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상인정을 해야 서로 전쟁을 안치룰 것이 아니냐, 인정을 한다는 말은 분단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소리가 아니냐, 분단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분단의 영구화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사람은 어차피 죽을 것

인데, 살아 있는 동안의 성공이나 실패, 또는 노력 같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에 접근하는 길은 우선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비용을 들이던 간에 평화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팔아서 평화를 산다는 말을 한다면 우습겠지만, 최근 제가 어느 중국 사람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치구라고 내주면서 그 대가로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순조롭게 잘 안되어 서로간에 갈등이 있고, 불만을 가진 쪽에서는 폭탄을 던지는 등 많은 문제가 얽히고 설키는 과정을 겪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기본구도는 땅도 내 주고 팔레스타인 자치구역도 인정하면서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지키는 모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북한에 식량을 좀 주고 평화가 온다면 그것이 싸게 먹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북한한테 좀 양보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를 지켜 가면서 통일의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통일정책의 첫번째 방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 한반도에 평화를 먼저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합니다. 통일이 아무리 좋지만 김정일의 밑으로 들어가 김정일 만세하는 모양의 통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로 통일되는 것이 옳지, 통일이 급하다고 해서 아예 민주주의를 걷어치우고 통일만 되면 좋다는 식의 통일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 가는 경제체제 속에서 통일의 길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교장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중

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온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시장경제 원칙을 버리면서 통일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일간지에 황장엽씨가 쓴 것을 보면, 북한의 경제에는 당 경제, 군 경제, 그리고 정무원 경제가 있는데, 당 경제와 군 경제는 김정일의 개인 경제이고, 정무원 경제가 소위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경제입니다. 정무원 경제도 당 경제, 군 경제가 어려우면 그쪽 눈치를 봐야 되고,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김정일 한 사람의 경제라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와 같은 종류의 경제를 추구하고면서 통일을 하자는 사람은 남한에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통일된 후의 우리 나라의 모습이 세계의 여러나라 사람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아, 통일된 한국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마음 편하다. 통일된 한국은 우리하고 같이 이웃해 살아갈 만한 벗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모양의 나라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북이 합해 가지고 핵무기라도 만들어서 그냥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는 모양으로는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비록 통일이 되어도 세계인들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양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통일의 방향은, 서로 싸우지 않고 일단 평화를 정착시키는 속에서 세계 여러나라들과 교류도 하면서, 거기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서로 확산하고, 아울러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 가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같이 믿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나라를 만드는 쪽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의 방향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북한을 보는 시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외곺으로만 보지 않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21세기로 넘어서면서 또 냉전의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정부에 각료의 한 사람으로 들어왔을 때, 세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통일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섯번째 부총리가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잠깐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통일원의 통일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하루는 북한한테 쌀을 주더니, 그 다음날에는 금방 쌀을 주어서 안된다는 식의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또 문민정부가 들어서 후 타결한 것이 북한에 원자로를 지어 주는 KEDO 협정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갑자기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선언을 하고, 금방 원자탄이라도 만들 것 같은 자세를 보이니까, 전세계의 핵확산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을 제일의 임무로 아는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크게 문제삼아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느라고 제네바에서 합의한 것으로, 북한이 양보를 하면 경수로를 제공할 것이다 하는 것이 KEDO 협정입니다.

그것을 놓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제 맘대로 나가면 벌을 주어야 하는데, 벌은 커녕 경수로를 상 주듯이 지어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 안에서나 의회에서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해서 나무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제네바합의가 북한과 미국이 했는데, 우리는 합의하는데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부담은 우리가 지고, 그게 무슨 것이냐, 아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첫째고, 참여도 못하면서 부담만 지고, 생색은 미국이 내고, 도대체 무슨 외교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두번째였습니다.

셋째로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문제 등에서, 너무 인색하고, 남들이 원조하는 일까지 훼방을 놓는다는 비난이었습니다. '95년 6월에 북한 사람들이 굶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우리가 쌀 15만톤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50년 우리 민족의 분단사에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한국쌀은 대단히 비싸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2억 3천만 달러가 됩니다. 2억 3천만 달러를 그냥 주어 버리는 원조는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에 단 한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원조라면 우리는 늘 받는 쪽이었는데 제법 이제는 줄 수도 없는 처지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빌려주는 것도 아닌 그런 원조를 한꺼번에 2억 3천만 달러를 내 놓는다 하는 것은 액수에 있어서도 그렇고 더구나 적대하고 있는 북한에게 그렇게 관대하게 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만한 일을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북한은 갖다 주는 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인공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가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사진기로 뭘 좀 찍었다 해서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주는 것을 받은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주느냐 하는 여론이 팽배해 졌습니다.

그후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생겼을 때, 우리 쪽에서는 “야, 그거 받는 예의도 모르는 놈들한테 자꾸 주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주는 뜻을 알게 되기까지는 주지 않는 게 좋

다” 또는 “신중하게 해라” 이런 여론이 더 강조되고 우세했습니다.

그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안중 망정 미국이나 일본에서 주려는 것까지 계속 막고만 있는 모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종교단체 같은 데서 좀 도와주자고 하는데 정부에서 도와주지 말아라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까지 못 도와주게 만드는 비인도적인 집단이 아니냐 하는 소리마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습시다만 제 목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았습시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비판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반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시다.

첫째로, 대북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시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교육하시는 분들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북한에 도움을 주려고 누구보다도 앞서 2억 3천만 달러를 우리가 냈습시다. 그걸 왜 냈습습니까?

북한의 굶는 사람들이 좀 덜 굶게 되고, 싸움질하려고만 덤비지 않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낸 것이 아니겠습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는 손을 물고 덤비니까, “야, 이젠 한 푼도 주지 말아야 하겠다, 이놈의 자식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였습시다.

어떤 아버지가 애 잘되라고 아들보고 공부 잘하면 상으로 용돈이라도 줄 수 있습시다. 그런데 아들이 그 돈 가지고 공부하는 데는 안 쓰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닌다면 이 나쁜 놈 하고 뺨이라도 한 번 때릴 것 아니겠습습니까?

그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나, 공부 잘하라고

컴퓨터 한 대 사주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컴퓨터 사준 아버지가 그 다음날 때렸으니까,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사 주었으면 계속해서 컴퓨터를 사 주어야지, 주먹으로 때리면 되느냐? 가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대북한정책은, 북한이 충질을 하고 싸우려고 덤비는 것을 덜 하게 하고, 더불어 살면서 교류도 하고, 장사가 될만한 것은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적인 가치, 시장 경제의 관행 등이 자꾸 파급이 되어 언제인가 서로 합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그 때에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KEDO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이 부담의 한 겹 더 뒤를 내다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손해만 보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비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하지만, 통일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고,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통일비용이라는 것은 단지 통일이 된 뒤의 어떤 시점부터 쓰는 돈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기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형편없는 북한과 경수로 같은 것이 미리 준비된 북한과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경수로발전소 지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한전이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몇십억원의 돈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면, 그 돈은 한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한전은 최초로—우리 땅이니까 수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우리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각광을 받으면서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성능이 좋은 작품으로 완성된다면, 아마 중국 같은 곳에서 한전형을 사려고 하는 곳이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통일비용, 또한 북한에 전력을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여러분의 고장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 아무도 지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발전소를 지으면 전부 죽는 줄 알아요. 이것 또한 과장 선전되어 있는 탓입니다. 그런데 가장 깨끗한 전기가 원자력발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환경이나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으로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가 발달되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안도 시장이나 군수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기도 합니다.

북한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대만의 핵폐기물까지 북한이 받아 들여서 돈벌이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한반도 전체를 통일된 이후의 2010년, 또는 2020년에 서서 생각할 때, 지금 북한의 어느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일이 순전히 부담만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KEDO가 지금 기공식을 하였고, 일부 한전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분위기도 꽤 많이 바뀌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셋째, 남들은 북한한테 지원하려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인색해 자꾸 훼방만 한다는 이야기 역시 맞지 않습니다.

식량지원을 위해 최초로 한꺼번에 2억 3천만 불을 내 놓은 것은 한국 정부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이 말하는 소위

낙원 아니었습니까? 낙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원조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북한이 지금 과장된 모양으로 자기네들이 비참하다고 호소하면서 원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2년밖에 안 됩니다. 95년 여름부터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전 세계에서 북한에 들어간 구호의 돈이 한 5억 달러 됩니다. 그 중에 한국 정부가 일거에 준 것이 총액의 약 반 가까운 2억 3천만 달러입니다.

후에 국제연합의 호소에 호응한다던가 해서 준 것까지 합치면 한국이 5억 달러의 반을 낸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고 한국 정부가 인색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민간 단체에서 많은 것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적십자를 통해서 주십시오 하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적십자를 통해서 주라고 하느냐? 교회면 교회, 단체면 단체에서 그냥 주면 안되느냐?”하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북한을 돕는다고 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누가 누구를 얼마만큼 돕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1만 불 돕는다, 또는 쌀 1만 톤 돕는다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이나 쌀이 어떻게 전해지며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지금 종교단체에서 하시는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라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적십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에 15만 톤을 지원한 후에 대통령께서 외국의 것을 사서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나쁜 의미로 되어서 이상하게 되어 버렸지만, 금년에 우리는 전부 중국

의 옥수수를 사서 주었습니다. 외국의 것을 사서 준 거예요.

우리의 식량 자급 정도는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70% 이상을 수입해서 먹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우리의 자급도에 맞아 떨어지는 것은 쌀밖에 없고, 밀가루니 튀니 하는 것은 전부 외국에서 사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고 할 때는 외국 식량을 사서 도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옥수수 작황이 우리가 북한을 돕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중국의 작년 옥수수 작황이 대풍이어서, 만주지역에서 옥수수가 남아돌 만큼 잉여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북한을 돕는데 있어서 싸게 사서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옥수수보다 중국 옥수수가 많이 싼습니다.

만약 종교단체에서 북한지원한다고 할 때, 만주지역은 지금 초보단계의 시장경제를 하는 곳 아닙니까? 잉여농산물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되겠는데, 한국의 종교단체가 가서 A단체에서 산다, B단체에서 산다, C단체에서 산다, 또 다른 교회에서 산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값이 올라갑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는 적십자라는 창구를 통해서 북한을 돕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져서 돕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경도지역에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황해도, 평안도 등 서쪽에만 수해가 있었으니까 국제기구의 사람들이 모두 그 쪽으로만 몰려가서 그 사람들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들어셨을 것입니다만 옛날부터 함경도가 배고픈 곳입니다. 동쪽 반이 더 가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죽는 사람이 천지로 있는데, 국제적십자에서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께서 도문 쪽으로 들어가서 도우면 안되겠느냐고 했더니, 함경도 쪽에서는 좋다고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평양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자수송을 위해서 중국에 화차를 배정하는 일에서도 적십자를 제쳐놓고, 종교단체 사람들이 다 맞춰 놓고 준비를 해 놓았는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의주 쪽으로 다시 가져오는 등 돕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아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단체들이 가서 곡물값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적십자에서 지난번에 사서 준 것보다 톤당 한 10불씩 올라간 값으로 쳐서 사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어떻게 북한을 돕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내가 내 돈으로 돕는 일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저쪽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소리도 좀 듣고 싶어서 제 각각하므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주느냐에 대해서 적십자 이상으로 잘 아는 곳이 없으므로 적십자를 통해서 주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함경도 쪽에는 못 준다는 것을,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합의를 만들어 냈으니 그렇게 하여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북한측에서도 적십자를 통해서 하자는 데는 딴 소리를 하면서도 동의를 해왔습니다. 지금 함경도 쪽으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보내는데 꼭 받는 사람을 만나서 포켓에서 돈을 꺼내 직접 건네주는 것만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편국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적십자가 바로 우편국입니다. 적십자이상 제대로 된 단체가 없는데, 왜 그것은 안된다고 그러느냐에 대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통일원을 맡으면서 들어 온 세가지의 비판의 소리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즈음에 와서 크게 나무라는 소리는 별로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자세 등이 상당히 성숙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의 태도에서도 달라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환경도 대단히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경제 사정이나, 에너지 사정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달라진 상황을 밑에 깔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대할 때, 줄기를 분명히 잡아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의 창간 몇 주년 특집인가에서도 나온 것을 잠깐 보았는데,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이분법을 많이들 씁니다. 여냐? 야냐? 이렇게 합니다. 여쪽에서도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냐, 야냐를 분명히 하라고 다그친단 말입니다.

대북관계에서도 우리는 같은 것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제가 국회에 나갔을 때, 어느 의원께서 “북한은 도대체 적이요, 동포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도 되고 동포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적도 되고 동포도 된다는 말이 무슨말이냐? 그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분법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이면 적이지 무슨 동포냐? 이렇게 생각하는 쪽과,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도 동포는 어디까지나 동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여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돕는데 있어서도 “즐꺼냐? 말꺼냐?” 이 두가지로 묻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물으면 어느 날 북한의 비참한 식량사정을 들었을 때는 “아, 주어야지” 이런 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날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를 한 사진이라도 한 장 나오면, “야, 이거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일주일 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이 어떻게 북한을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태도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꺼냐, 말꺼냐 하고 물으니까 이분법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와서 통일원에서는 북한을 삼분법으로 좀 나누어 보자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난 늦은 봄에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 북한은 동포다. 식량은 주어야 한다. 둘째, 북한은 공산당이다. 주지 말아야 한다. 셋째,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준다, 즉 조건을 붙여서 준다. 이렇게 세가지로 말입니다.

주어라, 주지 말아라, 조건을 붙여서 주든지 말든지 하자,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 북한은 우리 동포니까 무조건 주라는 쪽이 여론조사 결과 15%였습니다. 둘째, 북한은 공산당인데 왜 주느냐? 거기 민간이 어디 있느냐? 준다면 지금도 배부른 공산당들이 다 가져가고, 군대로 갈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지 말아라 하는 쪽이 12%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3%의 사람들은 조건을 보아 가며 주라는 쪽에 찬성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 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73%가 바로 우리의 지지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대북 태도를 결정하는 중심축이다. 이들이 우리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주류다. 앞으로 통일정책을 떠나갈 때의 주류가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기로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 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KBS에서 북한의 실상을 보도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굶어 죽어가는 모습, 시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습 등을 일요특집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직후에 한 여론조사에서 ‘무조건 주라’가 3% 늘어서 18%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지 말아라’가 3% 내려서 9%가 되었습니다.

오르고 내린 것은 그 필름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가지 대단히 믿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머지 73%는 똑같은 숫자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북한을 보는 눈에 있어서,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이고, 확실히 중심을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그것 이번에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은 비슷한 것인데, 주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팔십 몇 퍼센트라고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러쿵저러쿵 여러가지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73%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우리는 예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의 입장임을 믿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대북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통일원의 입장입니다.

대북정책은 정치에 휩쓸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제 또 저는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야당 의원이 그러데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서 불

장난치는 이야기를 하여 야당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 통일부총리가 성명서를 내어 북한에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할 그런 용의가 있소?”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거가 끝나면 또 불장난해도 좋다는 소리가 될 지도 모르잖습니까?”라고 내가 농담 비슷이 대답했다가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선거철이 되면 통일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많은데, 통일정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사회에서 지도급이 되시는 분들이시니까 잘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류의 흐름을 제대로 지켜 가도록 노력하면 큰 낭패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독일의 통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독일에 한 번 가보기도 했는데, 독일한테 배울 것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우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독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통일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계속 통일비용 이야기입니다.

한참 듣고 있으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통일되기 전의 분단상태에서, 분단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소위 분단비용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단비용이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생각해 보니, 독일과 우리는 통일 이전의 상태가 서로 판이하게 다르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밀도가 높은 군비를 갖춘 집단이 38선을 중심으로 쥘 갈려 있는 상태에서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비용, 분단상태에서 이산가족끼리 내왕도 못하는 심리적인 비용, 즉 분단상태를 유지하는 코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단의 아픔, 그리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같은 것이 독일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베를린 장벽을 넘어 오다가 총을 맞아 죽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사소한 사례에 불과하며 동독과 서독간에는 내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와 비교한다면 독일에는 분단비용이란 개념 자체가 이해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는 상황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국양제라 해서 한 나라가 두 가지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네들도 분단국가라고 말을 하지만, 분단의 비용은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단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대단히 크고, 거기에 따른 분단의 코스트가 아주 많이 듭니다.

우리는 총리급이 만나는 고위급회담을 여덟 번이나 했습니다. 좋은 문서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합의서는 싸인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급이 여덟 번 만났는데도 사람의 내왕도 없고, 물자 교류도 아주 제한되어 있는 보잘 것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북이 갈려 있는 것 때문에 지불하는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여러가지 방면의 코스트가 대단히 많이 듭니다.

중국의 경우는 고위급회담 한 번도 안하고 정부대표들이 특별히 만난 일도 없는데도, 교역량이 2백억 달러에 달하고, 1년에 내왕하는 인원이 백만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과 통일을 못해 일반 사람들이 겪는 아픔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교해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다 하는 정서적인 의미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통일은 대단히 수지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꼭 이룩하도록 해야 되고, 통일된 뒤의 우리나라가 분단된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되고, 어울려서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하겠습니다.

김정일의 근황같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의도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대회를 할 것인가 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대표자회의를 도별로 한다던가 직능별로 한다던가 하는 듯 싶습니다. 평안남도에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 아버지인 김일성의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일성도 아마 평안남도 도당을 발판으로 삼아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해 갔던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일도 그 도당을 중심으로 일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10월 10일쯤 무엇인가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 쯤 되면 무엇인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김정일이 그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 해도 실제로 일을 다 해 왔었으므로 그냥 그대로 갈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장엽씨가 망조라고 지목한 주체연호 사용도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연호라는 것은 군주국가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까지 연호를 쓰는데 일본의 경우 천왕이 즉위한 해부터 원년으로 시작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난 해로부터

1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무슨 점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그들은 숫자 맞추는 것을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들의 발상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이 죽어 누워 있는 그 궁전의 옆에 무슨 영생탑을 세웠는데, 그 탑의 높이를 김일성이 82세에 죽었으니까 82미터로 해야 한다던가, 또 그 앞의 광장에 돌을 깔아 환경을 조성하는데 김일성의 생일이 4월 15일이니까 가로 길이로 415미터로 하고,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 이니까 세로 길이로 216미터로 했다고 하는 등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백성들은 굶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경제는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북한의 현재가 이러하니까 미래는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테두리에서 본다면, 손오공이 재주를 부려 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하는 것처럼 북한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기들의 능력의 한계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신경질을 자꾸 부린다면 해서는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자회담만 해도 그렇습니다. 4자회담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좀 도와줄려고 하고 있으며 저들도 얻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을 안하면 한국과 미국이 대단히 곤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안한다!” 이렇게 합니다. 4자회담을 안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국내에서는 “안되는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북한한테 한 대 맞았구나, 형편없구나.”하는 비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근에 그런 소리들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꼭 1대 1로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잃어서는 안되고 꼭 얻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면서 저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면서 저주기도

한다는 말은 상당히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도 보이는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KEDO 기공식에서 남북이 다 ‘시작이 반’ 이라고 하는 소리를 자꾸 하었다고 합니다. 시작했으니 반은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건 그렇지 않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첫 술에 배부르랴 하는 말도 있다. 아직은 한참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공식에 와서 좋다 하고 만세 부르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잠수함을 보낸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쪽으로 몰래 잠수함을 보내는 사람들이 북한 안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새기면서 보고 있어야 합니다. 잠수함 보내는 것에 대해 하나도 대비하지 않고, 식량 주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국제정치 차원에서 볼 때, 적은 약해지면 다루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원칙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약해지면 다루기가 더 힘이 듭니다. 죽어 버리겠다고 덤비기도 합니다. 이런 점도 알면서 북한을 대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혁에 늦는 자는 역사의 벌을 받는다

서울신문주최 국제포럼 기조연설 (1997. 9. 26)

존경하는 손주환 서울신문 사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제3회 서울신문 국제포럼이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게 되는데 대해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반도문제에 높은 학식과 경륜을 지니신 국내외 석학 여러분
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북한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그 앞날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 오늘날 북한이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그 전도가 불투
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7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 온 북한의 경제사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식량난은 우리와 국
제사회의 그동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
니다.

에너지의 부족문제 또한 북한 경제의 회생에 큰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의 대열이 엘리트 계층까지

확대되고, 사회일탈현상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로 지탱해 온 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전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앞날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 우리 모두 견해를 같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이 회의는 참으로 깊은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동당 평안남도 대표자회의를 시발로 당의 최고권력자를 공식화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후 3년여만에 북한 통치체제가 비로소 정상화의 길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외의 관심은 북한의 향방에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노선을 채택할 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권력개편을 할 지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대내외 정책이나 권력구조에 근원적인 변화가 있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자신의 장래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평화와 안정의 바탕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인 남북한이 관련국가들의 뒷받침을 받으며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자회담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4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남북한 협력을 협의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뜻에서 우리 정부는 올해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을 위한 실천방향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합리적인 입장을 고집함으로써 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것은 유감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의 어려움이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의 어려움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2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식량을 지원하는 한편,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는 경수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의 바탕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공동번영을 함께 도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변화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 시점을 계기로 그들의 태도를 현실화하여 우리와 함께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대결과 반목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안정속에 변화를 이루고 남과 북이 함께 잘 사는 통일의 큰 길을 여는 시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개혁에 늦는 자는 역사의 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이 시간이 결코 자신들의 편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같은 민족적 염원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확고히 자리잡을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주저없이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자유와 번영의 통일국가를 이루어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북한에게 변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의 큰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에게 영예로운 기회를 주신 서울신문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은 정지된 목표가 아니라 긴 과정

서강대 · 독일카톨릭사회과학센터 공동주최 한 · 독학술회의 축사 (1997. 9. 29)

존경하는 이상일 서강대 총장님,

안톤 라우셔 독일 카톨릭사회과학센터 소장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독일통일 7주년에 즈음하여 서강대학교와 독일 카톨릭사회과학센터가 공동주최한 한독학술회의가 이처럼 성황리에 열리게 되는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한독 양국의 지도자와 전문가 여러분이 세계화시대속에서 민족공동체가 갖는 의의와 과제를 살펴보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말하듯 우리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여러분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전후 세계를 둘로 갈라 서로 대립케 했던 냉전체제는 오래전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인류는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공동목표아래 결속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화의 거대한 물결속에 국경과 인종, 이념과 종교 등 지난 시대의 모든 벽이 무너지면서 지구는 이미 하나의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쟁과 기아, 환경과 질병, 그리고 마약과 범죄 등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또 오늘의 세계입니다.

이제 세계는 개방과 협력, 그리고 상호의존의 공동체시대를 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1989년 11월 9일 브란덴부르크의 벽이 무너진 후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선언되는 날까지의 그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흔히, 독일통일은 준비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독일인은 세계사의 흐름위에서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봅니다. 독일의 통일은 무엇보다도 유럽인의 공동염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에라스무스에서 연원되고 칸트에 의해 심화되어 전후의 선각자들에 의해 구현되기 시작한 ‘유럽의 집’을 향한 이상은 독일의 통일을 촉진하는 이 동인이 되었습니다. 전 유럽을 하나로 잇기 위해 쏘아올린 통신위성 ‘아스트라’가 독일의 통합에 심대한 기여를 했다는 자그마한 사실에서도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또한 자유와 번영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앞장서 구현함으로써 통일의 기초를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에서부터 쌓아 올린 번영의 힘과 연방주의에 기초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가치는 통일을 촉진하고 재통합을 완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양독관계에 있어서도 독일인들은 접촉을 통한 변화로 서로간의 간격과 차이를 좁히기 위해 한세대에 걸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독일인들이 통일을 매듭짓는 과정에서 세계와 합

께 하는 지혜와 역량을 슬기롭게 발휘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도 무엇보다 평화의 확고한 기반위에서 참다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남북한이 관련국가의 뒷받침을 받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북한이 태도를 현실적으로 바꾸어 4자회담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한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독일인이 했던 접촉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과 북은 처절한 동족상잔을 거치면서 반세기에 긴 세월동안 다른 체제속에서 대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족적 동질성과 일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많은 땀과 시간을 요구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남북간에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안정적 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2억 7천만달러에 달하는 식량과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남과 북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북한의 어려움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함께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든 과정을 세계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의 모든 한국인이 자유와 번영이라는 인류의 보편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참다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인의 공동체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더 크게 기여하는 세계공동체의 참다운 일원이 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

에서 독일통일의 선례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가지 통일비용의 문제가 우리 민족의 재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독일의 그것과는 달리 통일비용을 상회할지도 모를 막대한 규모의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통일을 향한 한국인의 열망은 비용의 문제를 뛰어 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통일은 정지된 목표가 아니라 긴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독일통일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한국이 나아가갈 길을 안내받는 소중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세계화시대 한국과 독일의 우의를 다지고 협력방향을 모색하는 흐뭇한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고도 경주에서 보내시게 될 10월 3일은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날이자, 우리에게서 멀리 단군시조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 날입니다.

이번에 멀리 한국을 찾아주신 독일의 손님 여러분께서는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와 독특한 문화의 향기에 접하시는 즐거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같은 좋은 기회를 주신 주최측과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모든 변화가능성에 철저 대비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 (1997. 10. 1)

존경하는 정재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5대 국회의 두번째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일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 통일원을 지도편달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체제불안은 특별한 해결기미 없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의 수가 증가될 뿐 아니라 엘리트계층의 망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북한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경제는 지난해에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함으로써, 7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난의 경우, 올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어느정도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내년의 식량사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친 수해에 이어 북한이 다시 가뭄과 해일 등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김일성의 만 3년상이 끝남에 따라 김정일의 권력승계 시기와 이후 북한의 전도에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9월 21일 북한 평안남도 당대표회에서 김정일의 당총서기 추대 결정서가 채택됨으로써, 공식 권력승계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가오는 10월 10일 북한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하여 김정일이 당총서기에 추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동향을 계속 면밀히 파악하면서, 권력승계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개편과 정책노선의 방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책노선의 근원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간의 접점을 늘려감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기조를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예비회담이 개최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긴 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이 2차 예비회담에서도 4자회담 의제에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본회담 개최문제가 타결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연하게 4자회담의 정신과 취지를 견지하면서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을 같은 동포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덜어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규모는 금액으로 2억 6천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요청에 적극 동참하여 이미 2천 7백여만 달러 상당의 식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의 지원도 계속되고 있으며, 옥수수 기준으로 10만톤 이상의 곡물을 남북직접자사를 통해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의 대북지원은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지원의 투명

성을 제고하는데 보다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안정적 변화를 위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도 지난 8월 19일 북한 신포 금호지구에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거행됨으로써,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남북관계에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족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모든 변화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지난 7월 14일 발효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정착·지원시설의 조기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미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과 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통일을 대비해 나가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때,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큰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도와 충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수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관계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변화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에서 시작

제16회 이산가족의 날 격려사 (1997. 10. 6)

이 자리를 함께하신 이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조영식 일천만이산가족제회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여섯번째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의 애타는 소망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며칠 후면 다시 만날 것이라며 한가족이 남북으로 갈라진지 벌써 반세기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긴 세월동안 여러분은 편지 한장 주고 받지 못하면서 부모형제의 생사조차 모른 채 단장의 비애를 삭혀 왔습니다.

이산의 아픔은 분단으로 인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가혹한 것입니다. 이산가족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도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남북간의 많은 현안문제 중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산가족의 상봉과 고향방문 정례화를 북한측에 촉구해 왔습니다.

최소한 판문점에 우편물교환소와 이산가족면회소만이라도 설치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추어 있었던 것만

은 아닙니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통일원에 인도지원국을 신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이산가족문제를 전담하는 인도2과를 설치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연맹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도 세계 153개국 2천백여만 명으로부터 이산가족 재회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국제 인권관련기구에 제출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제49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주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도 바로 정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룩해낸 성과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한 직접 교류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산가족 여러분의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과 교류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3국을 통해 제한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안부편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써 오신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산가족 여러분,

지금 북한은 '48년 정권수립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의 어려움을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북적십자간 접촉이 5년여만에 재개되어 우리 국민의 정

성을 북한동포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쌍방이 지정기탁에 합의함으로써, 북한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비록 북한측의 사정으로 인해 개인간의 지정기탁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산가족 여러분,

헤어진 부모형제와 자식이 다시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은 천륜입니다.

이념이나 제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반세기의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산의 한을 품은 채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한지 3년여만에 당의 최고권력을 공식화하는 과정으로 보이는 일련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를 계기로 변화를 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북한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하루속히 호응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해소하고, 나아가 남북간 화해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도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이산가족 여러분의 상봉과 재결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더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향한 우리 모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부단히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몇해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민족사의 긴 안목에서 볼 때 남북관계는 이미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도 통일의 전도를 밝게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산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세계경제연구원주최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 (1997. 10. 7)

Dr. Sakong Il, President Hong Seok-hyun, Mr. Steve Parker, Honored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for a successful open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I am honored to be here among such prominent Korean and international experts who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Korean issues.

I believe that we have gathered here today to discuss the direction of intra-Korean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premise tha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take place sooner or later.

In looking at the major geopolitical trends in our time, I am convinced tha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indeed become an inevitable reality.

As you know, the world today flourishes with the spirit of re-

conciliation and cooperation. Due to an increase in economic cooperation, nations and regions are opening up their borders and being integrated with each other at an accelerated pace.

And with the coming of the information age, I am assured that human society is developing into a single global community.

Riding this historical tid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e, Koreans, are doing our best to complete the process of national integration by creating a Korean national community. Our gradual approach to unification reflects the peculiar re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Over the last half a century, North and South Koreans have been living under two substantially different ideologies and systems, after having experienced a bloody civil war.

As a result, tension and mistrust between the two Koreas have grown so strong that to say that it would take much time and effort to overcome them would be a great understatement.

Furthermore,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so volatile that we cannot totally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unification might be accomplished at an unexpected moment and in an unexpected manner.

However, no matter how it comes about,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will be the locomotive that hastens the process of the Korean unification.

We have already witnessed that regional or national integration has often been preceded by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enable us to overcome sys-

temic economic differences as well as the difference in the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the two Koreas,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a single economic sphere or intra-Korean community.

This in turn would act as a catalyst for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Moreover, the intra-Korean community would provide a firm basis from which a unified Korea could actively participate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However, it will not be easy to make our wish come true.

Fortunately, we have the benefit of hindsight in learning from the German unification. It is often said that Germany was able to accomplish its unification without preparing for it.

But, I disagree.

As you know quite well, for over a generation, West Germany consistently mobilized its economic strength in encouraging intra-German exchange and cooperation.

As a result, the two Germanies gradually moved toward economic integration in tandem with the integration of Europe.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in a unified Germany is a bold experiment for modern economies. The success of Germany in transforming a socialist economy into a capitalist one ove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deeply impresses us.

The example of German unification has been instrumental in helping us compare, contrast, and assess many aspects of Korean

unification.

The cost of unification, as one case in point, is an interesting point of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Germany. Unlike the case of the two Germanies, the two Koreas have been paying a huge cost for national division, a cost which is very likely to exceed that of unification.

Nonetheless, almost the entire process of the German unification provides many lessons for the two Koreas whose current situation resembles in many aspect that of the two Germanies a few years ago.

For this reason, I think it is very meaningful to have unification experts from both countries sit together and discuss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 have great expectations for this conference, particularly because it will address solutions to six core issues that are likely to be raised during the process of integration.

Today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the last battleground of the Cold War. Over the last fifty years, the two Koreas have remained separated and intensely hostile to each other.

This has been the harsh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t you look deeper, however, a change has already begun to take place.

There is no longer a one-to-one par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bove all, the economic disparity has become the key issue on the peninsula.

North Korea is currently in its worst economic crisis since the

birth of its regime in 1948. Its economy has recorded negative growth in seven straight years since 1990.

Many experts agree that North Korea has now passed the point where it is able to revive its economy on its own.

Currently, South Korea's GNP is 20 times greater than that of North Korea while its per capital income is 12 times greater than that of North Korea. North Korea's trade volume is a mere one one hundred and fortieth of that of South Korea.

The seriousness of North Korea's food shortage in particular is a widely-known fact.

Although it appears that with the aid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will be able to avoid extreme difficulties this year, the prospect for next year is unlikely to be optimistic.

The energy shortage in North Korea is another major factor that made its economic revival difficult. The devastated stat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s clearly exemplified by the fact that less than 30% of its factories are currently in operation.

A more serious problem as a consequence is that nobody can be sure about where the current economic crisis will eventually lead North Korea.

We certainly do not wish to see it bring any abrupt change in North Korea. Rather, we wish that North Korea restores stability and eventually reforms itself.

Our government has already begun to share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s and provided both direct and indirect cooperation with

them to relieve their pain.

Some examples of our efforts include the provision of \$270 million worth of food aid as well as the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light-water reactors. With the conviction that intra-Korean relations will gradually improve through such efforts, we will continue to uphold the policy of 'changes through contacts', as West Germany has done in the past.

We have proposed that the two Kroeas discuss at the four-party talks a way to help the North to locate the underlying causes for the repeated food shortage and to bring structural reform to its economy.

The Joint National Development Plan which has been proposed repeatedly in several presidential speeches clearly reflect our strong committment in such an endeavor. The plan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ward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mutual trus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ncreasing self-su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securing the common interests of the two Koreas.

A shortcut to intra-Korean economic integration lies in the growth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North Korea is now busy preparing for the offical inauguration of Kim Jong-il a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presumably on October 10, the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the party. Kim's assumption of the official title draws our attention on the prospect of North Korea's future.

My wish for North Korea upon such a formal occasion is that it

takes steps toward real, constructive change.

North Korea should abandon the posture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and work together to form a single intra-Korean economic sphere so that stability can be restored and reform be made possible.

Once North Korea completes such a process, we believe that the North and the South can work together to create a unified Korea, where every member of the Korean community can enjoy individual integrity, economic prosperity, and cultural pride.

I wish that this occasion will shed light on and further enhance the process of joint development and peacefu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IGE and to each of you here today for giving me the honor of delivering a speech at such a wonderful occasion.

Thank you very much.

통일문제는 마라톤경기

KBS-TV 「정책진단」 인터뷰 (1997. 10. 19)

사회자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취임한 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지요?

부총리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북한측이 지금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남북간에 남북기본합의서만 제대로 이행된다면 굳이 미국과 평화협정까지 체결 안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예, 그렇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의 강권이나 참여속에 된 것이 아니고 남과 북이 각각 독자적, 독립적, 자주적으로 한 합의였는데, 지금 북한은 그 합의를 하나의 작문처럼 끝나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관계를 꾸준히 합의서대로 되도록 하고 있으며, 4자회담도 그러한 합의를 보장하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문제는 마라톤 경기처럼 보아야지 100m경기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일 남북관계가 매우 나빠지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 뒤 있을 더 나은 상황을 생각하는 낙관적인 모양을 가져보는 것이 통일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사회자 김정일이 지난 8월 통일 및 대외관계에 관한 '8.4노작'을 내놓았 습니다. 이를 보면 내년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미·대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 우리도 그러한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는데 있어서는 뜻하지 않는 일이 언제나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잠수함사건과 동시에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투자설명회가 개최되었어요. 투자설명회가 9월 13일 있었고 북한 잠수함은 9월 13일 기지를 출발했어요. 우리측한테 잠수함이 발견된 것은 9월 18일이나, 어쨌든 이러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북한을 바라볼 때 물속에 있는 것을 모른 채 물위에 나타난 것만 보 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들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8.4노작'에 서 처럼 외형적으로 대남정책이 변하지 안한다고 하지만, 전체 큰 흐름으로 보아서 그들 내부에도 변해야 된다는 압력이 있다는 것도 한편 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북한측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다가 한·미측이 4자회담을 제의하니까 일단 응하는 척하면서 계속 식량문제를 들고 나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4회담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저는 4자회담이 된다, 혹은 안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방법외에 남북관계를 더 유효하게 풀어갈 길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내에서도 외교부를 중심으로 바 깥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들의 생각이 현실적으 로 합리적으로 되어 우리와 이야기하는데 주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우리가 바라는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신경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북한이 대내적으로 준비가 안되었기에 적극적으로 4자회담에 응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부총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보는데 있어 극단적으로 둘로 나누어 보는 방식으로만 보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북한을 돕는 여론조사시 동포인 북한주민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느냐는 의견과 지금 북한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어 도와줄 수 없다는 의견이 뚜렷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여론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후 저는 우리여론이 둘로 명확히 갈라지게 되는 여론 조사 설문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때 “도와주어야 한다”, “돕지 말아야 한다”의 중간에 “어떠한 조건을 달고 도와주어야 한다”것도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대북지원이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남북 긴장완화에 연결이 된다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등으로 나누어 조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론조사 대상자 대부분인 72%가 조건부 대북지원에 압도적인 지지의견을 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국민이 생각하는 주류의 대북인식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국민의 대북자세는 아주 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분들이고, 통일원은 그분들의 뜻을 정책으로 옮기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우리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미·일 3국간의 공조체제가 불협화음을 낸다는 뒷소문이 들립니다. 한국정부 입장때문에 4자회담이나 남북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미 국무부관리의 언급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남북한관계가 병진해야 한다는 원칙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총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미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에서 이를 즉각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4자회담이 되지 않는 것이 한국측이 무엇을 안해서 안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미국·일본이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미국 케네디 대통령도 미국의 대소련정책과 관련하여 언급하기를 미국의 대소정책을 소련이 수용안하면 잘된 정책이고, 소련이 수용하면 나쁜 정책이라고 미국내 소련전문가들이 비판하였다는 것을 보고, 그는 그러한 시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안맞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평양측이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계속 평양에 질질 끌려다니기만 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미·일간에는 공조외에도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미·일 3국간에 대북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북한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정책은 서로 하지 않으며, 그리고 북한이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서로 하지 말자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북한에게 오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이상의 정책을 한·미·일 3국이 넘어서지 말자고 하는 것이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주로 경제협력분야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겠지요?

부총리 그렇지요. 북한이 도발할지 모른다, 혹은 무슨 군사분야로 전용될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대북지원에 1천만불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면서까지 북한에게 무슨 오해를 갖게끔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원칙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사회자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겠다는 것과 북한이 우리정책의 일방적 잣

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대상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의 잣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도 방해가 된다면 일단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부총리 그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전문가·정책입안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북한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늘 북한정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김정일을 가르키기도 합니다. 마치 김일성이 없어도 북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김정일이 없는 북한도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북한에 살고있는 북한주민들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국토를 대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을 김정일이 지배하고 있고 남북이 총을 들고 있으므로 북한에게 서로를 향해 총을 쏘지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해야 합니다. 물론 김정일정권과 총을 쏘지 말자고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북한주민들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통일은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해야한다라는 논리는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과 연관하여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이론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큰 줄기의 이론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춰 그때 그때 잘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는 남북고위급회담을 8회나 하였고 기본합의서까지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남북주민의 왕래가 전혀 없어요. 반면에 중국과 대만사이에는 그러한 합의서가 없어도 100만이상 사람들이 왕래하고 200억달러 이상의 교역을 하고 있어요. 그들간에는 공존공영하면서 서로 다른 부분까지 이익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그들처럼 되는 분야의 일은 더욱 잘되도록 하여 이를 쌓아올라가는 방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자 얼마전에 김정일이 카터 전미대통령을 초대한 바 있습니다. 이

와 관련하여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 저는 현실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남북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죽어서 안되었으므로 다른 각각의 정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봐서 회담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8차례나 개최된 고위급회담은 남북 준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남북간에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문제를 풀어가는데는 정상회담, 경제회담 등 여러가지 회담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하고, 나중에 하는 것은 사정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담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오늘의 현상을 풀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되면 그때 그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자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이나 경수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신포지구 같은 장소에서 즉 한반도내에서 남북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면회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요?

부총리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정부의 도움하에 제3국 같은 데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유로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반역자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산가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북한이 이산가족을 면회시키고 상봉하게 해주는 것은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는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산가족의 한을 덜어주어야겠습니다. 청년시절에 북한에서 내려왔던 분들이 벌써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힘을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남북경협은 북한변화의 견인차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1997. 11. 3)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고맙습니다.

신문사에만 36년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로 옮기게 되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같지 않아서 굉장히 사양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신문사에 있으면 글도 많이 쓰게 되는데, 독 위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보면 잘 보이게 마련입니다만 직접 수영을 하라고 하면 잘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못하겠다고 했지만, 사양이 되지 않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는 통일원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 수도 없고 해서 나는 통일에 관심이 많은 학자인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통일방안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통일정책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했습니다.

제가 통일원에 들어온지 2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나? 하나도 없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2년 가까운 시기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하는 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이 자꾸 온도가 올라갈 때 그냥 볼 때는 물이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온도가 100도가 넘으면 수증기가 됩니다. 아직 100도까지는 가지 않았고 물은 물인데 그러나 물의 온도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남북관계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북한문제를 연상할 때 무엇을 연상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압도적으로 식량문제입니다. 그런데 식량문제 운운하게 된 것이 2년밖에 안됩니다. 2년전까지는 북한이 낙원이었으니까 식량이 모자랐을 리 없고 또 남한테 원조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바뀐 것처럼 되었는데, 저는 그것도 갑자기가 아니고 그러한 조건들이 누적되었다가, 지금 흔히들 95년에 수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수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에 쌀 15만톤을 지원한 것은 수해가 있기 전입니다. 6월 25일에 보냈는데 그 때는 수해가 없었고 그 해 늦여름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15만톤이 가기 시작할 때는 수해가 없었고 마지막으로 갈 때는 수해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큰물피해가 마침 그 때 있었기 때문에 식량을 원조로 받아들이게끔 되면서 빌어먹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변화가 남북의 대치상황이 그대로 있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입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달라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모양으로 정부에서는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부에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듣던 뼈아픈 이야기가 정부의 대책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왔다갔다는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북한과 이기고 지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에 북한과 접촉, 교류, 이야기도 하고, 물건·사람이 내왕하면 아이디어도 내왕을 하게 되는과정

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되는 모양으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기본정책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시다만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15만톤의 쌀을 주면서 우리는 호의를 베푸는 듯이 주었는데 주는 손을 북한에서 물으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바람에 인기가 나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일체 주지 말자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본에 있어서는 갔다왔다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실감하고 있고,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왔다갔다도 자기 마음대로 왔다갔다를 할 수도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개된 사회에서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이리가고 내일은 저리가고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본은 지키면서, 말하자면 전략은 변하지 않았으며 전술적으로는 유연하게 대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북한을 향한 스텐스라는 것은 달리 별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를 만한 독자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선에서 우리가 북한과 같이 가는 정책을 편다고 할 때는 지금 이상의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왔다갔다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KEDO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북한에서 갑자기 NPT탈퇴를 한다고 나서니까 정말로 별을 주어야 되는데 별 대신에 경수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무법자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단순계산으로 북한이 전력이 증가되어서 전기가 많아지면 전쟁을 할 능력도 커지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느냐 하는 단순한 생각도 곁들여져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경수로는 틀렸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우리가 부담만 지는 것이 아니냐?

요즘은 KEDO라는 이름이 괜찮은 이름처럼 들립니다. 식량원조도

KEDO방식으로 하자는 사람도 나오고 합니다만 1년전만 해도 외무부 안에도 외교관의 기본에서 우리가 부담을 지는 일을 우리 외교관이 참여도 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돕는다는 것이 무엇이나, 또 정치인들도 그것을 가지고 책상을 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KEDO사업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의 돈을 더 낼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낸다고 할 때, 저는 국회의원들하고도 얘기합니다. 돈이 많이 들지만 그 돈은 한전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냐. 한전사업인데 우리가 다 낼 수도 있지만 일본도 조금 낸다고 하니까 괜찮은 사업을 하는지도 모른다. 또 전세계가 들여다 보기 때문에 한국형 원자로라는 것이 성능도 괜찮다고 한다면 생각치도 않은 대외선전도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중에 통일이 곧 될 것 같은데 통일되면 우리 발전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있으니 너무 인색하게 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제법 괜찮은 모양으로 되어 가는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이 얼마 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조그만한 일이 하나 발생하면 그것이 제일 큰 일인 것처럼 되어서 본말이 거꾸로 되는 일이 많은데 KEDO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한편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KEDO사업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오고가고 거기에 가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고 김정일 사진이 들어 있는 노동신문을 찢었다는 것이 큰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KEDO사업을 놓고 볼 때는 큰일은 아닌데도 그러한 이야기가 KEDO사업을 망칠 수도 있는 것처럼 KEDO사업은 아직도 약한 기반 위에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양으로 봐서는 제법 토실토실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 인식 속에도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돈도 안주고 KEDO사업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돈을 주면서, 가령

50억불의 돈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거기에 우리 능력에 따라서는 100억 불의 영향력이 같이 실려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억불을 주면서 10억불의 영향력밖에 못 발휘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낫고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의미에서 KEDO는 그렇게 움직이니까 반드시 미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한다는 꾸지람, KEDO는 우리가 참여도 하지 않았으니 안하는 것이 좋다는 꾸지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좋게 보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도 북한은 식량사정이 대단히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해가 없었다고 해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은 600만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풍년이 들어도 제가 보기에 400만톤밖에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200만톤은 절대부족입니다. 그 200만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100만톤은 굶고 100만톤은 절대치로써 밖에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북한의 식량사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100만톤이 옥수수나 쌀로 들어갈 때 값이 다릅니다만 100만톤은 늘 필요합니다. 여기에 수해가 일어나면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100만톤은 굶어라 하는 말로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200만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모자란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북한에서, 이것이 또 하나 재미있습니다만 북한에서 큰물피해가 났을 때 일본에 대해서도 쌀을 얻어가려고 하고 한국에서도 쌀을 얻어 가면서도 큰소리를 칠 때입니다. 초기에 큰물피해가 났을 때 한 열흘동안은 미증유의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장군님의 영도로 피해가 없이 잘 넘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열흘 후에 갑자기 150억불의 피해가 났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GNP는 200억불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GNP의 3/4정도가 수해피해가 있다면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북한이 '95년의

GNP를 유엔에 보고하면서 유엔에 부담을 적게 내기 위해서 GNP를 낮춘 것 같은데, 유엔에 보고한 공식문서에 의하면 GNP가 52억불입니다. 52억 GNP의 나라가 150억불 수해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200만톤이 모자란다고 하면 200만톤 중에서 100만톤은 KEDO식으로 준다고 하고 나머지 100만톤은 우리가 준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전부 쌀로 하면 4억불 이상 들어갑니다. 강냉이로 하면 1억 5천만불 정도 합니다. 저는 저대로 전부 합해서 3억불을 낼 각오를 하면 우리가 북한의 식량문제를 우리 나름대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왔다 갔다 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KEDO가 미운 사업만은 아니라는 것, 쌀지원은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질 수 밖에 없는 부담인데, 그 부담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느냐 하는데 대해서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과 상관없이 정부가 애를 먹은 것은 쌀 15만톤을 주면서 손을 물고 달려드니까 그 다음에는 주지 말자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럴 때 국제기구가 수해가 큰 것이 일어났으니까 주자, 그런데 우리는 수해도 있기 전에 주다가 손을 물린 것 때문에 수해 때문에 국제여론이 주자 할 때는 주지 말자는 방향으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작년 6월달에 국제기구의 어필에 호응하는 것은 우리도 주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주기 시작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식량지원 방식을 쪽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하게 되니까 그 앞에서 국제적으로도 한국정부는 주지 말아라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종교단체는 주려고 하는데 주지 말아라 하니깐 한국정부는 비인도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올해들어서부터입니다만 북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분법으로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원에서 방식을 바꾸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느냐, 마느냐의 이분이 아니라 북한을 향해서

우리국민의 주류가 생각하는 것을 추출해 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유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질문할 때 주느냐, 마느냐의 두가지로 물으면 국론이 들밖에 더 되느냐 해서 올해 들어서 통일원에서 여론 조사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무조건 주자와 무조건 주지 말자가 있고 조건을 얘기해서 조건에 맞을 때는 주자는 3분방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국민의 주류가 생각하는 것은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늦봄에 그러한 조사를 했는데 무조건 주자가 15%, 무조건 주지 말자가 12%이고, 72%에 해당하는 것은 조건에 맞으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2%가 통일정책의 배경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원이 통일정책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6월달에 KBS가 북한 주민생활상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죽은 시체가 강물에 떠 내려가고 어떤 여자가 토하는 장면도 나오는 등 쇼킹한 보도가 있는 직후에 앞의 것과 같은 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조건 주자가 15%에서 18%로 올랐고, 무조건 주지 말자가 12%에서 9%로 줄었고, 가운데 72%는 같았습니다. 72%가 통일 또는 북한을 향한 스탠스를 굉장히 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통일정책을 수행합니다.

지난번에 각 종단에서 모여서 정부가 50만톤을 내라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숫자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북한을 돕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나서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정부에게 돈을 내라고 할 때는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의 세금까지 사용해야 하니까 정부가 간단하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숫자 얘기를 말씀드리면 북한이 낙원을 그만두고 밖으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 중국을 제외하고 식량원조의 총액이 5억불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 5억불 중에 반을 한국이 냈습니다.

한국이 낸 것은 15만톤이라는 숫자가 쌀의 양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비싼 쌀이기 때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돈을 냈습니다만 1900억원정도이고 달러로 2억 3천만불입니다. 그러니까 2억 3천만불에다가 국제기구의 어필에 의한 것, 민간이 제공한 것을 합하면 2억 7천만불정도 됩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준 것이 4억불정도라면 우리가 적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 가면서 하는 것이고, 또 아까 제 생각대로라면 1년에 많이 해서 3억불인데 중국 것까지 합하면 2년 있었던 기금을 카바하기에는 그만하면 숫자적으로 괜찮은 숫자가 들어갔는데, 그러한 숫자로 우리가 주었으니까 너무 한국은 안 주는 것처럼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꾸 주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한쪽에서는 북한에 무슨 민간인이 있느냐, 주기만 하면 군대로 다 간다고 이야기하는 여론이 강하게 있고 물증도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있으니까 함부로 주머니 끈 풀어놓듯이 줄 수는 없다 해서 세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KEDO, 식량원조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가 귀가 아프게 많이 들던 이야기인데, 요즘 와서는 꾸지람 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보는, 거품이 섞인 여론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요약입니다.

이것을 아이템 별로 몇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4자회담이라는 것은 평화체제를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지금 한국에서는, 또 북한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한대든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남북끼리 하니까 남북끼리 깨는 것도 쉽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놓고도 휴지조각처럼 되기도 하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도 있습니다만 남북이 분단되어서 적대관계가 생긴 것이 남북전쟁, 아직

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런 체제를 고쳐야 된다는 문제는 남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국, 미국도 서명당사자로서 관계도 있다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라들이 모여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4자회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자회담은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이 4자회담에서 북한 편이 아닌 것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또 중국의 역할은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4자회담 예비회담이 열렸을 때에 처음에 북한측에서 의제부터 정하자고 들고 나왔을 때 중국이 물론 의제를 정해야 되지만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부터 합의를 다 해놓고 의제 타일들은 맨 나중에 하자고 했을 때, 북한이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안하다가도 중국이 그러한 말을 하니깐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의 상태입니다만 중국이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 외의 길은 없으니까 북한도 수긍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KEDO와 연관해서는 우리가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으로 말하면 사회부쪽의 기사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벌써 KEDO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방송을 다 보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으로 다 보고 있고, 지난번에 장선섭 대사가 북한에 갔을 때 TV를 켜니까 '정 때문에' 라는 TV프로그램이 방송되더라고요. 또 MBC에서도 위성을 하게 되면 그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KEDO사업 그 자체보다도 그 사업에 곁들여서 생기는 효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크게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KEDO에서, 우리는 숙소에 있던 사람이 노동신문에 있는 김정일의 사진을 훼손했다고 해서 철수를 하는 등 법썩을 면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철수해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큰 일로서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주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금방 철수를 취소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그 사실대로 주목을 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서 다친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큰 일이 없이 하고 있다는 것, 또 조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 시체가 한국으로 오려면 중국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판문점을 통과하자고 했을 때 우리도 된다고는 생각을 안했는데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것은 특례고 선례가 될 수 없다고 말은 하는데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까지 선례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면 달라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성동 주민 두명이 잡혀 간 것도 굉장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주장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안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잡았으면 관계당국이 조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남한 방송을 들으니까 자꾸 납치해 갔다고 하니까 진짜로 안 보낸다고 하다가 공동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공동조사라는 것이 휴전협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위반사항이 있다고 한쪽에서 주장할 때 공동조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67년인가 마지막으로 하고는 30년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해가지고 넘어갔던 두명을 데리고 나와서 그 앞에서 4~5미터 넘어 간 것이라고 억지로 말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공동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4~5미터 넘은 것 같다 하니까 북한에서 다짐을 받았다 하고 데리고 가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전처럼 기를 쓰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작년에 나진·선봉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남북경제교류협력에 시발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호의로 호응하는 것같은 모양으로 하자고 해서 임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한국관리가 들어오면 안된다는가, 기자도 안받는 모양으로 하고, 사업가 중에도 북한이 찍어서 몇사람만 오라해서 우리가 못간다 그렇게 되어서 안되

었습니다. 이것이 9월 13일입니다만 9월 13일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안 간 직후에 잠수함이 나타난 것이 9월 18일입니다. 북한 항구에서 잠수함이 출발한 것이 9월 13일입니다. 한쪽으로는 나진·선봉 설명회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잠수함이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너무 쉽게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테두리로 보아서 북한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여유있게 생각하는 것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 1~2년전만 하더라도 이만한 일이 있었으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이번의 노동신문과 관계된 것도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면서도 그것이 한국에 보도가 됨으로써 큰일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안정이 된 다음에 공표를 하든가 하자고 했는데 신문에 나는 바람에 큰 일이 터졌는데, 그러나 터진 이후에 여론의 세라는 것이 전에 보다는 성숙했다고 할까, 지는 것이 아니라 쳐 주기도 하는 것같은 마음이 한편으로는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대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관계가 통행·통신이 있는 것이 되면, KEDO사업으로 갔던 사람들, 또 식량을 주기 위해서 적십자 요원은 북한사람과의 접촉에서 살벌하고 살기등등한 모습은 많이 없어진 것같은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접촉은 그 자체로도 아무 것도 아니지만 물의 상태는 그대로 두더라도 물의 온도는 올라가서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쌓아올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국이 나서서 하는 것같은, 우리뿐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절대 양보없는 정책을 쓰고 대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많이 다르다 싶은 것은 고위급회담을 양안관계에서는 한 번도 한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통상이 200억불 되고, 내왕인원이 1년에 100만명이 넘는다

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리급이 여덟 번을 고위급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왕도 못하고 통상도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그런 의미에서 민간들이 해가지고 쌓아가는 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는 모든 것은 위에서 정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중국과 대만과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김우중씨가 북한을 갔다 온 것이 정치밀사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것으로는 하나의 버팀-업 방식의 중요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녀오시도록 했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합영회사의 1호입니다. 그것이 김우중 회장이 말하듯이 김일성이 살았을 때 하자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 말기에 김우중씨도 내왕을 하고 김부자와 같이 만나 여러가지 해서 북한이 살길은 밖으로 열어야 되는데, 여는 것이 조심스러운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합영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김일성이 남포에서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 통일원에서 허가를 했는데, 허가는 500만불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500만불을 투자하는데 북한에는 돈이 없으니까 합영이기 때문에 같이 투자하는 것이니까 땅과 건물이 투자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허가한 후에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 작년 8월입니다. 일본에서 그 해 겨울에 사용할 스키복을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생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9월에 잠수함사건이 터져서 한달만에 다 날아 간 것입니다. 날아간 이후에 명맥을 유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우중씨는 북한에 가서 회사가 움직이도록 해야 되겠는데 정부에서는 재벌들은 가지 말라고 해서 쪽 못가다가 지난번 추석에 한 번 갔다 오겠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김우중씨는 북한에 가서도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것은 김일성 유업이다 하면 맞습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공장에 한 번 가보거나 했느냐 하면 못가봤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봐야 되고 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어렵고, 예를 들면 많습니다. 한번 들어갔던 사람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만들어서 들어갔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가려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또 한 번 들어가서 두 달이상 있으면 나가야 된다는가, 또 숙련공이 되었다 싶으면 바꿔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마시다 해서 이번에 가서 했더니 알았다고 하는 소리는 많이 하지만 즉답은 못 듣고 온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대우가 하는 합영사업을 위해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특별히 해 주면 그것이 제2의 합영사업에도 예가 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이중과세협정, 과실송금에 관한 협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라는 방식으로만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하나의 사업이라도 되게 해서 그 되게 되는 것이 여러가지 축적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안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협력관계를 조금은 더 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나진·선봉계획, 두만강개발계획은 국제계획으로서 우리도 재경원차관 등이 회의에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북한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나와서 하는, 소위 그 사람들의 말이 경제일꾼이라고 부르는데, 경제일꾼들이 자기네들 체제속에서의 자리가 낮아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일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아까 나진·선봉 설명회 때에도 자기네들이 나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권했는데 나중에 안되고 나니까 우기가 힘쓰는 것보다 높은데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개선이 되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북정책의 틀 확립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강연 (1997. 11. 12)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원의 일을 맡기전까지 40년동안 신문사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말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고 고대 언론대학원의 코스 안에도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제가 여기에서 강의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이야기꾼들이 모두 그것인데, 이야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권위있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약해지고, 'how to'가 아니고 'what to'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how to' 쪽을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어느 야당의원이 문민정부의 대북한정책을 자평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은가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답변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생각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평이니까 자기한테 자신이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가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냉전이 끝났다는 것은 고르바초프 때부터 논의되어 추상적인 이야기로 돌다가 그것이 한반도의 정세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한 5년 전쯤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것이 그 때입니다. 미국이 공화당 정부에서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되면서 젊은 대통령이 들어서는 때였습니다. 무엇인가 새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소련이 없어지고 러시아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중국은 중국과 한국의 수교가 딱 5년입니다. 물론 노태우정부 말기에 국교수립이 되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전개된 것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입니다. 일본도 수상이 5번정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안팎에서 굉장히 술렁거리는 5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의 남북관계라는 것을 봅시다. 우리는 산업화를 이룩했다 하지만 민주화가 덜 되었다 해서 군대숙청이다, 뭐다 해서 민주화개혁으로 해서 국내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북한은 자각증상이 겨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를 가지고 안되겠다고 김일성이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하던 것을 적용해 보려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과거 50년전에 겪을 수 없었던 격동의 시기였고 그 주변이 전부다 크게 술렁이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북한을, 북한으로서는 밖의 세계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허둥지둥하면서 지낸 것이 한 5년이 된 것 같고, 그 사이에 틀은 웬만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대하는 구조가 짜여가고 있다고 봅니

다. 그 짜여지는 과정이 5년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단순화 해서 3가지 대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부에 들어갔을 때 대북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연설의 문구를 끄집어낸다고든가, 청와대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다든가 하는 말이 있는가하면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망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이 왔다갔다의 증거같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배경에서 볼 때 왔다갔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람들은 북한이 NPT탈퇴를 할 때 다 걱앙을 했습니다. 전세계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리적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에 가서 북한을 어떻게 대할것이나고 하면, 미국은 북한을 말하는데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이 군사봉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사람은 보수파, 진보파가 전부 합쳐서 북한을 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의 논리적 생각에서 보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보수파건 진보파건 간에 전쟁을 겪어서 무조건 전쟁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파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었으니까 전쟁을 못하겠다는 것은 절대절명입니다. 전쟁을 못하겠다는 것이 절대절명인 것까지는 좋은데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전부 도망가겠다는 이야기까지로 연장이 되면 그것은 큰일납니다. 전쟁을 어

떻게 해서든지 안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한국은 왔다갔다 아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응하는 것도 한동안 북진통일 얘기하던 것은 별도로 하고, 7.4공동성명 그전부터도 평화통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사람중에 공산주의를 해도 좋으니 통일만 되면 제일이다하는 세력이 한총련 안에 일부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무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도둑도 있고 국회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도둑과 국회가 많이 노출되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 제가 외국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평양에는 국회가 없고 남한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있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민주국가인 증거라는 말씀은 되는데 민주국가를 증명하려고 모두 국회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통일, 민주통일 그리고 우리가 100년동안 외국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하면서 어울려서 맨날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정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무친 하나의 그것이기 때문에 분단은 비록 남이 만들어 주었지만 통일은 우리의 자주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모든 한국사람들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주적이라는 말은 외국 사람하고는 말도 안하고 외국사람은 통일에 관해서 입도 열지 말도록 하는 속에서 통일을 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통일과 연관해서 평화통일, 민주통일, 자주통일 3가지 기준에 비추어 보면 왔다갔다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지켜 간다는 의미에서 미국사람이 뭐라고 하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지키자는 마음은 그대로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치상황은 최근에 바뀐 것이 거의 없이 그대로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이고, 군대는 그대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냉전이 끝났다고 하는데 여기는 예외지역이라고 하는 등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최근 얼마 동안에 남북관계는 결정적으로 달라졌다 또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물로 대비를 하면 물은 0도도 물이고 40도도 물이고 90도도 물인데, 100도가 되면 증기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물은 물인데 상당히 온도같은 것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이 0도 때의 물과 90도 때의 물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안달라졌다 할 때 안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모두가 북한문제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문제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식량문제입니다. 북한 식량이 큰 문제가 된 것은 2년 밖에 안됩니다. 물론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낙원이었다고 하니 그 낙원에 식량문제가 있을리도 없었습니다. 또 식량은 북한을 대하는데 있어서 수단도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년전부터 제일 중요한 북한문제 핵심에 식량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안에서의 얘기입니다만 식량문제를 잘 분석해서 들어가면 거기도 갈래가 많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천연재해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는 식량부족이지 큰문제가 아니더라고 합니다. 이번에 농림부장관도 갔다 온 FAO관계 회의에서도 북한쪽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994년에 처음 외국에서 식량원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 수해 때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해는 8월말과 9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첫 번째 보낸 것이 6월 25일입니다. 일본도

그 무렵에 보냈는데 그것도 수해가 있기 전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후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떠 보니까 자기네들이 30%정도 의존을 하고 있던 자본주의 경제권 시장만 남고 70% 경제를 의존하고 있던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본주의가 되어 경화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옛날 사회주의권 일 때는 식량을 빌려다 먹고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거래가 끊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북한 김정우가 워싱턴에 와서 이야기하며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람 전부 나서서 자연재해 때문이지, 제도가 나쁘다는 지적, 즉 북한사람들에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싫어 합니다. 한국도 실은 다른 인더스트리를 일으키지 못했으면 우리의 식량자립도가 이십몇 프로라고 들을 것입니다. 쌀은 우리나라에서 상당부분 총당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수입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먹을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돈이 없습니다.

식량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쌀이 세계 최고로 비싸답니다. 북한한테 우리쌀 15만톤을 주었는데 그 15만톤의 값이 1,900억원쯤 되고 1,900억원을 당시 환율로 하면 2억 3천만달러정도 됩니다. 이것을 성큼 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하니까 주는 것이 인기가 없어지고 아주 낭패같이 되었습니다.

그후 북한에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수해가 있은후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와야 된다는 쪽으로 큰 흐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은 주어 봤는데 손도 물리고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함부로 줄 것이 아니다, 주지 말아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뭔가 한국은 굶는 사람에게도 주지 못하게 하는 몫쓸 사람으로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내외에 그렇게 되었습

니다.

외국사람들, 미국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늦여름에 수해가 났으니까 수해에 대한 피해를 보고해가지고 그 보고가 돌아가지고 미국정부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움직인 것은 그 해 말 내지 그 다음해, 작년 초까지 걸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초에 있었던 한·미·일 정책협의회에서 한국은 주지 말아라 하게 되었고, 미국은 주려고 하니까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갔습니다. 한국도 국내여론도 격앙이 되니까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굶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한국도 국제기구가 어필을 해가지고 내놓은 계획에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아니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라고 해도 참여하는 것이고, 일본의 고베에 지진이 났을 때도 참여하는 것이고, 국제기구가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참여를 해 왔는데, 북한만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작년 6월에 600만불을 보낸다고 해서 통일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통일관계장관회의가 모여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얼마를 내기로 하면 남북협력기금에서 일부가 나갑니다. 통일관계장관을 열었더니, 농림부장관이 오지않았습니다. 농림부는 통일관계장관회의의 멤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관계장관에 식량문제가 거론되고 농림부가 들어올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전까지 낙원인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농림부장관이 멤버가 되어서 여러가지를 합니다만 요즘도 저는 간혹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전염병이 발생된다면 인천에서 비상이 걸리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계속 강냉이를 먹었더니 영양의 발란스가

맞지 않아서 의사회에서 특수 비타민을 보내야 한다고 움직이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50년 가지고 있던 북한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림부가 참여해야 되고, 보건부가 참여해야 되고 하는 것과 같은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큰 변화라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내외에서 하나의 증거가 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남북기본합의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작문에 불과합니다.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공연히 작문시합하듯 만들어 가지고 읽어 댄 것이 불과합니다.

이것이 뭔가 합의했다는 것이 움직이려면 지금도 안하겠다고 하면 안해지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뭔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조심스럽게 가는데 움직이고 있는 구체적인 뚜렷한 예의 하나가 KEDO 사업입니다.

KEDO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북한이 NPT의 조약국이 되었다고 탈퇴하고 나가서 안 지키겠다고 하는 등 국제적으로 무법자처럼 노는 것이었습니다. 무법자처럼 노니까 벌을 주어야 하는데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안된다 하는 것이 한국의 전체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했는데,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결과적으로 떨어진 것은 벌대신에 200kw의 원자로를 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을 때까지 중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이나 또 사회일각에서도 그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논리는 꼬리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불행스럽게 태어난 것이 KEDO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제법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공식을 지난 8월달에 했고 롬도 거의 결정되어 갑니다. 롬이라는 것이 전체 액수가 얼마쯤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결정

되어 가는 단계에 와 있고 모두가 그런대로, KEDO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북관계의 하나의 응집된 상징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KEDO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오늘의 북한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와 바로 동전의 앞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두가지 꾸지람을 많이 들은 것이 식량원조문제입니다. 지금은 한국도 걱정한 선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대북관계 지원입니다. 지원에 관해 외국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식량원조의 총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총액은 중국을 포함시키면 약 6억달러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계에 의하면 5천만불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5억 5천만불 정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의 어필이 나온 후에 들어간 것만 따지만 한국과 일본이 준 것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외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시키고 나면 한국이 지원한 것이 반입니다. 북한을 2년동안 굶는다고 해서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국이 반을 주었습니다. 반을 준 사람을 자꾸 인도주의가 아니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종교단체 등에서 정부는 주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북한을 돕기 위해서 백만명 서명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50만톤 주어라 하는 것을 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50만톤이라는 것을 농업통계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부 몇 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의 추곡수매가 860만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60만섬을 톤으로 하면 얼마나 하면 100만톤 조금 더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핏

대를 올리고 있는 수매 총량이 100만톤 남짓한테 북한에게 50만톤을 주시오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2년동안에 북한을 도운 것은 자기의 능력을 넘을 정도로 큰 것을 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량의 양으로 따지면 15만톤 하면, 또 하나 재미있는 숫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일본이 당시 50만톤을 주는데, 15만톤은 무상이고 35만톤은 유상으로 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주지 않을테니까 준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50만톤을 줄 때 우리 신문도 50만톤을 준다고 고향을 질렀고, 우리는 15만톤입니다. 1/3입니다. 그것을 보내는 돈을 얼마 들었느냐? 그것은 일본의 창고를 비우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7천 5백만불 됩니다. 그것은 버리는 쌀입니다. 우리는 양에 있어서는 1/3이지만 값에 있어서 3배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돕는데 있어서 상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시의 대통령께서 외국에서 사서라도 주어야 되겠다고 하여 굉장히 인기가 하락되었는데 작년 한해에 우리가 북한을 돕기 위해서 사서 준 것은 중국의 옥수수입니다. 우리가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것을 준다면 무지무지 비쌉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산술로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액으로 말하면 반 이상을 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넨 사람처럼 되어 있는 일련의 일들이, 홍보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만 그러나 굶는 사람을 주는데 있어서 내가 많이 주었다고 운동네가 떠들고 다니는 것은 점잖지 않습니다.

좌우간 북한에게 줄 때 우리가 인공기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주던 행위는 어디로 가고 껌뻍한 놈을 왜 주느냐 하고 여론이 들끓고 북한은 공산당인데 무슨 민간인이 있느냐, 말도 안된다, 안보의식이 헤이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KBS가 북한이 굶는 비디오를 한 번 방영하자 그 다음에

동포인데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조금 아전인수입니다만 한국의 여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어라와 무조건 주지 말아라 하는 두종류만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형편에 맞춰서 슬기롭게 주어라 하는 것이 대세 같은데 우리는 여론조사를 하면 꼭 이분법으로 합니다. 저는 한국의 보도중에도 여·야하고 가르는 방식의 이분법이 상당히 정치를 제대로 보도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통일원 스스로도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삼분법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삼분법으로 조사를 하니 재미있는 현상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4월말쯤에 한 번 했더니 무조건 주어라가 15%, 무조건 주지 말아라가 12%이고 나머지 72%는 조건을 따져보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든가 또는 굶은 사람에게 간다든가 할 때는 주자는 것이 72%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72%가 한국의 주류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72% 보다는 나머지 양쪽이 큽니다. 나서서 각계 지도자가 다 모여서 주자 하면 물러가고, 또 북한이 판문점에 와서 총질이나 하면 다른 쪽이 확 올라가고 합니다. 그러한 여론조사가 있을 후에 72%가 통일원 통일정책의 배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6월달에 KBS의 보도가 있을 후에 바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주어라가 18%로 3%로 올라갔고, 무조건 주지 말아라가 12%에서 9%로 내려갔습니다. 3% 올라가고 3%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72%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사회 또는 한국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북 스탠스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거는 여론조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 보면 절대로 주지 말아라와 절대로 주어라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은 72%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지원과 관련되는 한국사람의 생각은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문제에 관해서는 외국의 오해도 있었고, 백만명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들에게도 북한이 어려워진 후에 반을 우리가 지원했고 우리가 지원한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 50만톤이라는 것이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많이만 주면 좋은 것 같이 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 KEDO는 가령 50억불이 든다고 할 때 50억불을 주면서 10억불의 영향력을 못끼치는 정도로 미숙하면 우리가 못난 것입니다. 50억불을 주면서 북한을 여는데 있어서 100억불의 효과가 있으면 50억불 주는 것이 어떠냐, 또 50억을 내건 100억불을 내건 이것은 한전에게 들어오는 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은 혈연관계보다는 충돌관계가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충돌해서 사람이 죽고 하는 것까지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돌은 아주 치열한 서로를 돕는 기회입니다. 대개 부딪치면 부딪친 결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헤어져서는 못살게 되어 있다고 할 때는 서로 배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라도 뭔가 집착이 있어야 됩니다.

집착이 있는 과정에서는 KEDO같은 사업은 가꾸어 나가기에 따라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대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무슨 일이 있다가 내일 속초에 잠수함이 나타나면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위태한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수로를 하면서 북한에 갔다 온 미국사람이 말하기를 한국사람은 남

이나 북이나 전부 합창하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시작이 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그러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다른 속담도 있으니까 그것도 외워서 하라고 하고 웃었습니다만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술렁이는 속에서 허겁지겁한 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왔다갔다 하는 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경수로사업은 초기에 미국과 북한이 합의하고 부담만 우리가 지는 외교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비난을 받았는데 이것도 반드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식량관계에서는 우리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한국사람 또는 한국정부의 대북 스탠스는 상당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북관계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북한관계를 다루는 틀은 마련이 되었고, 정치적·군사적인 부분은 4자회담이라는 것, 북한·중국이 참여하는 회의가 아직은 예비회담입니다만 예비회담 그 자체가 4자회담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틀로써 상당히 중요합니다.

KEDO사업은 하다 보니까 발상이 뛰어나고 북한 식량도 KEDO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나오고 또 나진·선봉에 무엇을 하는데도 우리의 토지공사가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한전이 이번에 KEDO사업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북한의 실정은 전력이 필요한 곳으로 가려면 전선도 깔아야 하는데 인프라가 전혀 신통치 않고 합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생각하는 방식 중에 북한문제를 풀 때는 위에서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해가지고 결정을 받아서 밑으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방식도 아니고, 북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또 북

한을 대응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중앙집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중국을 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양안관계에서 고위급회담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한번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100만명이 내왕을 하고 200억달러의 교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서부터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톱-다운보다는 버텀-업이 좋다고, 버텀-업이 반드시 효과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식으로 대유법적으로 하는 사고에서는 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사업을 쌓아 올려 가면서 한참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 무슨 길이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상의 폭을 넓혀가지고 대북관계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북한정권을 맡고 있는 김정일은 통일의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화의 상대는 됩니다. 왜냐하면 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총을 가진 사람과 얘기를 해가지고 총을 쓰지 말자고 약속을 해야지, 그런데 총을 놓았다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과 통일을 합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과 평화는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북관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숫자같은 것도 제법 적어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큰 도움은 아닌 것같은 생각을 합니다. 계획경제를 하기 때문에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북한의 GNP가 200억불 넘는 것으로 통일원의 집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수해가 있었을 때 북한방송은 초기 열흘동안은 피해는 하나도 없다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바뀌어서 150억불의 수해피해가 났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공식숫자는 150억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200억불 남짓한 GNP에서, GNP가 반드시

시 수해피해와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50억불의 수해피해가 났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3/4이 수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유엔에 GNP 보고를 했습니다. GNP 보고는 유엔분담금을 산출하는 근거입니다. 보고된 숫자는 52억불입니다. 150억불 수해난 그 해에 GNP가 52억불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한의 군사비가 60억불 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북한을 놓고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숫자도 많이 새겨서 읽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분법의 대북정책

세계인재개발원 강연 (1997. 11. 14)

요즘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관계인데, 대북한 관계는 그렇지 않는 측면이 너무 강해 지금도 경제가 최전면에 못 나서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경제가 전면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1997년의 정부나 다른 북한관계를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염두의 제일 첫머리에 두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나오는 공작같은 것이 대북관계를 할 때는 연상되게 됩니다만 경제가 중요한 것은 더말할 나위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쪽에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씩 보이는 것이 요즘의 북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머리에 경제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통계숫자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일성이 살아 있을때도 늘 식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농업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북한에서는 하루에 1만톤의 식량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그것을 풀어가지 못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독려가 있었습니다. 1년이면 365만톤이고, 사료, 종자 등을 합치면 거의 600

만든 필요한 것이 북한의 통계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하루 1만 5천톤입니다. 우리의 1만 5천톤이라는 쓰레기는, 물론 우리 쓰레기를 북한사람들에게 먹여라 하면 자존심의 문제로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해보는 것도 남북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50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군사분계선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중무장된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서로가 욕을 하고 있고,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있는 등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50년이 똑같습니다.

정부에 들어간지 2년 정도 됩니다만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하면 별로 변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자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냉전이 끝났다고 하고, 지금 경제가 어떻다고 하는 등 전부 그런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남북관계는 얼어 붙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두가지 결정적으로 북한이 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북한이 최근에 지상낙원을 그만 둔 것이 큰 변화입니다. 2년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것을 주장한 나머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세계가 북한문제라고 할 때는 그것은 식량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정부내의 이야기입니다만 작년에 국제기구의 돕자는 호소에 호응, 우리가 600만불의 식량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600만불을 지출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여 보니까 농림부장관이 안오셨습니다. 식량을 돕는데 농림부장관이 안계시니 이상하다고 알아보니 농

림부 장관은 예전부터 통일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면 북한사람은 너무 강냉이만 먹어 의사들의 애기로는 영양의 균형이 무너져서 고질병이 생긴답니다. 수술할 때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무슨 비타민을 특별히 주기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나서서 보내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 남포 항구에서 전염병이 생겼다면 인천에서 방역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도 통일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태세가 늦게 따라 간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농림부 장관은 구성원이 되어 토의를 같이 합니다. 우리의 농업이라는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농업이 좋아지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농림부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대비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총론적 대비는 통일원이 합니다. 그러나 통일원은 대단히 조그마한 부서입니다. 북한과 관계되는 일들을 엮어서 크게 균형을 깨지 않게끔 만드는 일이 통일원의 역할입니다.

각론적으로 상당한 준비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숫자는 대단히 작습니다만 각 부처별로 북한을 담당하는 요원 60명 정도가 작년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각론적인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예전과 다른 부분입니다.

북한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비유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놓고 보면 물은 2, 3도부터 100도전까지는 달라져도 물입니다. 그러나 100도 되면 수증기가 됩니다. 100도 물과 10도의 물은 물이지만 차이가 큰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눈에 띄게 물리적으로 변한 것은 아직은 없을지 몰라도 화학적인 변화라고 할까, 그 안의 변화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우리의 태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반론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남북관계가 최근 1~2년 사이에도 꽤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5년 연말에 정부에 들어왔습니다. 그 때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컨대 크게 왔다갔다 하지 않는데 자꾸 왔다갔다 한다는 꾸지람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논리보다 터치에 있어 왔다갔다하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책이 왔다갔다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저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합니다. 요즘은 그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북을 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경수로사업과 관계된 것입니다. 북한이 갑자기 NPT를 탈퇴하고 무법자적으로 행세를 하게되었습니다. 전세계가 모여 벌을 주어야 되는데, 벌을 주는 대신에 경수로를 지어서 준다는 경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그 경수로를 지어 준다는데 대해서 교섭하는데 참여도 못했는데 부담은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외교 교섭이 어디에 있느냐고 굉장히 잘못된 일로 지적을 받은 일입니다.

지금 경수로사업의 전체 액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거의 정해져 가고, 어느 나라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느냐고 눈치를 살피고 있는 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같은 비판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경수로사업을 보는 눈이 한 1~2년전보다 굉장히 후해 졌습니다. 경수로사업도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가지고 오는 다른 사이드 효과 같은 것이 굉장히 크게 있겠다 하는 기대같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세째로 북한이 식량을 원조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

만 한국이 95년 6월에 제일 먼저 15만톤을 보냈습니다. 그 때 일본도 50만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지원은 북한에 수해가 있기 전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돕는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원조라는 모양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상낙원을 그만 둔 다음부터 받기 시작한 원조에 우리가 첫 번째 크게 참여를 한 것입니다.

한국은 그 때 정미소를 다 동원해서 좋은 쌀을 보냈습니다. 우리 쌀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쌀입니다. 15만톤을 보내는데 1,990억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1,990억원을 당시의 환율로 계산하면 2억 3천만불 됩니다. 2억 3천만불의 원조를 한꺼번에 내놓은 것은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그런데 주다가 북한한테 손이 물렸습니다. 그 모양을 보던 국민들은 많은 액수를 주었다는 것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정부가 잘못했다고 비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비판을 많이 받아 북한에 주는데 조심해야 되겠다고 할 무렵에 국제사회는 주자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 때 물려서 우리는 주지 말자는 사람으로 되고 국제사회는 작은 것을 주면서도 매우 인도주의적으로 되어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민간이나 북한에 관계를 가진 분들은 북한이 굶는데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정부에서는 조심하라고 하니까 한국정부만 인도주의와는 담을 쌓는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경수로 지원을 하는데 있어 제일 많이 준 한국정부가 제일 주지 않아야 된다고 설치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냉전이 끝난후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 세계적인 좌표축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다시 시도해 본다고 하다가 변을 당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사정입니다.

냉전이 종식된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4강 얘기를 자주합니다. 4강이 과거 5년사이에 대단히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공화당 정부가 끝나면서 클린턴의 민주당이 등장한 것이 5년전입니다. 일본은 수상이 5~6명이 바뀌었습니다. 소련이 없어지고 러시아가 되었으며, 경제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수교 5년째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안팎이 크게 술렁이는 때에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고, 그 속에서 김일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안팎의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가 아무리 신중해도 밖에서 보기에 술렁인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자꾸 발생했습니다.

통일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현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지금 평화통일이 아닌 다른모양의 통일방식은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된 다음의 나라는 민주적이어야지 다른 모양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근대사가 그랬듯이 우리의 문제를 남이 결정해 주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남과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이 자주적이다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도 듣지만 결정은 내가 한다는 것이 자주입니다. 그 궁극적인 결정은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통일이라는 큰 문제를 남이 하자는데로 하고, 싫은데 질질 끌려갈 정도의 상황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민주통일, 자주통일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고, 확고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국

회에서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비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잘되라고 학비도 주고 별도 주고 심할 때는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뺨 때리면서 학비 주었다고 일관성이 없다고 하거나, 아버지는 옳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또 일관성이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강조해서 변하지 않는 것만을 좋다고, 여름이 왔는데 일관성을 지킨다고 오바코트를 그대로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는 것을 또는 여름이 오는 것을 막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적응을 하는 것이 좋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주장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KEDO와 연관되는 이야기는 처음에 굉장히 잘못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화당 정부의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행한 공개연설에서 클린턴 정부의 결정을 대단히 좋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정적으로 우리도 그의 얘기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혹은 그같은 결정으로 북한의 핵확산을 막았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큰부담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큰줄기에 있어서 그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경수로를 짓는데 그 돈이 50억불이 든다고 할 때 그 50억불이라는 돈이 한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한전의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전의 비즈니스는 우리 안에서의 사업이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전이 가령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한다고 할 때 북한이 돈이 있어서

50억불을 들여 한전의 플랜트를 받는다 하면 우리는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받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에서 돈을 내는데 한몫을 거둔다고 하니까 형편없는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너지에 관한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자 발전을 하기 위한 발전소를 짓는다고 할 때는 모든 군에서 다 일어서서 반대를 하니까 북한에 장소를 빌려서 지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제성을 생각할 때 모조리 나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부수효과라는 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벌써 북한의 공사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위성방송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공식을 한다고 할 때 경수로단장이 연설한 것이 바로 KBS 뉴스에 나오고, 북한에서 '정 때문에'라는 TV프로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큰 효과입니다.

또 북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일들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공사장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내리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어깨가 부어서 한전측에서 응급 치료를 해주고 협정대로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부탁하기를 제발 돌려보내지 말아 달라고, 자기는 여기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닙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점심을 우리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재화가 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재화가 오고 가고 하는데 사람이 오고 가고 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하면 아이디어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여는 것이 됩니다. KEDO는 국제적으로 북한

을 여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KEDO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따지지 않은 많은 효과를 가졌다는 것을 어느정도 알게 합니다. 물론 부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경수로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북한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짓는 것이 마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각론화 하면 좋을 것입니다. 북한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 부족한 것을 남한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절약해서 모아서 주도록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단히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책으로 되고 정기적으로 보내야 되느냐 할 때 그것도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95년 10월 300페이지 되는 북한 전화번호부를 봤는데, 그것이 북한 전국의 전화번호부입니다. 한국은 3천만회선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70만이라고도 하고 40만이라고도 합니다. 사회가 다른 것입니다. 나는 북한 사람들의 전화·통신을 도와주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화·통신도 많이 하게 되면 그것도 북한이 열리는 길이기도 싶습니다. 도로도 형편없습니다. 도로를 도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것입니다만 아직도 북한과의 관계가 그만큼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KEDO사업도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50억불을 주게 되어 있는데 50억불을 주면서 10억불의 효과도 못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입니다. 50억불을 주면서 500억불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졌으면 그것은 싸게 치이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발상을 바꿔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 이야기 때문이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느 대통령후보께서 북한에 50억달러는 우리가 물 각오를 해

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50억달러를 우리가 낼 각오를 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KEDO사업이라는 것은 미운오리는 아닙니다. 어제 엔더슨인가라는 분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한국사람들은 KEDO를 사생아같이 생각하고 KEDO를 처음에 싫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KEDO를 사생아라고 그러합니다. 그것이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향후에도 가망이 있는가 잘 보고 있다고 해서 웃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도 명확한 생각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지원과 관계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많이 합니다. 정치도 여야로 해서 이분법입니다. 지금 북한을 돕는데 있어서도 돕느냐, 돕지 않느냐 두 가지 목소리가 큼니다. 돕는다는 쪽에서는 북한사람도 동포이고, 남도 돕고 있는데 도와주어야지 이렇게 비장하게 이야기를 하며 그 목소리가 큼니다. 그리고 북한사람은 공산당원인데 공산당에 무슨 민간인이 있느냐 이렇게 목소리가 큼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생각은 그렇게 이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원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문기를 이분법으로 물으면 나오는 방식이 두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을 달리해서 삼분법으로 문기로 했습니다. 삼분법은 북한은 동포니까 도와라, 공산당이니까 한푼도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을 놓고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일종에 조건이 있는 '주자'와 조건이 있는 '주지 말자'의 모양인데, 이 부분은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사회 또는 한국 국민의 주류가 무엇이나 하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분법으로 가다 보니까 둘로 갈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가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물어라 하고 늦봄에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때 종교계에서는 '주자'는 여론이 굉장했었고, 상대적으로는 소리가

적었습니다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제향군인회 등에서는 북한에 ‘무엇하러 주느냐’ 하는 여론이 한편에 강하게 있었는데, 저는 결과가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라’는 것이 15%, ‘주지 말아’라가 12%이고 나머지가 73%입니다. 그래서 통일원을 지지해주는 것은 가운데 73%입니다.

그런 중간의 선에서 우리가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왔는데, 하나 재미있는 현상을 사족같이 붙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KBS가 6월 하순에 누구의 비디오인지 모릅니다만 그 비디오를 틀었는데 북한의 강에 시체가 떠내려가고 굶어서 형편없는 화면이 방송이 된 이후에도 앞에서 말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TV의 힘은 셉니다. ‘무조건 주어라’가 15%에서 18%로 3%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지 말아라’가 12%에서 9%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운데 73%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한국사람들의 주류가 생각하는 북한을 보는 눈은 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73%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정부가 50만톤을 내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있었는데, 그 분들에게 가서 설명할 때도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북한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신문에서 묘사되는 모양이 거품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개신교 대표 중 한분은 진작 정부에서 그러한 얘기를 해야했다고 하며, 자기도 못 듣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기자출신입니다만 신문에서 요새 그러한 이야기를 별로 써주지를 않더라고 하니까 웃고 지나갔습니다.

추곡수매량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추곡수매를 860여만섬을 수매하는데 톤수로 따지면 100만톤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종교계에서 예를 들어 50만톤을 내놓아라 하면 북한의 인구가 우리의 절반이니까 우리의 추곡수매 분량만큼 내놓으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의 세금으로 내놓는 것을 좋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북한을 보는 눈도 숫자도 있고,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도 생각해 보고, 많은 것을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전인수격입니다만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 KEDO사업 형편없다, 정부가 인색하기만 하다는 대단히 큰 비판 세 가지를 요즘은 거의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저는 대북자세가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와, 저에게 국회에서 어느 분이 말하기를 문민정부가 대북정책의 5년동안의 결산을 스스로 자평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하라고 해서 답은 못했던 것인데, 여러분을 뵈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팎에서 술렁이던 것이 이제 북한을 대하는 '틀'같은 것이 마련되어 대북스탠스가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독일의 킹켈이라는 외상이 왔었는데, 이분에게 독일 외무성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달라고 했는데, 내용자체는 큰 것이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랜딩, 시간을 두고 경제도 개방을 시키고 하면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정부는 아직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망이 없다는 것이 독일 킹켈의 말입니다. 동독이 그렇게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동독은 북한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의 권력구조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진다고 할 때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도 옆에서 애정을 가지고 한반도 정세를 보는 한

사람의 생각이겠습니까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대비는 공산당에서 속아 넘어간다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제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북한이 보기 싫다고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없습니다. 옆에 놓고 같이 사는 것이 숙명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숙명처럼 되어 있는 것을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통일비용이 많이 드니까 통일비용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통일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데 한국경제가 불안하니까 돈을 빌리는 조건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조건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북한정세입니다. 북한이 불안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북한이 무너지면 남한이 무제한 부담을 할텐데 빌려준 돈을 남한한테 제대로 받겠느냐? 따라서 이자를 높게 받자는 것입니다. 통일된 후의 북한경제가 우리 것이 아니고 지금의 북한경제가 이미 우리 것이다 하는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북한은 아직 군사적인 부분이 철통같습니다. 그 징후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인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를 들면, 지난번 KEDO에 가 있던 우리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 시체를 남한으로 운구해야 되는데, 합의된 길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신포에서 평양으로 운구를 하는데 굉장한 힘이 들고, 또 평양에서 북경으로 가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문점에 길이 있는데 왜 못여느냐 요구를 했을 때, 북한이 판문점이 그런 것을 통과시켜 주는 창구 아니라고 하여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어서 왔습니다.

북한이 왜 그랬겠느냐? 아마 경제성을 생각한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군대도 경제쪽으로 생각이 들어간다면, 어느 국방 장관이 사단장은 큰 회사의 사장과 같다, 사단의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 이고 사단을 이끄는 데는 경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연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도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많은 것이 풀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독일 사람과의 얘기도 그것입니다만 남한과 북한은 내왕했다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될 무렵에는 1년에 150만명이 왕래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타산지석입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온 김에 경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막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활기를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보면, 정치가 앞에 나서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중국과 대만의 관계입니다. 중국은 고위급 회담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중국과 대만은 200억불의 교역이 있고 년 100만명의 사람의 내왕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위급 회담, 총리가 만나는 회담을 8차례 했습니다만 아무도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정치가 먼저 또는 위에서 뭔가를 결정해서 그 결정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집행해 나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대만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것이 쌓아 올려져서, 말하자면 경제가 앞에 있고 정치가 뒤에 있고, 또 바닥을 먼저 쌓아올리는데서 하나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리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외의 길을 못다니게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이제 우리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잘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민족공동체는 우리의 희망이자 책임

통일엠블렘 ·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격려사 (1997. 12. 11)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통일엠블렘과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민족통일협의회와 한일은행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엠블렘과 슬로건에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뜻과 마음이 함축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통일이 현실의 과제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세를 새로이 하자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화해협력의 거대한 시대흐름속에서 한반도의 시계도 더 이상 냉전의 시대에만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4자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식량과 경수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남북관계입니다.

저는 긴 안목에서 볼 때, 이같은 변화들이 남북간화해협력시대를 여는 실질적인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유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충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튼튼한 경제기반

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제적 토대가 튼튼해질 때 통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도 더욱 힘찰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세계의 주류에 서는 한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 스스로가 앞장 설 때 진정으로 힘있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통일엠블렘과 슬로건 공모행사도 국민이 앞장 서서 우리의 의지를 모으고자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앞서 안내하는 향도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ur-party talks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군정위」·「중감위」 관계자초청 만찬연설 (1997. 12. 16)

General Cha, UNCMAC officers, members of the NNSC and UNC Liaison Officers!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accepting my invitation to dinner despite your busy year-end schedule.

This year, too, many things have happened in Panmunjom where you are working now.

In one incident which occurred on 17 October, the north Korean side kidnapped two Taesong-dong residents who were picking up acorns peacefully at a place less than one kilometer from Panmunjom.

I can easily imagine how astounded and perplexed you were by the unexpected incident. I once again want to thank you for your utmost efforts and patience in the negotiations and subsequent repatriation of the two civilians.

It seems that peace is maintained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peace is frequently threatened by big and small inci-

dents.

Ladies and gentlemen!

The first plenary meeting for the four-way talks was held one year and eight months after we proposed the talks to solidify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ike the proverb "A journey of a thousand miles starts with a single step", a long journey for dur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just started.

We hope that the process and the results of the four-way talks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security of the entire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Ladies and gentlemen!

As you all know, our country is now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However, we are strong and determined to cope with the crises.

I am sure that we will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build a firm foundation for a stronger and prosperous economy.

Korea will become a strong and more stable country once we overcome the difficulties. We are proud of our valuable spiritual asset. Our people have never failed to show their loyalty and dedication in time of national crisis.

Our people also can unite to make things happen. I believe that some of you have watched our national soccer team playing World Cup preliminaries. Our team was able to advance to the main games of the World Cup four times in succession, thanks to the united efforts and support of our people.

Ladies and Gentlemen!

Men can not live alone and, likewise, a nation can not prosper by herself.

Both your country and my country can prosper through mutu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Some of you are working lonely at the remote area of Panmunjom to mainta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will do our best to make your lonesome duties there worthwhile.

Since you are here in a remote foreign land, away from the bosom of your family, the member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would like to help you with a warm hand just as good as your family's.

In conclusion, I wish you a pleasant and enjoyable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 propose a toast for the health and happiness of your family, everlasting prosperity of your country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nk you.

통일문제의 경제문제화

일본 朝日新聞 인터뷰 (1997. 12. 23)

기 자 미국·일본·중국 등 강국이 새로운 파워 게임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경제위기라는 2가지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상황앞에서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통일문제에 열심이어서, 기자회견에서도 정상회담을 제의한 바 있으나 단기적으로 신 정권은 경제 재건에 역량을 기울임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북한을 안심시켜 활발한 대화가 추진되리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총리 현시점에서 남북관계를 확실하게 전망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원조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이며, 남한은 국제 결제가 없으면 안되는 모순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경제주권을 주장하면서 지원을 군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남북한만이 통일하려해도 안됩니다. 먼저 합리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는 오해를 조장함으로써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 북한은 남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냉전종식후 동북아는 한국을 중심으로 4강이 조용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냉전종식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상이 여러명 바뀌고, 정당간에 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의 경우 걸프전을 겪고 난 후,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한반도에 눈을 돌려 이제서야 겨우 정착된 듯하며, 한·러,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우리 정부와의 교류가 활발해졌으나, 한국의 경우 북한의 공산당이라는 적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는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4자회담이 추진되고 있고 KEDO를 통한 대북지원에 있어서 일본은 중요한 참가국입니다. 과거에는 국제화를 차단하는 것에 치중했던 북한이 이제부터는 국제화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의 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군사문제 안보문제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지금은 경제문제에 중점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각료회의 의장으로서 작년에 WFP를 통한 600만불 대북지원을 결정할 당시 농림부 장관이 위원에서 누락되어 있어 추가로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즉 남북관계에서 경제문제가 전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과 평화를 분리하여 생각했을 때, 평화공존은 분단의 영구화라는 이론도 있으며, 평화 자체가 통일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 접촉과 교류 확대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은 8차례의 총리회담을 거치며 남북기본합의서를 마련하였으나, 북한의 '서울 불바다'운운 등의 위협을 거치면서 4자회담이라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 자 단계적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시는데, 한국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통일후 통일비용 부담이 문제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한국경제의 악화가 통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겠지만, 통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일후의 비용이 무엇인가라는 데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발상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KEDO를 통한 경수로 지원이 추진 중이며, 대북 식량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이 모두 통일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통일비용은 통일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문시 'Land for Peace'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땅을 내어주고 평화를 찾는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중국사람이 'Food for Peace'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식량지원을 통해 평화를 찾는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즉 통일 비용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비용을 고려할 때 잊어서는 안될 부분이 분단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는 달라서 분단비용이 적었습니다. 북한지역에 있는 묘지참배가 안되는 등 계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국방비, 무역 등 계산 가능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통일하는 편이 경제적으로도 득이 된다고 봅니다.

한일회담시 후나와나카다 비서는 “부자와 가난한 쪽이 사이가 좋게 되면 가난한 쪽이 덕을 보기 때문에 친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체코는 자신이 개혁을 이룩하였으나, 동독은 개혁되어졌습니다. 즉

서독이 있는 것이 동독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한국 없이는 개혁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 자 장관께서 독일의 겐샤씨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와카미야씨로부터 들은바 있으나,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겐샤씨는 “우리가 통일할 당시 통일을 논의한 상대는 동독이 아니라, 소련을 상대로 하였는데, 왜 북한과의 관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장관께서는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니, 겐샤씨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미국인데, 왜 미국과 교섭하지 않느냐?”고 전해들었습니다.

부총리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겐샤는 동독출신입니다. 그는 “서베를린을 서독측이 특별취급하였다”는 것을 상기 시키면서 서베를린은 서독과 똑 같지는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서베를린을 감세 등 특별우대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통일후는 동독 전체를 서베를린처럼 취급하여 추진하였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화를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수상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가?”고 물었더니, ‘자유민주연합’이 자신의 의견에 모두 찬성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도 동독 출신으로 동독과의 관계가 항상 시야에서 벗어난 적은 없으나 배상으로 동독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발상은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독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카운터 파트는 그로미코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언제나 북한을 상대로 하여 “만나 달라”고 하며,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렇다니 저렇다니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느냐?고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동독을 살리고 죽이고 상황을 변경 또는 유지하는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로미코였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북한의 정권을 담당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북한을 살리든가, 죽이든가, 변경하는 것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이런 저런 교섭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는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북한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역시 미국이라는 점을 겐샤는 생각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한가지 이야기는, 한국의 주독 대사가 그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분단독일이 통일된 이후 NATO에 남아 있어도 좋다는 러시아의 판단이 있게한 것은 당신들인데 어떻게 하여 가능했는가 하는 질문이 었습다. 당시의 상대는 그로미코에서 세바르나제로 바뀌었습니다.

세바르나제는 통일독일은 나토에 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통일독일이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소련이 정해도 좋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겐샤씨가 “통일독일이 나토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 군사 대국으로 소련에 인접하게 된다면, 군비는 현재의 10배로 확대되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독일이 되기를 소련은 바라는가? 그러나 나토에 남는다면 군비는 10분의 1로 줄일 것이다. 어떤 독일을 소련은 바라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는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클레플린내의 토의 과정에서 세바르나제가 자기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소개하여 독일이 나토에 속하는 것이 소련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통일독일을 나토에 붙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논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통일대비의 구슬을 줄로 꿰자

97년도 송년사 (1997. 12. 31)

우선 한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1997년이 여러가지 의미에서 꽤 긴 해였다는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아마 잠수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었던 직후였던 때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인도지원국이 생겨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통일원이 자기의 업무로 인식하고 출발을 했던 해이며,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겹쳤던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대로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순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이 남북관계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우선 4자회담의 모양은 여하간 본회담이 열렸으며 그리고 경수로사업도 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나오는 등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큰 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잘 되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연말입니다.

정부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크게 들뜨는 것없이 그런대로 사태를 가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누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말을 맞

고 있습니다.

오늘 정년을 맞이해서 퇴임을 하시는 분을 보내는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장을 타신분, 표창을 받으신분, 모범공무원으로 뽑히신분들의 1년간의 노고에 대한 의젓한 대응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이를 잊지 않도록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제대로 되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잘 내다볼 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 통일원, 정부, 나라 등등 모든분야에서 지난 1년동안 무엇을 했으며, 그것에서 평가를 받은 것은 무엇이며, 못받은 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내년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뵈는 것이 세번째입니다. 첫째 해는 부총리에 부임하여 열흘밖에 안되었을 때였고, 그 다음해는 잠수함 사건이 나고나서 법석을 치던해였고, 올해는 IMF, 금융위기 등으로 나라안이 대단히 슬렁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보고 모두 걱정하고 조바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의 모양은 그런대로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부 그러한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동안 문민정부는 그전에 있었던 독일통일 등 여러가지 상정되는 냉전종식 상황을 한반도안에서 전개하여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겨운 모색같은 것을 해왔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행 첫 머리에 여러 시행착오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큰 우산같은 차원으로서 냉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지적인 쪽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이 어떻고, 유고가 어떻고, 아프리카가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하는 등 불안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세계는 경제를 위시로 무엇인가 하나가 되어가는 쪽으로 크게 내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북문제도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고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국제적인 시각속에 남북문제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와 관련하여 IMF체제 운운하는 말을 합니다만, 남북관계는 한발 앞서 어찌면 IMF체제같은 국제문제로서 되지 않았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면 4자회담이 그렇고, KEDO사업이 그렇고, 식량지원이 그렇습니다. 남북문제의 많은 부분이 국제적인 시각속에서 보지 않으면 안될 것같은 측면이 대단히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가 지난 5년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 북한은 그냥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정부를 갈라보면서 북한을 접근해야하는 시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동안 사이에 일어난 변화의 느낌입니다.

이제 남북문제는 거리에서 외치는 수준을 넘어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구체적으로 시행되어, 구체적인 모양으로 결과를 나타내야 할 측면이 생겨났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인도지원국 일들, 이것들이 대단히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또한 그냥 북한을 돕자, 말자 혹은 경각심을 가지자, 말자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상상력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해야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각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적어도 인식하게 되었고, 정부안에서도 각 행정부서가 북한의 사정을 자기의 일처럼 보자는 하나의 작은 출발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법령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 법무부 특수법령과에서 이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대비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지금까지 60여명을 길러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제자리에 앉아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도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통일원에서 그것을 한줄로 꿰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한줄에 꿰어내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개개의 구슬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때 구슬도 잘 꿰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할 때 허공을 향해서 한 것이 공부가 아니고 남의 논문을 배껴 쓴 것이 참공부가 아닌 것같이, 이제는 밑에서부터 무엇인가 내실있게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거기에 통일원의 할 일이 무엇인지 늘 점검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정부의 출범, 즉 내년부터는 얼마간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각 가정에서도, 개개인에게도, 통일원이라는 관청에도 보람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한해를 마감하는 감회의 일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더욱 정진하자는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변화로 북한의 변화를 준비하자

98년도 신년사 (1998. 1. 3)

며칠 사이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두 좋은 꿈들을 많이 꾸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 아침에는 또 북한에서 공동사설을 내서 그것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직원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좀 지루한 소리의 되풀이 같은 것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감회를 얘기하면, 새해 아침에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끝에 오하라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내일은 또 하나 다른 날’이라고 되뇌이는 것이 생각납니다.

해가 바뀌면서 올해 새해는 또하나 다른 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희망을 없어서 새해를 내다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난날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날을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또 하나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종무식 때도 그런 감회를 얘기했습니다만, 문민정부 5년이라는 시기가 우리가 냉전 50년 동안에 겪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한반도에는 냉전이 그냥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뿐

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변했습니다. 그 변한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내다보아야 된다,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은 각자 셈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단이라는 것이 냉전이 갖다 준 것이었다면, 냉전이 이제 막을 내린다고 할 때는 분단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각자 오늘의 분단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각자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좀 평범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대나 또는 전쟁을 치루었던 세대가 많이 물러가고 새 세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어느 면에서 저는 새 세대는 뭔가 틀에 맞추어준 생각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대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보다는 틀에 박힌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때때로 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지 2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꽤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국회에 나가서 호통도 많이 받았는데, 그 생각을 최근에 어느 분이 되새겨 준 것을 기억합니다.

북한을 놓고 보면 안변했다고 하면 전부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사진에 비유해서 비디오 처럼 연속되는 영상으로 북한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할 수 있고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변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는 안변했다고 앉아서 하나도 자기 자신이 안변하고 있으면 낙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통일원이 왜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골똘히 할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통일원은 통일원이니까 잘났고 통일원의 장이 부총리니까 높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원이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원이란 큰 것뿐 아닙니다. 나는 왜 있느냐부터 생각하면 상당히 철학처럼 되지만, 그러나 나는 왜 있느냐를 자기 가족에 비추어 보아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왜 남의 가족과 달리 이렇게 이렇게 있느냐 하는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연장시켜서 통일원은 왜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제가 2년동안 제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조금 의심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냉전이 풀리면서 벌어진 패션처럼 우리한테 엄습해 오는 여러가지 사례들을 겪었습니다.

제 이야기만 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쌀을 준 직후인데 쌀을 잘 주었느냐 못 주었느냐 얘기가 많았습니다. 통일원은 약간의 엄살을 섞어서 나는 잘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장관부터 말단까지 전부 아무 것도 잘못된 일도 없었던 것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자회담이 제의되었는데, 그 후에 통일원이 무슨 기여를 거기에 했느냐, 각자 거기에 대표로 나갔던 분도 있고, 또 거기에 연관해서 무슨 분석을 했던 분도 있고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기여라고 하는 것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다 나서서 북한을 돕는데 있어서 모양이 달라진 원조같은 것을 세계가 떠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또 잠수함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무엇을 했었느냐? 지금 많은 것이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그런 쪽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5년 사이에 세계가 굉장히 술렁이었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선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손가락질을 받았습시다만, 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크게 빛나가지 않은 그런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의 틀을 마련하는데 나름대로 애를 쓰고 기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각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근 5년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남북관계가 대단히 국제화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국제관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얼마나 국제화가 되어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군사적인 대치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 하면 세계의 사람들은 식량문제, 경제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하면 우리이다 하고 있던 우리가 좀 남보기 민망스러운 몰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의 오늘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것이 과거입니다.

저는 550억불의 긴급융자를 불과 2주일 사이에 IMF가 결정해서 우리한테 주게 될만큼 우리의 경제신용이 있는 것입니다. 550억불 큰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전이 더 좋았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마 10년전에 파탄이 났으면 550억불은 커녕 50억불도 못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장기영 한국일보 사주가 정부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채도 자산이다. 그것은 빛을 얻어 쓸 수 있다는 것은 빛을 주어서 갚을만 하기 때문에 빛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550억불을 빌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보는데 있어서도 남북이 모든 면에서 형제입니다만, 특히 경제는 크게 크게 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려야 합니다.

그동안 좋지 않은 것의 대명사처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붙어서 적당히 하고 우리한테 부담만 진다고 하는 것이 KEDO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KEDO 사업이 기공식도 하는 등 그래도 세계가 쳐다보면서 괜찮은 모양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꽤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 북한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적이라는 관계에서 북한 주민은 반드시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화면을 보고 그 다음날 여론조사에서 무엇을 주자 하는 여론이 치솟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살려서 북한의 주민과 정부를 갈라서 볼 수 있는 안목같은 것이 우리한테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최근 얼마 동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북한문제가 민족이 어떻고 하는 연설의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과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법 우리도 각 부처가 북한담당을 위한 과장같은 사람들을 두고 훈련도 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국제화에 맞추어 따라가지는 못합니다만, 통일원 안에도 주재관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아마 IMF 시대에 주재관이 역할 못하면 그것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없어져야 하는지 있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 일하기 나름입니다.

또 북한을 볼 때 김정일의 얼굴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땅이 있다는 것을 보는 하나의 복안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각종 사태에 대비를 하면서 각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각론의

아주 구체적인 것이 인도지원국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가다듬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다룰때 요란스러운 소리가 만나게하고, 북한의 많은 것을 변화시켜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많이 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합시다.

또 하나의 해가 밝았다는 데에 거기에 많은 것을 실어 올해도 더 좋은 쪽으로 해가 바뀌도록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문제와 언론의 역할

출입기자단 간담회 (1998. 2. 13)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통일원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저 사람은 아직도 신문사에 다니는 사람처럼 신문이야기나 하고 다니고 남북관계 이야기는 안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한 40년 넘게 출근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출근 안하게 되면 사이클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합니다. 지난번 구정 때 사흘 쉬었는데, 작년에 쉬었을 때는 별다른 실감이 없었습니다.

출근을 하면 여기에서 우선 외국신문들을 보았는데, 집에서 며칠 쉬게 되니까 그것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신문 하나와 헤럴드 트리분을 집으로 배달해서 보려고 하니깐 그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 신문은 굉장히 싼데 일본신문은 1년에 백만원 정도라고 하고 트리분은 삼십 몇 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만원 주고 신문을 받아 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나라의 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신문이나 미디어가 그것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북한은 남한신문에 무엇이 나오면 요란스럽게 반응하고, 우리도 저쪽 신문에서 무엇을 쓰면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이런 것을 회고하며 신문기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얘기하면, 신문기자들이 세계평화를 유지하느냐 깨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들은 외교관 특권이 있는데 신문기자는 왜 특권이 없느냐고 신문기자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무슨 국제협약을 만들자고 맥브라이더라는 사람이 유네스코와 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 인포메이션 플로어가 자유로워야 마땅한 것이 서방쪽의 이야기이고, 밸런스 플로어가 맞다고 하는 것이 제3세계와 동구라파 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네스코내에서 후자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맥브라이더위원장입니다.

예전에 외교관들에 특권을 준 이유가 세계평화를 지키는데 총 안쏘고 말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우대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회의에서 근사한 소리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절대 반대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반대를 왜 하는가 했더니, 신문기자가 일종의 특권을 가지면 벌써 기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교협약처럼 어떤 지역에 신문기자가 오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이 따라다닌다하면 기자가 어떻게 취재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자의 원초적인 임무를 죽여버리는 것같은 협약을 반대한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문기자들에게는 일종의 특권같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즐기면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한편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신문기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가

훈련을 받아 뉘 된다고 할 때 신문에 좋은 ‘말’이 뉘으면 별 그것없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초기에 관훈클럽을 맡고 있을 때인데, 관훈클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서양 물을 먹었다는 사람들이 관훈클럽에 참가를 많이 했습니다.

‘워치 유어 랭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스테인’이라는 사람이 뉴욕 타임지의 편집부장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쓰고 있는 말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말’에 관한 얘기가 전 세계에서 날라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신문은 아침에 ‘말’로 차려주는 밥상같은 것인데, 말 이야기는 참 없습니다. 제가 일본신문의 기자한테 들었는데, 교통사고 보도에도 명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선배기자가 명문상을 준답니다.

내가 신문사에 먼저 다녔던 사람으로서 볼 때 지금은 ‘말’에 관한 것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일반사람들이 전부 저널리스트화 하는 것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가 무엇이나? 참 정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지난 봄 일본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것도 신문사가 주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본을 안다고 말할 때 학자들이 아는 것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를 가지고 등분을 하는데 저널리스트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본을 안다고 할 때 일본사람의 얼굴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저널리스트의 재산입니다. 훌륭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덜 훌륭한 사람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접근하는 것과 다른 접근방법을 저널리즘이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관계와 북한에 관한 여러 논문을 많이 쓴 기자도 있을 것

입니다. 북한 사람의 얼굴을 많이 아는 사람이 북한을 커버하는 기자의 하나의 재산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쪽을 많이 하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문사에서 근무하다가 통일원에 온지 2년 2개월이 되는데, 그런데도 내가 정부안에서 제일 오래된 장관입니다. 너무 빨리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2년 2개월 동안을 제일 오래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덕도 있으며 여러가지로 안팎에서 도와주신 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처음 내가 동아일보에 있다가 임명이 딱 발표되어 임명장은 내일 준다고 하였습니다. 임명장이라도 받아야 통일원에 발이라도 들여 놓을텐데 미디어가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통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옵니다. 그래서 통일원 사람들과 얘기도 못해 보고 주위 섬긴 것같이 대답한 적 있습니다.

통일원은 민족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디까지나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남북이 모여 앉아서 우리끼리 원자탄을 만들어서 중국을 골탕을 먹여보자고 한다든가 이런 모양으로 통일의 모티베이션이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편가치, 세계가 모두 추구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환경 이런 여러가지로 해서 이웃과 같이 더불어 사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내가 국회에 처음 나갔을 때 북한이 도대체 ‘동포’이냐 ‘적’이냐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동포이기도 하고 적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가지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북한문제가 복잡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북한은 그런 두 측면

이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주면 ‘적’을 도우는 것이 되지만 나머지 굶는 사람은 도와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에 태어났다고 그 사람은 남한사람으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동포이기도 하고 적이기도 합니다. 또 북한에 정부도 있지만 주민도 있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전체가 각론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의 교육은 어떻게, 에너지는 어떻게, 농업은 어떻게 하는 것을 각자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임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대로 스탠스는 지켜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 크게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통일정책 추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와서 매일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추진하는 것을 저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보편기준에 따라 해야 됩니다. 통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과업입니다. 남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는 통일이 아니고, 국제문맥 속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하는 부분도 그것이지만, 그 때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이 비핵화선언이었습니다. 비핵화선언은 남북이 앉아서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가 됐느냐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것은 우리들이 못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도 안되고 불가피하게 국제정세 속에서 비핵화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간에 합의는 하더라도 그 전개는 국제관계 속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원도 국제관계를 시야에 넣고 보아야 옳은 것입니다. 북한사람 코가 크더라, 작더라 하는 식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통일문제를 국제화 속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건강하게 되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를 했지만 북한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북합의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인터내셔널라이즈라는 뜻의 어프로치를 나는 인스티튜셔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제도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김대중 당선자께서도 북한에 밀사를 보내고 하는 것 같은 것은 건강하지 않고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입니다. 꼭 될 하면 권력자의 제일 측근에 있는 사람이 남 모르게 해서 뭐를 해내는 것 같은 방식은 그 자체가 투명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적어도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추구도 안했을 뿐 만아니라 남이 하자고 할 때도 핀잔도 많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두가지 케도를 그런대로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고, 어느정도 그렇게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달리 할 때는 거기에 맞추는 것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의 기조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느냐?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통일한다' 라고 덤비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게 한다' 라고 말해야 맞다고 봅니다.

제가 통일원에 들어와서 세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첫째는 대북정책이 자꾸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왔다갔다에 대해 우리 국내 미디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참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모양이 괜찮은 것처럼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제네바합의라는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했는데, 비용부담은 한국이 전부

한다며 이따위 외교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때 미국 민주당 정부가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IPI가 열렸을 때 나는 신문사에 있었는데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베이커가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합의를 비판하여 회의장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그 말이 맞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적인 범죄자처럼 NPT 탈퇴하여 벌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경수로를 지어 주는 것은 상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한테 상을 주는 것도 기분 나쁜 데다 상을 주는 돈을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되어 있으니 한국안에서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굶는다고 한 것이 95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북한이 낙원이라고 해서 굶을 일이 없는데 95년에 와서 갑자기 굶는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남보다 빨리 돕는다고 해서 쌀 15만톤을 주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상한 절차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거기에 나가는 돈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줬는데 주다가 저쪽에서 손을 물어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식량을 지원해 주는 행위 자체가 국내에서 아주 나쁜 것이 되어 있던 시기에 북한에 큰 손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나니까 전 세계가 나서서 북한을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손해나기 전에 북한에 쌀을 주다가 당해봤으니까 북한한테 선불리 주면 안된다고 자꾸 말렸습니다. 사람이 굶고 있는데 쌀주는 것을 말리다 보니까 한국정부는 비인도주의 국가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 종교단체에서 주려고 하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신중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완전히 비인도주의인 것으로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나서도 이상 야릇한 곤경에 처

해있던 것이 얼마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세가지 비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지금은 거의 해소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그것이 큰 이슈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가지 비판은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런 비판이 반드시 맞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도 합니다.

가령 KEDO사업 같은 것도 하나 하나 그렇게 따지면 다 그런 것이지요. 그 때 베이커씨가 여기에 와서 연설할 때, 그러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별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북한이 약정한 것을 완전히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다른 특별한 길이 없다고 하는 식의 말이 베이커씨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한테도 그러한 공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다물고 있었지만 밥먹는 자리에서 몇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뺏기기만 한다고 생각말자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북한에 우리가 발전소를 지으면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몰라도 우리것입니다.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이 제일 좋은 발전이고 공해도 제일 적은 좋은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고 할 때 한국의 어느 군도 자기 지역에 지으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경제하는 사람들은 북한쪽 어디에 발전소를 지어 그 전기를 우리가 쓰자고 하는 경제적인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좋은 방향으로 순기능을 하도록 물고 가면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KEDO사업에 한국이 도저히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미국이 '알았다' 하며 다 부담한다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당황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 발전소 건설을 전부 맡아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돈 안드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미-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도 안 내면서 거기에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이 많이 내겠다고 하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내는 일본이 것만큼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 이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꾸어 가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큰 테두리에서는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로 보면 크게 모순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틀을 잡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아서, 문민정부 5년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여러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은 세계속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굉장한 변화기였습니다.

지금 문민정부와 같이 출발한 것이 클린턴 정부입니다. 그것은 오랜 공화당 정부를 이어받은 정부이며 또 과거에 냉전시 생각을 많이 안가졌다고 생각하는 새 세대 클린턴의 정부입니다. 옛날에는 슈퍼파워가 둘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혼자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북한같은 지역이 하나의 미해결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은 5년동안에 수상이 6~7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겪지 못했던 것입니다. 냉전체제가 바뀌면서 지금 다당이 되어서 여러개 연합이 되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또 문민정부 5년이 한중수교 5년입니다. 물론 노태우정권 말기에 중국과 수교를 했지만 바로 이어받은 것이 문민정부입니다. 그 5년동안에 중

국은 우리가 잘 못든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넣으면서 나라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6.25 개입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200억불이 넘는 교역을 하는 관계로 5년동안을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돈을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작아졌는데,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지니까 너무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러시아 갔을 때 프리마코프씨가 러시아가 4자회담에 안들었다는 데 대한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자회담은 러시아를 배제하는 회담이 아니고, 러시아를 장차 포함하는 회담의 시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의 축복을 안 받는 통일을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테니까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하도록 좀 만들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러시아 대사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환율로 따져 러시아 전체 예산이 우리 예산보다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서 오는 반응이 조금 정상이 아닌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김일성이 죽었는데 더 말할 나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통일과 연관된 환경이 활발하게 움직인 때가 문민 5년이라고 봅니다. 안정된 속에서 북한에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국제화·제도화라는 문제도 그런 속에서 접근은 어느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많이 아전인수일 것입니다. 그런대로 안정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도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 응답】

기 자 공직을 물러나신 후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부총리 내가 제일 오래된 각료일 뿐만 아니고 제일 늙은 각료입니다.

그리고 한 40년 출근을 열심히 하고 다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 자 어제 인수위에서 10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통일외교안보분야 과제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부총리 정책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꼭 통일안보분야 뿐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이 무엇을 얘기한다든가 내보인다든가 할 때는 하고 싶은 쪽에 무게가 상당히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틀릴 것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100대 과제가 다 좋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급도 있을 것이고, 한 달을 목표로 정해놓고 오늘 당장 안하면 안된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 100대 과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를 대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일은 상당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꿈꿈이 속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할 능력도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드러났을 때 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좋은 말로 하면 민주화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혼선도 민주화 때문이고 크게 보면 건강한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문제는 아니지만 1년전에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그때 하면 안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것이 되었으면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어쩌면 국민들의 통합된 의견을 모으는 데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남북문제는 덮어 놓고는 잘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북한은 완전히 비밀적으로 하는데, 우리만 다 드러내 놓고 하면 완전히 무장해제 당하는 꼴이 아니냐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커진 것입니다.

나는 전술적인 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민주국가가 그래도 독재국가보다는 낫습니다. 우회하는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 자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통일원 부총리의 직위가 일반 장관으로 직위가 내려갔습니다. 통일원 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은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 통일원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업무에 있지 직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총리라는 자리는 직위입니다. 부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총리가 없을 때 그것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누군가가 중심에 앉아서 조정을 한다고 할 때 똑같은 사람이 옆으로 앉은 것보다는 의자라도 큰 것 앉아서 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한국의 현실문제로서 부총리입니다. 통일원은 예산도 적은 부서이며, 북한관련 정보도 적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통일원이 중심이 되어서 업무를 조정해 간다고 할 때는 그래도 부총리 자리가 붙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지만, 부총리제도 없이도 조정을 잘하는 정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업무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 업무를 충분히 해낼 만큼 무엇이 준비가 된 속에서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 자리 때문에 조정이 잘 안되는 일이 앞으로 생긴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리를 봐가면서 다리도 뺏습니다. 정부기구를 축소하는 것도,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서 줄인다고 하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남북문제는 통일원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일의 양이 하나도 줄지 않을 때 기구만 그냥 줄인다면 그 자체가 무리입니다.

요즘 일본이 중앙관서 수 줄이는 것이 유행인데, 일본에서는 이 세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째 일 줄이기입니다. 일 줄인다는 것이 뭐냐하면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지방정부로 보내고, 또는 정부가 안하고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을 줄여야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수도 줄이고, 부의 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개혁이나 여러가지 하는 일 중에서 정부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밤잠 안자고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일을 줄인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정부가 받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감량을 가질 때 됩니다. 지방정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데도 넘기는 것은 안됩니다. 민간으로 일을 넘겨서 더 잘된다고 할 때는 그것이 괜찮은데, 그것이 아직 덜 준비되어 있다든가 할 때 일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속에서 줄었다고 했는데 인원은 안 줄었더라, 또 여기 있던 사람을 저기로 붙였는데 정착이 안되어서 서로 싸움만 하고 있더라, 하는 부작용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줄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일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줄인 일을 받을 수 있는 지방정부가 있느냐, 받을 수 있는 민간조직이 있느냐, 이런 것이 없으면 어디로 몰려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통일원의 일은 남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일원의 할 일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구 축소, 10% 인원감소, 예산삭감은 좀 안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일원에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통일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방정부로 넘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민간한테 다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등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이 민주화된 모양으로 나와서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우회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차대전때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여 미국이 이겼습니다. 이긴 후에 일본을 민주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의 계획이 일본에는 있지 않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후 민주화 계획이 일본사회에서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놓고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으니까 일본에 대한 민주화의 강제수용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들어온 민주화 계획이 없었으면 일본의 민주화는 아마 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일본과 싸웠는데, 중국은 일본 민주화계획같은 것은 안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쟁을 한 것이지요.

아마 미국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전쟁후 점령해 들어온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바꾸어 놓게 만들었느냐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참고가 될 것이 많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그냥 이기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민주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북한 너희끼리 하라고 할 때 어느 정도는 할지 모릅니다. 예로 들면, 간접통치, 직접통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존 정부를 다 없애 버리고 북한은 해방되었을 때 직접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점령해 들어온 미군은 일본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 정부를 통해서 명령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간접통치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쓰는 돈도 일본 은행돈을 그냥 쓴다든가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관계에서, 우리가 무슨 급변대비계획 같은 것을 준비할 때 직접 우리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뭔가 형태로 남아있을 북한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식량을 준다고 할 때도 우리가 트럭에 싣고 가서 나누어 줄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기존 식량배급 창구를 통해서 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해서 어떻게 간다고 할 때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통일원의 할 일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일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좀 안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다 하면서 예산도 줄고 사람도 줄면 민족의 대업이 어디로 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생각해 보면 그런 종류의 일은 지방정부나 민간한테 다 넘겨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일원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통일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 너무 많이 줄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올해 인도지원국이 생기고, 인원은 그대로 두고 했지만 역할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이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재임 2년동안 남북관계가 뭐가 크게 달라졌냐고 하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1~2년 만큼 달라진 남북관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일대일의 관계는 아니고, 우리가 베푸는 관계입니다. 주는 관계를 내부적·심리적으로 소화 잘해야 합니다.

북한은 한 1~2년 사이에 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모양이야 똑같습니다. 38선에 군대가 주둔해 있고, 그것은 똑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변화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은 1도도 물이고 99도도 물이니까 그 자체가 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도와 99도의 물은 굉장히 다릅니다. 1도에서 1도 더 내려가면 얼음이 될 것이고, 99도에서 1도 더 올라가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 안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보이지만 북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달라지는 것에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통일원은 이제 각론적으로 여러가지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떻고 등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남북관계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한다고 할 때 그동안 별로 북한과 관계가 없던 우리 농림부가 북한문제를 본격적으로 보았다는 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 콜레라가 났다고 하면 보건복지부가 북한의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북한에 경수로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부가 북한의 에너지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안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각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론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각론적 준비가 많아질 것입니다. 통일원이 그런 일에 참여를 하려면 인원이나 예산이 줄어가지고는 옳은 역할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에 밖에서 집도하여 수술을 해대는 시기이지만, 새살이 돋고 일을 본격 추진해 가려면 통일원의 일을 얼마동안 꽤 풀어 놓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 자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2년 2개월이면 역대 통일부총리보다 오래 계셨는데, 보실 때 어느 기간이 통일부총리로서 적정한 임기기간이라고 보시는지, 2년 2개월이 긴 편입니까, 아니면 1년만에…?

부총리 일을 알게 되는데는 빨라도 1년은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 자 문민정부 들어서 주로 학자출신이 통일부총리로 오셨었는데, 언론사 출신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 언론인도 우선 출발은 사람입니다.

기 자 물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언론사 출신의 통일부총리의 부적합성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부총리 사실 나는 부총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일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지요. 선진국에서 잘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언론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업무쪽이 아니고 직위입니다. 근대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와 차이가 누구누구 사람을 얘기하는 것과, 저사람 ‘뭘 하느냐’ 할 때는 하는 쪽이 더 강조됩니다.

기 자 아까 부총리께서 통일원이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지는데 기구축소 같은 것은 마땅치 않은 방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줄이자는 것이 집행기능은 민간이나 다른 데로 이관시키고 정책기능만 갖고 있자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통일원장관으로 오셨을 때 제일 뚜렷한 상황은 북한주민이 탈출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도 만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발표가 될텐데 그것에 대해서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종교단체들이 북한주민을 돕고자 할 때는 통일원과 안기부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많은 종교단체들은 안기부보다는 통일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민간차원의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통일원은 어느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주민을 도우려고 주무부서인 통일원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총리 통일원이 전부다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서 북한주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탈북주민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공장의 일을 하던 북한사람이 여기에 왔다고 할 때 공장이 많이 있는 지방에 가서 그 지방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등을 통일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기 자 총론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종교단체들이 한번 맡아서 해보겠다고 하면, 통일원에서는 탈북주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후원회에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종교단체들은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는 등 후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총리 그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

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통일원 산하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몇 사람 모여 후원단체 신청을 하면 허가 해 줘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아무 실적도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남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데, 교육시킨다는 것만큼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없다고 봅니다. 통일원에 관련되는 단체로 등록하겠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등록이 안되면 단체로 인정을 안하는 것처럼 되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통일원에서 일단 교육을 시킨 다음 후원대상자를 받아 주면 되는데 통일원을 제쳐놓고 내가 좀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조금 안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탈북주민을 돕는 것이지, 말만 앞세워 돕겠다는 사람만 나오면 골치아픈 것입니다.

기 자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서도 방향이 비슷하실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관련하여 여쭙어 본 것입니다.

부총리 그동안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

이임사 (1998. 3. 3)

여러분 그동안 고맙습니다. 큰 대과없이 2년 2개월의 재임기간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끝내게 된다는 것을 제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원에 온 것이 '95년 연말이었습니다. 날씨도 추울 때였는데, 대북관계도 그 날씨 만큼이나 추웠습니다. 그 때 들어와서 이렇게 따뜻한 날 물러나는 것을 또한번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통일문제 하면 뭔가 전문가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아마추어를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추어로 여기에 들어와서 제법 아마추어를 향한 통일정책이 어려운 것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대로 말씀을 해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은 아마추어들도 이해를 하는 통일정책이 퍼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고 할 때 저 나름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일원의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못한 상태에서 조금전 저한테 주신 패

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통일원 산하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몇 사람 모여 후원단체 신청을 하면 허가 해 줘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아무 실적도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남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데, 교육시킨다는 것만큼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없다고 봅니다. 통일원에 관련되는 단체로 등록하겠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등록이 안되면 단체로 인정을 안하는 것처럼 되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통일원에서 일단 교육을 시킨 다음 후원대상자를 받아 주면 되는데 통일원을 제쳐놓고 내가 좀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조금 안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탈북주민을 돕는 것이지, 말만 앞세워 돕겠다는 사람만 나오면 골치아픈 것입니다.

기 자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서도 방향이 비슷하실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관련하여 여쭙어 본 것입니다.

부총리 그동안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

이임사 (1998. 3. 3)

여러분 그동안 고맙습니다. 큰 대과없이 2년 2개월의 재임기간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끝내게 된다는 것을 제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원에 온 것이 '95년 연말이었습니다. 날씨도 추울 때였는데, 대북관계도 그 날씨 만큼이나 추웠습니다. 그 때 들어와서 이렇게 따뜻한 날 물러나는 것을 또한번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통일문제 하면 뭔가 전문가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아마추어를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추어로 여기에 들어와서 제법 아마추어를 향한 통일정책이 어려운 것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대로 말씀을 해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은 아마추어들도 이해를 하는 통일정책이 퍼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고 할 때 저 나름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일원의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못한 상태에서 조금전 저한테 주신 패

(공로패)에 그런 이야기를 담아놓으니까 좀 거창한 개념의 무엇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좀 소박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금방 우리끼리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단이 열강의 각축속에서 우리의 뜻에 반해서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50년동안 해결 못하고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역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정해야 하지만 우리끼리만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야를 ‘세계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렸습니다. 그런 것의 하나로 통일원도 4강대국에 주재관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정도 그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외부세계도 보자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적인 것은 통일원에 들어와서 바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북한이 ‘적’이나 또는 ‘동포’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동포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눈을 외눈으로 보면 적으로만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동포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복안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얘기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안화’의 하나의 제도로서 인도지원국도 생기고 탈북자 관련 입법도 한 것이 그쪽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강조했던 것이 ‘각론화’ 하는 것입니다. 사실 통일원이 북한문제를 다 맡아서 하기에는 북한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재임기간 동안에도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통일관계장관회의의 모임에서 농림부장관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북한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식량입니다. 우리의 식량수급과 연관이 되며, 또 통일후에도 북한의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야속에 있어야 된다고 할 때 농림부가 어찌면 굉장히 중요한 부처입니다. 그쪽이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 하고 있습니다. 북한문제가 비단 농림부 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전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미국 대사와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을 때 안보 얘기같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요즘은 한국 안보를 장군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행가들이 지킨다고 하는 얘기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지금 IMF의 위기가 어떻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은행가들이 여기에 많이 관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안보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가 '각론화'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각론화가 될 때 비로소 정책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연설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론화된 집행을 통해서 정책은 전개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년이 잠깐 동안 같기는 합니다만, 문민정부에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도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시기를 객관화 해서 보면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상당히 숨가쁘게 달렸다고 할까, 변했다고 할까 하는 5년이었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도 문민정부와 같은 출발입니다. 그런데 클린턴 정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레이건, 부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공화당 정권의 끝에 등장을 했는데, 공화당 정권 때까지는 아직도 두 개의 슈퍼파워가 있었습니다. 클린턴이 들어섰을 때는 자기 혼자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신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클린턴 정부는 숨가쁘게 뭔가를 찾아가는 것 같은 모양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때 제일 지역적으로 전쟁같은 상태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 중동과 한반도였습니다. 또 한반도에 극적으로 거기에 첨가된 것이 북한핵개발 문

제였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실감 보다 더 크게 돌아가는 세계정치 속에 숨겨진 상황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소용돌이를 쳤습니다. 그것이 지난 5년의 아주 하이라이트라면 하이라이트입니다.

미국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일본에는 수상교체가 아마 지금 6~7번째쯤 됩니다. 그 전에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이 우리와 국교를 뜬 것이 바로 문민정부 출발 직전입니다. 물론 노태우 시대때 뜬 것입니다만, 국교를 트자마자 문민정부가 계승을 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수교 5년은 바로 문민정부 5년입니다.

그 5년 사이에 중국은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문화혁명 후의 새로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생소한 구호같은 것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 모양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일당 정치체제로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향하는 것으로 그대로 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동시에 주지만 그런 발전을 눈부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도 어지러울 만큼 순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제국으로부터 작은 나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율이 어떻게 하는 관계 때문에 나온 하나의 익살같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에 주재하는 경제공사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러시아 예산 총규모를 달러로 환산하니까 우리의 것 보다도 작다고 얘기한 것이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무엇이 되었습니다.

커다란 사람이 작은 무엇이 된다고 할 때는 역할을 제자리를 잘 못 찾는데서 오는 일종의 히스테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제법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만, 김일성이 그 5년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문민정부라는 새정부가 민주주의를 내걸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수용하면서 하다 보니 매끄럽지 못하고 어설피게 마음만큼 되지 않았던 일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많은 것이 앞치락 뒤치락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력과 합하여지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공조관계를 잘 유지하여 지금 오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모습을 통해 하나의 대북관계에 있어서 냉전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하나의 틀 같은 것을 우리가 마련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전인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리만으로 통일은 완성되기가 힘들고 국제적인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북한은 민족문제에 외국을 끌어들여서 뭘 한다고 북한 말투로 욕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지난 4자회담 본회담이 열렸을 때 4자회담의 자리가 남북대화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자리라는 것을 북한대표가 선언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년공동사설 안에서도 남북문제가 물론 민족문제이지만 국제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투명성을 보일 수 있는 ‘틀’ 같은 것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해서 아직은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런 것이 한 5년동안, 또 제가 말았던 2년동안 그런 ‘틀’을 잡아가는데 조금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금 새정부의 새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북한접근을 밀실에서 한다든가 혹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어느정도 제도화 된 틀속에서 공식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느꼈습니다.

남북관계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어떤 별난 방식으로 하고자하는 유혹 같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 안 트이니까

뭔가 시원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하여 시원한 것은 감기들기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제도화된 속에서, 국제 시야에서, 무엇보다도 안정화를 추구했던 것이 그런대로 갈피를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여기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일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한다는 비난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또 KEDO사업 같은 것에 한국은 결정하는데 참여도 못하고 북한과 미국이 짝자꿍 해놓으니까 부담만 우리가 안게 되었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뭐니뭐니 해도 굶고 있는 동포이고,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그냥 국제적으로도 돕지 말라, 민간인들이 나서려고 해도 하지 마라, 완전히 인도주의와는 담쌓은 것 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 세가지를 제가 귀가 아프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지금 그런 비난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또 하나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마당에 자기가 있었던 동안에 좋게 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이 하나의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 다 완성해 놓은 것은 아니고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추구해 가셔야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통일은 최종 이룩할 우리의 목표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밟아야 할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단계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성큼 뛰어서 제일 나중 것을 너무 탐하다가는 앞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의 정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라고 하지 말고 '평화부'라고 하면 어

떠나 할 정도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그 자체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싸우는 일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면 그쪽이 그저 터무니 없는 짓을 해도 이쪽에서 죽은 듯이 하는 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닉슨의 회고록을 보았는데, 닉슨이 모택동과 마지막 만났을 때 모택동은 몽롱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깐 모택동이 꼬덕꼬덕 하다가 나중에 되묻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말하자면 평화, 평화하니깐 그것이 다냐고, 그것 말고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닉슨이 하나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beyond peace입니다. 그것 뒤에 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평화가 없이는 그것이 안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요즈음은 무기가 너무 발달해서 적당하게 싸워서 피나 흘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 평화가 더욱 소중해졌다고 합니다. 평화후에 뭐가 있느냐고 하면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옛날부터 다 아는 가치들입니다. 그것에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첫 스텝을 밟지 않고는 그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일과 연관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평화, 그리고 정의가 멋지게 될 하는 그런 통일, 그런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그 일을 구체적으로 말아서 움직이는 것이 통일부 아니겠느냐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보람찬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고 어디를 가느냐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고향에 간다. 고향이

어디인가? 내 고향이 어디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정의한다면 우리의 상념으로는 고향이 과거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도 상당히 과거의 어떤 모델을 놓고 그것을 통일의 고향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버릇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지리적입니다. 공간적입니다. ‘어느 곳’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은 개념으로 시간도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갖고 싶은 고향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가고 싶은 위대한 제국, 굉장한 장군들이 나와서 고향을 치는 그런 것 보다는 뭔가 느낌속에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 머리속에 그려봅니다.

통일부의 고향이 어디겠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통일을 옛날로 돌려가지고 보면 그것이 일제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산가족이 만나지도 못한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일제때가 참 좋았는데라고 말합니다. 지금 일제때라는 말을 우리가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같은 것을 통일의 이념처럼 얘기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통일부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된 고향을 그린다면 미래에 그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미래의 그림을 늘 그리시면서 오늘 그 그림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한 발을 대디딜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통일부가 그리는 미래의 고향, 그것이 우리 통일된 나라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모두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기 바라고 저도 앞으로 매일 그렸다가 지웠다가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여러가지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로 건투 건승하기를 기약합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해외방문 현지언론 보도

Vice President Nguyen Thi Binh received ROK Vice PM Kwon O-Kie

Nhan Dan (November 22, 1997)

On November 21, at the Presidential Palace, Vice President Nguyen Thi Binh received Korean Vice Prime Minister Kwon O-Kie who was visiting Vietnam.

The Korean Vice Prime Minister highly appreciated the success of the 7th Francophone Summit held in Hanoi and considered it an important event that heightened Vietnam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 vice prime minister also expressed his joyfulness of witnessing great achievements that Vietnamese people attained in the process of renovation as well as fruitful development in the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He satisfied at the effective activities of Korean joint ventures and Korean economic groups in Vietnam. The vice prime minister paid his attention to the Vietnam's experiences in the process of country build-up and development as well as the issue of strengthening woman role and equal rights.

Vietnam's vice president Nguyen Thi Binh highly appreciated

Korean socio-economic development achievements as well as fruitful cooperation in many field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in economy and trade. She affirmed that Vietnam always attaches importance to its cooperative relations with Korea and wished them to be further developed.

In the evening of November 20, at the Government Guest House, vice PM Nguyen Manh Cam warmly received Mr. Kwon O-Kie

Mr. Nguyen Manh Cam informed Mr. Kwon O-Kie the main contents of the Vietnam socio-economic development situation and wished that Korea would continue to support and help Vietnam in exchanging experiences of the activities in the world economic organization. Mr. Nguyen Manh Cam said that Korea is the first country that has rapid speed in cooperative relations with Vietnam and hoped that these relations will be further development in the future.

Korean vice prime minister Kwon O-Kie affirmed the determin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to develop their cooperation and support for Vietnam contributing to push up Vietnam's integration into the region and the world.

Mr. Kwon O-Kie mentioned the development of labour exchange that contribute to speed up friendship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is occasion, Mr. Kwon O-Kie wished to receive Vietnam's support to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peaceful way for the interest of Korean people as well as for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of the world.

ROK gives help on working with economic organizations

Viet Nam News (November 22, 1997)

Viet Nam is seeking Republic of Korea assistance in its integration with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Deputy Prime Minister Nguyen Manh Cam told South Korea's Deputy Premier and National Unification Minister Kwon O-Kie in a meeting here yesterday that Viet Nam wanted to share his country's expertise as Viet Nam was actively preparing to join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APEC),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and to sign a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he Vietnamese senior official praised the fast and efficient development of Viet Nam-Korea relations although the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ties only five years ago.

Exchange visits at state and ministerial levels have been made regularly since then, with many of South Korea's major and smaller companies now operating here.

Deputy Prime Minister Cam sympathised with Korea's difficulties in coping with the regional monetary crisis but believed Korean peop-

le would overcome them.

Kwon, who arrived on Wednesday, responded that he was impressed by Viet Nam's economic achievements in its ten-year renovation while maintaining political stability.

He affirmed the determin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boosting Viet Nam - Korea relations at the highest level, and said his country would support Viet Nam in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gration with the region and the world.

He discussed the exchange of workers between the countries, saying the process helped increase worker qualifications as well as contributing to promoting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Deputy Prime minister Kwon also wanted Viet Nam's support for a peaceful Korean peninsula in the interest of Korean people and the region.

He later met with Vietnamese Vice President Nguyen Thi Binh and Justice Minister Nguyen Dinh Loc.

He is to leave Viet Nam for Israel today.

The unified Korea

Yedioth Ahronot Daily (November 21, 1997)

On Sunday, the Deputy Prime Minister of Korea, Mr. Kwon O-Kie will arrive in Israel. Mr. Kwon is the Minister of National Unification. In Korea, the meaning of his title has something very different. It has the meaning of combing the industrialist, opened South Korea with North Korea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closed and dangerous countries in the world.

Korea is one nation with the same language and culture. Millions of South Korea's inhabitants have relatives in the North. Nevertheless, the people on the other side are embittered enemies. Families were separated 45 years ago, since then, the people have no idea whether their parents and brothers are alive. Last Wednesday, I visited Panmunjum, an enclave where soldiers from the two countries rub against each other. The soldiers from the South always kept their faces hidden behind dark sunglasses. It was raining. It wasn't the sun which disturbed them but the identification in the North's Intelligence's Cameras.

The South estimates that the unification of the two countries

will cost up to one Trillion(1,000,000,000,000) dollars, such a large amount, which takes away the enthusiasm for the adherent people for the unified Korea. Until now the Korean government looked up at Germany, which in the last years is being united, in great misery. The Korean Minister and his company will try to learn from Israel's experience in the absorption of immigrants: The assumption is when the two countries unite, millions of starving North Koreans will emigrate to the South. The government will have to absorb them somehow.

Mr. Kwon O-Kie received me in his office for a conversation,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building in Korea. We spoke about the hunger in the North. "There is an argument here", he said. "One side claims, the North Koreans are our brothers. We have to feed them. Another side claims, they are communists. They are enemies. They should not receive one grain of rice. Each side holds 15% of the public's idea. The majority is in the middle. The majority says, okay, we will feed them, but first we will put condi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nt a first amount of rice to the hunger regions in the North. The disappointment was bitter. The North government erased all track of the source of the donation. A part of the food did not arrive to the hunger, instead it was sent to army bases, to feed the enemy soldiers.

"A Chinese friend told me that we were like you Israelis. You pay in land for peace, and we pay in rice for peace".

The profile of the North Korean President, Mr. Kim Jong-Il, dis-

turbs intelligence people all over the world. Kim is Saddam Hussein of the Far East. According to fugitives testimonies, two contradicting thesis were formatted: One is that he is a wise man, sly, who hides his merits under his saltatory hair and strange attitudes; And the other side is that he is mentally ill, bonded with extreme moods, who finds his sexual satisfaction by raping little girls.

“We don’t know”, said Kwon. “He is like the weather, in the morning he can be wise, and becomes crazy in the evening. Maybe because of pills”.

We also had a minister like that, I said.

Kwon, a former journalist, smiled with comprehension. “Logically speaking”, he said, “it’s easier to put pressure on weak countries. It is true that North Korea is weak, but it doesn’t mean that it can be put under pressure. They have a big army with a million heavily soldiers. And the most dangerous fact is that they are a hungry armed enemy across our own border”.

Are you hoping of a unified country to be realized in your life time? I asked.

“I am now 65 years old”, he said. “However, I’m not in a hurry”.

South Korean deputy prime minister visits

The Jerusalem Post (November 24, 1997)

The lack of sufficient food to feed North Korea's population was among the topics discussed by South Korea's visiting Deputy Prime Minister Kwon O-Kie yesterday at a working dinner with Agriculture Minister Rafael Eitan.

Kwon is the highest ranking South Korean official ever to visit here. He conferred in Jerusalem with President Ezer Weizman, Prime Minister Binyamin Netanyahu and Foreign Minister David Levy.

Kwon's visit is especially significant because of his role as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He is directly involved in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reunification as well as with facilitating emergency aid to North Korea's famine-stricken inhabitants.

Levy accepts invitation to Seoul

Ha'aretz (November 24, 1997)

Foreign Minister Davis Levy has accepted an invitation from South Korean Deputy Prime Minister Kwon O-Kie to visit Seoul. Kwon, the highest ranking Korean official ever to visit Israel, made the invitation Sunday during talks between the two men.

There has been a spate of visi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gainst a backdrop of increased trade and tourism.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visited Seoul in August and Defense Minister Yitzhak Mordechai is slated to visit in January. Israel has often consulted South Korea about its knowledge of North Korean Scud C missile sales to Iran and Syria.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risen sharply in recent years. Until the current deep economic crisis in South Korea, the expectations were that the volume of civilian trade would reach the \$1 billion mark this year, after tripling over the last three. Israel exports primarily high-technology and generally imports cars. Israel defense exports to Seoul have also risen.

It remains unclear whether the increase in trade can be sus-

tained in light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Seoul announced over the weekend that it is seeking at least \$20 billion in emergency credit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Kwon, who holds the ministerial portfolio of resettlement and refugee affairs, wants to follow up the work of a South Korean team that visited here in August to study how Israel absorbed almost a million immigrant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Kwon's ministry is responsible for contingency plans in the event of a collapse of the current North Korean dictatorship. There have been frequent reports of mass starvation in North Korea.

Preparing for the dream or nightmare of Korean reunification

Ha'aretz (November 26, 1997)

How do you say 'absorption basket' in Korean? Kwon O-Kie is learning fast. The Deputy Prime Minister of Korea was in Israel this week on a study tour, absorbing as much as he could from his Israeli hosts about matters of concern to him. Strange as it may sound, he was especially interested and delighted by what he saw in an Upper Nazareth elementary school.

Heading up to the Golan Heights, the Deputy Prime Minister looked a little baffled. He clearly wasn't sure that he understood the situation: Israelis on the left, Syrians on the right, the UN in the middle. Who are the good guys and who are the bad guys? But it all seemed to click when his hosts brought him into a former Syrian bunker in the Golan Heights.

"Oh, it's like our own 38th parallel," he said, breaking into a wide smile of relief. The similarity between the old Israel-Syria border and the line of latitude that divides the Korean Peninsula was, in fact, one of the primary reasons for Kwon O-Kie's visit to

Israel.

In addition to serving as his country's Deputy Prime Minister, Kwon also holds the Unification portfolio in the cabinet. As such, he not only prepares for possible unification with South Korea's neighbor to the north, but also readies the home front for a potential military conflict with North Korea. The Koreans are interested in learning from Israel's real-time experience in both areas.

There is not a child in South Korea who hasn't been raised with the same dream: the day will come when residents of the South will unite with their brethren to the North. However, now that it seems that unification might be just around the corner, South Koreans are discovering that the dream is liable to become a nightmare. Israeli and Korean officials compare the situation to Israel's decades-long yearning for the release of Soviet Jewry, which gave way to fears and difficulties that began when the Iron Curtain was raised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Jews began to reach Israel.

Kwon's stopover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visits to Israel by the South Koreans in the past year. They seek to learn from Israel's experience in coping with mass waves of immigration. Kwon was preceded by a researcher from his ministry who spent two months in Israel familiarizing himself with the facts on the ground. Other visits included a delegation of 31 directors-general of government ministries who participated in a short seminar on immigrant absorption, and a delegation of journalists that arrived two weeks ago.

Kwon's office is preparing for two possible scenarios—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which would trigger the south-ward flight of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or a unification accord in which the South would extend its rule over the North.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unification, Korea has more to learn from Germany than from Israel. In fact, Kwon sent ten researchers to Germany for a year to conduct in-depth research on the implications of unification.

Kwon asked to see a city that had absorbed an especially high number of new immigrants, and on Monday toured around upper Nazareth. He visited a school at which 70 percent of the pupil are immigrants, and watched with interest as they spoke Hebrew and played in the schoolyard with native Israelis. He then visited an Elite factory in which 40 percent of the employees are Russian.

“He saw the social absorption of the children and the integration of the workers into factory life, and was greatly relieved,” said one of his escorts. Kwon also received detailed explanations about absorption centers, direct absorption and absorption baskets.

“We have accumulated a wealth of information and research here,” says a senior Absorption Ministry official. “Unlike Canada and Australia, countries that take in immigrants on selective basis, we absorb everyone without differentiation. South Korea will also have to absorb anyone who comes from the North, without differentiation. The immigrants we absorbed came from a totalitarian regime—same as in North Korea. They were especially inter-

ested in this aspect, especially when they heard that the Minister of Absorption himself, Yuli Edelstein, Comes from Russia.”

Kwon will be meeting with Edelstein today. Kwon might possibly invite Edelstein for a reciprocal visit to South Korea, an invitation that he has already extended to Foreign Minister David Levy. The two will also discuss the possibility of Israel running short seminars on the subject that would be held in South Korea, thereby permitting more people to participate.

“There as well, you can find some hostility to the absorption of poor, miserable refugees, out of a concern that this will harm the standard of living it has taken them so long to achieve. It is not unlike the complaints we’ve heard here against the immigrants from Russia,” says the Israeli official.

Indeed, the Koreans seem very ambivalent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y might be forced to absorb their brothers from the North, either due to a collapse of the totalitarian regime in Pyongyang or in the wake of more gradual measures that will lead to unification. The last time that the South had to deal with the massive absorption of refugees from the North was after the Korean War (1953~54). At the time, both North and South were poor. Today, such an influx would mean an immense economic burden on the more than 40 million South Koreans.

In spite of the difficulties and fears, Professor Yitzhak Shichor, who spent two months at the Sejong Institute in Seoul this year, says that the process of unification cannot be stopped. This is so not only because the two Koreas are really the same people who

share the same history, language and even families, but because it is a world wide process that in recent years has not bypassed other divided countries. Vietnam and Germany figure prominently on the list, which also includes Hong Kong and China. In the future, the reunification of China and Taiwan, Shichor says, may also join the trend.

The Koreans point out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ir country and Israel: both are small, young (Korea will be celebrating its fiftieth birthday next year), have capital cities close to the border (Seoul is a few dozen kilometers from North Korea), border tyrannical, heavily armed countries, and rely on American support.

Shichor relates that while in Korea he was approached by a retired general who was also conducting research at the Sejong Institute. The Korean wanted to familiarize himself with the workings of the disengagement agreements between Israel and Egypt and Israel and Syria. Were they relevant to the Korean example, he wondered.

The case in South Korea resembles the situation in Israel, where the question of withdrawing from the Golan can polarize the population. Academics are deeply divided regarding North Korea, he says. Some are militants who do not believe a word said by the North and are vehemently opposed to any rapprochement, while others are interested in developing closer ties with the North, in the hope, among other things, that this would accelerate the departure of the massive number of American troops in South Ko-

rea.

Kwon, who assumed his post after a long career as a journalist, is the highest South Korean official to have visited Israel, apart from a brief visit by the prime minister at the time of Yitzhak Rabin's funeral. Other Korean officials who have visited in recent months includ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the Deputy Foreign Minister.

권오기 통일부총리 연설문집

발행처 : 통 일 부
남 북 회 담 사 무 국

인쇄처 : 웃 고 문 화 사
Tel. 265 - 2604

발행일 : 1998년 3월 3일
